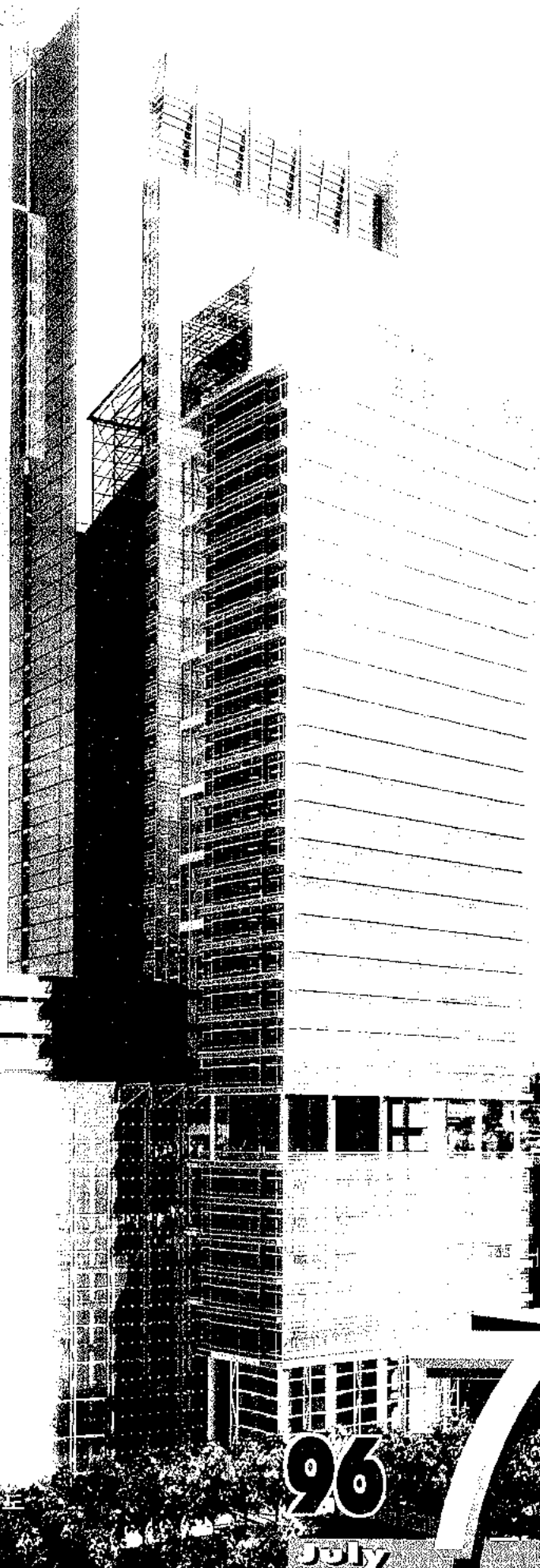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6년 7월호 통권 327호



도시와 환경에
친근한 건축
영국교회
개방아파트
제주 뉴아파트
현대공주
작품에 평
거획연계 한국의 건축

96

July

7월



차세대 건축용 내화피복재 등장!

에스코트 AF

에스코트 AF는

환경무해성과 최대 내화성능을 함께 실현한
획기적인 퍼라이트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Non Asbestos, Non Mineral fiber,
Non Vermiculite로 설계하였으며
시공시 또는 마감후의 분진문제해결은 물론
환경무해성을 실현한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고의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소의 내화두께(1시간 내화 20mm,
2시간 내화 30mm, 3시간 내화 40mm)로
최대의 내화성능을 보장하고 철골부식방지효과가 뛰어나며
또한 시공성을 극대화하여 공기단축, 총 공사비 절감을
이룩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 내화구조 지정내용

구조	내화시간	에스코트 AF 피복두께 (mm)		지정
		간속용	공강용	
보, 기둥	1시간	20	15	제 1995-18 호
	2시간	30		
	3시간	40		

에스코트는 국내 제일의 퍼라이트 전문회사 (주)삼손이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만든 새로운 흡음단열, 내화피복재입니다.

■ 분사식 흡음단열 마감재인 **에스코트 AT**와
산업용 내화피복재인 **에스코트 IF**도 있습니다.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21 청합빌딩
TEL(02)563-8181 FAX(02)538-2589
영 업 부 : TEL(02)552-8181 FAX(02)552-6224
부산지점 : TEL(051)512-8181 FAX(051)516-9343
광주지점 : TEL(062)268-8181 FAX(062)268-8186



(주)중앙창호

본 사 · 공 장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독 제 사 업 부 (032)571-7771 Fax 575-6655
 전 가 구 사 업 부 (032)582-7771 Fax 571-7744
 시 스템 창 호 사 업 부 (032)583-7771 Fax 571-7744
 서 울 전 시 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0-9
 기 린 건 축 자 재 배 화 실 102호
 (02)548-8033 Fax 549-9234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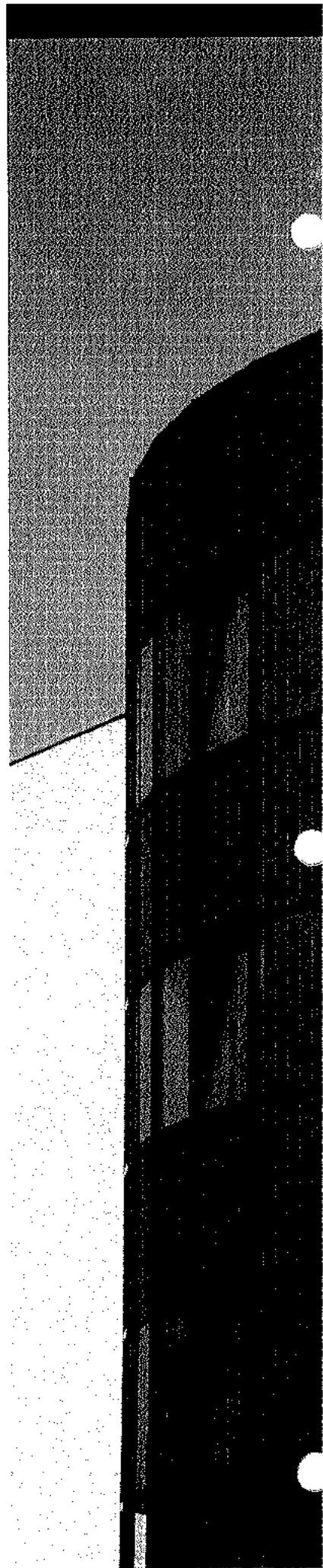
독일 HARTMANN 社の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엄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아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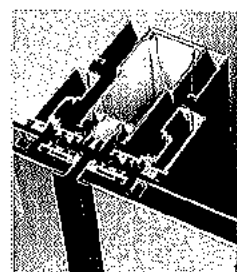
신감각

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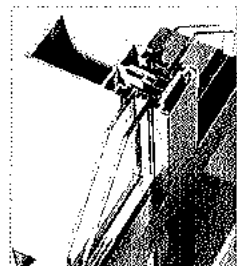
신미학

기술이 다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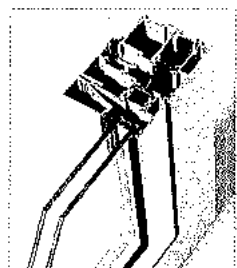
가치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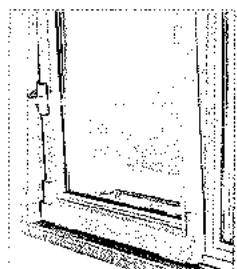
S-5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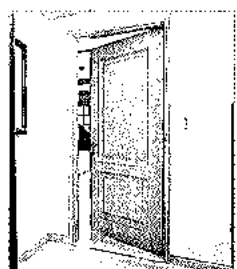
S-4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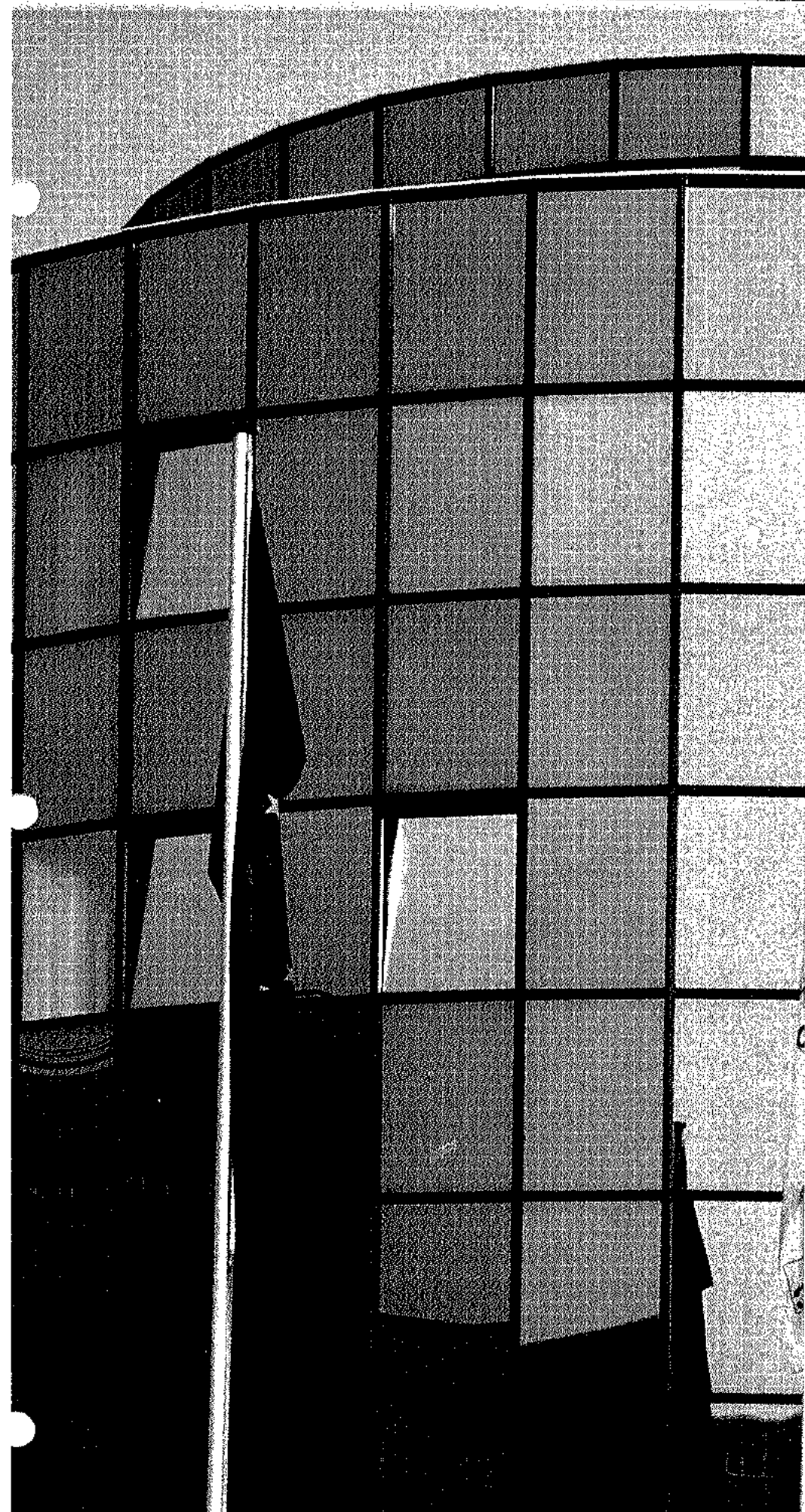
S-3000
단열창호T/T
(알루미늄+단열바, Tilt Turn)



알루미늄PST
(Parallel Sliding & tilt)
알루미늄+목재



원목DOOR
목재창호, 건구,
가구, 시스템키친도
생産합니다.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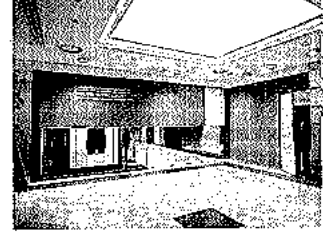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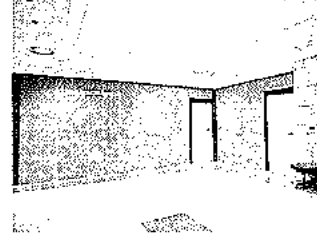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37180호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 절대만족, 안전성, 편의성
충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입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등점
- 경향빌 프라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명동 SS패션매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조선호텔
- 위키호텔
- 속초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형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세계전시회 출품

- '93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会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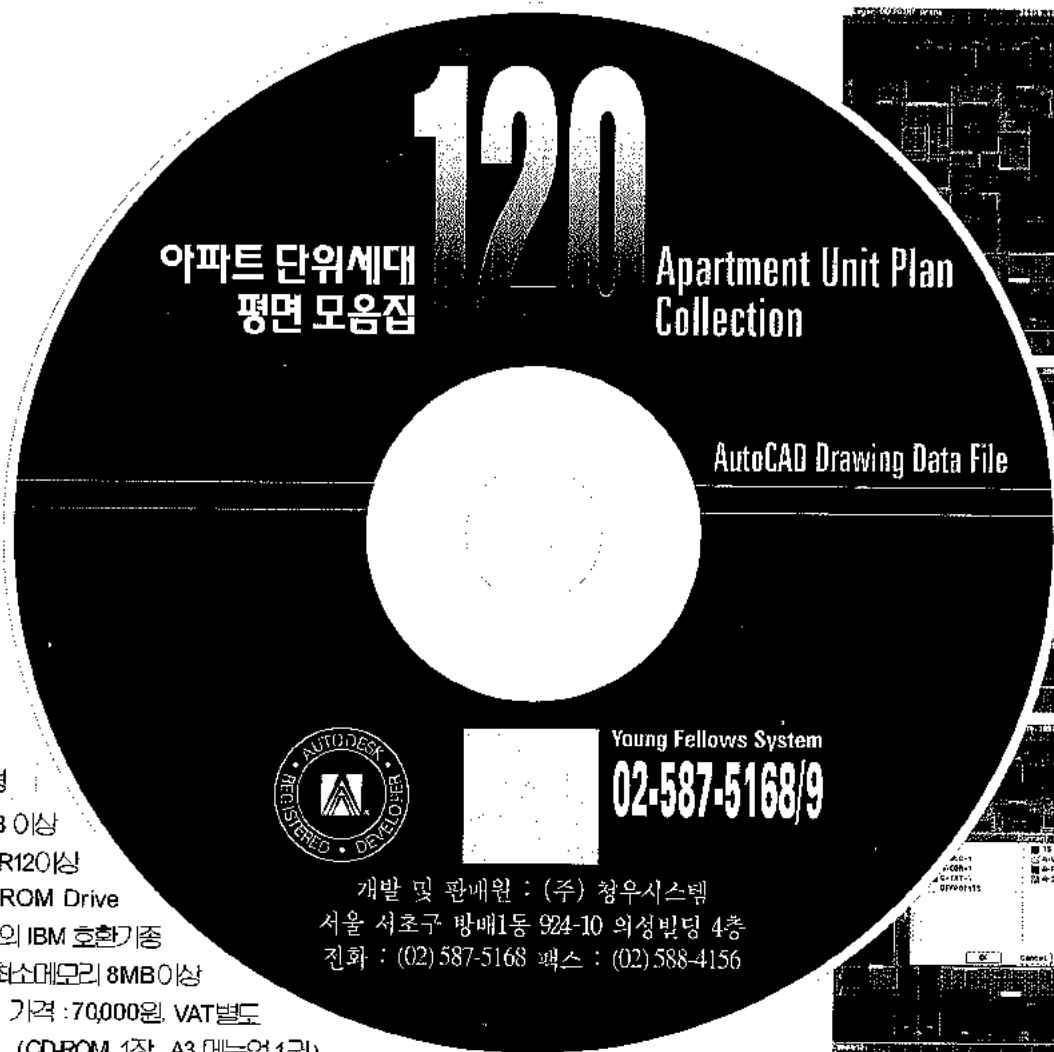
본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 838 - 4545 (代)

FAX : 838 - 0474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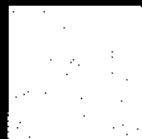
제조원 : **아 주 셔 터 공 사**



사용환경
DOS 버전 3.3 이상
AutoCAD R12 이상
CD-ROM Dr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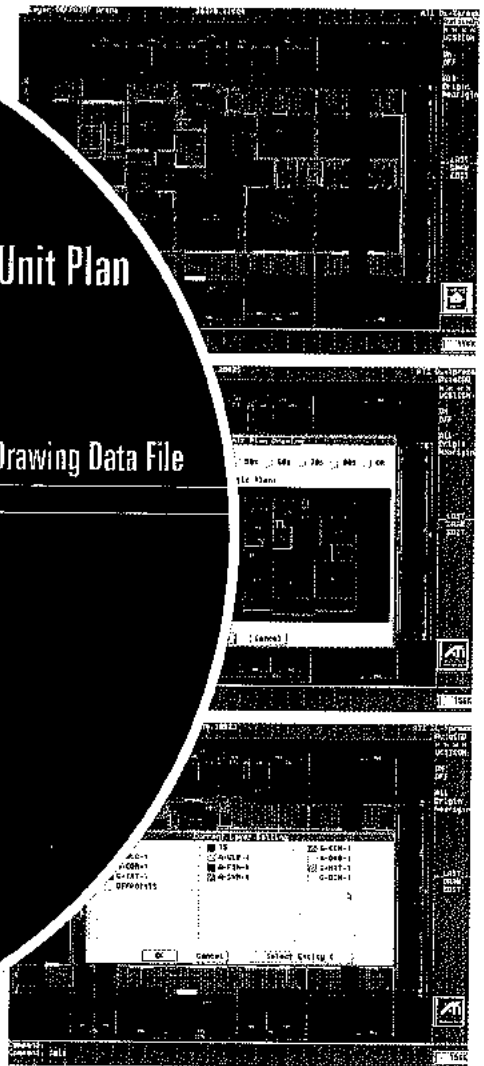
386급 이상의 IBM 호환기종
최소메모리 8MB 이상

가격 : 70,000원, VAT 별도
(CD-ROM 1장, A3 메뉴얼 1권)



Young Fellows System
02-587-5168/9

개발 및 판매원 : (주) 청우시스템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24-10 의성빌딩 4층
전화 : (02) 587-5168 팩스 : (02) 588-4156



아파트 평면도를 삼킨 CD

무려 120개의 아파트를 삼켜버렸습니다

AutoCAD Drawing Data File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모음집120선은 10평대에서 80평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 120개를 선정하여 AutoCAD 도면파일로 CD에 수록한 자료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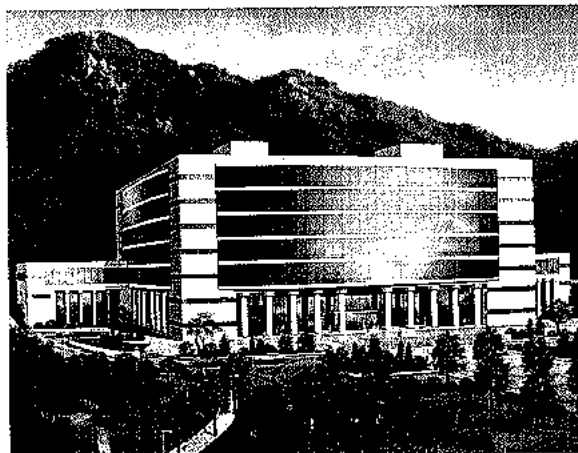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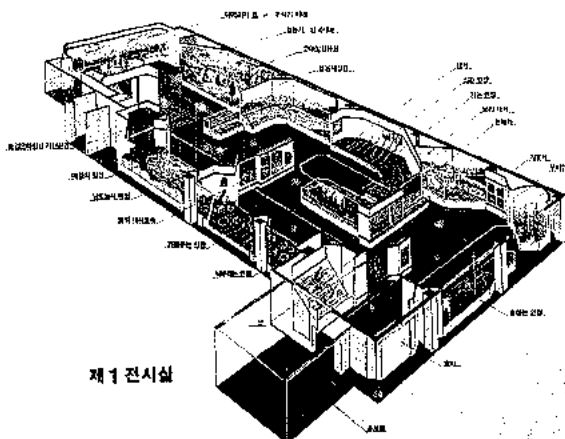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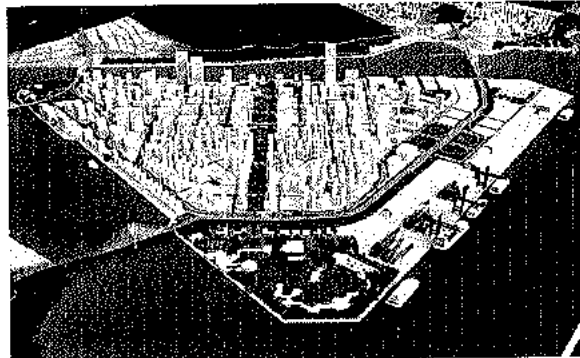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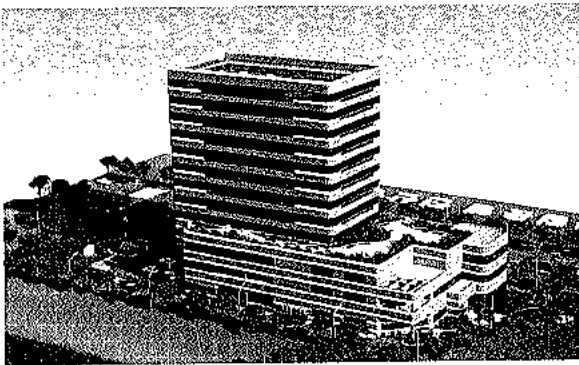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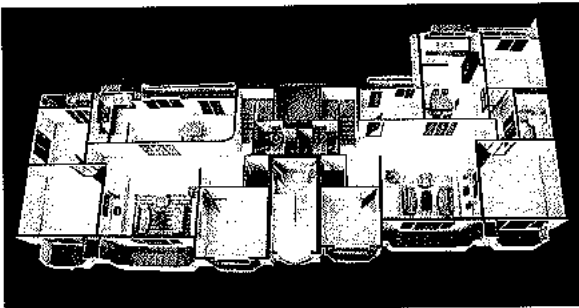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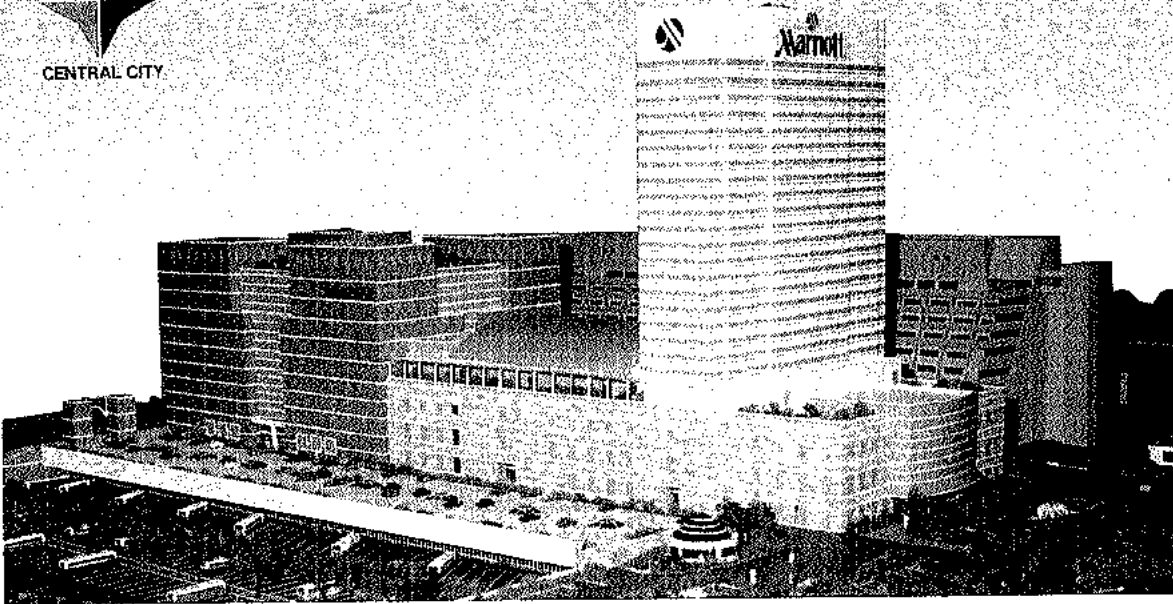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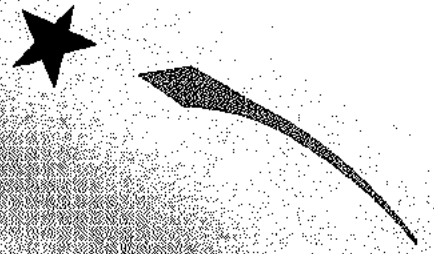
아파트 설계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세대 평면도를 선정하여 치수표기, 실 면적표기, 건축요소에 따른 레이어설정, 색상등을 통일된 조정작업을 하였으며, 도면파일과 함께 Kfont한글유틸리티등을 제공합니다.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컨설팅 회사, 건축전공 학생들이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을 설계하거나 검토할 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입니다.



(주)청우시스템
02-587-5168/9

탄생



모형 · 투시도 · 전문기업



거슨중
KEOSON
ADVERTISING.
서울시 성동구 성수17
402-1
TEL : (02) 464-8066,
464-4566
사원모집중

한국통신·조남철·한일은행·대법원·도시개발공사·신한은행·한국마
 사·에스케이·한국방송공사(KBS)·인천지하철공사·농수산물도
 매처공사·문화체육부문화재단·엘지건설(주)·영광토건
 (주)·경향건설(주)·(주)금호엔지니어링·(주)대우·(주)미도파 건설
 ·현대건설(주)·(주)삼성건설·(주)인풍·삼한기업(주)·대륙토건
 (주)·동국산업(주)·민아종합건설(주)·미래종합건설(주)·신태진 건
 설(주)·명진건설(주)·영광토건(주)·한국이동통신·한국주택은행·중
 소기업은행·법무부·수원대학교·중앙경리단·한국전
 력공사·동부교육청·체신청·한양대학교·한국교원대학·(주)현대ENG
 ·삼성엔지니어링(주)·신논아종합건설(주)·(주)삼익건설·현대산업개
 발(주)·LG화학연구소·(주)삼한까뮤·(주)프린스건설·쌍용건설(주)
 ·대국종합건설(주)·두산건설(주)·금호건설(주)·삼흥건설(주)·선경
 건설(주)·조남철·한국물가정보·한국은행·농림수
 산부총청·경관리공단·거용개발
 (주)·삼한·(주)대
 한생명·(주)합건
 설(주)·(주)소
 달창·(주)출건설
 본부·(주)산
 성건설·(주)산
 공업·(주)소
 (주)프종합건설(주)·미주실업
 (주)·진도건설(주)·(주)건
 화엔지니어링·삼안종합기술공사·(주)이공건축·(주)홍조건축·내외건
 축사사무소(주)·(주)서울건축·한국조형건축사사무소·(주)건화엔지니
 어링·(주)정일엔지니어링·(주)대우·(주)신우설계·(주)자드환경건축·다솔건
 축사사무소(주)·(주)세미건축·이동호건축사사무소·(주)POS-AC·
 한국중공업(주)·중앙건설(주)·(주)금성종합건축·(주)금성종합건축
 ·(주)동명기술공단·(주)원종한건축·한국종합
 건축사사무소·미래건축사사무소·서울환경건축사사무소·(주)에충합
 건축사사무소·한노철강(주)·(주)허강·봉림토건(주)·(주)도화종합
 기술공사·(주)경우종합건축사·(주)대우기술단·(주)범이종합건
 축·(주)유양전기설계사무소·(주)세일전기설계·거희종합건축사
 사무소·공간종합건축(주)·(주)임이건축·국양건축사사무소



정부시설공사 EMS-1,2,3,4 선정

지속적인 UPGRADE

지속적인 사후관리

철저한 교육

건적/적산

건설 건적/적산업무의 모든
 키는 EMS-1,2,3,4에
 있습니다.

KSB

EMS-1,2,3,4
 R C
 K-FIN

● 내 역 (도급, 실행)

● 일 위 대 가

● 변 경 내 역

● 주 의 성 내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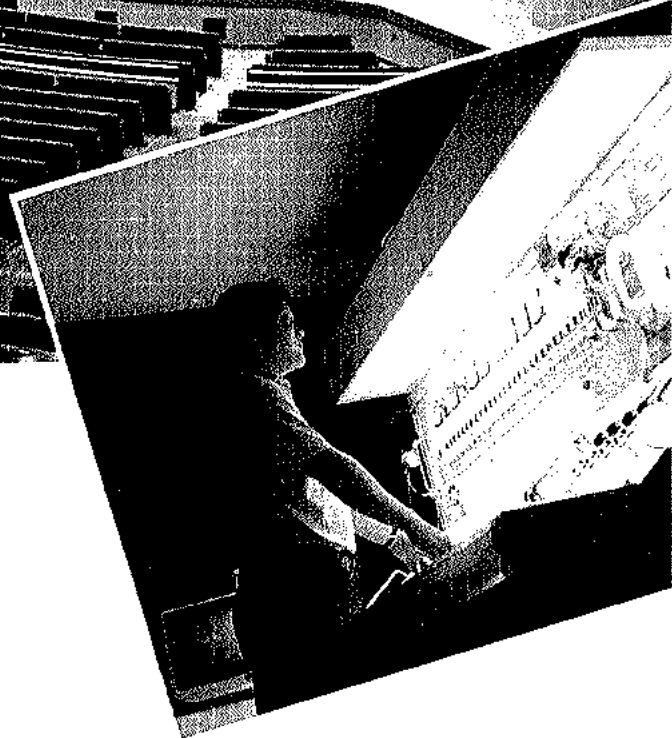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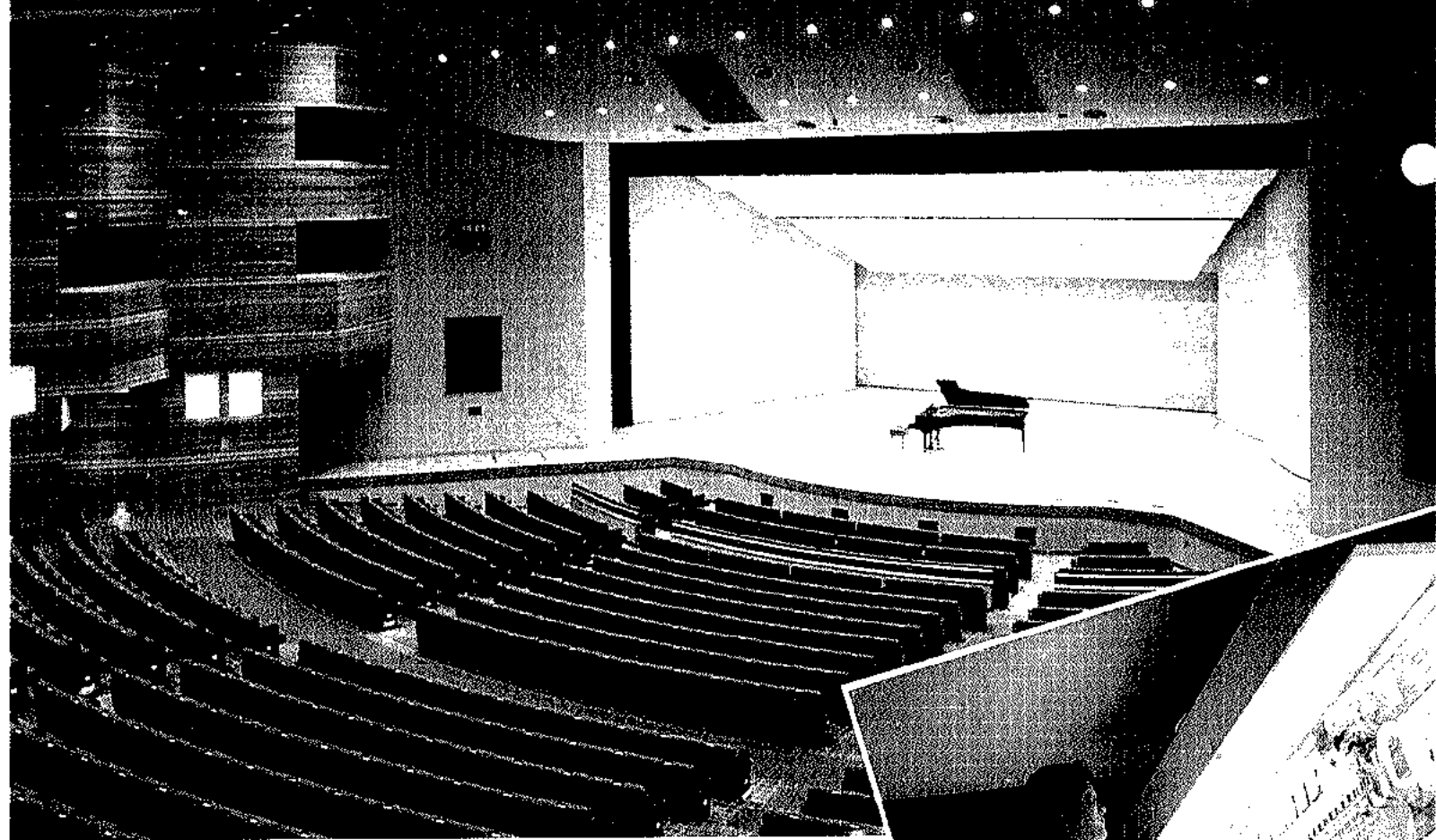
● 물 가 연 동 (품 목, 지 수)

● 물 량 산 출 내 역 과 연 계

건설소프트웨어전문회사
KSB고려전산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9-6 현우빌딩 4층 TEL: 529-6071~4, FAX: 529-6075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세다튼위커힐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과천시민회관
- 유관순기념관
- 충청교회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원주치악문화예술회관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동 센터 예술 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강원대학교
- 충북문화 예술회관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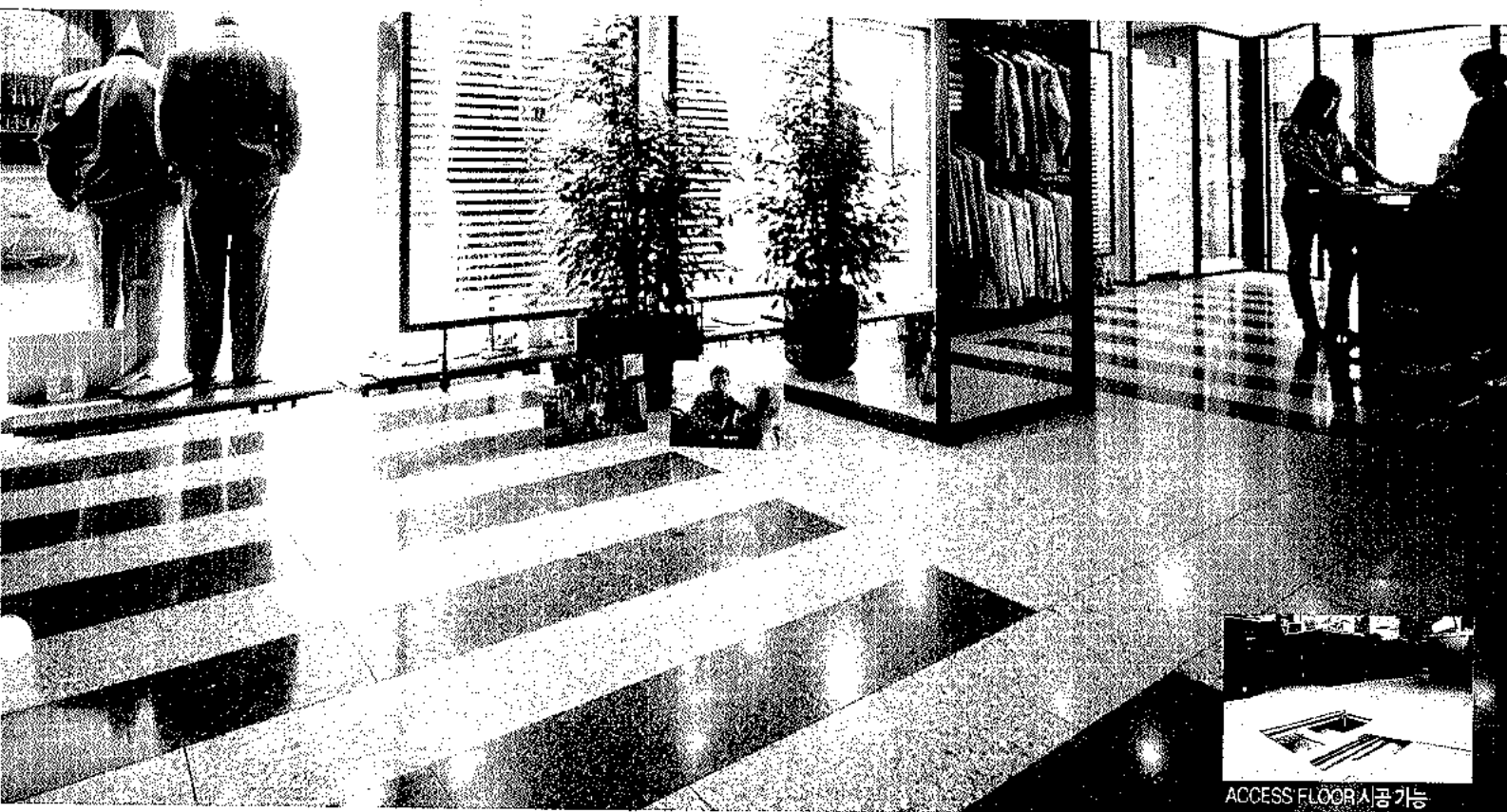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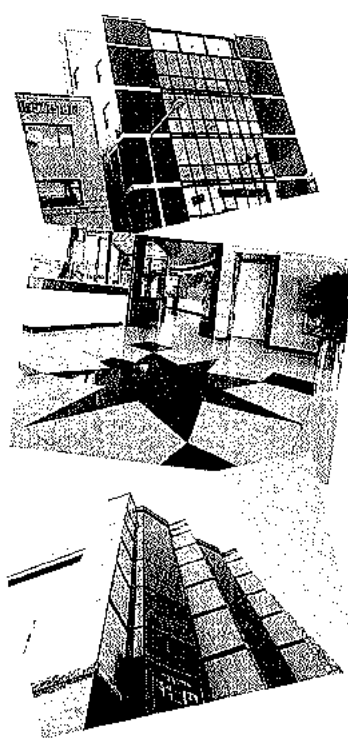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5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阜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이태리풍의 미래형 건축내외장재- 대림 미라톤



ACCESS FLOOR 시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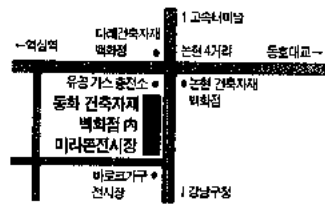


고객신뢰의 대림이 국내 최초로
ITALY BRETON사의
세계특허공정으로 만든 미래형
첨단건축 FASHION 내외장재-
아름답고 한차원 높은 품격을 요구하는
건축물에는 미라톤을 꼭 사용하세요.

대림 미라톤의 특징점

- 천연석이 표출 할 수 없는 색상과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 충격이나 마모, 화학물질에 강합니다.
- 두께; 12mm, 15mm, 20mm, 30mm
크기; 3m×1.2m 범위 내
- 건축물 뿐만 아니라 INTERIOR FURNITURE (싱크대, 세면대, 탁자등)에도 좋습니다.

대림미라톤 상설전시장 OPEN
TEL.(02)516-5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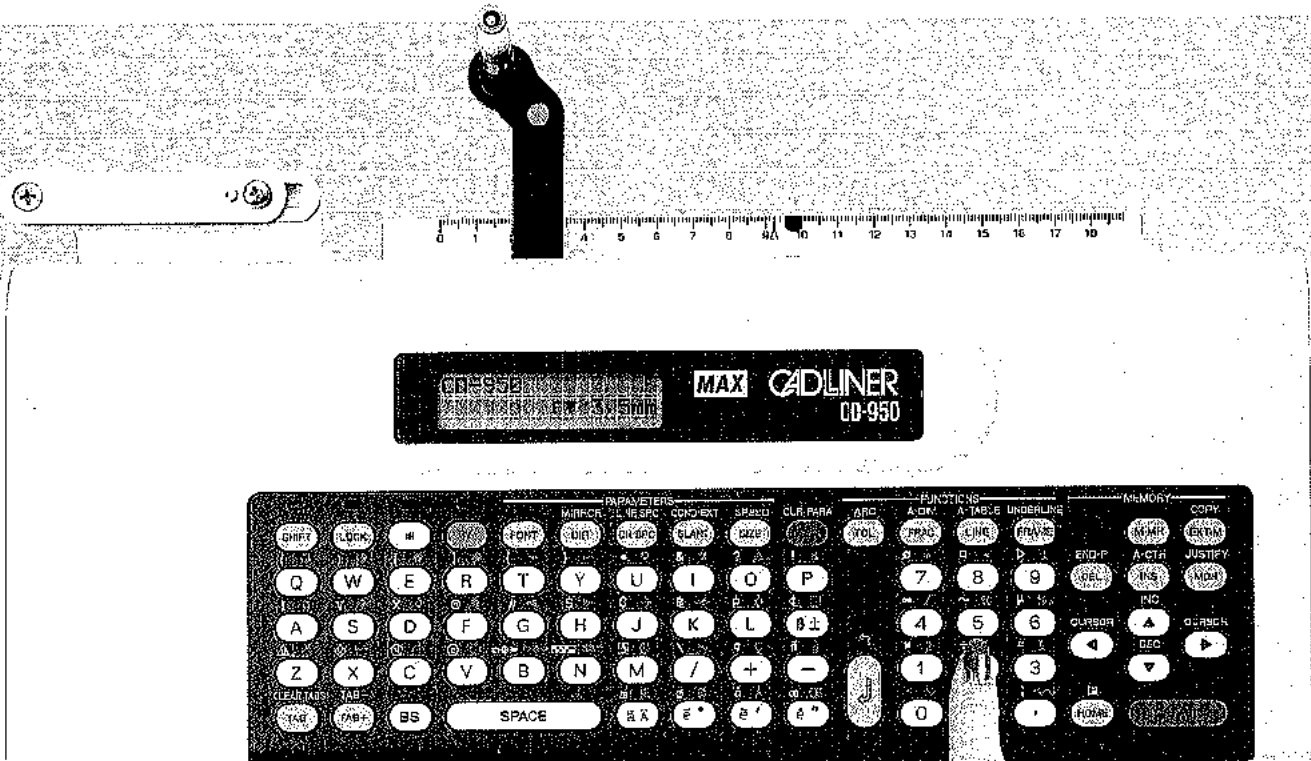


“깨끗한 도면, 살아있는 글자체 (한글·영문)”

세계최초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

아직도 글씨를 손으로 쓰고 계십니까?

설계도면 및 레터링 작업시 빠르고 깨끗하게 쓸수있는 레터링 프로터.
자, 이제는 맡기십시오!



CAD LINER CD - 950

특 징

- 세계최초로 개발된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로 정전시에나 현장등 어느곳에서나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7가지 영문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도면 사양에도 적합합니다.
- 더욱 깨끗하고 새로워진 한글체도 기본으로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 기존제품 보다 훨씬 다양해진 기능과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진 컴퓨터식 보턴.

용 도

- 기계 도면 제도, 건축 도면 제도, 전기 도면 제도, 전자 도면 제도, 토목 도면 제도, 측량 도면 제도, 설비 도면 제도, 연구 논문 작성, OHP 필름작성, CAD 원도작성, 기타 서류 작성 등.
- 각종 설계도면의 내용 표기, 글자, 기호등 표기.
- 정확하고 깨끗한 글씨는 설계도면의 품위와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CADLINER CD-950

MAX

수입원 : **유 미 교 역**
서울 중구 북창동 93-3
(삼육빌딩 603호)
TEL (02) 776-2252
FAX (02) 776-2253
H. P. 011-272-1929

이일 전기 온돌판넬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할 수가!

당일시공, 당일난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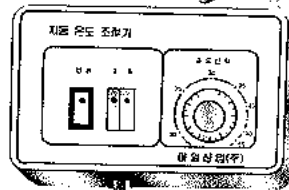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가격!
가스, 기름값보다 저렴한 수준의 난방비!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연료보다도 경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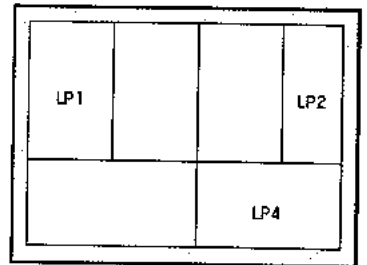
1. 시공이 간편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3.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4. 쾌적한 공간, 소음, 연기, 냄새가 없습니다.
5.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장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 여관, 기도원, 절,
놀이방, 현장숙소, 빌딩대기실, 휴게실,
컨테이너 하우스 등의 난방, 특히 음식점,
독서실, 유아원, 공장 기숙사의 온돌 난방에
아주 좋습니다.



설치프랜 예



공진정 형식승인 ㉔ 3-7-4527
실용신안출원 제91-11674호
실용신안출원 제92-18466호
의장권 출원 제91-10816호

* 본 제품은 1억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방면적 10.2㎡/난방면적 7.5㎡/부실율 73.5%
- 소요자재
 - 온돌판넬 LP1 (220V/265W) × 4장
 - 온돌판넬 LP2 (220V/135W) × 1장
 - 온돌판넬 LP4 (220V/195W) × 1장
 - 온도조절기(중형) × 1대
- 전기용량소요 1.39kw
- 전기요금예상
 - 1.39kw × 10Hr/일 × 0.7 × 59원/kwh = 574원/일
 - 574원 × 30일/월 = 17,220원/월
- * 1일 10시간 사용, 동전율 70%, 전기요금(일반용 전기)단가 59원/kwh의 월간 전기요금임.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4(덕암빌딩 402호)
TEL 521-9417~8 FAX 521-9419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94블럭 14로트
TEL (032)813-5407 812-8798

지방지역 총판

대전 : (042)253-5745 강원 : (0392)33-0917
부산 : (051)248-8933 광주 : (062)225-0064
대구 : (053)753-4848 제주 : (064)44-4520

'96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건축사협회와 서울경제신문사, 건설교통부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후원하는 「'96한국건축문화대賞」은 한국건축의 전통성과 현대적 정서 및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이 시대 우리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국내 최고권위의 건축공모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행사의 최고영예인 준공건축물부문 대상을 대통령상으로 격상추진중에 있으며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에 따른 국민주거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본상 6점중 3점을 주거건축물에 배정하여 주택분야를 독려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계획건축물부문은 종래의 신인·학생 구분을 개방하여 신인, 학생뿐만 아니라 건축문화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성건축인에게는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축을 배우는 후진과 일반인들에게는 야심찬 도전의 장으로서 한국건축의 전통성과 맥을 충실히 이어나갈 「'96한국건축문화대賞」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부문 및 대상

- ▶ 준공건축물 부문 (95년 1월 ~ 96년 8월 기간중 준공된 국내건축물에 한함)
 -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 ▶ 계획건축물 부문 (이전 국·내외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미발표 작품에 한함)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면허 소지자 제외)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 재학생
 - 전문대 및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 응모방법

- ▶ 준공건축물부문
 - 작품개요, 작품설명, 건축물사진(8"×10" 사이즈 10매내외), 설계도면이 수록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제출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간이소개서 첨부)
 - 패널제출은 1차 사진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며 제출시기는 추후 해당작에 한해 별도 통보
- ▶ 계획건축물 부문
 - 작품주제 : ※ 아래의 두가지 주제중 택일
 - 주제1) 2002년 월드컵축구 전용경기장
 - 〈설계조건〉 6만명이상을 수용하여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축구전용경기장으로서 대치위치, 시설물규모는 작가가 임의설정하여 계획할 것
 - 주제2) 북촌마을 다시 그리기
 - 〈설계조건〉
 - 설계내용 : 공동주택(10~15세대)
 - 대 지 : 북촌마을 구역내 몇 개의 필지를 임의선택(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세동지역)
 - 세대수 및 평형 : 임의, 단 현실성(현행법규, 지가, 임대가 혹은 분양가 등)이 있는 구성이어야 함
 - 기타시설 : 법정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 패널(90cm×120cm) 1매 및 모형(60cm×60cm×50cm) 1점
 - 작품설명서(200자 원고지 기준 3~4매 분량) 1부 제출

□ 작품접수

- ▶ 준공건축물부문
 - 접수기간 : '96. 8. 12(월) ~ 8. 20(화)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접 수 처 : 대한건축사협회 사무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4층 / 전화 581-5711~4)
- ▶ 계획건축물 부문
 - 접수기간 : '96. 9. 9(월) 09:00~17:00
 - 접 수 처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600년기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 전화 736-2025~7)
 - 별도의 참가비(출품료)는 없으며 출품원서는 작품접수자에 한해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함

작품공모

□ 수상작발표 및 전시

- 수상작 발표 : 1996년 9월 16일자 서울경제신문 (임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수상작 전시회 : 1996. 9. 16(월) ~ 9. 24(화)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600년기념관

□ 기타 출품규정

- 계획건축물부문에 있어 공동작품인 경우에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패널 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함
- 작품제출 당일 접수장내에서의 패널 및 모형의 보수·보강작업을 일체 금함
- 패널 및 모형은 반드시 규정된 규격을 준수해야 함
- 준공건축물의 제출 사진첨중 1부는 사후보존용으로 반환하지 않음
-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이상의 패널은 상설전시물 위해 반환이 불가함

□ 작품반출(계획건축물)

- 일시 및 장소 : '96. 9. 13 09:00~17:00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600년기념관
(단, 입선이상의 수상작은 작품전시 후 반출)
- 1차심사에 달락한 작품 중 지정된 반출일에 찾아가지 않은 작품은 주최측에서 임의 폐기 처리하게 되니 유의 바람

□ 시상내용

▶ 준공건축물부문

	건 축 사	시 공 자	건 축 주	비 고
대상(1점)	트로피, 해의시찰	트로피, 해의시찰	트로피, 동판	
본상(6점)	"	"	"	주거3점, 비주거3점
우수상(1~2점)	해당자에 한해 트로피, 해의시찰		-	설계 또는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
입선작(다수)	상패		-	
공로상	트로피		-	건축문화 발전에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 계획건축물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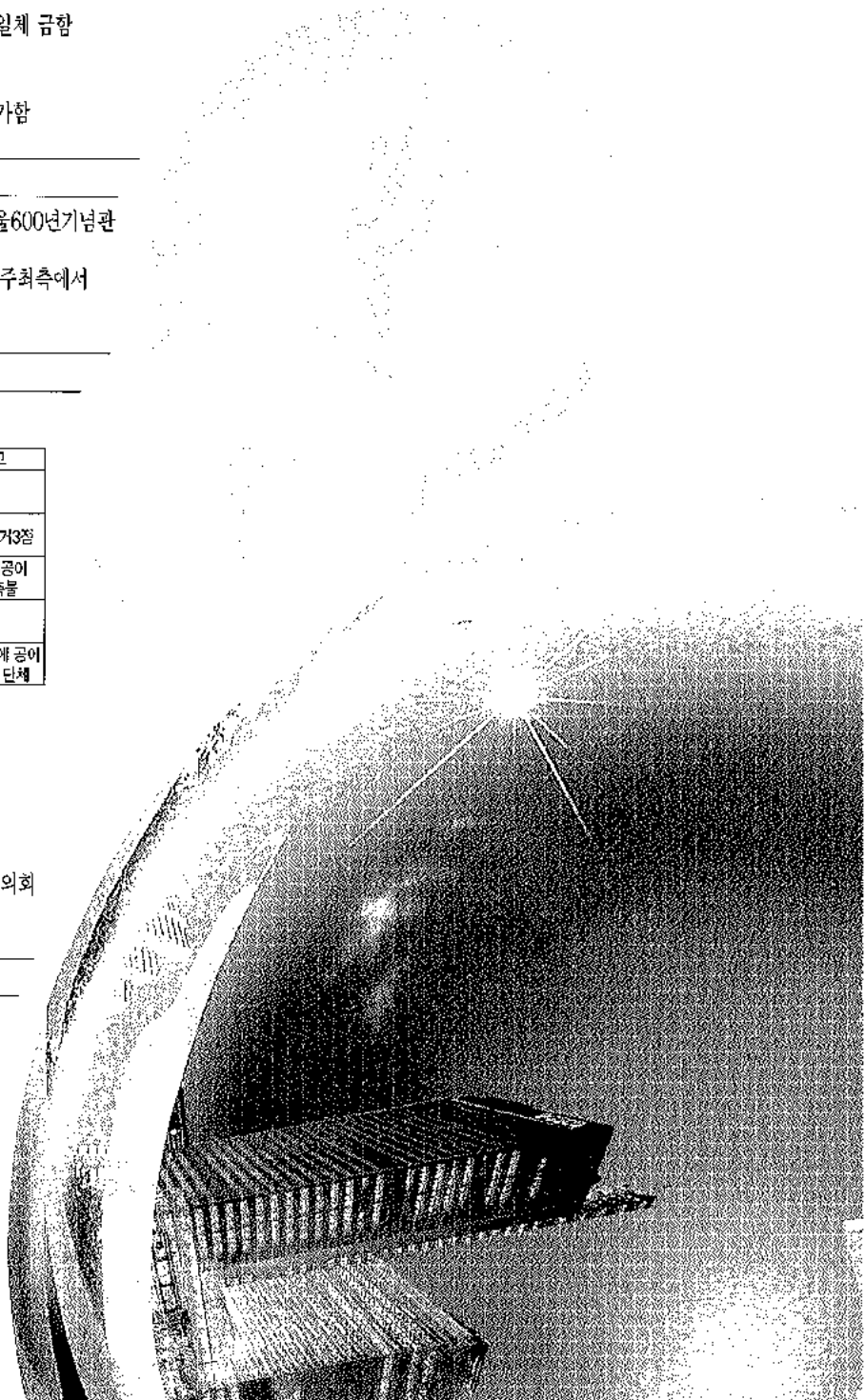
- 최우수상 (1 점) : 상금 700만원 및 상장
- 우 수 상 (2 점) : 상금 각 300만원 및 상장
- 장 려 상 (7 점) :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 선 (다수) : 상장

※ 수상자중 대학재학생에 한해 최고 성적자 2명은 아시아건축사협회 학생재미리 파견 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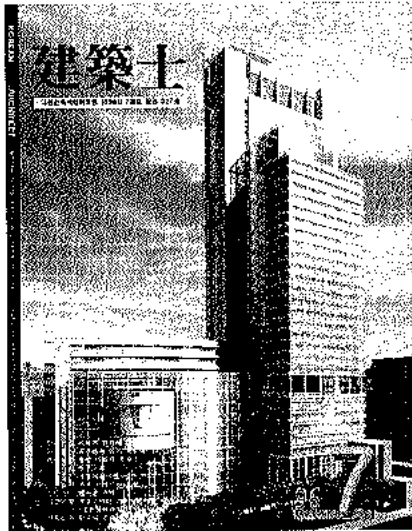
□ 문 의

대한건축사협회 사업부 (Tel. 581-5711~4)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사, 건설교통부
후원 /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建築士



표지사진 / 국민은행 본점(현상설계 당선작/설계: 회림건축)

발행인: 김규태
편집기획: 편집위원회
위원장: 조정상
위원: 방철린, 송효상, 심영섭, 원대연
편집·취재: 양원석, 장효상, 조한국, 윤태일, 김광미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등록번호: 서울 라-26(월간)
등록: 1967년 3월23일
U. D. C: 69/72(054-2) :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Kim Gyu-Tae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Cho Jeong-Sang
Member: Bang Cheol-Rin, Seung Hchih-Sang, Shim Young-Seop, Won Dai-Yun
Assistant Editor: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23, March 1967
U. D. C: 69/72(054-2) :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02)266-4555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차례

1996년 7월호 통권 327호

칼럼	
시각적 환경에 대한 우리의 책임 / 최관영	18
논단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8) / 최찬환	20
시론	
삼풍사고 그후 1년, 그리고 건축문화와 의식 / 박서홍	26
회원작품	
용인 미래재 휴게소 / 김희곤	30
영주교회 / 최영집	34
중앙 아련이집 / 박영준	40
제주 뉴아시아 호텔 / 강성익	44
원서동 주택 / 우시용	48
개회작품	
신탄진 역사 / 서진철+장영생+이상행	52
회원갤러리	
무제 / 강정행	54
우리집 장미는 7월에 핀다 / 이영순	55
일하며 생각하며	
건축문화 유감 / 유병우	56
작품비평(봉천동아파트)	
공공주택의 거주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 / 이영철	58
작품노트	
대구 종합경기장 / 강철희	64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박길룡(1) / 윤인석	70
건축기행	
중국 고건축(古建築)기행(1) / 김도경	74
연구	
노인주거의 설계기준(5) / 강병근	82
기고	
역사도시 베이징(北京市)과 주택개선사업 / 조인숙	90
협회 선진화를 위한 제언 / 류재경	96
현상설계경기	
올림픽기념관	98
국민은행 본점	104
해외건축	
유럽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3) / 박효순	114
통계	
96년도 5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20
협회·건축계 소식	122

다.

한편, 도시안에서 가로를 따라 보여지는 경관은 극히 적은 부분에서 겨우 양질의 가로경관을 경험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열악한 가로경관일 뿐임은 솔직한 평가라 하겠다.

몇몇의 양질의 건축보다는 너무나 많은 건물들이 디자인의 질적 적정수준에 미달하고 있음은 통계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데, 건축사가 건축사의 설계를 검토하고 심의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곧 이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몇몇의 좋은 건축이 거대한 도시의 경관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도시를 벗어나 교회로 나가면 산을 배경으로 삼고 들판을 앞으로 한 잔잔하게 깔렸던 조그만 읍내들은 20여층의 아파트들의 등장과 함께 기괴한 풍경들을 만들고 있어 이러한 경관이 보편적으로 되었다. 또 천년 고도를 자랑하는 경주의 북천너미에도 최근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고층아파트의 병풍이 형성되어 오랫동안 고도(古都)로서의 분위기를 면면히 지켜오던 그 곳에서도 한때 반월성에 올라 이득하게 깔린 시기지 뒤로 가끔 불쑥불쑥 솟은 봉황대와 고분과 함께 산을 배경으로 삼았던 경관을 즐겼던 일은 이미 옛날의 것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거대한 콘트리트 덩어리들을 쏟아부은 듯한 신도시 - 이는 세계에 유례없는 아파트만으로 구성된 도시처럼 보인다 - 는 경악할 만하며 소위 휴양단지(Resort)를 조성하면서 한적하던 강원도 어느 좁은 산골에는 산모퉁이를 돌아들면 갑자기 꼭 신도시의 일부분을 떼어 옮겨 놓은 듯한 30층 하이라이즈(Highrise)를 표방하는 번쩍이는 유리벽들과 현란한 원색 프레임 등으로 치장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환경에 적응하는 건축이라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예를 우리는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이와같은 행위들은 나름대로 각각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 개발의 문제이다. 보존(Preservation)의 논리보다 개발(Developing)의 논리가 현저히 우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은 곧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핵심이며 순간적으로 그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고가 문제인데 그 이익도

장기적이고 국가적이나, 순간적이며 지엽적이거나 개인적이나 하는 것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직접적이고 일시적 이익이 영원한 경관파괴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상쇄하고 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곧 개발이익의 허구를 말하는 것이며 이제 우리는 방만한 개발을 자제해야하며 다른 어느 나라들처럼 언젠가는 가까운 장래에 개발을 정지하고 비개발국가(Undeveloping Country)로 돌아서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개발속도로 인하여 엄청난 양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장기간에 걸쳐 건축활동이 활발하여 왔으므로 수요에 적절한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함은 통계적으로 분명하다. 몇몇 좋은 건축을 추구하는 소수의 건축가의 역할은 여타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전문인력의 평균적 역량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력하게 끌려만 다닐 것인가?

경관형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책임을 피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포함하여 연관된 모든 전문가, 즉 정치가, 도시행정가, 도시계획가, 개발전문가들이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각자 자기들의 역할을 진지하고 책임있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학원으로부터는 질적으로 우수한 예비전문가가 더 많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정책으로 바뀌어야 하며, 빠른것 보다는 늦더라도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몇개의 좋은 건축의 중요성 보다는 어떻게하면 대부분의 많은 건축이 질적으로 보편적이고 적정수준 이상의 것들이 될 수 있게 하는가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 모색 내지는 실천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장차 바람직한 도시경관 내지는 국토경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후세에 좀더 나은 국토를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도시의 팽창과 건축증가에 진정으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서론

1960년대 이후 빠른 사회변화와 경제성장의 결과로 오늘날의 한국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주거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에따른 도시화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을 염두에 두지 않은 주택의 양

적인 급성장은 도시불량 주택문제를 야기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리하였다. 1950년대 이후로 불량주거지 문제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개발방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 결과 상당히 많은 분량의 아파트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후 80년대 들어 노후 아파트의 슬럼화 및 국민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8)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 System

재건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주거수준의 향상으로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욕구가 증대하였다. 즉 60년대 후반이후 국내에 건설되기 시작한 아파트 등이 20년이 경과되면서 기능과 시설면에서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난방, 상하수도, 배관, 방수 등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1983년 이후 시행된 합동재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아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지구 지정의 욕구가 증대하였다.

이리하여 꾸준히 제기되어온 불량주거지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약 30년 동안 재개발 정책이 변화해온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제도화 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다양한 개발방식을 운용해 본 경험이 없었고 사업방식별 효과 및 장단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체계가 덜 잡혀져 있는 상태이다. 특히 재건축은 관련제도가 비좁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에 들어 재건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과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II. 재건축사업의 형태

1. 사업개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들이 자발적인 조합을 결성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새로이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서 ① 건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②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과다한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③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하면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④ 재해위험지역내 주택으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 ⑤ 기타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2. 재건축사업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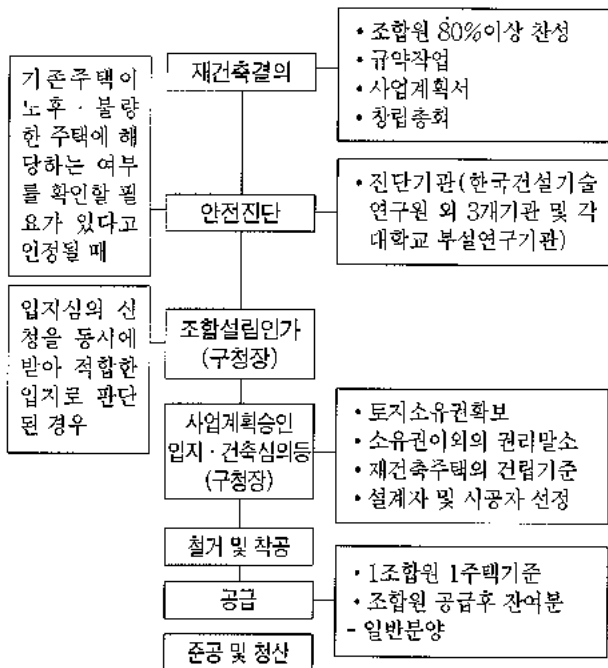
주택의 재건축사업은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및 중소도시에서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서울시 재건축추진현황 (단위:조합수)

구분	인가된조합수	사업시행인가	착공	준공
주택유형				
아파트	33	14	9	4
연립주택	52	27	12	6
단독주택	30	5	2	0
계	115	46	23	10

* 자료 : 서울시(1994.12)

3. 재건축사업 추진절차(세부현황)



4. 관련제도의 현황

(1) 법제화의 추진배경

80년대들어 노후아파트의 슬럼화 및 국민주거수준의 향상으로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요구가 증대하였다. 즉 60년대 후반이후 국내에 건설되기 시작한 아파트 등이 20년이 경과되면서 기능과 시설면에서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난방, 상하수도, 배관, 방수 등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1983년 이후 시행된 합동재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아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지구 지정의 욕구가 증대하였으며 잠실1단지, 동부이촌동의 공무원아파트 등에서 특리 요구가 심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7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재건축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는 주택의 판단기준 및 조합설립 절차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었다.

(2) 재건축의 법적근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는 재건축을 "기존주택을 철거한 후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재개발업에의한 재개발이나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구분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 3조 9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서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②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③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그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④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후, 불량주택으로 분류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의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소유자의 각 4/5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물리적 노후의 기준 즉, 어떤 상태의 건물을 노후한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건물의 상태의 기준에 대한 것이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건물의 물리적 상태가 아직 양호한 상태에서도 용적률을 제고하여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투기적성향과 연결되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엉뚱한 재건축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이는 지가상승, 법적 허용 용적률이 크게 높아졌고, 주거양식의 변화, 주거의 질적수준 향상 등으로 새로운 주택의 욕구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이나 지침에서는 대상주택, 재건축방법, 시행절차 등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 재건축사업의 목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① 노후 불량주택의 개선 ② 택지확보방안의 하나로서

토지의 고밀 이용 ③ 도시의 체계적 개선 등이 현실적인 목표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문제점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하여 부족한 택지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건축 제도는 주택 부족률이 높고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지역에서는 운영방법에 따라서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제도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능적으로 건전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주택을 철거하고 용적률을 높여 저층아파트를 고층화하여 건축함으로써 재산증식을 도모하려 한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다음에서는 재건축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이를 위한 정책방안제시를 위해 우선 현행재건축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재건축허용기준의 모호성

현행 제도상 재건축의 주된 기준은 경과년수와 건축가치의 잔존율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전에 건축되어 경과년수가 20년이 넘게 된 많은 저층 공동주택의 경우 실질적인 재건축효과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건물의 잔존율도 토지의 개발잠재력 등 기회비용 및 외부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기준으로 불합리하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는 재건축허용기준으로 몇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가 재건축을 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건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재건축여부가 집단민원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같은 단지내에 각 건물별로 노후도가 상이한 경우, 이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느냐 부분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

기존건축물을 수선, 개조, 정비 등에 의하지 않고 항상 전면철거를 전제로 하는 개발방식이 문제이다. 환경과 밀도와의 관계 등 질적인 가치기준보다는 용적률을 앞세운 고층고밀화의 양적 가치기준을 우선하고 있다. 또한 길들여진 옛날건물보다는 항상 새로 짓는 건물이 좋다는 편견 때문에 구조적으로 튼튼한 건축물이 경제적 가치가 평가절하됨으로써 주택의 높은 감실률을 보이는 원인이 된다.

2. 세입자에 대한 대책 미흡

현행 재건축관련 법규상으로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 세입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으며, 세입자 문제는 당사자간의 임대차계약 내지는 재건축조합과 세입자의 협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조합 또는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되

고 있으며, 세입자의 이주불응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합동재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지침에 의거 입주권 부여, 생계대책비 지원 또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재건축사업시도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강구하는 새로운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세입자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건축이후에 거주민의 물갈이 현상이 많아지지 않도록하여 사회적 계층분화가 크지 않도록 한다.

3. 재건축시 이주대책 미흡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철거 및 건축비용, 이주비용 등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는 이들 비용의 조달을 거주자가 조성한 자금과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의 협의에 의해 시공사가 제공하는 자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금융조성업을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재건축공사가간중 현 거주자들의 거주를 위한 주거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일정구역으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의 미흡

재건축은 대부분이 평지에 입지하고 있어 평균개발용적률은 300%~350%에 이르며, 요즘에는 400%가까이 과도한 고층고밀개발이 일어나고 있다. 평균계획세대수는 320.9세대, 아파트는 400~1,100세대로 비교적 재개발사업지구에 비하여 소규모개발이며, 개발대상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계획세대수의 증가율은 평균 2.34배이며 기존단독주택의 경우는 3.78배로 매우 높다.

건폐·용적률 등이 지나치게 높게 허용되고 있어 재건축이후 다시 재건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재건축의 합리적 규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재건축사업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소규모지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세대수 증가가 현저하기 때문에 지구내 교통환경의 악화는 물론 공공시설의 부족을 심화시킬 것이다.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서울에서는 정릉동, 이촌동, 풍납동, 천호동, 개봉동 등이 해당된다.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결성된 재건축조합은 현재 206건에 이른다.

개발밀도증가에 따라 지구내에 추가로 필요한 공공시설의 확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고층고밀개발이 허용되고 있어 새로운 도시문제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시민이 감수하여야 하고, 일부의 특정인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사회적인 모순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도시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주택공급정책에서 탈피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마련과 생활근거지 확보에 역점을 둔 재개발정책의 정착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도한 고층고밀개발 허용은 장래 도시가 발전·변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발잠재력을 한꺼번에 소진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도시의 황폐화를 초래할 뿐이므로 주택의 유형 및 지구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적정밀도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대부분의 재건축계획은 기존보다 많은 주택지를 공급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도로로는 재건축단지에 거주하는 가구의 교통량을 소화하기 어렵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건축계획이 실시되어야 한다. 평가기관을 발주자(개발자)로부터 독립·격리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허가권자에게 평가금액을 예치하고 허가권자가 평가기관을 공정하게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현재의 재건축사업이 주로 초고층화됨으로써 파생되는 일조권 문제, 소방관련문제, 과밀화 등과 같은 주거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Ⅳ. 제도개선방안

1987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재건축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90년도에 들어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이 일천하여 재건축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추진상의 애로사항으로 인하여 아직은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절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재건축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재건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안된 정책방안은 단지 현재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 뿐 아니라 80년대 이후에 지어진 고층고밀화 공동주택의 재건축방안까지를 포함한다.

1. 재건축 관련규정의 정비

(1) 노후 불량주택판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의 제시

현행 주택 건설촉진법에서는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등을 포함한 18개 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시에 제출토록하고 있다. 진단사항은 건물의 구조안전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건물의 가격,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 및 경제성 판단에 관한 사항, 재건축에 관한 종합의견 등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 각 진단사항에서 구체적 진단내

용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을 때 노후 불량주택으로 판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정기준이 없다. 이에따라 각 진단 기관마다 진단기준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고가 도출된다. 따라서 진단시 진단기관이 어느 기관이든 관계없이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통일된 진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재건축허용기준의 재검토

현행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후 경과연수 20년이 재건축허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실제 재건축사례를 보더라도 공동주택이 평균 20년이 경과하면 거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간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건물의 물리적 수명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비해 너무 짧다. 주택유형, 주택의 층고, 밀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획일적인 규정은 자칫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허용년한은 주택의 유형이나 층고 및 밀도 등을 감안하여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도록 하고 몇가지 세분화된 등급을 둔다.(철거, 개·보수, 단지내 특정건물의 고층화 허용 등) 구체적인 방향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연립주택지 및 저층저밀도의 공동주택은 재건축허용기준을 현행대로 두되 관리소홀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화하고, 고층고밀도의 공동주택을 재건축시 토지이용의 효율화도 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적 자원낭비도 특히 클것이므로 재건축허용년한을 연장시키고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세입자에 대한 대책

현행 재건축관련 법규상으로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으며, 다만 세입자 문제는 당사자간의 임대차계약내지는 협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지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합동재개발사업의 경우도 관련 법규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으나, 지자체의 지침에 의거 입주권 부여, 생계대책비 지원 또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사업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찾기 위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노후아파트 단지의 자가가구를 대상으로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2/3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세입자에게 이주대책비를 지원해야 한다

는 응답이 약 40% 수준이고, 다음으로 기존 소유자가 입주한 전여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우선분담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 수준이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택사업프로그램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가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는 재건축조합, 시공회사,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협의로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등을 포함한 이주 대책비를 지원하고, 일정수준이하의 저소득층세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전세자금을 앞선내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의 철저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대부분 용적률을 재고시킴으로써 종전보다 세대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로로는 신규세대 증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소화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고층화에 따른 일조권 문제, 공간 개방감과 시계제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재건축사업지 주변지역의 민원발생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할 때, 현재는 재건축사업사례별로 해당지자체와 사업주체간의 협의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노후불량주택의 관리소홀에 대한 대책

현재까지의 재건축사업은 주로 저층저밀도의 주택단지를 고층고밀화 함으로써 사업주체수익이 상당하여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거의없이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주된 허용기준인 경과년수20년에 근접한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에 따르는 입주자의 고의적인 관리소홀로 인하여 노후불량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대한 자원의 낭비이며 노후 불량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관리, 자문기관을 신설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부금을 대폭 인상토록 의무화할 뿐 아니라 강제규정을 두어, 기존용적률대비 계획용적률의 비율을 일정비율이상(가령 200%이상) 제고시키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노후불량주택지의 강제철거 및 재건축명령제도 도입

현행법규상 재건축사업은 대상 주택단지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재건축결의와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거친후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동 재건축조합이 해당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토록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심각한 노후불량 주택으로 붕괴·도괴의 우려가 있을지라도 당해 주택단지 입주민의 자발적 결의가 없으면 재건축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①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② 재해 위험구역 주택(예: 상습침수지역, 경사도가 높은 비탈면에 주택이 지어진 지역) ③ 도시미화,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주택의 경우,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지역의 입주자에 대해서 재건축을 명령하도록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현저히 노후불량화된 주택의 입주자가 그 결의에 의해 재건축 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국적으로 주택의 붕괴로 인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등의 사회적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이나 청주의 우암아파트 붕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6. 재건축적립금제도의 도입검토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 재원조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 94년 12월 까지의 재건축사업의 추진실태를 보면 기존세대수 대비 계획세대수의 비율이 약 2배 수준으로 나타나 재건축을 위한 대부분의 자금이 사업자윤수익에 의해서 충당되었다. 이는 기존의 저층저밀도로 지어진 주택을 고층고밀도로 재건축을 시행하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의 신도시를 포함하여 80년대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대부분 고층고밀화되어 있어 향후 이들 주택의 수명이 다하여 재건축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익은 거의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며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시행역시 곤란 할 것이다. 재건축이 어려우면 재건축기금을 적립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실제로 국토개발연구원이 1994년 서울과 부산의 노후공동주택입주자를 보면, 재건축사업시행시 은행융자를 포함하여 자치자금조달능력에 따라 30평형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는 총소요자금의 48%, 40평형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는 36%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요자금중 나머지 부분은 평상시에 비축해 나가지 않으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기준이상(예를 들면 용적률 250%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신축후 일정기간이 경과 한 연도부터 재건축을 위한 적립금을 비축토록 의무

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 전 내구기간 동안에 걸쳐 적립할 재건축적립금의 수준은 자기자금 조달능력 등을 감안할 때 건축비의 50%수준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7. 향후 수도권 5개도시와 신도시 대규모 고층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방향

80년대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도권 5개 신도시와 기타 대규모의 고층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몇 십년후 재건축시점이 동시 도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대규모 도시내지는 단지를 블록별로 입주자의 동의에 의해 재건축하는 경우 도시공간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각종 전자재 등의 수요급증으로 주택 및 전자재 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질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 대규모 도시내지는 단지를 현행의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사전에 지구지정을하여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V. 도시문제의 유형별사례

고층고밀개발로 현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문제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지구를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하면서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소규모로 분할개발을 한 사례이다. 이같은 사례는 구로구 개봉2동 일대로, 기존 2,479세대에서 계획 6,734세대를 건립할 예정으로 개발밀도는 2.7배, 인구수는 4.0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7개지구로 분할개발되어 지구내에 추가로 필요한 학교·공원·도로 등에 대한 공공시설의 확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둘째, 저층주택지내에 고층아파트가 소규모로 난립하여 인근 주택지의 주거환경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이같은 사례는 양천구 제척지구로, 인접한 저층주택지내 주민은 무분별하게 10층이상의 소규모 고층아파트가 난립하게 됨에따라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지구내 교통환경의 악화, 전파장애 등 새로운 도시문제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개발의 형태는 산자락에 인접한 저층주택지와 한강변에 입지한 저층주택지(성동구, 용산구 일대)에 고층아파트 건설이 활발하여 도시경관의 저해는 물론 주변 저층주택지의 주거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Ⅶ. 결론

이상으로 재건축의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재건축은 주거환경개선, 부족한 택지공급, 주택부족률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운용기간이 짧은 관계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1)재건축허용기준의 모호성 2)세입자에 대한 대책마련 미흡 3)재건축시 이주대책 미흡 4)교통 및 환경평가의 미흡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에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1990년도에 들어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재건축관련규정의 정비로는 1)노후불량주택관정을 위한 객관적 제시 2)재건축허용기준의 재검토,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하고,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의 철저, 노후불량주택의 관리소홀에 대한 대책, 노후불량 주택지의 강제철거 및 재건축명령 제도 도입, 재건축적립금제도의 도입검토 등, 향후 고층공동 주택단지의 재건축방향 제시까지도 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으로 인한 도시문제의 유형별 사례를 제시하였다.

주택개량재건축이 주택개량재개발과 다른 점은 지구지정의 요건이 확연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재건축허용기준은 객관적,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활용가능한 국가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분석·검토되어야 한다. 20년이 지난 주택을 전면철거하기보다는 기존 주택을 살리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 구조, 평면, 공간을 융통성있게 기존주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고, 재건축에도 몇가지 등급을 두어 철거, 재보수, 단지내 특정건물의 고층화 등 세분화된 등급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본다.

또한 중요한 점은 재건축에 관한 문제이다. 이 재건축 방안의 연구는 미래의 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재건축은 노후주택, 노후아파트의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역의 기존제한 여건에 맞는 적정밀도계획 및 도시경관계획이 결여된 제도로 인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및 주변환경과 이질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된다면 재건축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재건축의 시급한 제도마련과 제도의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삼풍의 비극이 지난 6월29일로 1년을 맞았다.

세계적 거대도시인 서울 한복판에서 지은지 6년밖에 안되는 고급백화점이 10초만에 완전히 붕괴되는 경이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사망 5백1명에 부상 9백37명, 추정피해액 4천여억원.

삼풍 그 후 1년... 그리고 건축문화와 의식

1 Year After Sampoong Collapise...
and Then Architectural Culture Consciousness

박서홍 / (주)희산건축사사무소
by Park Suh-Hong

그 다음날부터 정부는 우리 건설산업 전반을 일거에 뜯어고쳐서 당장이라도 유토피야를 만들 것처럼 매일 커다란 조치들을 쏟아냈다.

매스컴들은 또 어땠는가. 침착하고 깊이있는 진단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이나 배경을 설명해서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전문

성이 결여된 과장적이고 경박한 선정주의 행태로 일관했다.

이로인해 국민들에게는 심한 자괴감과 피해의식의 확산이 있었을 뿐 좀더 긍정적이고 건전한 의식의 고양은 부족했다.

그 후로 정말 우리사회는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고 발전적으로 변해갈 가능성을 찾았는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했으면 지금쯤 무엇인가 달라졌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국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의식향상이라고 본다.

삼풍같은 대형 건설사고는 그 사고의 직접적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의식이 저급한 수준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도 상당부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건축문화의식은 어느정도 달라졌는가. 삼풍사고 이후 정부가 국민들에게 법이나 제도를 고쳐서 우리 건설산업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한 방침은 14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졌으며 얼마나 내실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부가 서두른 여러가지 제도적인 노력은 비교적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4개의 제도개선 시도중에서 안전관리공단과 재난관리청 신설, 준공 3개월전 예비검사 등 3가지 방침은 워낙 졸속발상인 관계로 검토단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 철회됐다.

나머지 9가지의 건축·건설관련 제도개선 방침은 추진상 정도차이는 있지만 실행됐으나, 부실공사 발생의 가장 주범이라고 건설업계가 주장했던 공사비의 적정 반영의 문제는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고 정부는 이외 시행을

위해 그간의 표준품셈 제도를 없애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인허가 서류 및 공사현장 건축자제 등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로는 인허가 서류에만 실명제가 도입됐다.

이밖에 다중이용 시설물의 책임관리제 실시(96년 5월), 정부 발주공사 시공자 건설공사 보험 의무 가입(지난해 7월부터 실시), 민간건축물 3개월마다 안전진단 실시(96년 5월 실시), 인위재난 관리법(지난해 7월18일 제정), 대형사고 발생시 무기징역까지 처벌강화(지난해 12월 국회 통과), 응급의료체제 강화(지난해부터 실시), 대형공사 적격낙찰제 도입(지난해 7월부터 실시), 건축 설계인허가절차 간소화, 내무부 산하 재난관리부 신설(지난해 10월 실시) 등이 삼풍사고 이후 새롭게 정비된 건축·건설 및 안전관련 제도들이었다.

이중에는 기존의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품질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있으나 일부는 세계화, 개방화를 앞두고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심화시킬 뿐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직도 건축물 자체의 안정성과 부실여부를 걱정해야만 하는 처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이나 제도가 문제이기 보다는 건축물을 생산해내는 주체들의 의식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물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정부 등의 4자가 생산주체다.

특히 아직도 건축을 얘기할 때 '노가다'라고 아무렇게나 표현하는 일제시대 식민지 국민의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한 우리네 삶의 공간의 질은 삼풍의 수준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다.

좋은 건축물을 보고 첫마디가 '어느 건축사가 설계하고 어떤 건설업체가 지었느냐'라는 질문보다는 다짜고짜 '한평에 얼마냐'라고 묻는 건축문화의 후진성이 남아 있는 한 우리 삶의 공간은 영원히 향상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적당히 설계하고 대강대강 시공하는 전문가 의식 결여가 아직도 존재한다면 이 역시 삼풍을 생산시키는 주범이다.

건축물이란 우리가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사는 한 영원히 함께할 민족적 자산이란 의식과 건축은 국민모두의 삶의 공간을 창출하는 소중한 영역이라는 가치의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부실이 사라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누리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욕심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건축은 '노가다'도 아니고 단순히 '평당 얼마'로 평가되는 경제적 가치외에 우리의 의식과 사상이 담긴 문화적 소산인 것이다. 서구의 눈부신 건축물과 현란한 우리 전통건축물들은 모두 이같은 수준 높은 건축문화가 자리했을 때 나타난 것들이다.

건축과 건설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발주자, 설계, 시공, 감리, 정부 등 모두는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높여가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훌륭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질 좋은 건축물을 창조해 낼 때만이 삼풍의 경험이 가치있는 교훈으로 남게되고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국제조류 속에서도 무난히 살아남는 길일 것이다.

또한 더욱 시급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에게 있어 철저한 전문가의식과 프로의식의 제정립이다. 그것은 허황된 자적 허위의식도 오만한 엘리트의 식이어서도 아님은 물론이다. 그것은 평범한 직업의식이자 건전한 시민의식을 의미한다. 삼풍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같은 의식의 제정립부터 점검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일본 건설업계의 중진 간부에 의한 삼풍의 평가는 향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시사를 의미한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관과 민의 의식 부족이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 일본에서도 시설물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만, 특히 도쿄올림픽 이후에는 부실공사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기술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구조가 문제라는 얘깁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상 불량자재나 바다 모래를 사용하는 정도는 당연시하는 사회분위기였습니다. 올림픽을 급하게 준비하여야만하는 입장이었지요, 더욱 제조업과 사회시스템이 미비했으므로 정부의 통제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공무원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규와 규칙을 만들어 현실 가능한 목표 설정후 민간기업에 제공했습니다. (70년 초부터 정비) 여기에 공동체의 질서를 우선하는 일본사회의 교육과 요구가 맞아떨어져서 오늘의 일본이 되었다고 봅니다. 공사에 적용되는 법규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 부분이 많습니다. 결코 법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용인 마라재 휴게소

Marajae

김희곤 / 공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ee-Kon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해곡동 175-3

지역 · 지구 / 도시계획 지역외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600.32㎡

건축면적 / 283.51㎡

건폐율 / 47.22%

연면적 / 377.49㎡

용적률 / 62.88%

최고높이 / 7.4m

규모 /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설비방식 / 개별난방

주요내장재 / 석고보드, 나무

주요외장재 / 모노쿠시 롬철

건축주 / 김명자

시공사 / 박승철

설계기간 / 94. 12~95. 9

시공기간 / 95. 9~96. 6

설계담당 / 원운정, 정재훈, 오용섭, 김운관

구조설계 / 하우구조

기계설비 / 성림설비

사진 / 박영채

Location / 175-3, Haegok-dong, Yong-in-shi,
Kyeonggi-do

District / Urban Diagnosis

Use / Neighborhood

Site Area / 600.32㎡

Bldg. Area / 283.51㎡

Bldg. Coverage Ratio / 47.22%

Gross Floor Area / 377.49㎡

Gross Floor Ratio / 62.88%

Height / 7.4m

Bldg. Scale /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Interior Finish / Pneumatically Applied
Gypsum, Wood

Exterior Finish / Monocouche

Client / Kim Myeong-Ja

Constructor / Park Seung-Ryeol

Design Term / 1994. 12~199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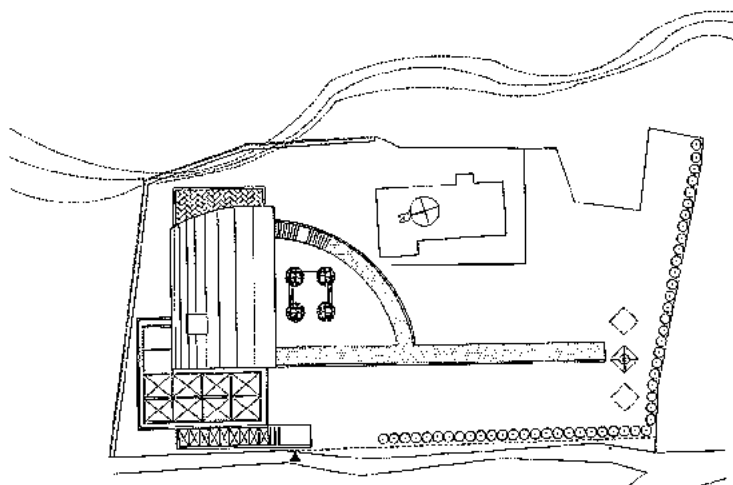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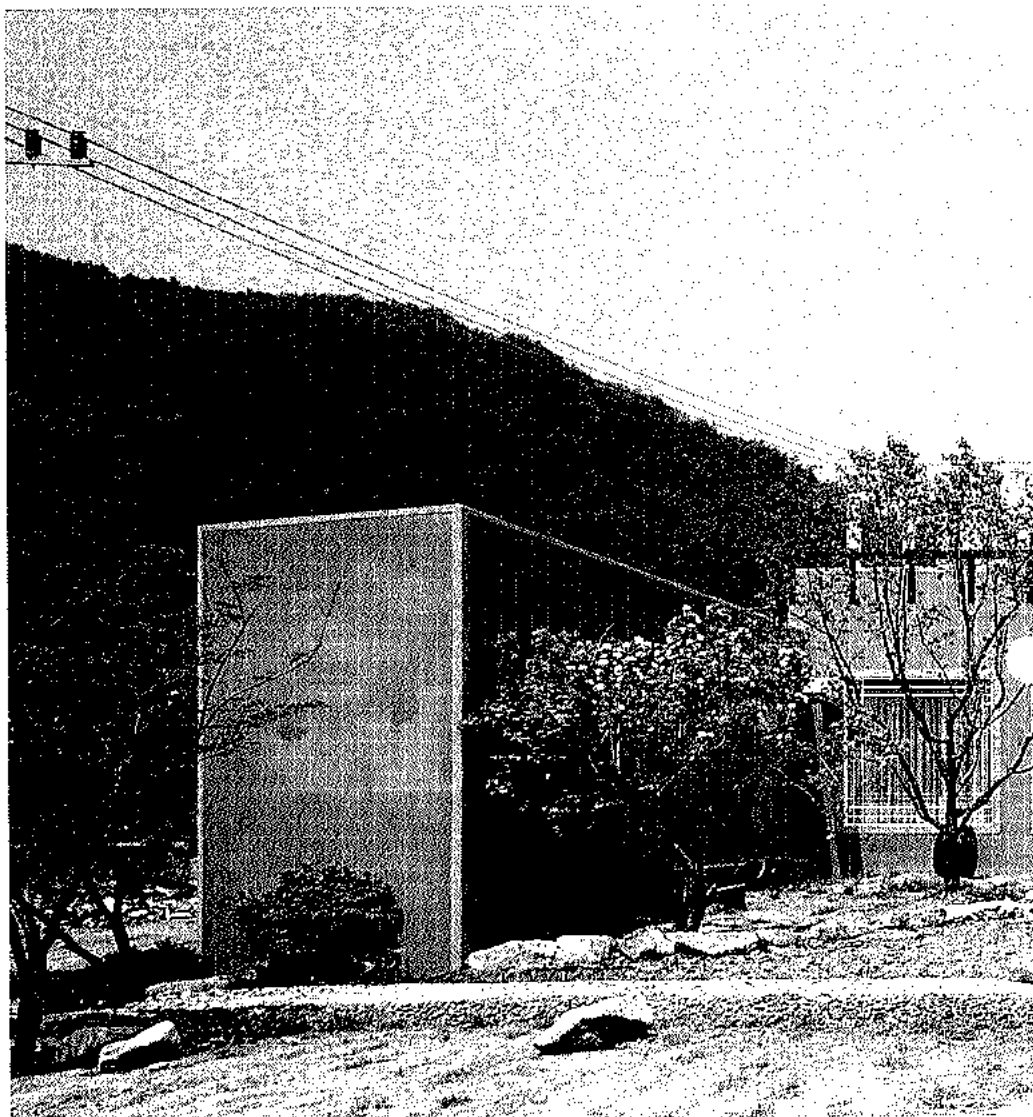
Construction Term / 1995. 9~199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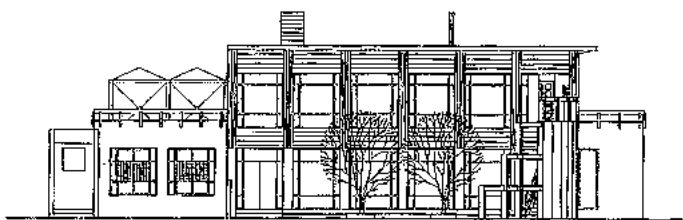
Project Team / Won Yoon-Jeong, Cheong
Chae-Chun, Oh Yong-Seop &
Kim Yoon-Kwan

Structural Design / Ha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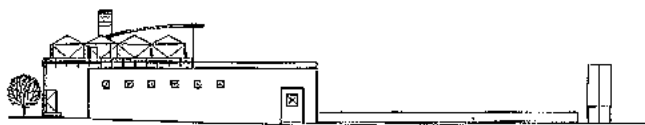
Mechanical Service / Sunglim

Photographer / Park Young-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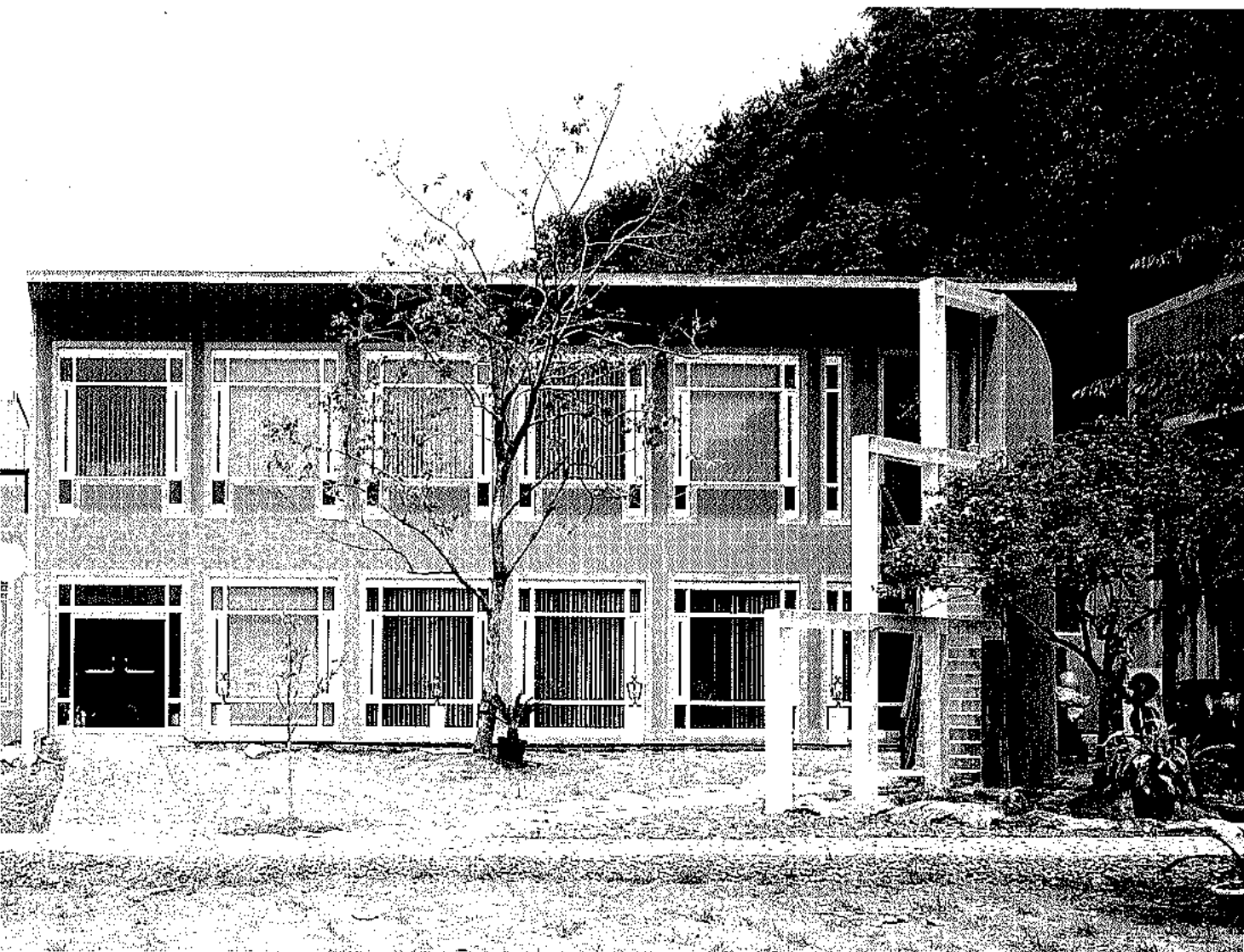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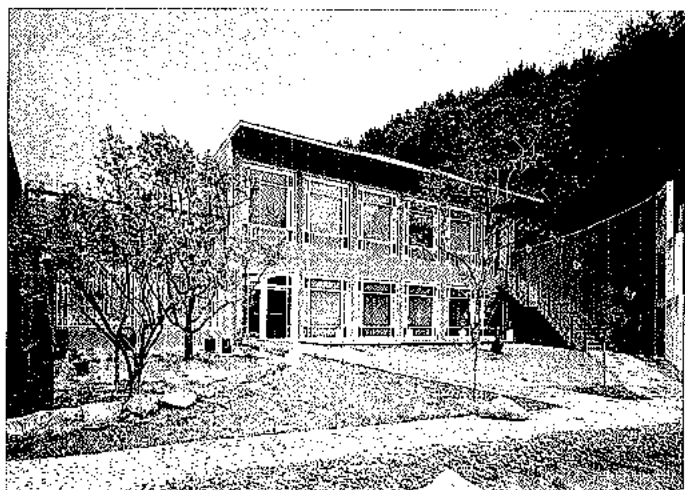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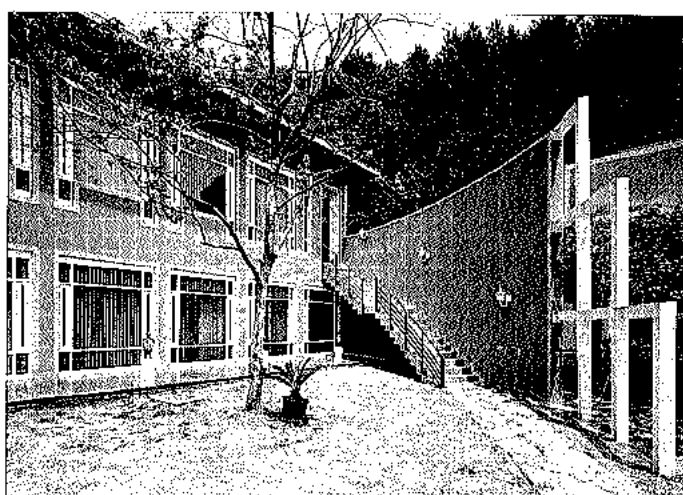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남측전경



서측전경



동측 외부계단실 전경

□ 생 각

어느날 우연하게 중년의 여인과 아들이 함께 운영할 조그만 전통차와 식사를 할 수 있는 휴게소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와 아들의 세대차와 감각의 차이가 세월을 느끼게 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고 미래와 꿈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게 되었다.

시간은 푸념과 기대와 희망을 뒤로 하고 침묵의 언어인 공간으로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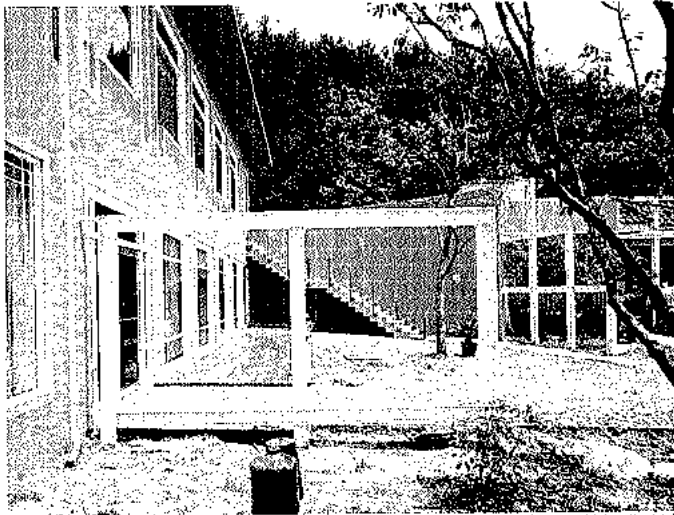
그 공간과 틈새, 느낌 사이로 많은 대화와 고민 갈등 혼미가 오갔지만 가장 단순한 침묵의 언어가 질문하는 "자네가 진정한 주인인가?"라는 말은 나에게 또 다른 방향을 하게한다.

건축은 가장 정신적인 직관과 육체적인 땀을 동시에 요구하며 가슴속 깊은 곳의 따뜻한 정을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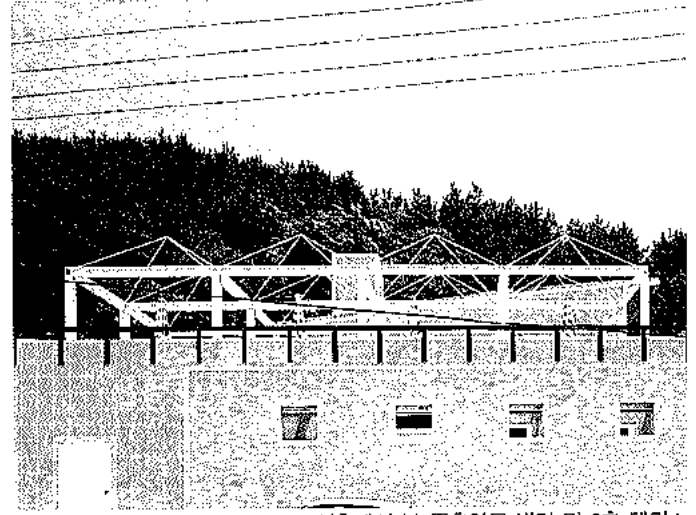
아서 비로소 존재하는 것 같다.

□ 혼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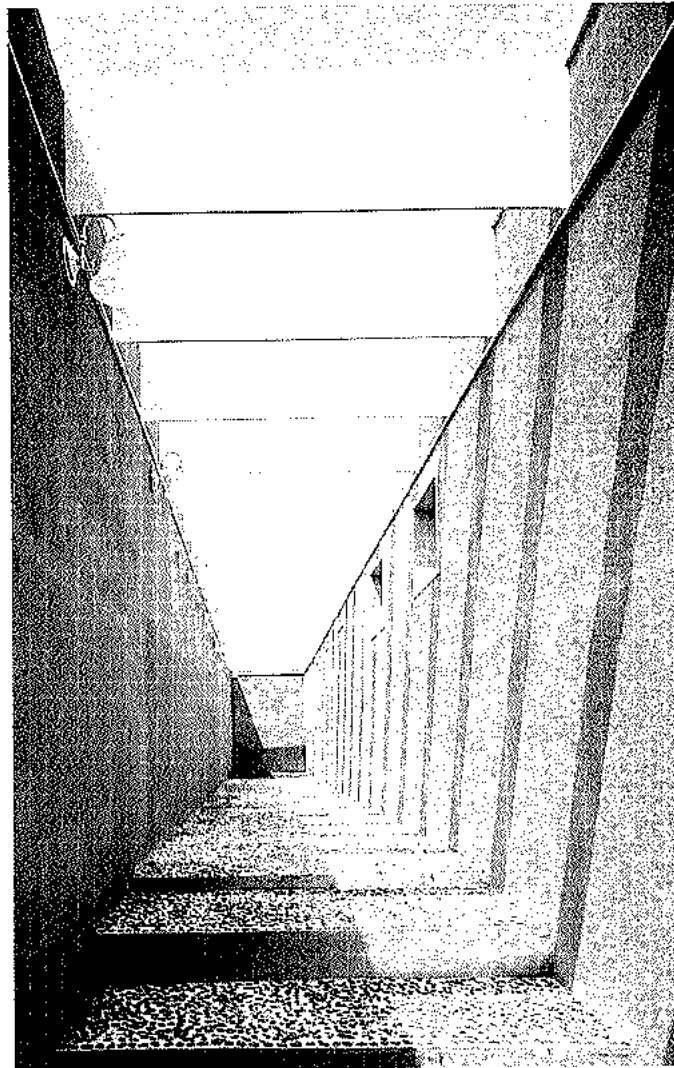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것은 산업사회 이전의 전통 마을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기억들을 회상하며 그 공간의 따뜻한 맛을 현대적인 재료와 공법으로 다시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서측에서 본 외부 계단실



서측에서 본 주출입구 벽면 및 2층 테라스



주출입구 통로



동측에서 본 주출입구

동시에 미래에 대한 꿈을 생각해 본다.

러진일에 최선의 수습, 공사마감, 공사비 한계… 상치난 혼적위로 제2, 제3의 현실(생각해 보지도 못한 디테일)을 가장 끈기있는 땀으로 감쌀 수 있으면 되리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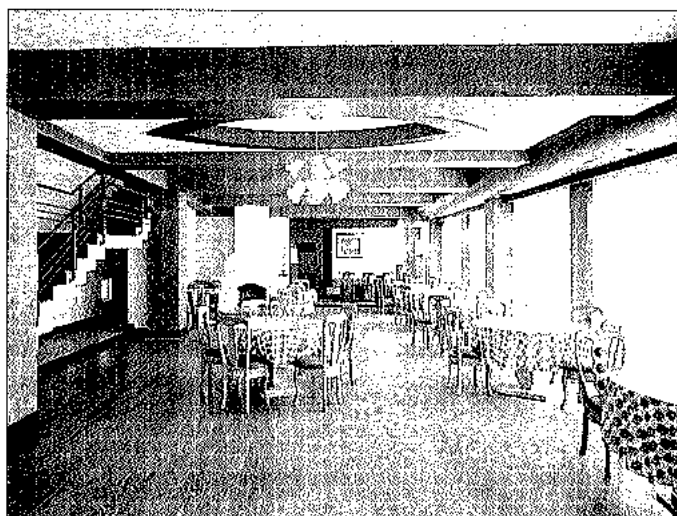
열악한 조건, 작은 건물, 숙련되지 못한 기술자, 넉넉하지 못한 자금이 다 함께 공존의 장을 통하여 그 실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남길 기대해 본다.

공존이란 큰 획이 붓을 잡은 손이 아니라 정성스러움이 아닌가 반문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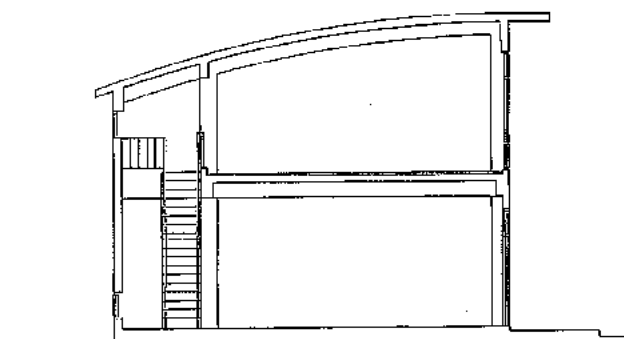
오늘도 또 다시 음악과 차 한잔과 사랑한 사람의 건축이 함께하므로 또 다른 장으로 나아가
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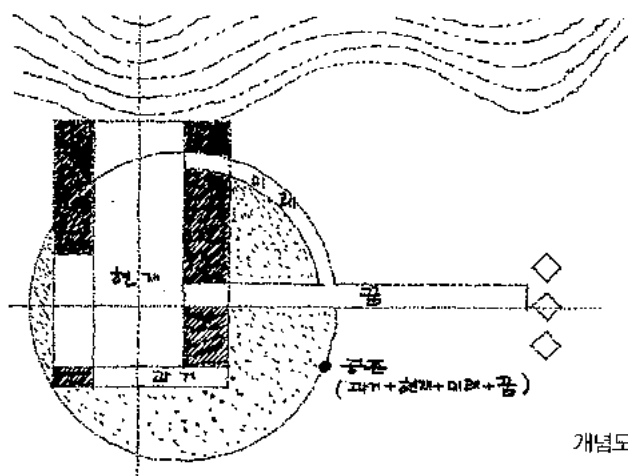
음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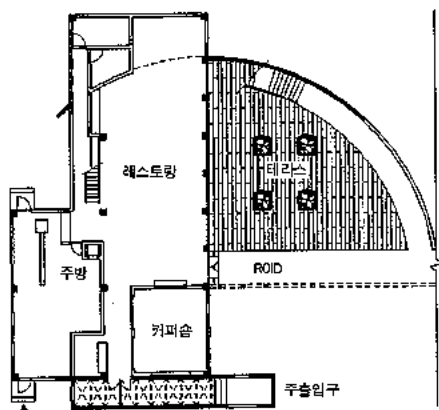
1층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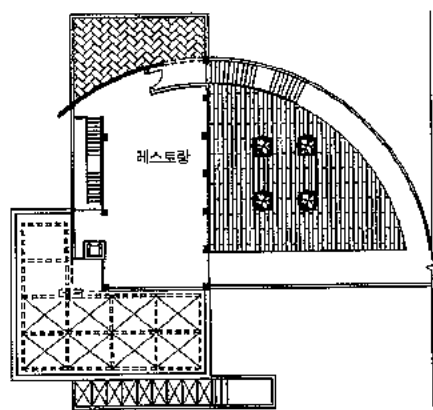
주 단면도



개념도



1. 실험명



2층 평면도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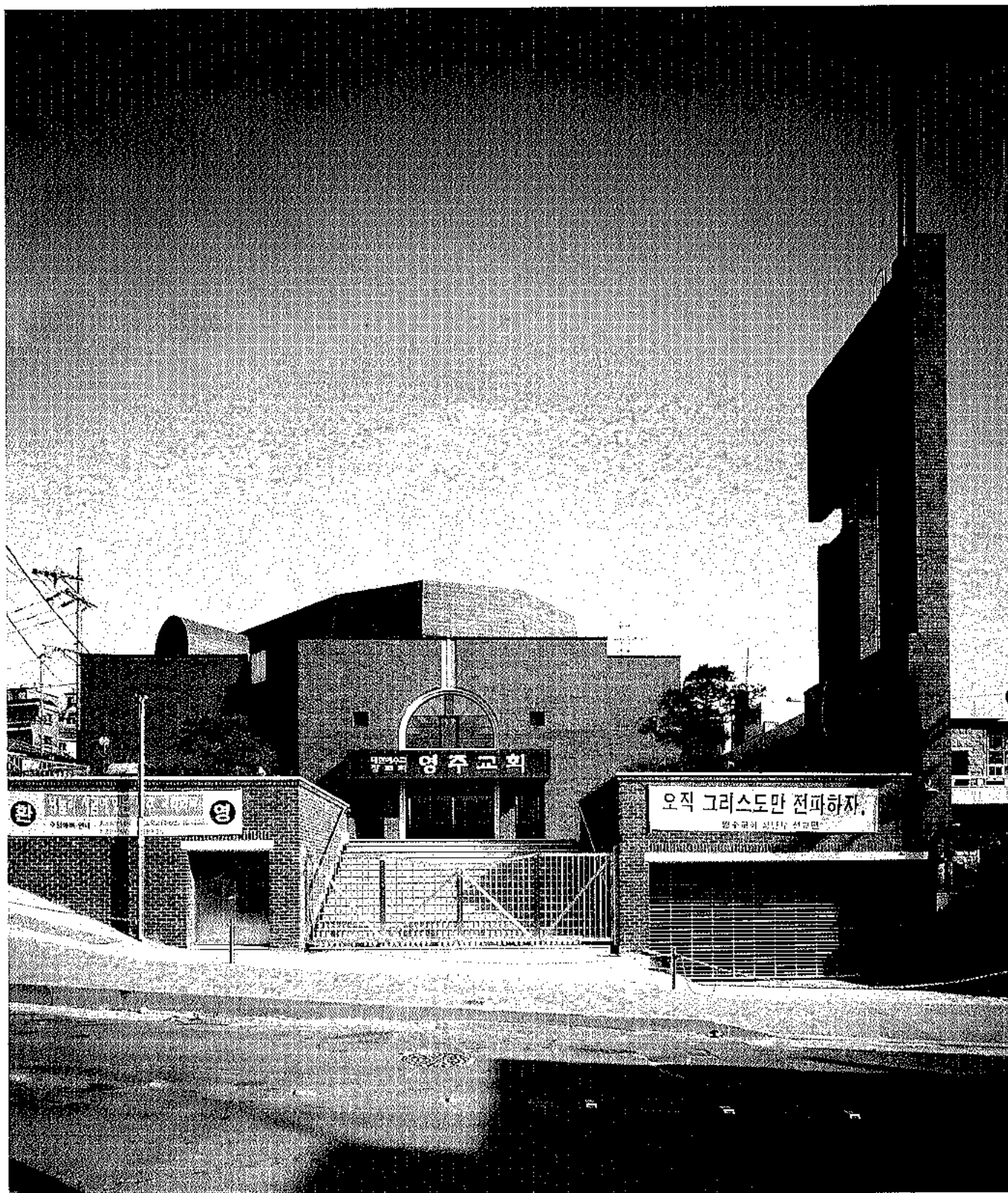
회원작품

영주교회

Young Joo Presbyterian Church

최영집 / (주)건축연구소 탐

Designed by Choe Young-Je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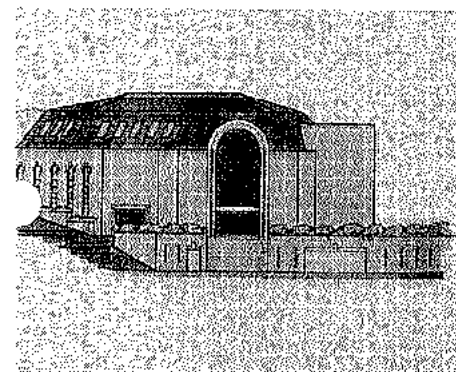
정면



주출입구 전경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15-5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최고고도
 지구(12m)
 대지면적 / 1,352.8㎡(409평)
 건축면적 / 635.58㎡(192평)
 연면적 / 3,463.70㎡(1,048평)
 건폐율 / 46.99%
 용적률 / 256.04%
 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Glulam목구조
 최고높이 / 12m
 주요설비 / 냉온수기+공조기, F. C. U.
 외부마감 / 적벽돌치장쌓기+일부석재+동성글지붕
 내부마감 / 바닥 - 화강석물길개, 디렉스타일
 벽 - 수성페인트, 무늬목쉬트
 천장 - 암텍스, Glulam Panel
 설계담당 / 강성문외 5인
 감리담당 / 강성준
 시공 / (주)삼일기업공사
 구조설계 / 진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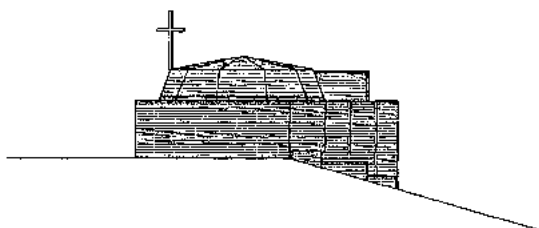
Location / 415-5, Hwang-dong, Yongsan-gu, Seoul
 District / Houses
 Site Area / 1,352.8㎡
 Bldg. Area / 635.58㎡
 Gross Floor Area / 3,463.70㎡
 Bldg. Coverage Ratio / 46.99%
 Gross Floor Ratio / 256.04%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 · C Rigid Frame + Glulam
 Height / 12m
 Exterior Finish / Fair-faced Brickwork
 Interior Finish / Floor - Granite
 Wall - Water Paint
 Ceiling - Glulam Panel
 Project Team / Kang Seong-Moon,
 Kang Seong-Joon etc.
 Construction / Samil
 Structural Design / Jin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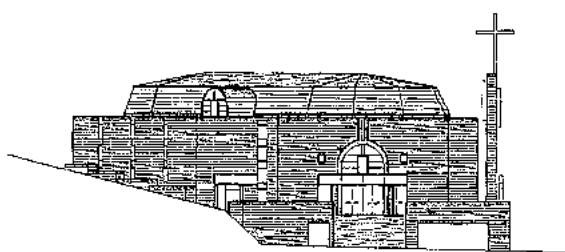
초기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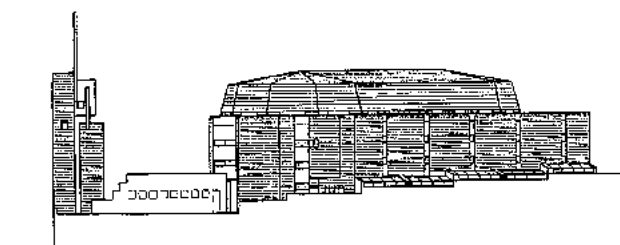
최종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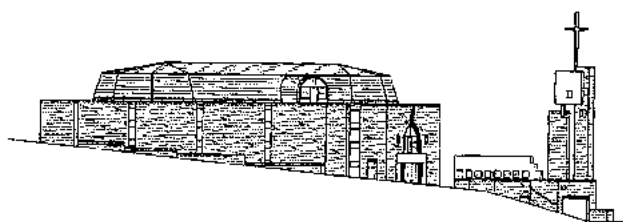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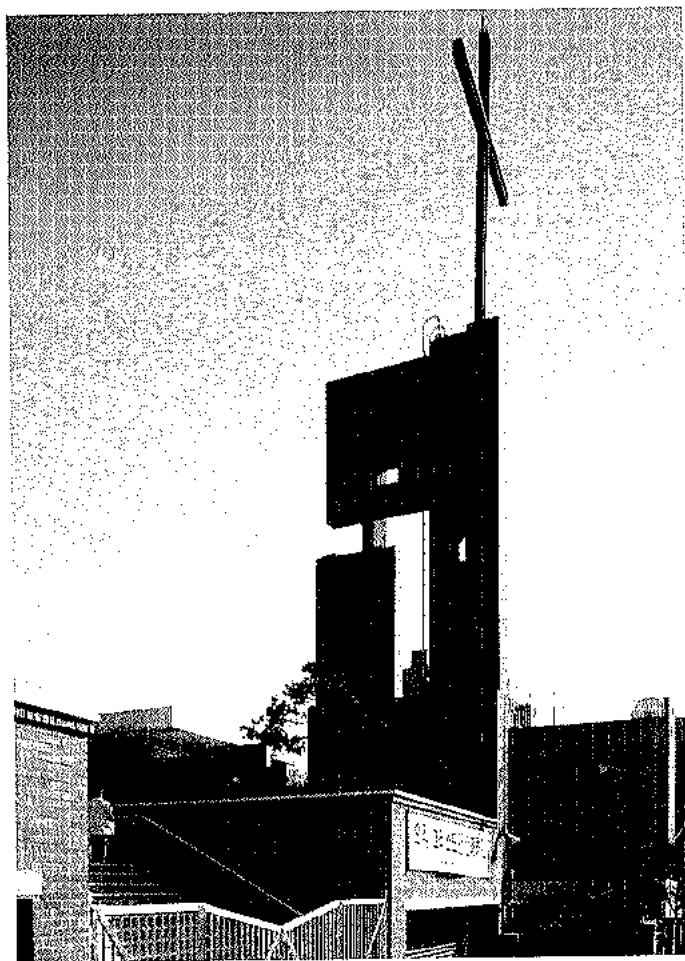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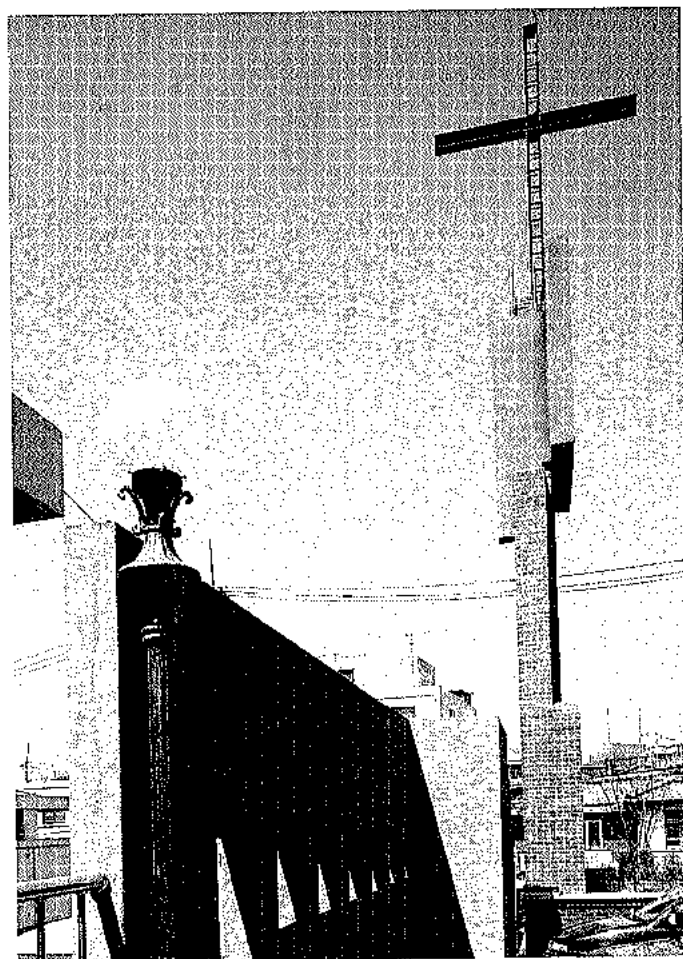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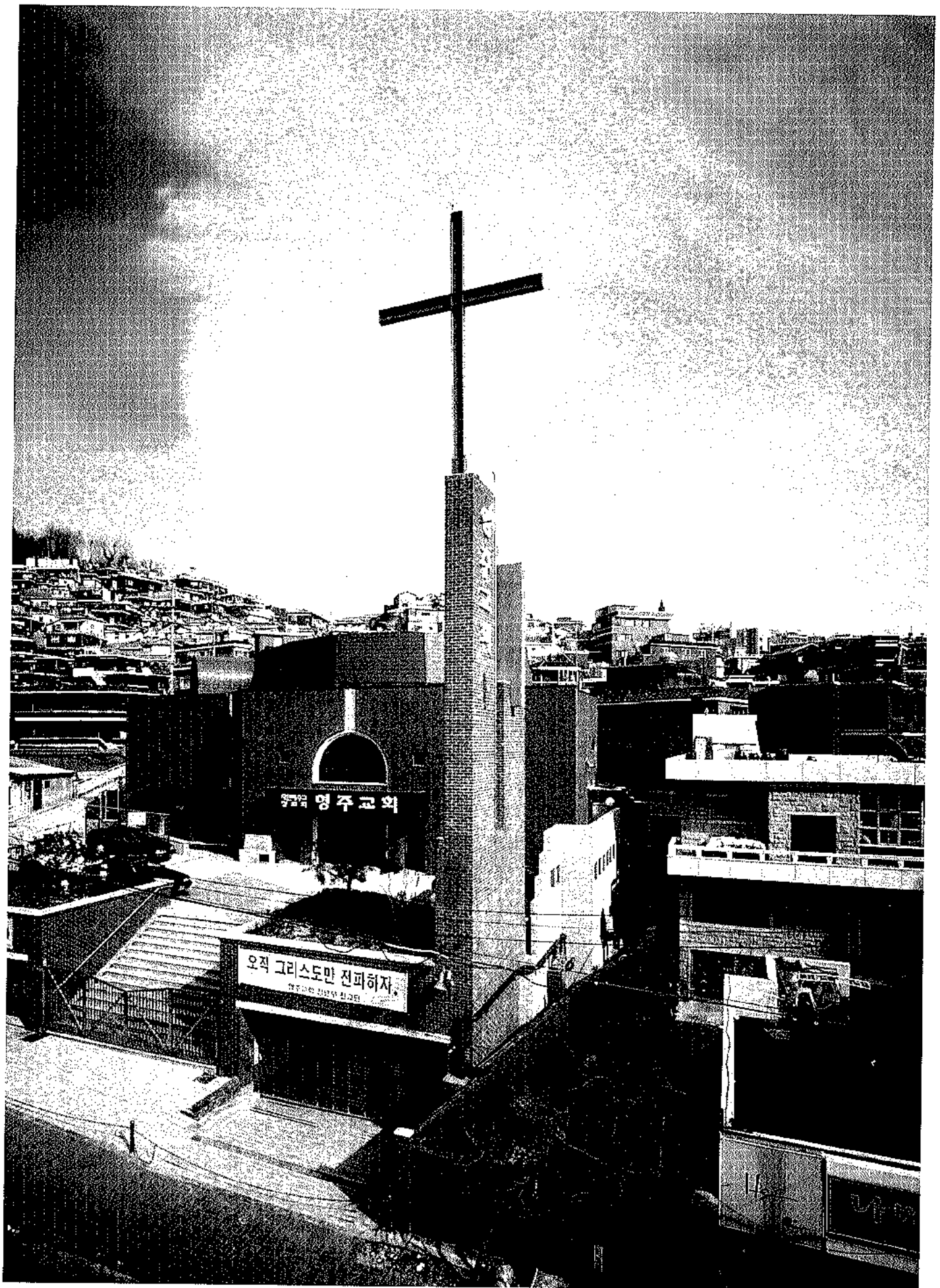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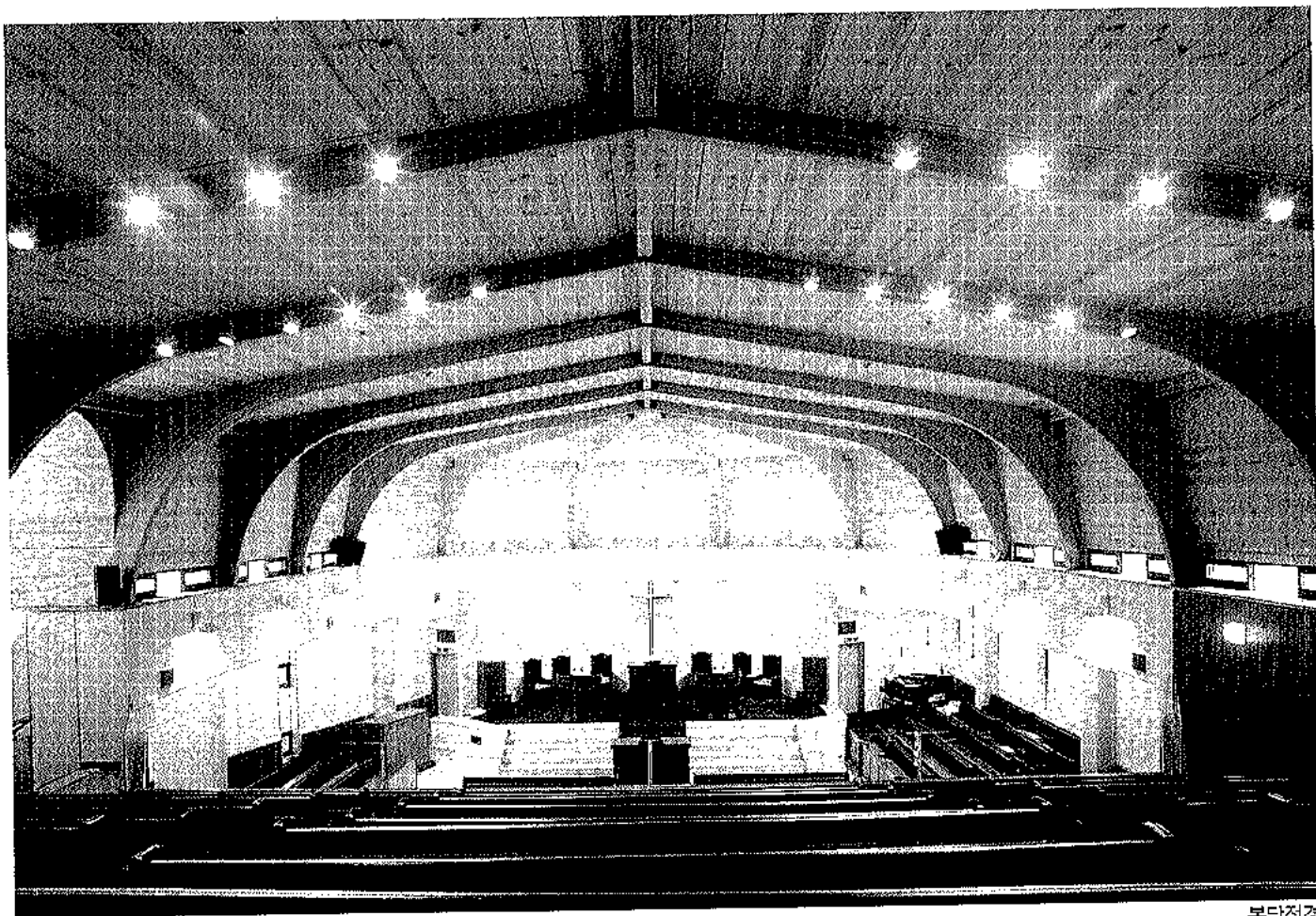
북서측 진입로에서 본 종탑



남측에서 본 종탑



서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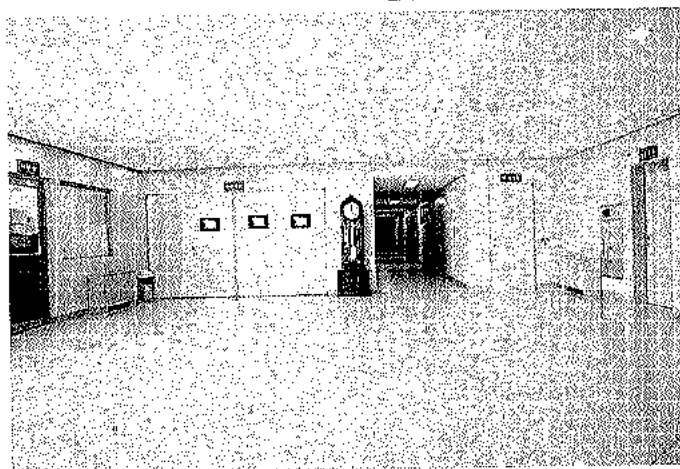
본당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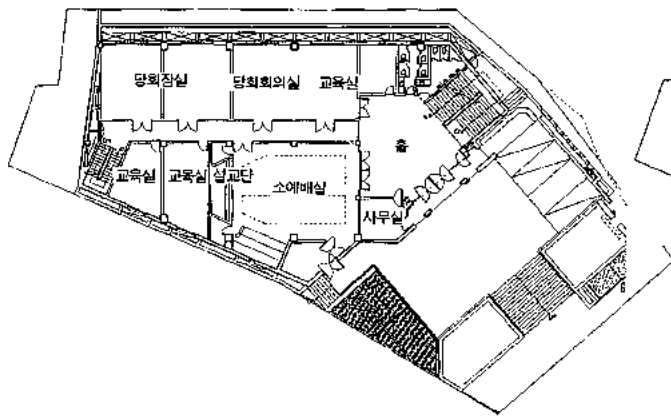
중2층 연결계단과 아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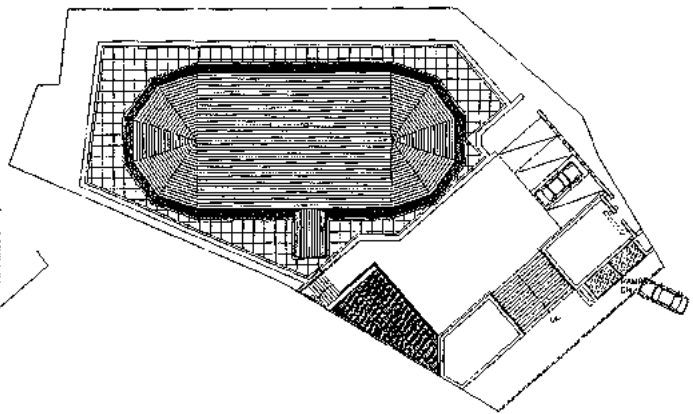
본당 내부(GLUELAM 목구조 자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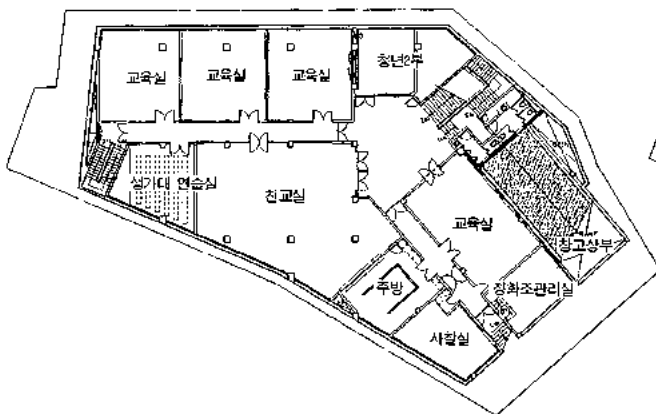
1층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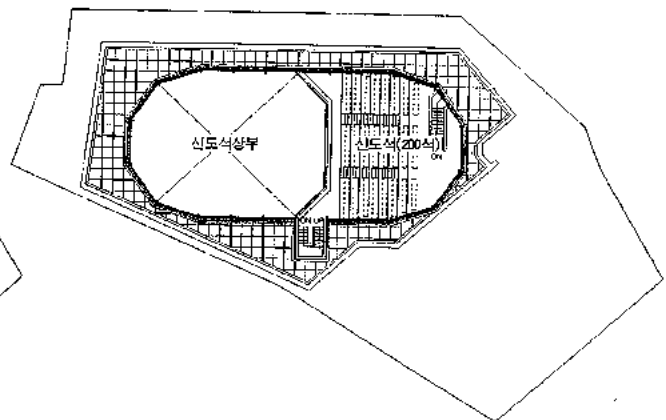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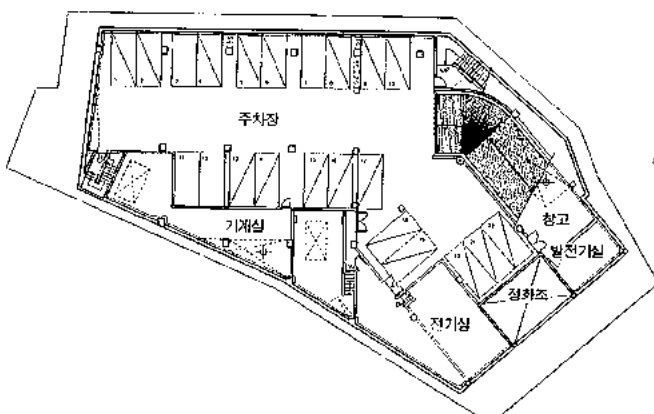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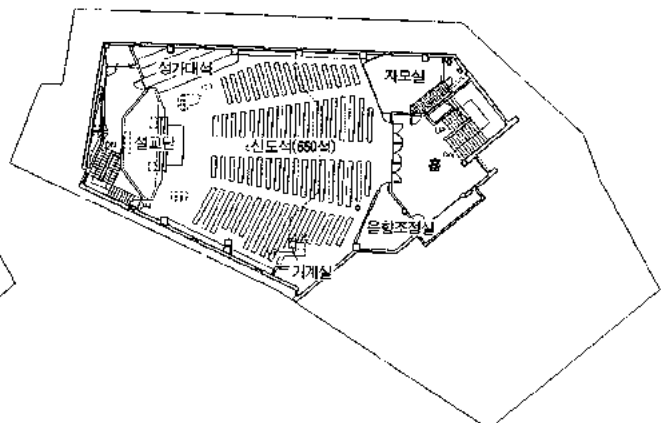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2층 평면도

Works

회원작품

중앙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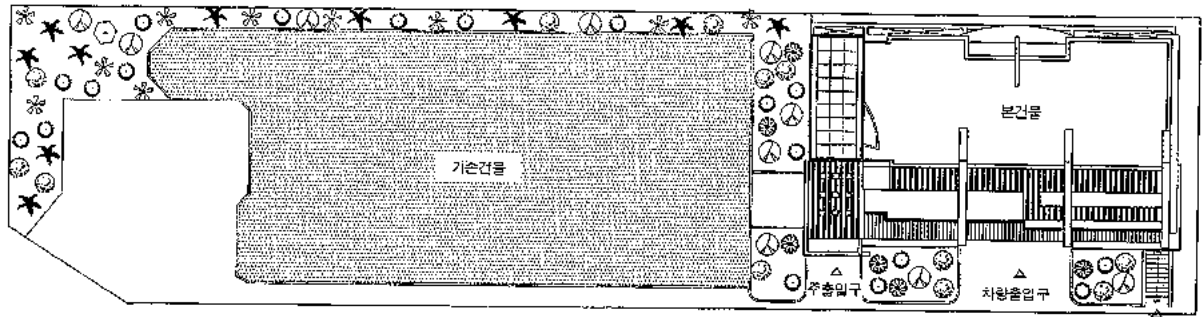
Chung-ang Children's House

박영준 / 건축사사무소 우반건축(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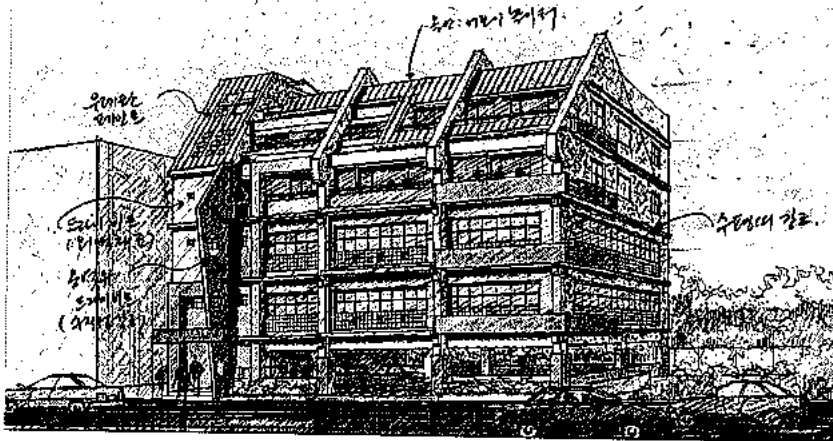
Designed by Park Young-J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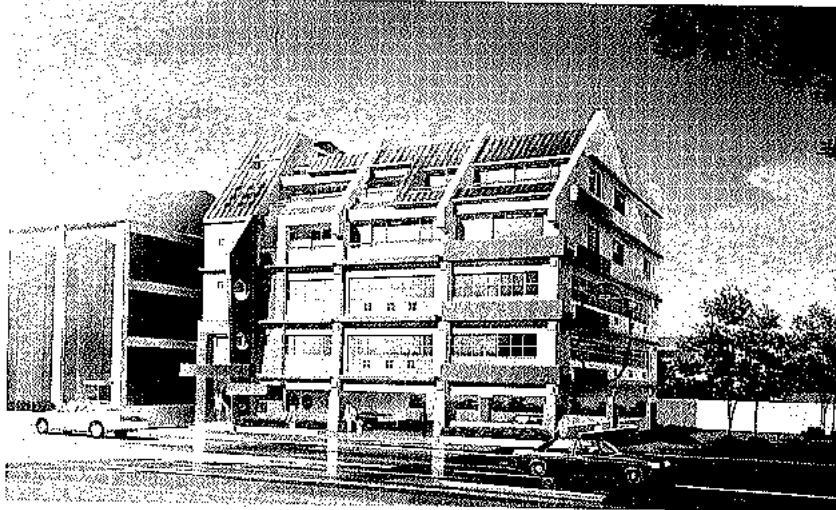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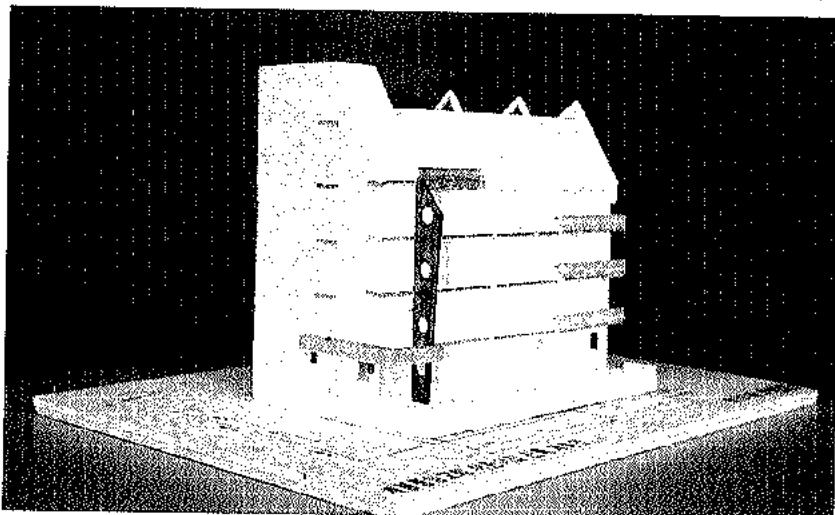
배치도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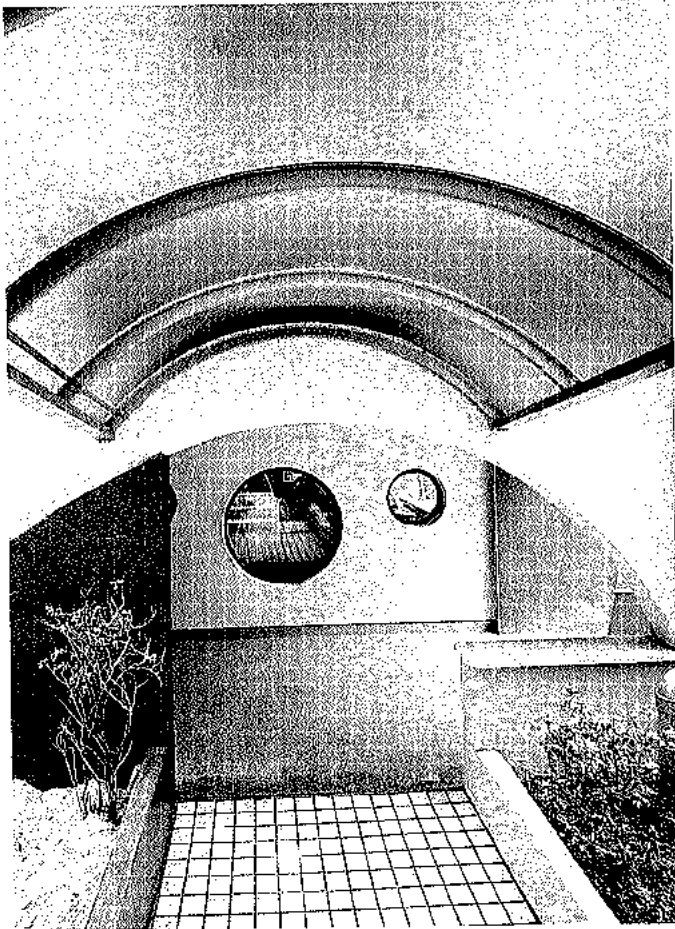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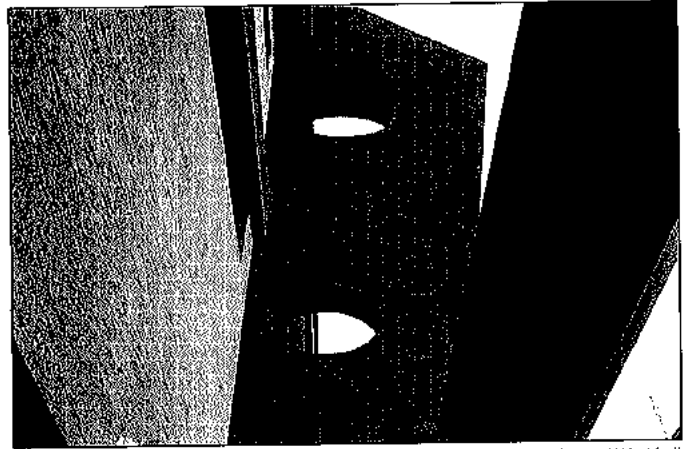
모형도

대지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32의3필지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 지구
 대지면적 / 962.4㎡
 건축면적 / 201.6㎡
 연면적 / 1,269.18㎡
 건폐율 / 59.19%
 용적률 / 190.8%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 드라이비트
 설계담당 / 황현하
 시공자 / (주)이림건설
 기계설비 / 금강설비
 전기설비 / 이일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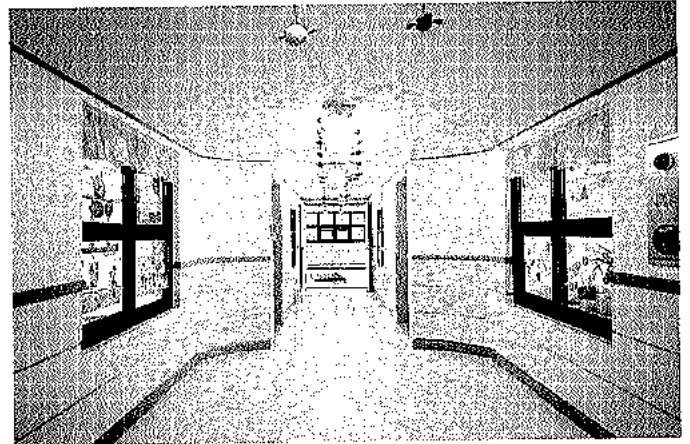
Location / 132, Kwangmyeong-dong, Kwangmyeong-shi Kyeonggi-do
 District / Houses
 Site Area / 962.4㎡
 Bldg. Area / 201.6㎡
 Gross Floor Area / 1,269.18㎡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Dryvit
 Designer / Hwang Hyeon-Ha
 Constructor / Elin Cons. Co., Ltd.
 Mechanical Service / Keumgang
 Electric Installation / 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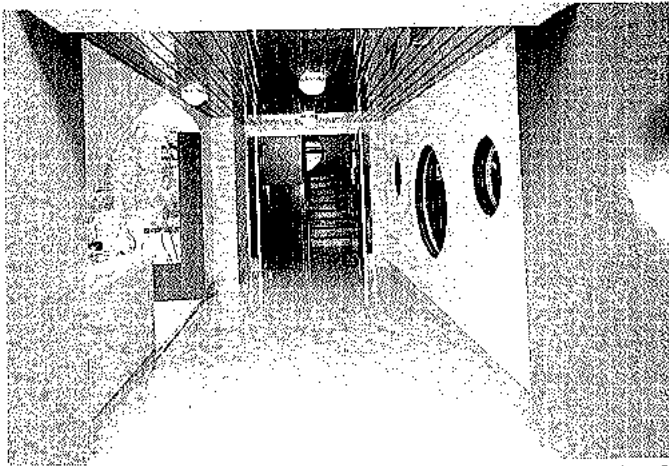
교회와의 연결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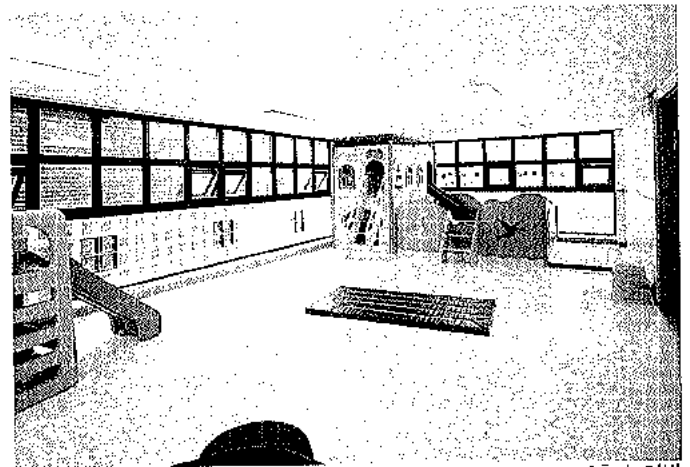
주출입구 외벽 상세



2층 복도



주출입구 홀



2층 놀이방

광명시의 간선도로에서 좀 들어간 골목에는 개봉중앙교회의 사회복지관 및 중앙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됐다.

도시내의 주택가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관은 동주민으로서 매우 반가운 일일 것이다. 주변의 환경은 주택가의 전형적인 붉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본 건물은 약간의 색상을 가미하고 가벼운 재료로 선택하여 어린이들의 정서에 알맞도록 설계 되었다.

1층은 주차시설과 피로티로 처리하여 답답함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렇으로써, 공간적으로 시원한 느낌과 더불어 골목길에 소규모 건물에서 가장 문제점인 주차공간을 여유있게 해결하였다.

배치계획

주택가의 좁은 골목의 단층 주택 숲 사이에 5층 규모의 본 건물을 배치함에 있어 대지 면적이 협소한편이라 다양한 배치 대안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계획의 초점을 두었다.

평면계획

지하층은 동민을 위한 사회복지관이 구성되고, 지상 1층은 현관 및 주차장, 2·3층은 어린이집이 배치되고 4·5층에는 목사님숙소 외 3개의 교사들의 숙소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옥상 어린이 놀이터 바닥에는 안전을 위한 하이드로코트 마감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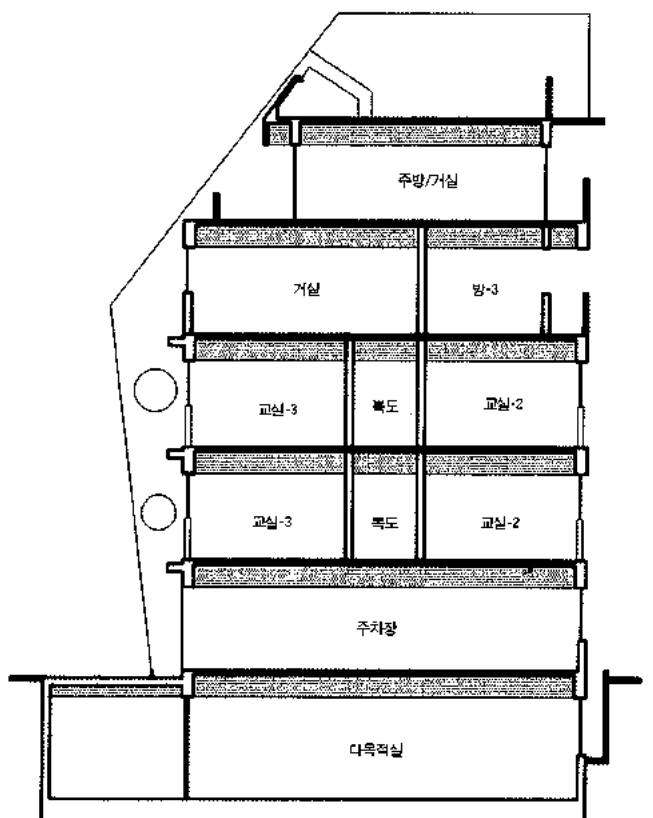
입면계획

전면 4m도로로서 법규적 제한(도로에 의한 사선 제한)사항을 검토한 결과 의외로 불리한점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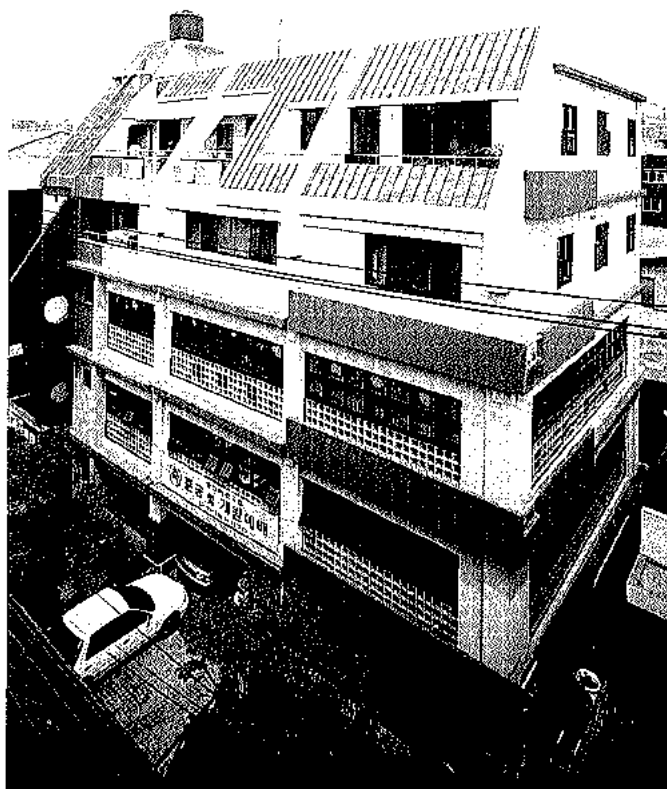
제약된 평면 구성에 따른 입면구성시 박스형의 매스로 인한 단순함을 탈피하고자 부분적으로 수직 날개와 수평띠를 강조 하였다.

또한, 외벽은 외단열인 드라이비트의 재료를 선택하여 가볍게 처리하고, 어린이의 동심에 맞게 원색으로 액센트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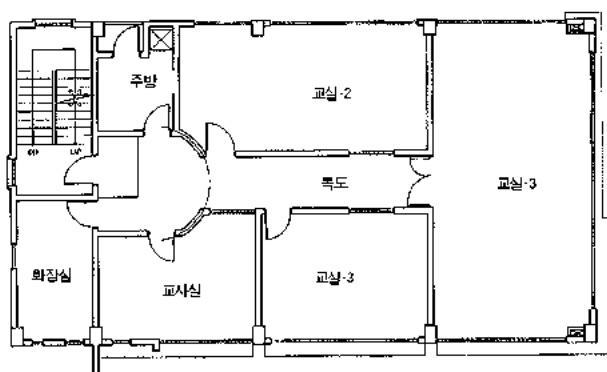
이 어린이 집을 설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와 동민들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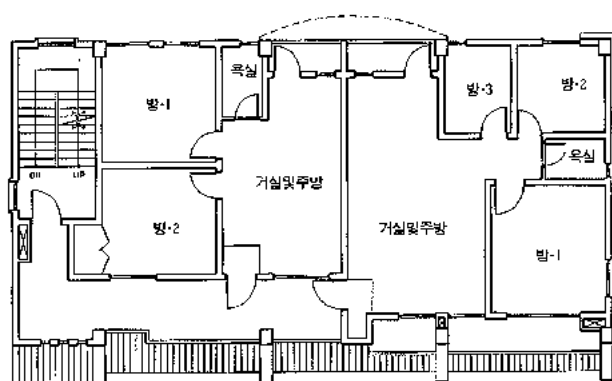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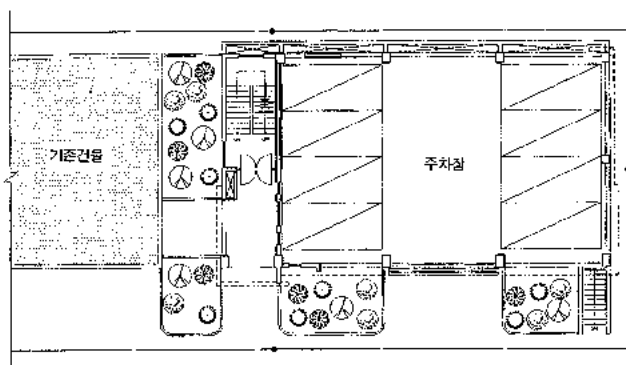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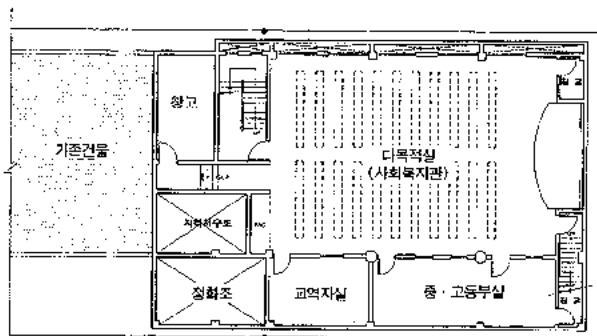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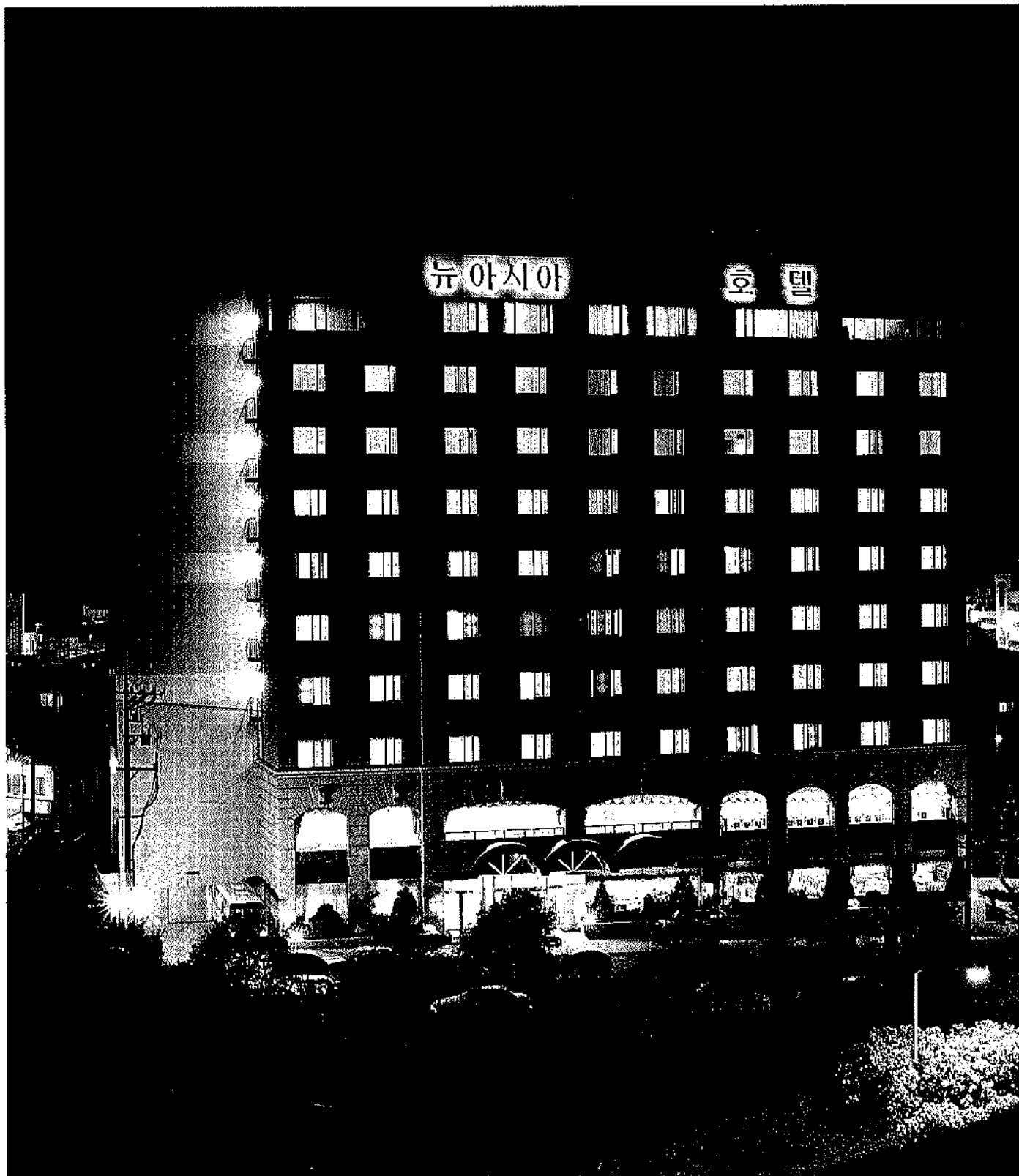
회원작품

제주 뉴아시아 호텔

Cheju New Asia Hotel

강성익 / 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ang Sung-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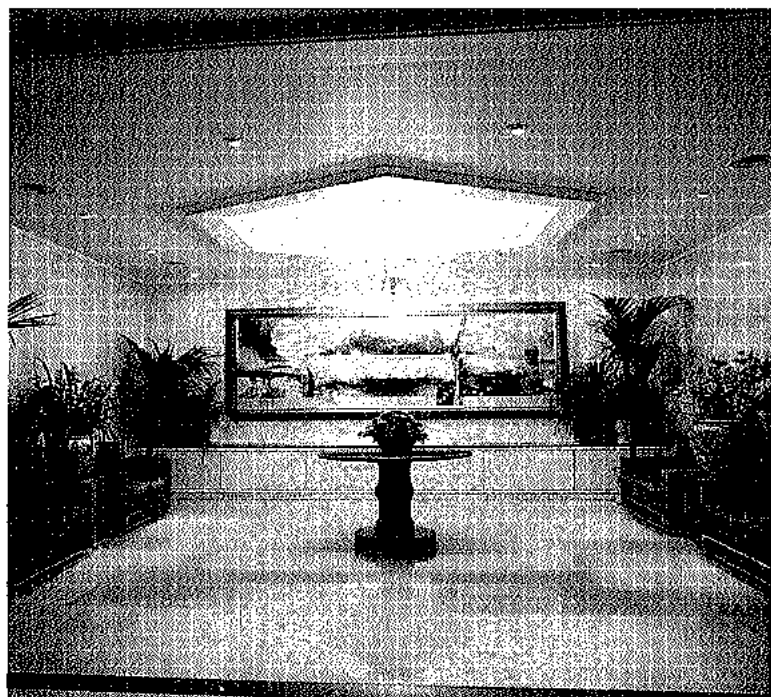
아경

대지위치/ 제주도 제주시 연동 306-2, 4, 5호
 대지면적/ 1,069.9㎡
 건축면적/ 581.42㎡
 연면적/ 6,695.28㎡
 건폐율/ 53.01%
 용적률/ 459.61%
 규모/ 지하 2층, 지상 10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 화강석바나기 및 아이소코트
 전기·설비/ 선화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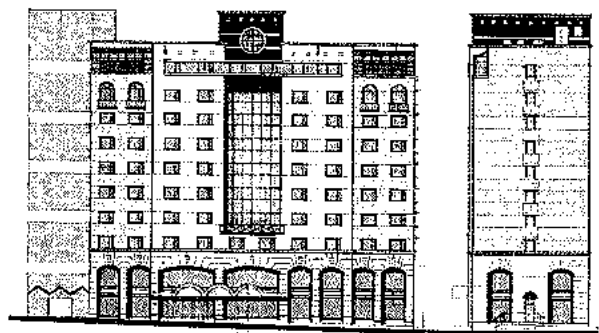
구조설계/ 황의춘 구조연구소
 시공/ 영천종합건설, 일품종합건설
 인테리어/ 탑제주(고우진)

Location / 306-2, 4, 5, Yeondong, Cheju-shi, Cheju-do
 Site Area / 1,069.9㎡
 Bldg. Area / 581.42㎡
 Gross Floor Area / 6,695.28㎡
 Bldg. Coverage Ratio / 53.01%
 Gross Floor Ratio / 459.61%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10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 & ISOCoat
 Construction Term / 1994. 6~1995. 6
 Electric Installation / Seonhwa Eng.
 Structural Design / Hwang Eui-Chun
 Construction / Youngcheon & Ilpum Cons. Co., Ltd.
 Interior / Top Cheju(Ko Moo-Jin)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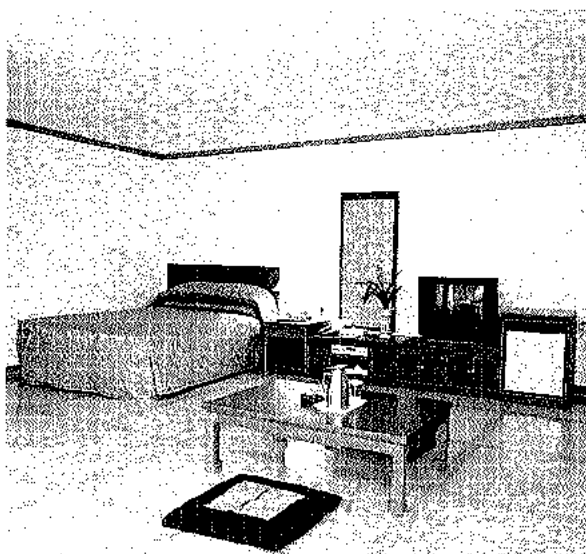
스케치



양실



전경



한실



스카이라운지



연회실



커피숍

오늘날의 호텔은 가족단위 또는 단체관광객의 장기체제에 적합한 제반시설을 요구하는 추세이다. 또한 기존 호텔의 단순한 숙소기능 외에도 호텔 내에서 오랜 시간을 쉬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위락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하다.

본 호텔은 신 제주 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일반호텔이지만 제주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더하여, 단체 관광객의 투숙에 맞는 복합형태의 호텔 기능을 갖게 하였다.

또한 제주라는 도시의 이미지에 조화될 수 있는 외관을 지니는 것과 호텔이라는 특수한 여건(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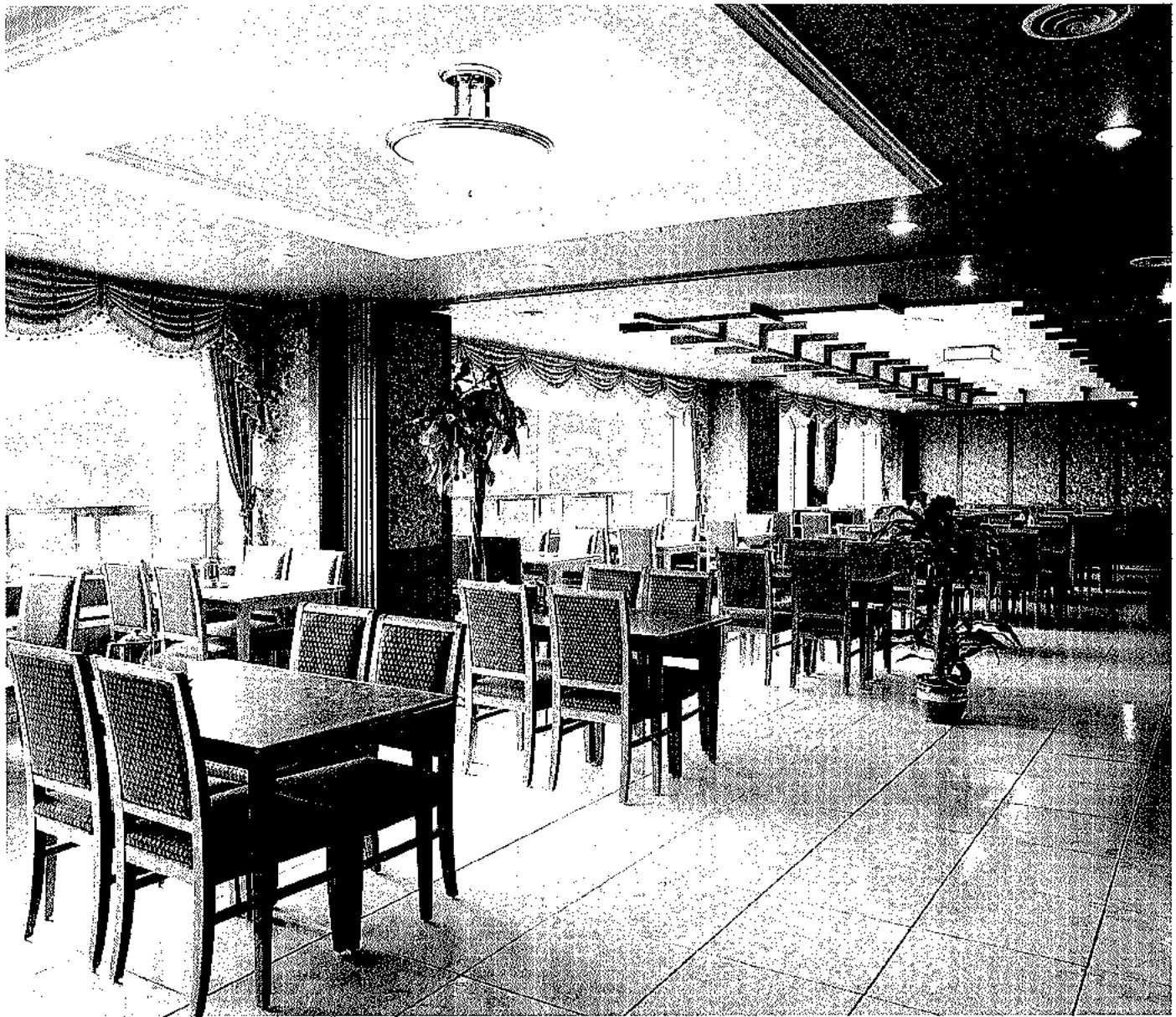
적 이익)에 따라 자주 바뀌지는 공간기능을 잘 살릴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내부 계획에 있어서는 여러 형태를 관광객에 대응할 수 있으면서, 기능의 다양성에 적절하게 부합할 수 있게, 1, 2층 로비, 연회실, 3~6층 까지의 한실, 7~10층의 양실, 10층의 스카이라운지를 배치하였다.

객실은 전망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축선상으로 남측으로는 한라산 정상, 북측으로는 제주공항, 제주 시내 및 바다까지 내려다 보이도록 배치하였다. 1층 로비, 프론트, 2층의 연회실은 객실과 분리 동선이 되도록 하고, 1층 로비와 프론트의 천정을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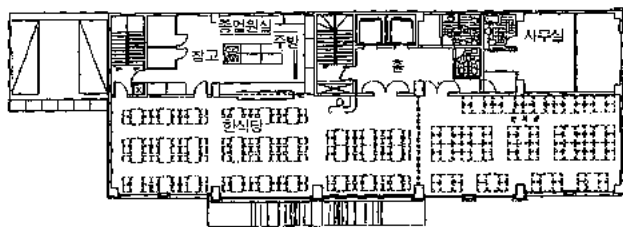
게 하여 개방감을 갖게함과 동시에 외부의 사선및 경관을 끌어들이어 내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외관은 전반적으로 주위환경에 조화되는 마감재료를 선택, 저층 부분은 화강석 버너구이, 고층부분은 아이소코트로 하였으며, 아이소코트 색상을 다양하게 하여 저층과 고층부분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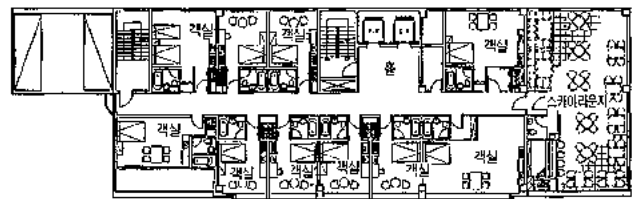
또한 창 의 디자인(크기, 형태, 위치)을 다양하고 변화있게 배치하므로써, 건물 외관에 개방감을 줌과 동시에 이국적인 모습의 형태를 외관에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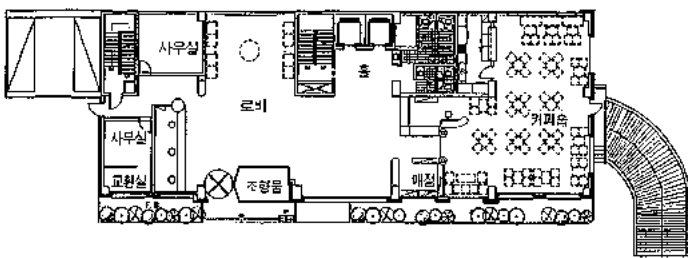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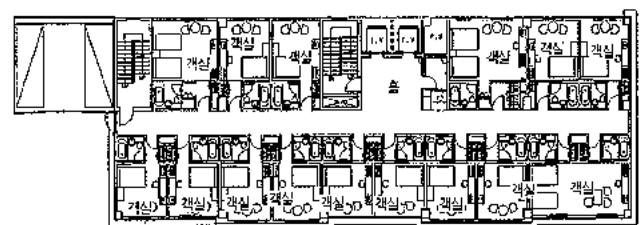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0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원서동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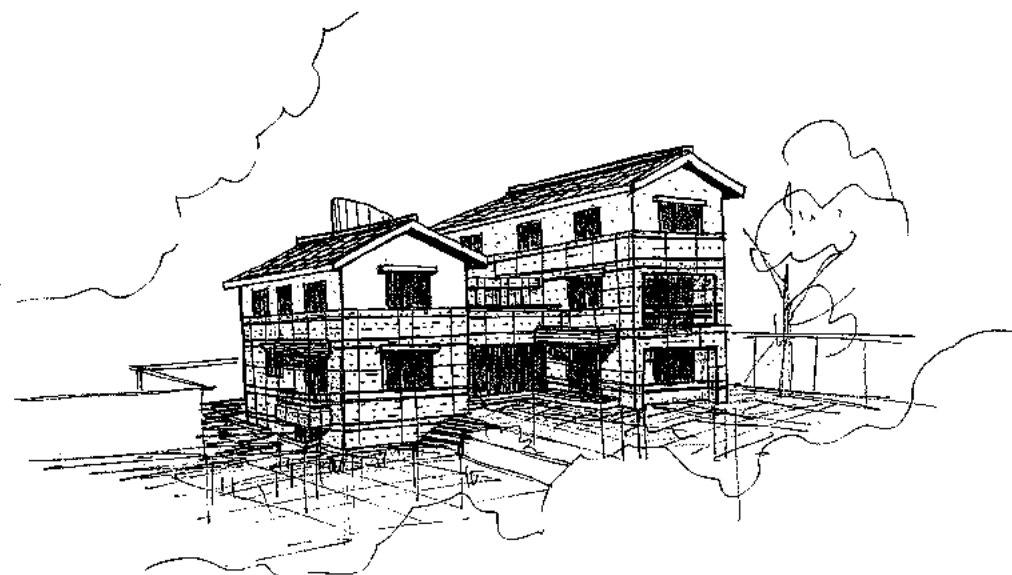
House for Vestiges of Past

우시용 / 건축사사무소 시공

Designed by Woo Si-Yong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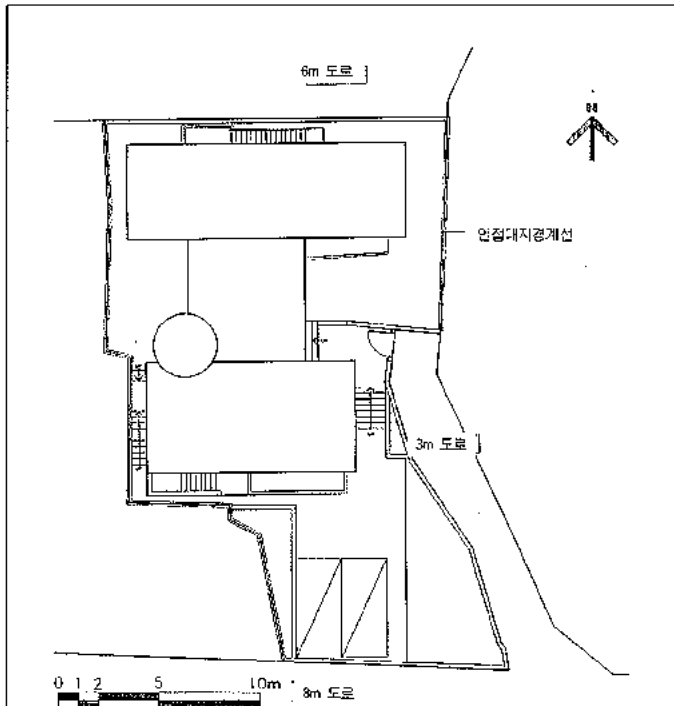
스케치

위치 / 서울 종로구 원서동 49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4종접단미관리지구, 주차장정비
 대지면적 / 400.79㎡(121.24평)
 건축면적 / 160.12㎡(48.44평)
 연면적 / 378.64㎡(114.54평)
 건폐율 / 39.95%
 용적률 / 78.60%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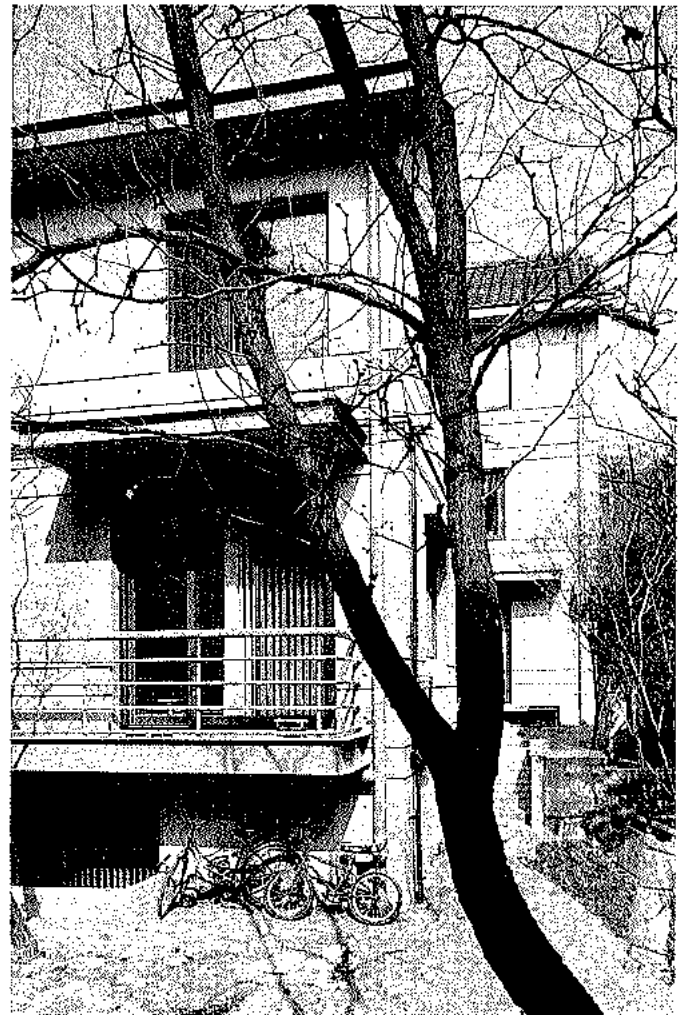
외부마감 / 벽-노출콘크리트+드라이브
 지방-가외장기
 주차대수 / 3대
 조경면적 / 93.79㎡
 설계담당 / 손형봉, 김영재
 Location / 4-9, Wonseo-dong, Chongno-gu, Seoul
 District / Houses

Site Area / 400.79㎡
 Bldg. Area / 160.12㎡
 Gross Floor Area / 378.64㎡
 Bldg. Coverage Ratio / 39.95%
 Gross Floor Ratio / 78.60%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Wall-Exp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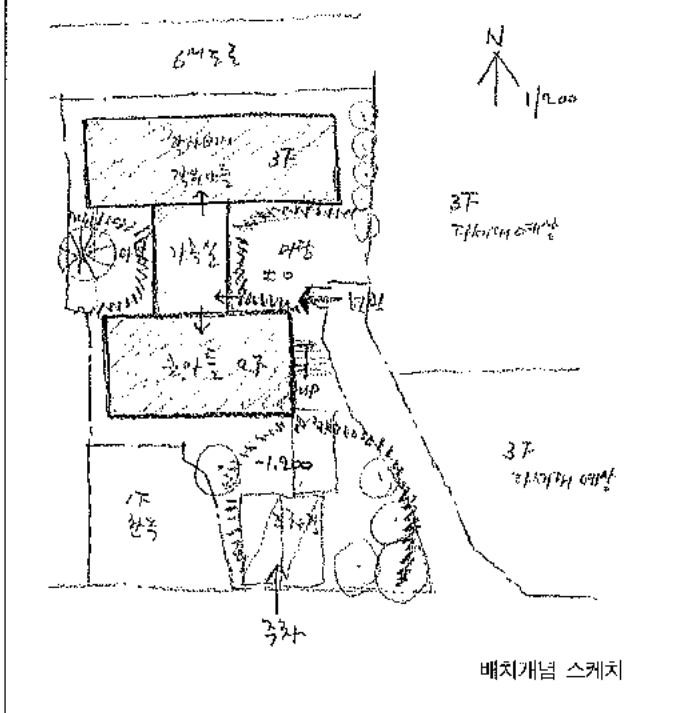
Concrete, Dryvit
 Roof-Tile Roofing
 Parking / 3 Cars
 Landscaping Area / 93.79㎡
 Project Team / Son Hyeon-Bong,
 Kim Young-Cha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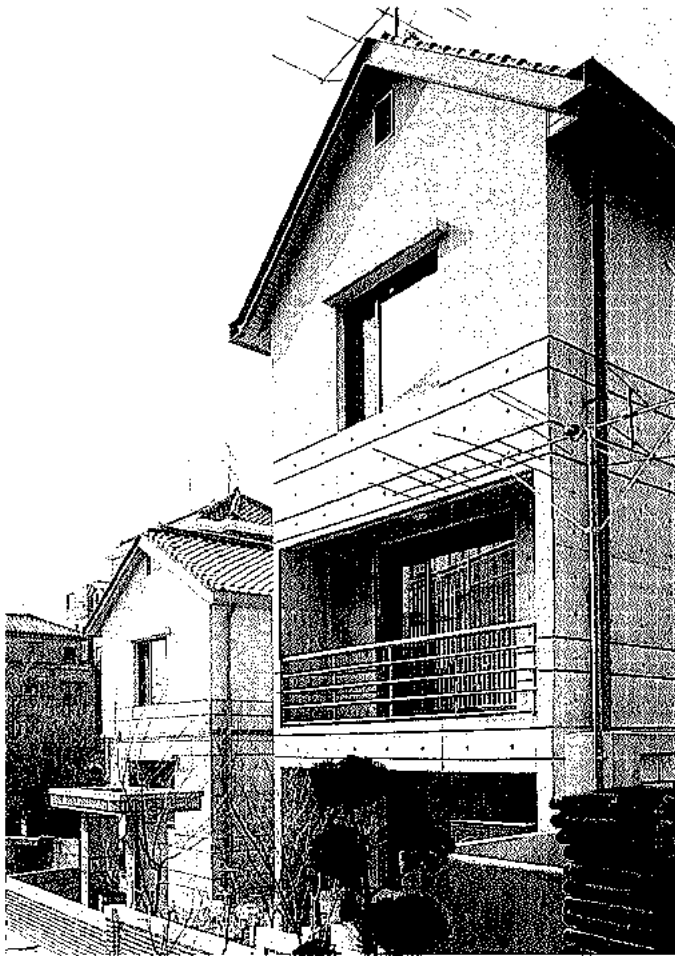
남측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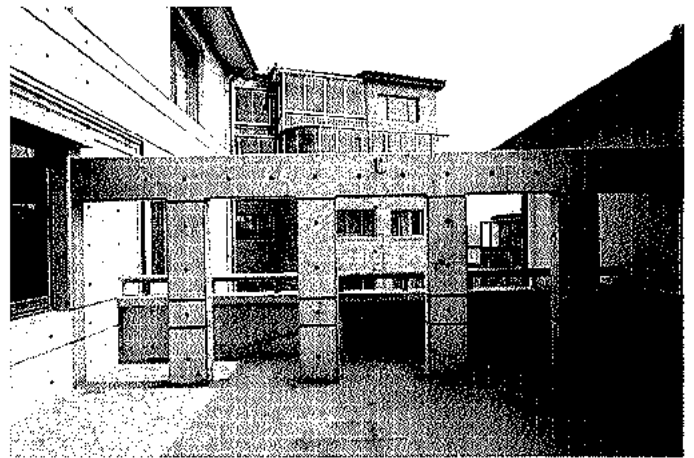
배치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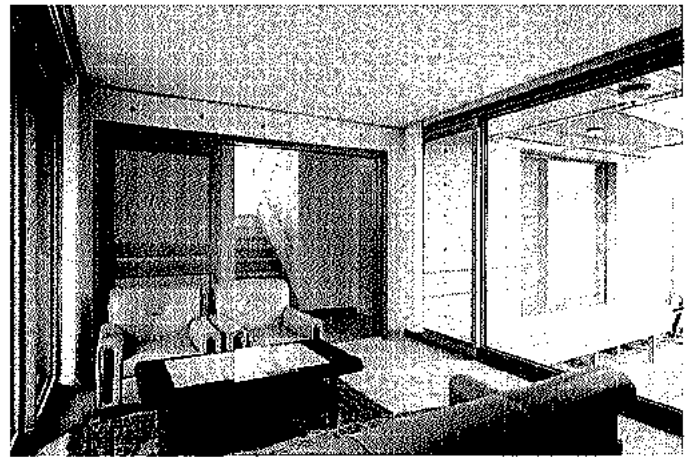
동측에서 본 가족실 전경



북동측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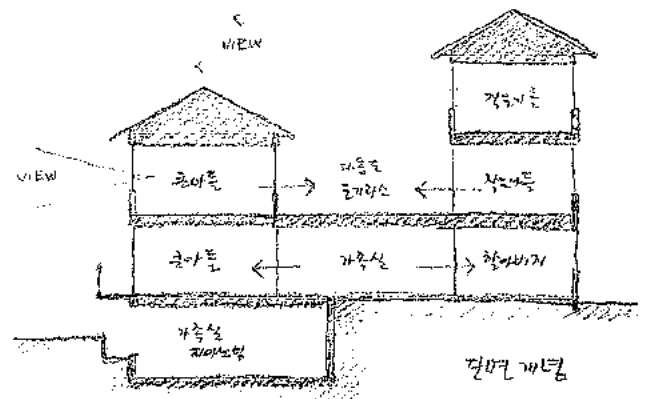
가족실위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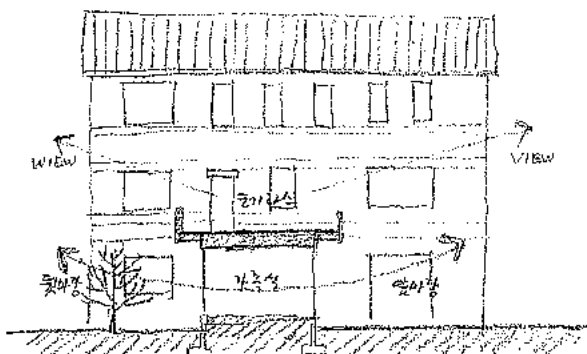
가족실에서 본 계단실과 텃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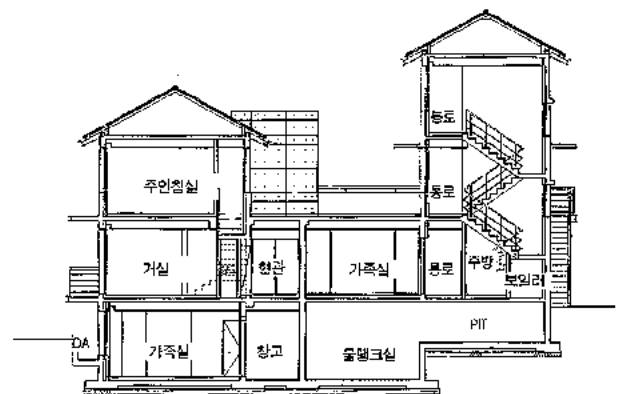
동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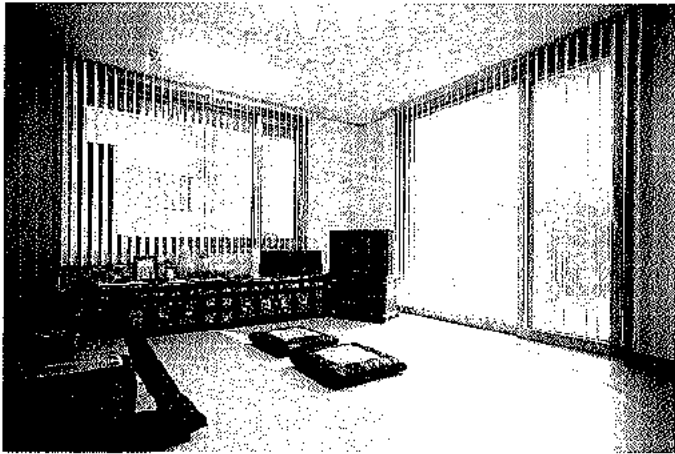
단면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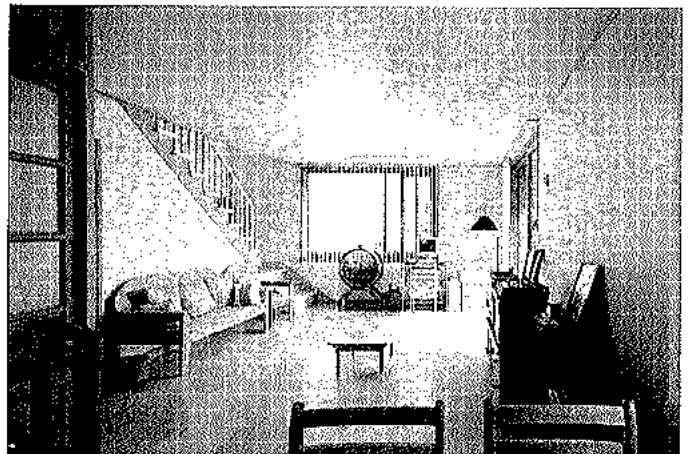
입면 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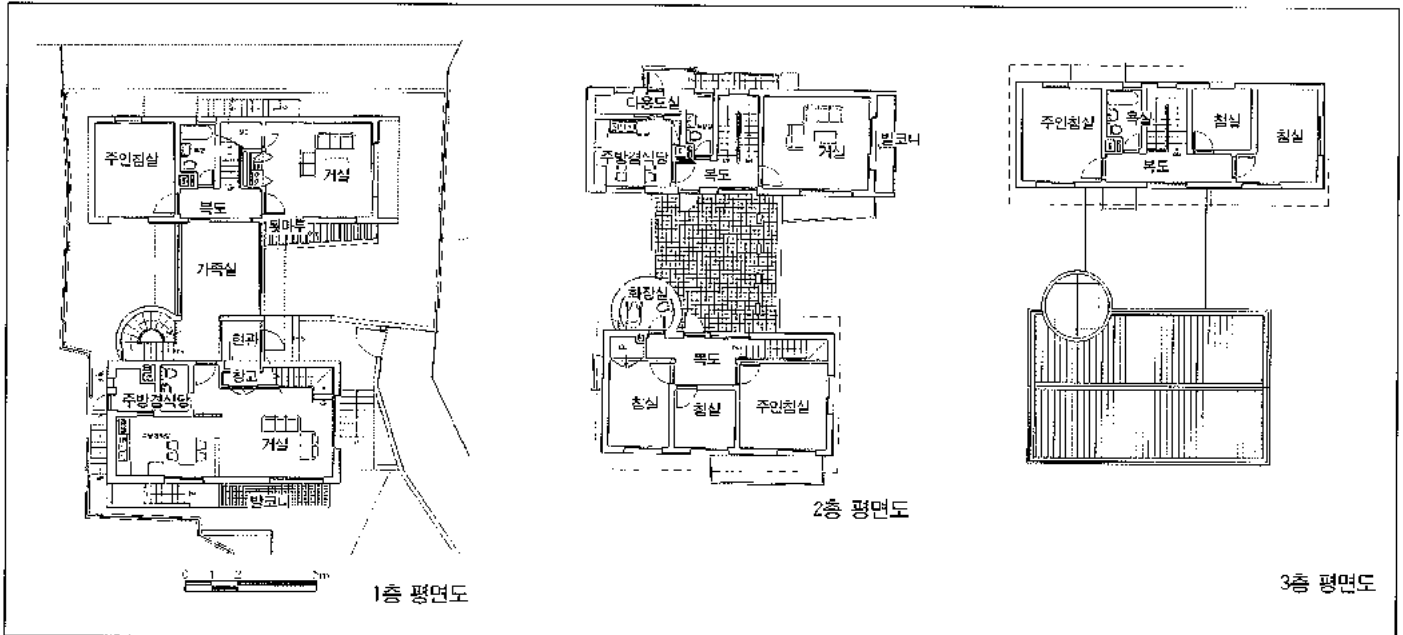
종단면도



주출입구쪽을 본 1층 거실 내부



주방쪽에서 본 거실 내부



91년 여름 수 명의 건축가들에 의하여 가회동 11번지 주거계획이 발표되었던 것을 관심있는 건축인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때 참여했던 건축가들은 가회동 일대의 모습을 안정된 주거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가이드라인으로 주거계획안들을 제시하였었다. 그 후 오랜시간이 흘러 94년 봄에 지금의 원서동 대지 답사차 현장에 왔을 때 현장과 불과 100여미터 떨어져있는 가회동 11번지에 신축되어 있는 다세대 건물들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 때 참여했던 건축가들의 노력의 흔적은 어느 한군데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떠돌았던 대지에 저 정도의 건물이 들어설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 다세대 건물들은 앞으로 가회동과 원서동 일대의 모든 한옥들이 철거후 신축되어 질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거환경은 수익만을 앞세운 부동산업자들에 의하여 철저하게 파괴되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서동주택은 할아버지인 건축주가 수십년간을 살아온 대지에 두 아들가족들과 노후를 같이 보내기위한 3대 동거주택으로 계획되었다.

건축주의 요구조건은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고 가족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것과 최

소한의 면적으로 따뜻하며 비원쪽의 전망이 좋아야하고 기존 대지내의 오래된 수목이 보존되기를 원하였다.

장소에 대한 과거의 흔적은 삶의 흔적이며, 그 흔적은 집주인의 추억으로 남는다는 생각하에 마당을 두고 "ㄷ"자로 배치되었던 과거의 흔적을 되살리는 배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집은 2동으로 하여 앞동은 2층으로 큰 아들가족이 살고 뒷동은 3층으로 1층은 할아버지부부, 2·3층은 작은 아들가족이 사는것으로 하였다. 당초 3층은 비원이 보이는 전망으로 할아버지가 사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장래 다세대 주택이 들어설 경우 조망이 없어지는 것과 노인부부가 3층에 사는 것은 보행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1층으로 할아버지 거실과 인방이 위치하게 되었다. 1층에는 가족실을 두어 앞동과 뒷동을 연결시키며 한옥에서의 대청마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가구가 현관을 따로 둘 경우 편리성도 있지만 현관을 한군데로 두고 가족실을 통하게 함으로써 자주 얼굴을 보며 만날 수 있으므로 가족끼리의 유대감이 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실과 할아버지 거실에는 툇마루를 두어 마당과 직접 연결되게 하고 가족실 상부의 테라스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외부공간으로 보았다.

외장재는 무채색인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주변 한옥의 흰벽과 지붕위의 한식기와들과 어울리도록 하였다. 지붕의 기와는 당초 한식기와를 엮을 생각을 했으나 유지 관리의 문제로 균청색 오지기와를 엮기로 하였다.

1년 가까운 공사기간동안 당초 예상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주변의 한옥들은 철거되고 4층 규모의 다세대, 다가구 건물이 완공되면서 다세대 주택으로 완전히 포위당하는 꼴이되고 말았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이나 지금과 같이 수익만을 앞세운 부동산업자와 한옥에서의 불편함으로부터의 탈출을 염원하는 당주민과의 합의는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도로는 넓어졌으나 주차장이 태부족인 기존한옥과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주차문제로 이미 주차정화되어 있는 도로는 더이상 차가 다니기 어려우며 주거연구과밀로 인하여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개악될 뿐이다. 이제 주민이나 개발업자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가회동 11번지의 주거계획들을 기억해내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것 같다.

신탄진역사

Shintanjin Station

서진철+장영생+이상행 / 해원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eo Jin-Cheol, Chang Young-Saeng & Lee Sang-Haeng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역 구내

연면적 / 20,117㎡

-역사 : 1,697㎡

-백화점 : 17,811㎡

-자유통로 : 609㎡

주차대수 / 400대

Location / Shintanjin, Taedeok-gu, Taejeon-shi

Gross Floor Area / 20,117㎡

- Station House : 1,697㎡

- Department : 17,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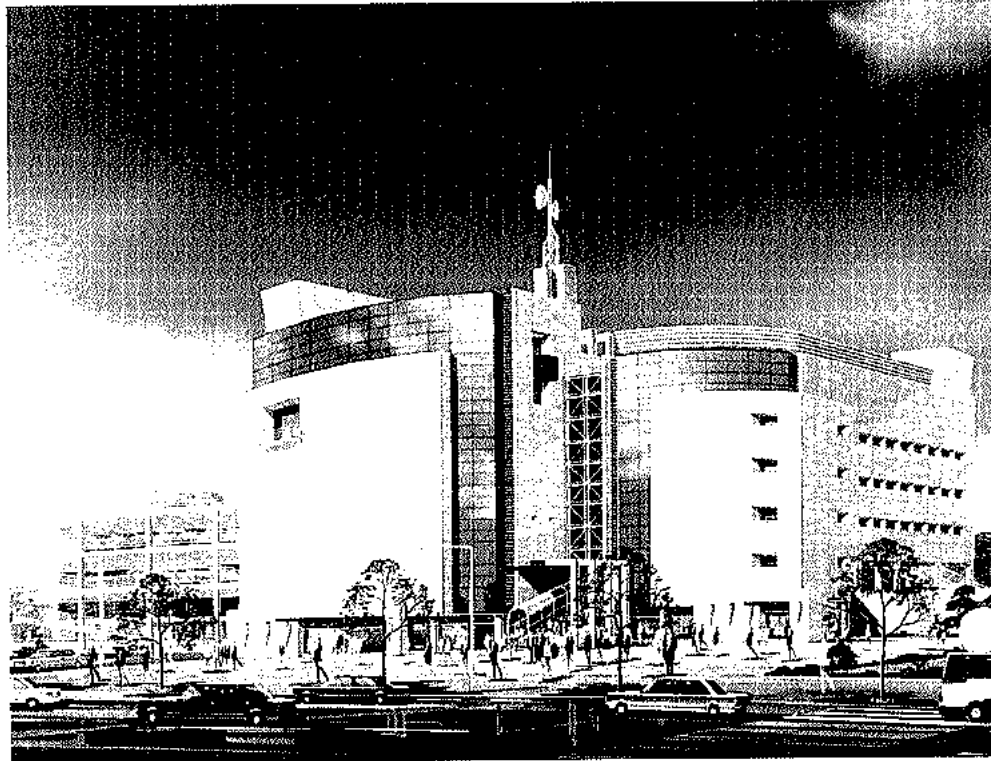
- Passage : 609㎡

Parking / 400 C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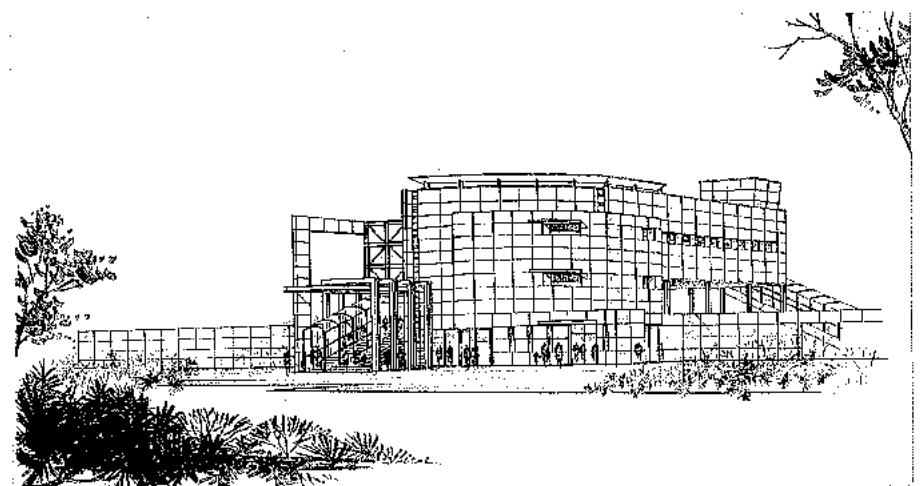
신탄진 역사는 대전광역시의 도시집중형 단핵구조에서 탈피, 도시 다핵화 발전 계획에 따라 신탄진 방향으로 도시개발 축을 설정하여 대전광역시의 광역 역세권 유입 및 유도를 전제로 제1차 역사 제2차 민자유치 복합기능 역사로 계획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제1차 역사는 선상역사로 계획하여 기존 광장을 최대로 확보하고, 자유통로를 설치하여 선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낙후된 역 후면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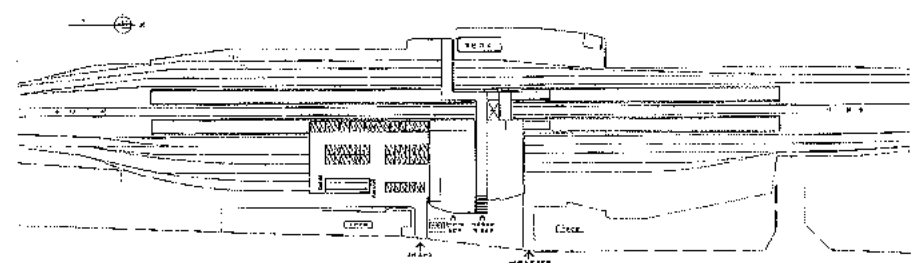
제2차 복합기능 역사는 상업시설, 스포츠 시설, 문화공간의 설치로 지역 주민과 역 이용객에 대한 각종 서비스 향상으로 기존 역사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복합기능 역사로서 전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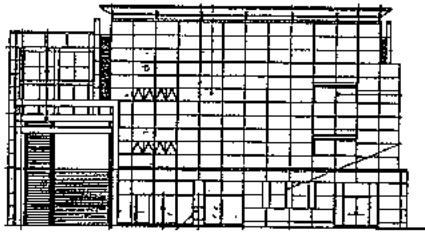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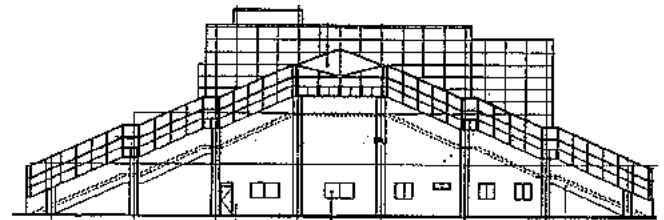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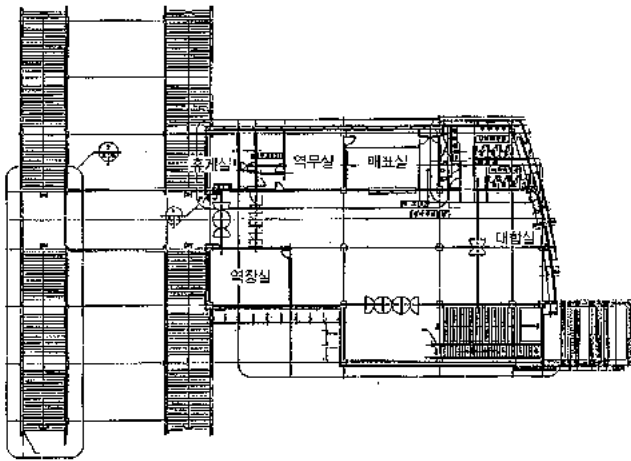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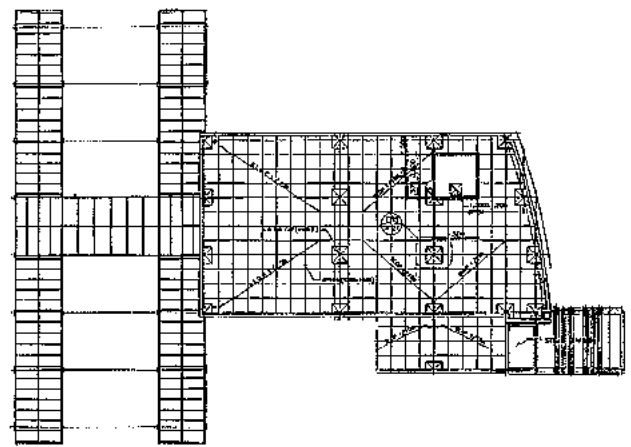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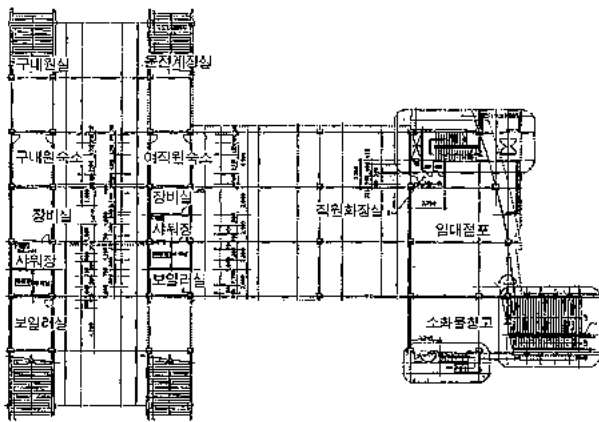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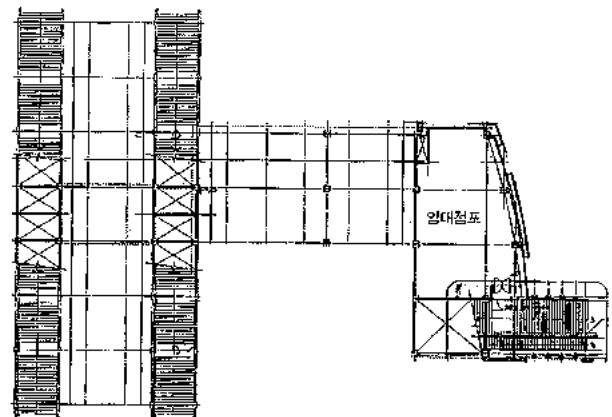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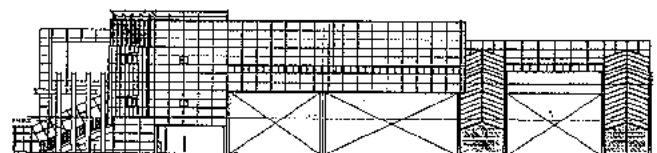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중2층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건축문화 유감

The Actual Phases of Our Architecture

유병우 / 씨엔유건축사사무소

by Yu Byung-Uh

우리나라의 건축문화가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근대화되기 이전까지 일반 주택의 주종을 이루던 원만한 초가지붕의 형태가 새마을운동으로 지붕을 스텔트로 교체하기 시작하면서 농촌 근대화를 외형적으로 성공리에 수행하는 관주도의 문화로 바뀌더니, 오랫동안 사용해온

건축자재인 목재가 방화의 염려가 있다는 법적인 근거로 배제되고 영구적이고 튼튼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벽돌로 대체되면서 조적조 주택으로 인위적인 시도가 되어왔다.

그후 조국 선진화의 상징으로 등장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주택보급률을 높인다는 미명아래 이제는 주거형태가 거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의 건축문화는 구조나 형태와 건축재료까지도 너무 관주도로 획일적인 변천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건축을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다 좋고 아름다운 집에서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예술성을 가미하려는 본질적인 욕구 때문이다. 또한 건축양식이 각 지역의 기후와 풍습에 따라서 독특한 입면을 형성하면서 건물의 외관이 변천하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색다른 주거 형태를 추구하면서 예술의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런데 최근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지방의 특성에 알맞은 건축문화의 형성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자유경쟁 시대에 동반하여 이상한 형태의 주변환경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얼마짜리 그림을 그릴까요?"라고 물으면, 건축주는 다음에 열거하는 열가지의 금액 중에 세개만 선택하여, 이를 합하여 셋으로 나눈 금액보다 조금 비싸게 그릴 수 있는 운 좋은 사람이나 만나자고 요구를 한다.

그리고 나서 수술대에 누운 환자가 요구를 한다. '이번 수술은 아프지 않게 하되, 빨리 상처가 아물어야 함은 물론이고 내가 제시한 이러

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수술을 하시오'라고, 도대체 왜 아파서 찾아왔는지 모르겠고, 얼마짜리 그림을 그려내야 할지 모르겠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축설계용역을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하면 안되므로, 일정한 규정에 의한 거래를 하라고 요구한 결과이다.

관공서에서 발주되는 건축설계용역에 품질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부터 민간공사의 발주도 이와 흡사한 형태의 발주가 서서히 시작하였다. 현상설계 경기도 아니고, 공개입찰도 아닌 두 형태의 특징만 선택하여 이것을 교묘히 절충하여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다. 가끔 사무소로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설계용역과 감리비의 최저 서비스 단가를 병행하여 제출하라는 피문서를 접하게 되고, 설계경기를 마치고 나서 발표 이전에 설계비를 경쟁시키려는 의도가 나뉘는 건축주의 의도에 휘말리기 쉽다. 시장경제의 순리에 따라 싸고 좋은 물건을 찾는 일반시장의 상거래와 똑같은 뿐이다.

모름지기 예술은 작가의 개성과 경륜에 따른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고, 그 작품에는 작가의 혼을 담아서 내어놓는다.

이러한 창작물을 금액으로 견주어 수주한다는 것 자체도 서글픈데 거기다가 추첨까지 하니, 무엇이 자유경쟁이고 공정한 행위인지 모르겠다.

몇 해전까지만 해도 건축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하면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참여자체를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한 도덕성이 규정에 따라 증발해 버리고 마치 미국의 서부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개척시대를 연상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는 입찰제도가 아닌 설계안의 공모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건축사 자신은 자기의 계획작품을 훌륭한 예술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한다.

또한 이러한 주변 여건을 형성하여 줄 책임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 있고, 이에따른 보답으로 우리는 경제성이 있고 편리한 공간을 구성하여 건축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개성이 존중되어, 건축사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건축을 지금의 우리사회는 요구하는데, 현재도는 이를 쉽사리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가 시작되면서 일부 발주자는 건축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반적인 기획능력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발주의 조짐이 시작되고, 기초단계에서 주위의 조력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하여 공사 준공시까지 틀린 계획표에 의한 무리한 진행을 강요하게 되고, 건축사 사무소는 자체 운영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건축사보의 확보 및 수급을 적절히 탄력성을 두어야 경영이 가능한 지경이다.

결국 잿빛 구름 가득한 하늘을 쳐다보고 천운을 기대하는 방법이 최선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관주도의 건축문화 형성과정이 초기에는 지붕의 재료에서 시작하여 형태를 바꾸었고, 건물의 구조체를 가구식에서 조적조로 바꾸어 놓았고, 이제는 발주방법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질적인 저하를 유도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건축물의 계획은 경제성을 수반하기에 설계의 수주과정에서 질적인 문제는 거의 결정되고, 관에서 발주하는 형식을 따라서 자연히 민간공사로 그 방법이 유입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 압박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지금 우리 주위에 새로이 지어지고 있는 공공시설 등 많은 건물을 바라볼 때, 일정한 디테일로 국적이 없는 건축을 자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를 보편화시키고, 창작성이 규격화되고 있음이, 오늘을 사는 건축인으로 바라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

1. 손기찬과 사고로서의 건축

그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언어의 건축가이다. 말하자면, 건축 행위에 선행되는 사고과정에서 도출되는 개념언어와 공간과 형태 등 구체적인 건축작품으로 표현되는 형상언어라는, 이 두가지 언어의 활용에서 그는 논리성과 표현성 모두를 겸비한 건축가라는 뜻이다. 깊은 사고나 반성없이 어떠한 건축 사조(Ism)라는 시류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논리와 실체가 부합되지 못하는 관념적인 공간이나 구조체들을 생산하는 건축가들이 있다면, 또 한편에서는 매일 매일 다양하게 쏟아지는 외국의 그림책들(현란한 건축 잡지들)에 나오는 멋진 입면들의 조

각 조각들을 교묘하게 뜯어 맞추고 거기에 아름다운 채색(유행하는 파스텔 색조로)을 첨가하며 의기양양해 하는 건축가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손기찬 그는, 오히려 그 어떠한 건축 사조(Ism)들에도 냉담하다. 관념론적 발상난에 자기 농락을 당하거나, 입면 형태만의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미화(Instant Heautification)라는 걸치레의 화장술에 휘말리지도 않으며 사고로서의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

사고로서의 그의 건축은 논리를 수반하지만, 그러나 차거운 논리나,

첨단화된 서구의 건축적 논리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도 않는다. 즉 문화성과 장소성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 오히려, 보편적인 시대적 논리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의 확고한 태도는 서구적 텍스트(Text)에만 맹목적으로 충직한 기능주의 신봉자를 오히려 경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그를 인문주의적 합리주의자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현재 행하고 있는 작업들은 서구적 모더니스트의 그것들과 유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다른 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오히려 그를 동양적 사고로 무장된 모더니스트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거주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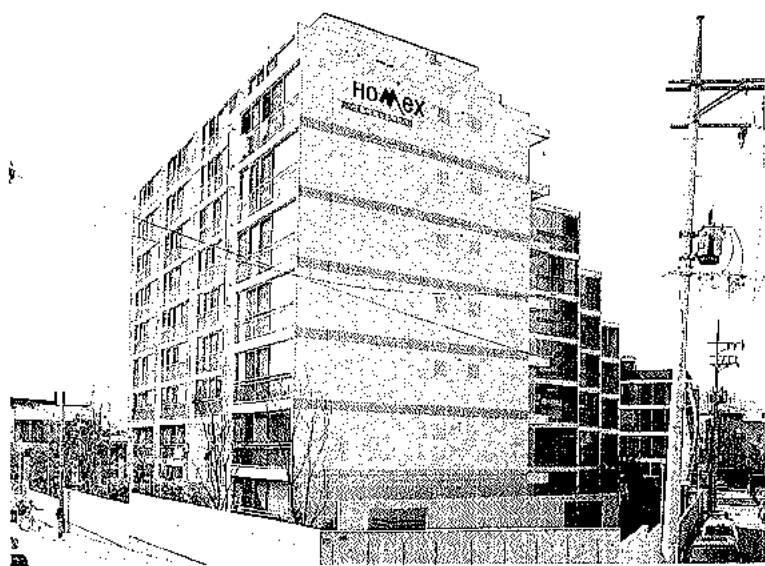
A New Attempt for the Livability in Apartment Housing

손기찬의 봉천동 아파트의 경우

Case of Pongcheon-dong Apt. by Architect Son

이영철 / 프랑스 국립 그르노블 건축대학 보스트 디브로미, 건축 역사·비평가
by Lee Young-chul

본지 6월호(통권 326)에 게재된 회원작품 「봉천동 아파트(설계: 손기찬)」는 기존의 획일화된 공동주택 설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작품을 재조명해 보면서 우리네 공동주택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새롭게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봉천동 아파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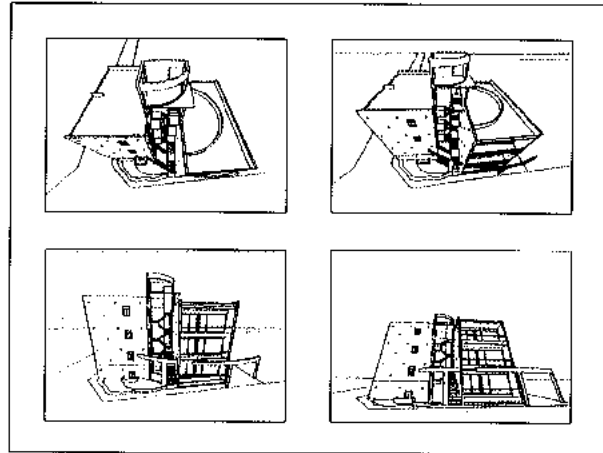
2. 건축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그는 누구 못지않게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한다. 전공 분야의 책은 물론 문학, 미학 그리고 사회학 등 다양한 방면의 책을 탐닉한다.

특히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기술된 건축학의 독서는 그의 각별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바람직한 건축 행위가 개인적 사고의 반영인 개념언어의 수립에서 시작하여 그의 구체적인 표출인 조형언어로의 구체화 작업이라는 점에서 문화 및 사회학적인 방면을 선호하는 그의 독서 경향에서 우리는 그가 지향하고자 하는 건축적 사고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이미 그 자신이 문명적이라기 보다는 문화적인 차원의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건축의 문명화를 그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에 있어서 문명의 차원은 시대성의 귀결이지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이며, 더 나아가서 그러한 도구는 인간의 문화적 요인들(인간과 인간 관계나, 인간과 장소 및 사회성의 관계 등)에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화성에 대한 건축적 탐구와 그의 문명화와의 접목을 위한 시도 과정에서, 그는 우리의 전통의 그것들을 참조하고자 하지만, 그의 전통에 관한 관심사는 회귀적이거나 복고취향의 형식주의적인 “퇴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의 태도는 문화 인류학적이며, 물리적 차원의 건축을 넘어서 인간들의 교감의 장으로서의 건축 공간 그 속의 문제에서 해답을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이는 그가 거론하는 노자나 장자의 자연 철학관의 몇 대목들과 아모스 라 포포트의 「주거 형태와 문화」에 나오는 구절들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네가 읽는 책들을 열거해 준다면, 네가 어떠한 사람이란 것을 말해 보겠다(Dis moi ce que tu lis, je te dirais que tu es)”라는 상송의 한 구절처럼, 우리 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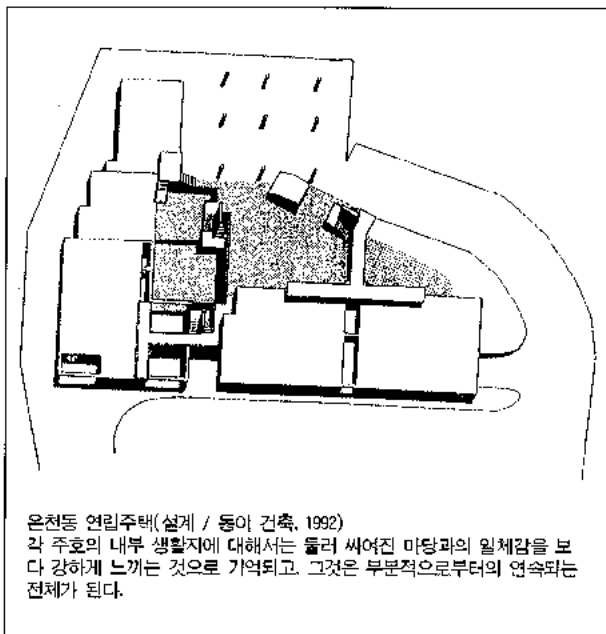
(그림2) 성산동 다세대 주택의 AXONOMETRIC(1995년 9월)

탐독서를 통하여 그 자신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의 건축 수필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그의 건축적 고뇌와 사고 및 개념들을 간파해 볼 수 있다.

3. 도시화와 주거성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시주거, 들여다보기·내다보기」(미전사, 1995)에 실렸던 그의 건축 수필 「외부공간의 회복—조용 공간(Correspondence Space)」(pp.83~93)의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도시, 주거 및 거주자들이라는 삼각관계에 대한 그 자신의 문제의식과 가능한 해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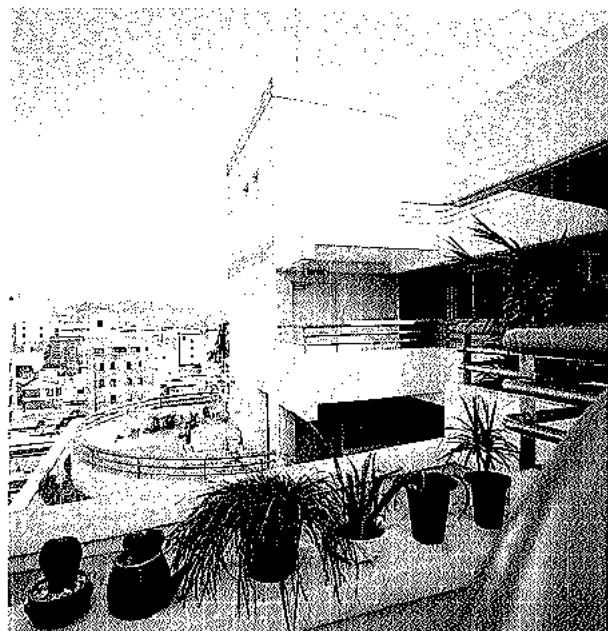
급속한 도시화/주거 문제의 양적 해결이라는 내안에서 파급된 “저렴한 기술적 해결에 의한 (공동주거의) 대량생산”, “경제성에 뒤따른 입면의 단조로움”,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의 난무(도심이건 시골의 논 한 가운데이건)”, “표준 평면의 획일적 적용”, “패턴화한 배치” 등 도시 주거 문제들(이미 우리 모두에게 기정사실화된 문제점들이지만)을 거론하면서, 그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동주거의 입면 형태상의 개선이나 단지 배치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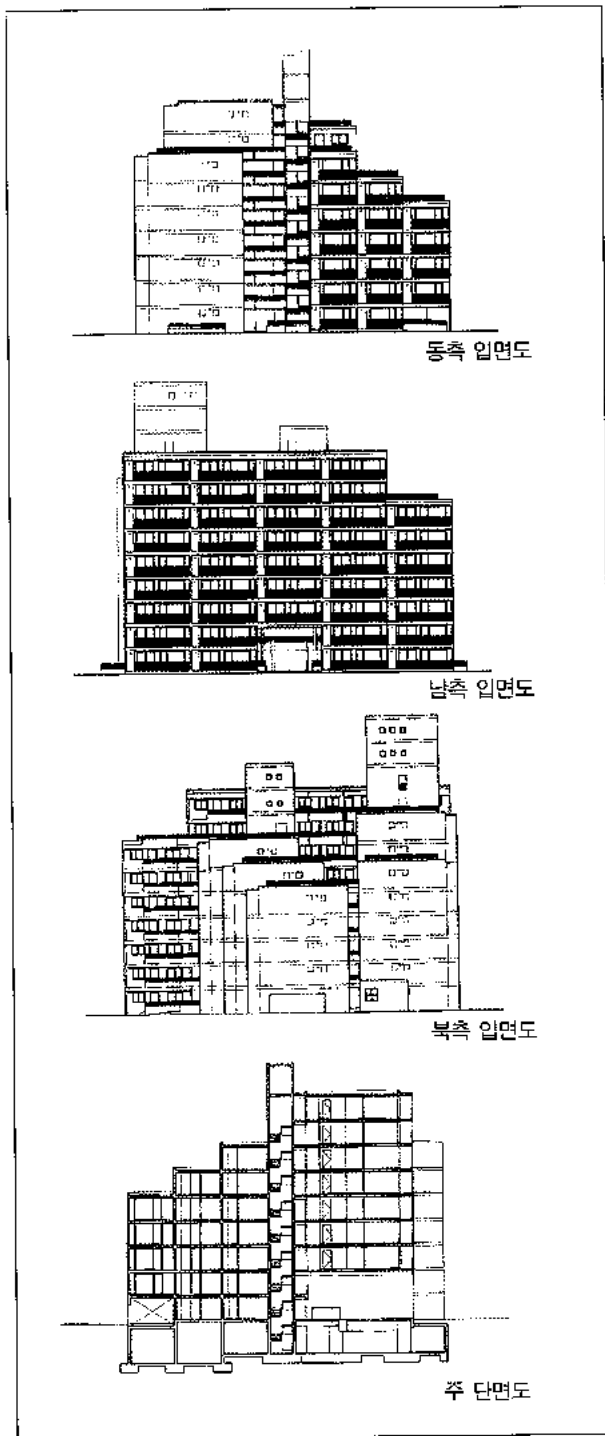
운천동 연립주택(설계 / 동아 건축, 1992)

각 주호의 내부 생활지에 대해서는 둘러 싸여진 마당과의 일체감을 보다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기억되고, 그것은 부분적으로부터의 연속되는 전체가 된다.

(그림1) 부산 운천동 연립주택 계획안(1993)



봉천동아파트 북측 상층부의 오픈된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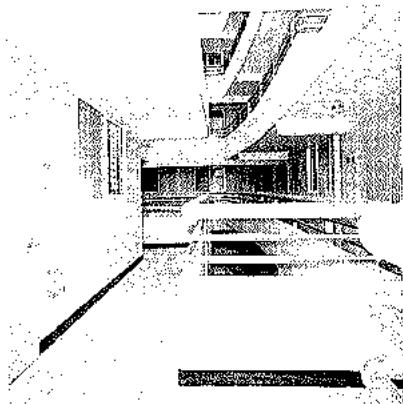
봉천동 아파트

만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향성의 배치 그 자체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음을 우린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의 해법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 즉 인간의 삶의 장소인 도시 만들가라는 사회성으로 문제의식을 되돌려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들을 건축주의 반성 및 건축가의 재고 검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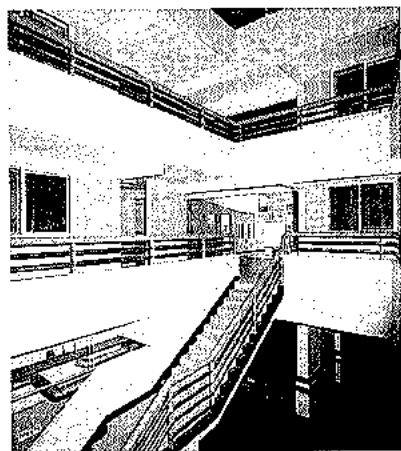
그가 지적하는 주거에 대한 "사용가치의 무시"와 "교환가치의 증대"라는 문제점은 주거 생산의 후원자인 건축주의 윤리성과 직결되는 사회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은 건축주=거주자라는 고전적 등식에서 건축주=비사용자라는 산업화·자본화의 등식으로 대체된 현상에서 야기된 필요악이라고 방관하거나 개념해 버리기에 앞서, 주거(House)=가정(Home)이라는 원초적인 성역의 개념에서 근절되어야 할 (서구 유럽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왜곡된 주거의식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이러한 잘못된 주거의식에서 파생된 공간의 과도한 "소유관계"들로 점철된 우리의 근대화의 역사는 "철저히 사유화된 내부공간만 존재하고, 도시에 산다는 것은 주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환경(공간적, 대인적)에 어우러져 산다는 집단주택의 가치를 망각하게끔 되어진" 산업사회 현상속에서의 도시적 이기주의 현상이라는 사회성의 결여를 암시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의 산업화된 도시가 안고 있는 도시풍의 회복(Recuperation of Urbanity)이라는 대전제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관점은 사회성 회복으로서의 거주공간의 창조이며, 이러한 과제가 건축 입면형태의 도시적 미화라는 서정적 차원에서의 건축행위를 선행한다는 그의 신념체계이다. 즉 그가 자주 인용하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아무리 써도 부서지거나 닳지 않는다"로 표현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 절실한 공간이라는 요소의 구성 문제가 그의 주거창조의 중심과제로서 등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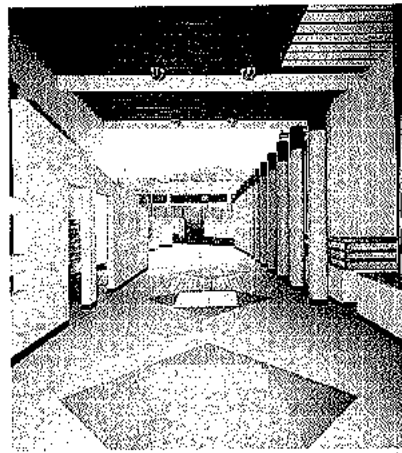
이러한 공간의 문제 또한 텍스트(Text)적 기능주의의 물리적 행태 공간의 답습이 아닌, 도시의 거주공간에서 사회성의 회복이라는 윤리를 바탕으로한 "공간의 공유화", "이웃과 이웃간의 커뮤니티 회복", "흐름의 연속체로서의 통로", "주거의 안과 밖의 시각적 연결" 등 문화



광장내부 북도



광장에서 본, 1층 피로티에서 직접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주변



피로티 내부에서 주출입구쪽을 본 모습

인류학적이며 사회적 심리학적 기능성의 개념 요소들의 건축적 적용이라는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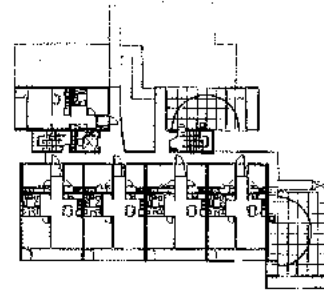
“사회적 동물로 정의된 도시의 인간에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주택이든 카페이든 목욕탕이든 거리든 그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의 교훈을 소중하게 여기는 손기찬에게 있어서 건축의 물리적 기능은 이미 기술적 선행 조건일 뿐, 그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그러한 분명적 차원의 바탕위에 사회적 및 문화적인 차원을 건축, 특히 도시 속의 거주공간 속에,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 속에 “나홀로 생활을 강요 당하게 하는” 우리 공동주거 내의 폐쇄된 거주 환경의 개인화된 부정적 거주성(Livability)이라는 자폐적인 벽체들을 하나 하나씩 해체시키려는 열망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집짓기”를 하나씩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4. 봉천동 아파트 혹은 거주성의 회복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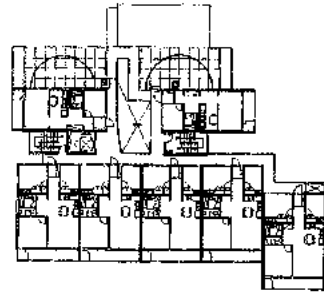
공동주거 내에서의 거주성(Livability)은, 각 주호내의 물리적·심리적인 기능성의 확보만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단위 주거동 내의 여러 세대들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주거로써의 건축적인 정체성(Identity), 함께하는 소속감(Sense of Belonging), 대화하고 어우러지는 사회성(Sociability) 등에서 맺어지는 공동체(Community) 의식을 통하여 확보되며, 그러한 의식이나 행태들은 건축적 공간 내·외부의 다양한 장소를 통하여 가능해지고 활성화된다.

손기찬은 이러한 개념을 “더불어 사는 집”의 의미로 해석하면서, 그 거주성의 뿌리를, 우리 옛 마을에서의 “이웃과의 삶”과 “어우러진 공간들” 속에서 꼬집어내고 있다. 나즈막한 담장을 통하여 시선을 주고 받고, 대화하며, 물건과 정들을 주고 받는 행태, 골목길과 공동마당을 지나치면서의 부딪치고 만나면서 맺어지는 친숙한 관계 맺음 등등... 이러한 문화적인 거주개념들을 그는 일련의 근작들 속에 재해석하면서 도입·발전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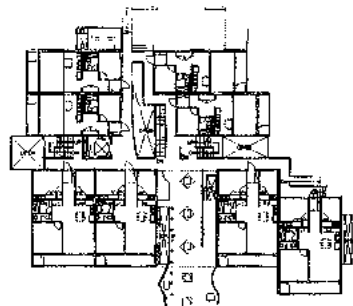
1993년의 부산 온천동 연립주택 계획안(그림 1)에서부터 건축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더불어 사는 집으로써의 거주성”이란 그의 해법은 1995년 9월에 완공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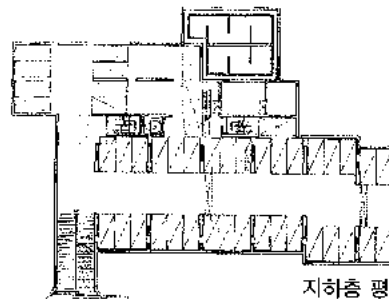
8층 평면도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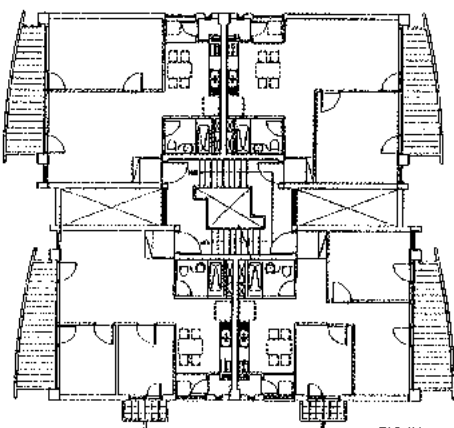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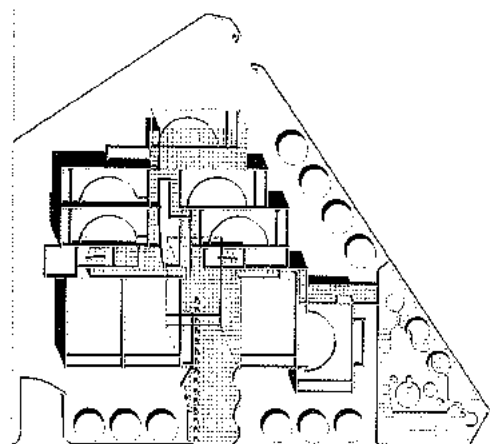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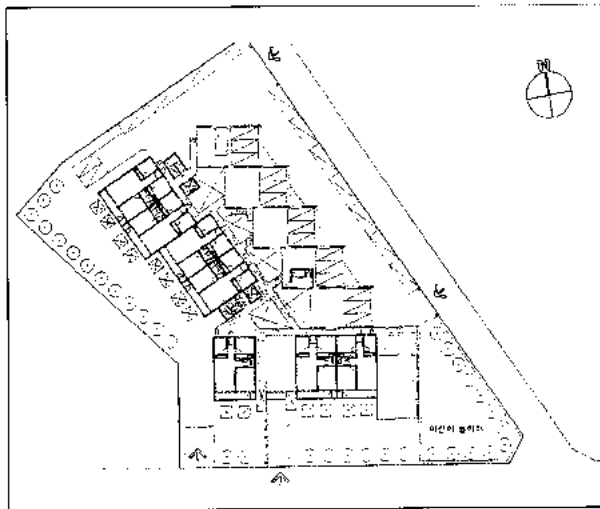
봉천동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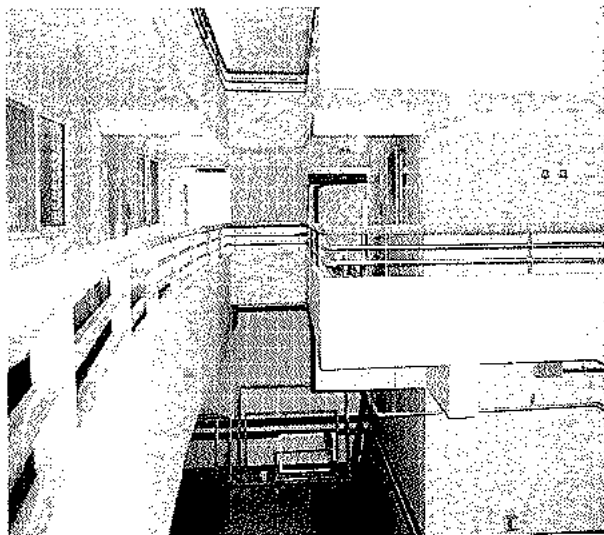
(그림3) 연리동 연립주택 기중층 평면도



(그림4) 봉천동 아파트 배치도



(그림5) 봉천동 아파트 초기계획안(1993년)



(그림6) 중앙광장과 광장의 주위를 감돌면서 이어지는 통로공간의 일부

성산동 다세대 주택(그림 2), 1995년 10월 완공된 연리동 연립주택(그림 3)에서 그러한 개념의 긍정성을 재확인하였다. 성산동 다세대 주택의 경우, 두 개 주거동을 분리하고 접속하면서 도시의 경관을 관통하는 개방된 계단실이 각 주호의 주 출입구인 현관을 부지 도로 경계에 위치한 공유대문(암갈색의 철골가벽)으로 끼치는 유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주거영역과 도시영역 사이의 경계를 심리적으로 분리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연리동 연립주택에서는, 두 개의 계단실을 개방된 중앙 광정(光庭) 양측에 배치시키므로써 층과 층사이를 오르내리는 거주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부딪침과 만남의 필연적인 관계가 빛이 흘러내리는 밝음 속에서 쾌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나홀로 집” 속으로의 자폐성을 스스로가 절제시키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 속에 그는 1995년 12월의 봉천동 아파트(그림 4)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장소의 한 특질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봉천동 아파트의 초기 계획(1993년)은 현재 완공된 주거단지(72세대) 뒷편의 계획부지까지 포함한 88세대 중산층 평형의 설계 작업이었지만, 이는 뒷편 부지 주민들의 거부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한 초기안(그림 5)에서도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잘 엿볼 수 있다. 초기안에서도 현재의 완공된 주거안에서도 그는 클러스터(Cluster)형을 단지 배치 형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클러스터형 배치에 대한 그의 선호는, “단순한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배치가 아니라, 그 곳을 지나고 싶은 기분을 만들어 어느 공간에서 다음 공간에 이르는 사이가 레벨이 달라지는 시퀀스에 의해 그 주거의 거주자에게 다양성과 놀라움...(중략)... 다른 장소 그 곳이 어떻게 다른가 따위에 대한 감각을 부여하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외부공간 회복—조용공간)”라는 그의 말처럼, 기존 일자형(—字形) 평행 배치의 확실성에 반하여 어떠한 변화를 주기위한 단순한 다양성을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다. 초기 계획안의 클러스터 내부를 연결하는 확장된 입구 광장, 중심 광정(光庭) 그리고 상대적으로 길게 뻗고 가지치기로 연결된 주요 통로들의 연계성은 “동구—마을의 공동마당—담장 사이의 골목길”로 연결되는 전통적인 우리 마을의 시퀀스 감각을 빌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러스터가 축소된 현재의 봉천동 아파트에서도 그러한 개념이 구사되고 있으나, 구심화된 배치상의 이유로 내부의 통로(골목길)가 하늘까지 개방된 중앙 광정(마을 공동마당)을 감돌면서 이어진다는(그림 6) 점이 다를 뿐이다. 2개층을 대담하고 시원스럽게 뚫어놓는 주거단지의 입구에는 가(假) 열주틀(그림 7) 배치시키므로써, 시각적으로 “그 곳을 지나가고 싶은 기분”을 촉발하면, 내부에서 외부로의 연속적인 동선을 자발적으로 유도 당하게 한다.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수평적인 신체적 시퀀스(Corporeal Sequence)는, 또 다시 내부의 중앙 광정의 주위를 따라 지하층의 열린 주차장에서 상부의 최상층까지 시각적 시퀀스(Visual Sequence)에 의하여 수직적으로 급상승하다가, 열린 하늘 공간에서 멈추게 된다. 봉천동 아파트에서 시도되는 신체적·시각적 시퀀스의 효과는 단순한 흐름 체계의 연속성 부여에 있지 않다. 요점은 그러한 흐름 체계를 통하여 거주자의 신체와 신체들이 부딪치고 만나며, 시선과 시선이 스치고 마주보는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소속감”과 “눈길을 나눌 수 있다는 사회성”등을 암시시키고 싹터가게 한다는 점이다.

광정과 그 주변 통로공간이 이루고 있는 봉천동 아파트의 내부의 공유공간은 구심적이면서 원심적으로 확산하려는 공간이며, 닫혀져 있으면서도 솟아오르려는 열려진 공간이다. 주호동 사이로 떨어진 동·서·북 방향의 틈새 공간사이로 도시의 바람이 들어오고 거주자의 시각은 밖의 경관을 따라서 도시의 저멀리까지 펼쳐진다면, 비와 눈이 떨어지는 열린 중앙광정을 따라 시선은 별빛과 달빛을 향하여 뻗어나간다(그림 8). 도시와 건축의 내부공간은 수평과 수직으로 연결되고 상호 교호되면서 서로가 조응한다. 외부영역과 내부영역, 집지역과 하늘영역이 상호간에 침투하며 투과시키고, 끌어들이고 잡아당기면서 서로 교호하고 교감하는 것이, 손기찬 그가 연출하고자 한 공간의 조응(Correspondance)이다.

봉천동 아파트의 내부광정은 하나의 마을공간이자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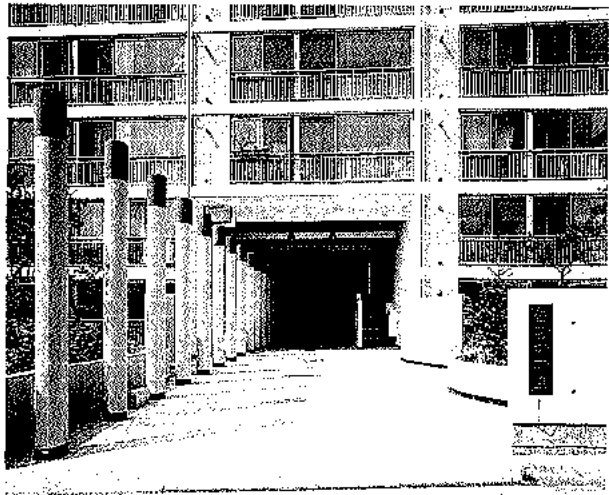
으로 뒤집혀진 도시적인 적극적인 사회적 영역으로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의 장소이다. 스치고 부딪치고 만나는 열려진 도시속의 열려진 한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성 속에서 거주자들은 도시 사회와의 동질성과 정체성(Identity)를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적 거주성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5. 도시 공동주거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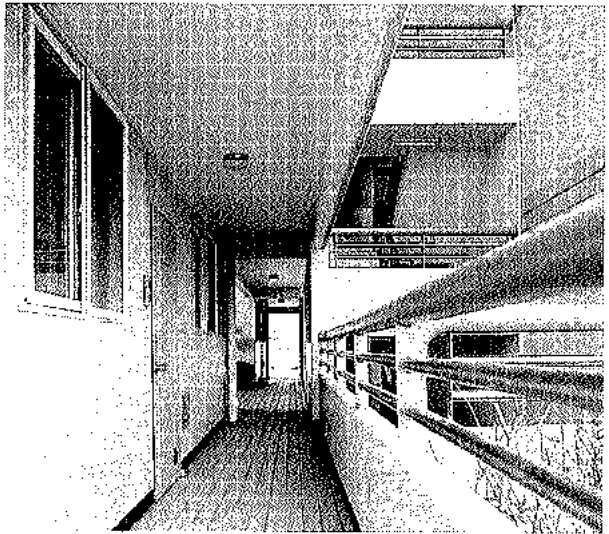
공해와 각종 산업기계의 소음에 찌든 현대인에게 푸르른 자연과 맑은 대기가 기다리는 전원주택이라는 유혹이 유행병처럼 급작스럽게 번져가는 요즈음이지만, 이는 일부 가능한 계층에 한정된 환상일 뿐, 과밀인구가 한정된 토지 내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도시인들에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거는 거부할 수 없는 주거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강북 인구의 40%와 강남 인구의 70%가 그러한 산업화의 부산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공동주거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어쩔 수 없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주거의 유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때론 숨가쁘게 허덕이며 시간에 쫓겨야만 하는 도시의 일상인에게는 여러가지 잡다한 유지 관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라는 공동주거는 단독주거에 비해 오히려 매력적일 수도 있으며, 그러한 신호도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공동주거란 그 시원부터 문자 그대로 대지의 평등한 분배라는 공개념과 그러한 대지위에 세워진 집합주거내에서 물리적으로 편리하고 정신적으로 화합하는 도시 공동체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유토피아적인 거주성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였지만 우리의 공동주거의 현상은 것처럼 긍정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무수한 외적·내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음이 이미 앞에서 지적된 바 있다.

공동주거의 건축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 요인들은 물리적 기능 요소 분석 및 적용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비롯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건축의 기능이 텍스트(특히 건축설계 자료집성의 축소판에 해당하는 소위 건축계획 각론에만 의존하는 경우)를 신봉하는 오늘날의 건축가들이 생각하듯이 신체적인 행동규범에 따른 물리적인 공간의 양적 기능만을 의미하거나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능적 기준들(Criteria)이란 보편적인 기준일 뿐 어떠한 특수 상황(장소, 인간, 문화성 등)을 배제한 최적 규범일 뿐이다. 이런 경우에서의 최적이란 최소 범위라는 축소지향성의 물리적 한계상황에서 제시된 보편적 적정성일 뿐 어떠한 장소, 인간, 나아가서는 문화라는 특수적 상황에 대응될 수 있는 개연적이며 포괄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특히 거주공간의 해체 풀이에 있어서, 이러한 단색적 사고에 의한 분석·종합의 부정적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 도시의 공동주거의 위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물리적 기능으로 충족되는 문명적인 거주공간에 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특질들이 건축적 공간, 형태 등에 부여되고 연출될 때, 우리의 공동주



(그림7) 입구의 가(假) 기둥들 : 노랑과 빨강색으로 산뜻하게 칠해진 열주들이 진입시에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내부공간으로 유도하기 시작한다.



(그림8) 공장에 접한 통로의 저쪽 끝에 펼쳐진 의도적인 틈새를 통하여 거주자의 시선은 도시의 밖으로 향하고 도시의 경관은 아파트 내부로 침투한다. 이러한 틈새가 다른 3면에 계획되었다.

거는 보다 나은 거주성이 보장되며 쾌적한 삶의 장소로서의 그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손기찬의 “더불어 사는 집짓기”라는 거주성의 개념은 “은신처의 제공이 주거의 소극적 기능이라면, 그 적극적인 목적은 한 인간의 생활에 적합한 환경, 다시 말하면 공간의 사회적 단위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 문화·인류학적 주거관에서 그의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봉천동 아파트에서의 그의 시도는, 우리 공동주거내의 부정적인 현상의 하나인 주호내로의 폐쇄성과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화라는 부정적 경향에 대한 시술책으로, 우리의 잊혀져가는 마을의 일상성 속에서 추출한 문화적 한 개념을 주거공간 창조에 도입·구체화하였다.

그는 공동주거 내의 공유공간 계획을 통하여 제시한 “더불어 사는 집”이라는 거주성의 새로운 해법은, 내일의 우리 공동주거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영원히 볼 때,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케이스 스터디의 하나로서 그의 의의는 축소될 수 없으리라 믿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브사렘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하게 하고 내가 또...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내가 네게 명한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31장 1절~11절)

대구 종합경기장

Tae-gu Main Stadium

강철희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by Kang Cheol-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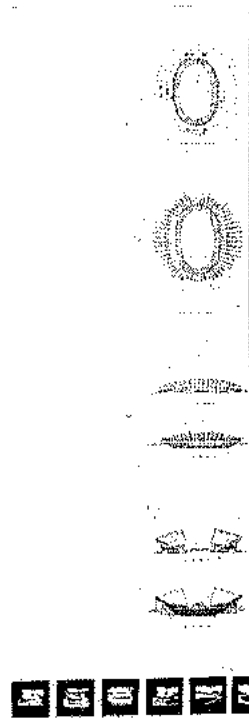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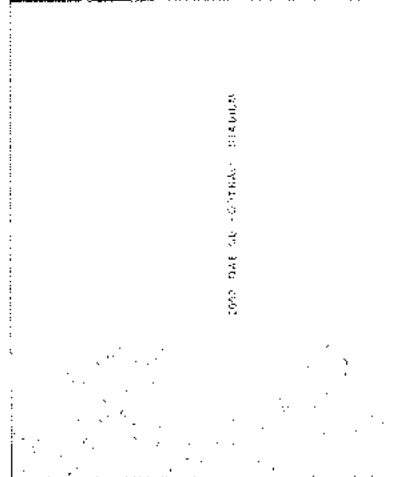
95년 5월말부터 대구광역시 '축구전용경기장' 프로젝트는 현상공모로 시작됐다. 모든 일의 진행에는 정신적인 면과 물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하듯이 대구축구경기장 현상공모 진행에 우리 이상건축사무소에서 이 양면에 대해 사전검토를 하였다.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준비는 어느정도 자신감이 있었다.

그동안 진행했던 10개정도의 체육관련 시설 설계경험을 통해 자료도 확보되어 있었고 설계프로세스에 대한 감각도 익혀져 있던 상태였다. '90월드컵을 위해 이태리 각도시의 축구경기장 준비상황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있는 홍보집, 'STADIA' 라는 경기장에 대한 각론, 역사, 운영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서술된 연구서 등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경기장지붕을 덮는 막(Fabric)구조에 대한 여러번의 설계경험으로 이 분야에서도 별 두렵음같은 것은 없었다.

다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 확고한 의지력이 당시에 부족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했다. 경기장의 설계가 단순한 단면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의 복합화 추세에 따라 많은 설비시설을 수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설계과정 또한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 확고한 의지력이 당시에 부족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했다. 경기장의 설계가 단순한 단면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의 복합화 추세에 따라 많은 설비시설을 수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설계과정 또한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 확고한 의지력이 당시에 부족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했다. 경기장의 설계가 단순한 단면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의 복합화 추세에 따라 많은 설비시설을 수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설계과정 또한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전시회 출품패널

우리가 지니고 있던 능력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했다. 인간은 간혹 스스로 어느 수준의 능력까지 창출해낼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능력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발현하는 분야와 정도가 개인에 따라 다르다. 모든 물리적 준비가 갖추어지고 때를 기다리는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발현의 여러 기회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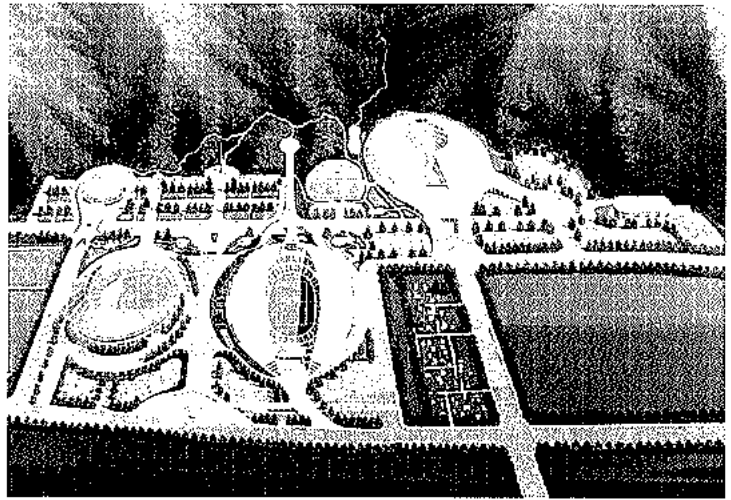
그 하나가 사무실내의 운영체제에 관한 것으로서 팀제에 따른 시너지에 대한 토의였다. 몇으로 구분되는 단순팀제가 아닌 수시로 팀원이 교체될 수 있도록 조직을 변화시켜가고 있었으며 실제로 여러번의 시행착오도 거친 후 이제 그 효력을 기대할 수 있던 시점이었다. 서로의 차이를 연합했을 때에 가져오는 능력은 대단하였다. 개인의 능력 또한 더욱 크게 발현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본 프로젝트는 현상공모를 통해 수주하게 된 것이라 과업의 진행에 건축가의 의도가 비교적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프로젝트에 관한 전반적인 건축가의 견해가 건축주에게 일단 설명되어진 후 건축주의 세부필요사항이 추가되어 계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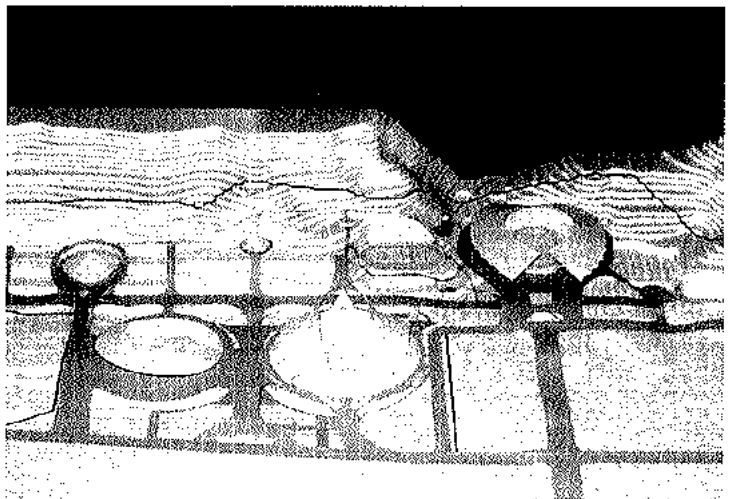
기본설계 착수보고시 과업진행방향에 관한 보고, 현부지의 문제점, 현상공모에 도출된 또다른 요구사항 등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이의 대부분이 수용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당시의 부지 25만평으로는 10만석의 주경기장, 7만석의 축구전용경기장, 5만석의 야구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배치하기에는 지형, 교통 등의 여러조건들을 검토할 때 불합리한 점이 많았으며, 의도있는 계획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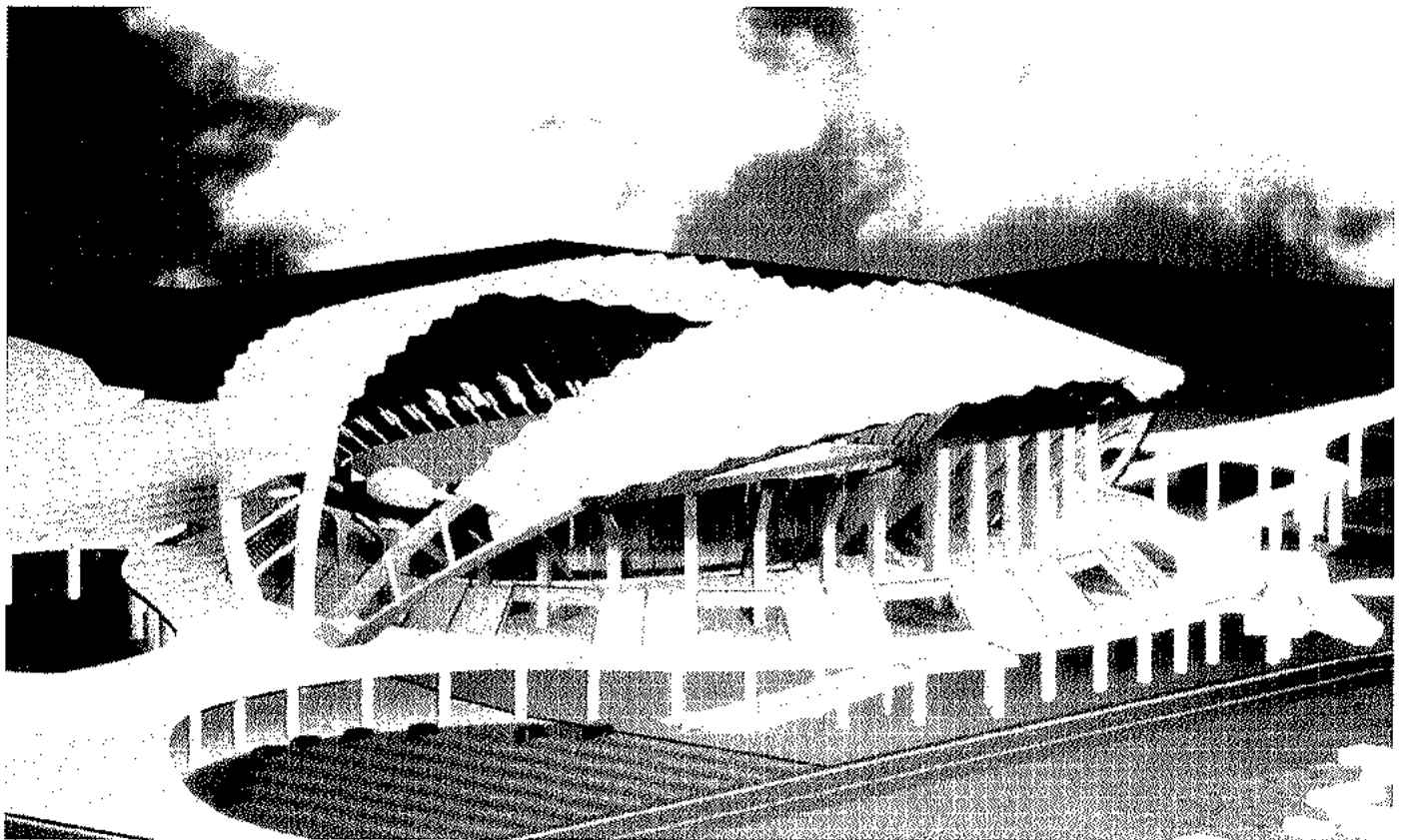
이에 대한 건의가 받아들여져 작업은 범위가 늘어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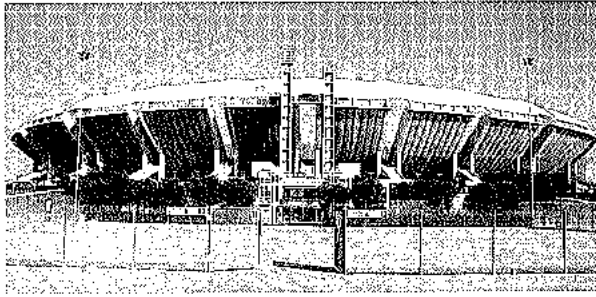
현상설계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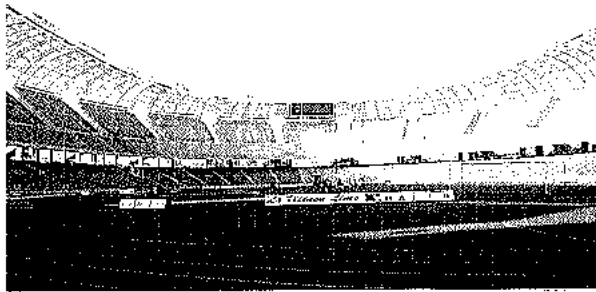
현상설계 Study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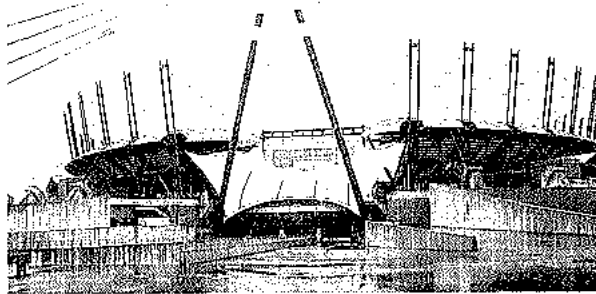
현상설계 3D Simulation



이태리 바리구장



이태리 바리구장



이태리 토리노구장



이태리 토리노구장

작업량은 많아졌으나 의도대로 계획을 구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다른 제의 중의 하나가 해외사례 조사였다. 갖고있던 자료들과 평면들, 디테일들을 확인하고 싶었고, 머리속에 그려졌던 경기장의 스케일도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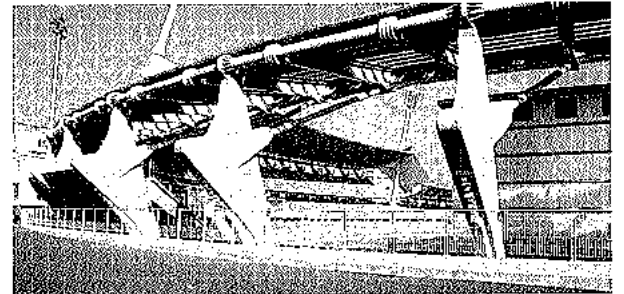
그래서 계약한지 보름도 되지않아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측과 더불어 해외조사길에 올랐다. 2006년 월드컵유치를 꾀하고 있는 독일, 90년 월드컵을 성공리에 치른 이탈리아, 98년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프랑스, 한국과 유치경쟁을 벌였던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는 곳마다 새로움과 경이로움이 더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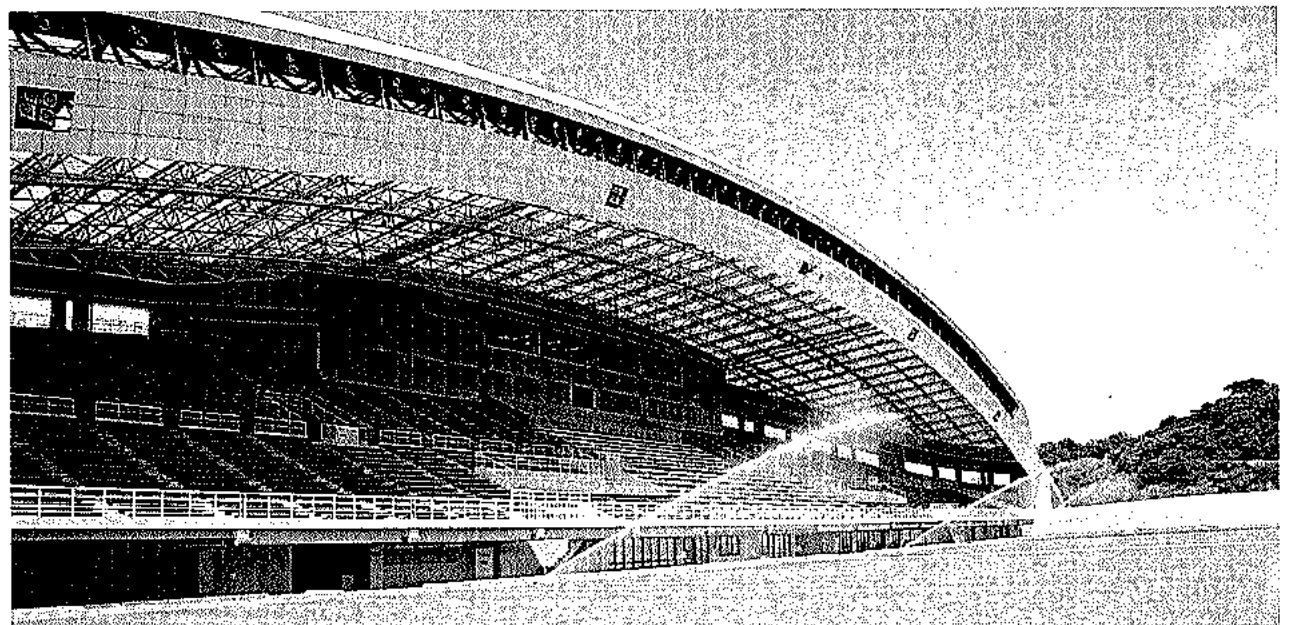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보고 싶었던 곳이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이탈리아 동남부 항구도시 바리(BARI)에 세운 바리스타디오였는데, 역시 그의 구조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여실히 들어난 압권이었다. 많은 좋은 것들을 보게된 우리에게는 머리속으로만 그려졌던 경기장 윤곽이 서서히 들어나기 시작했다.

운영에 관한 폭넓은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된 점은 경기장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게된 또 하나의 커다란 수확이었다. 그 경기장 위를 높이 날고 있던 이름모를 한무리의 새떼들이 어찌나 유유히 보였는지 모른다.

어느새 우리는 너무도 숨가쁘게 보내게 되는 시절 속에 있었다. 95년 11월 3일 FIFA 기술위원회가 한일비교조사를 위해 왔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세하지 않아 FIFA



프랑스 상띠 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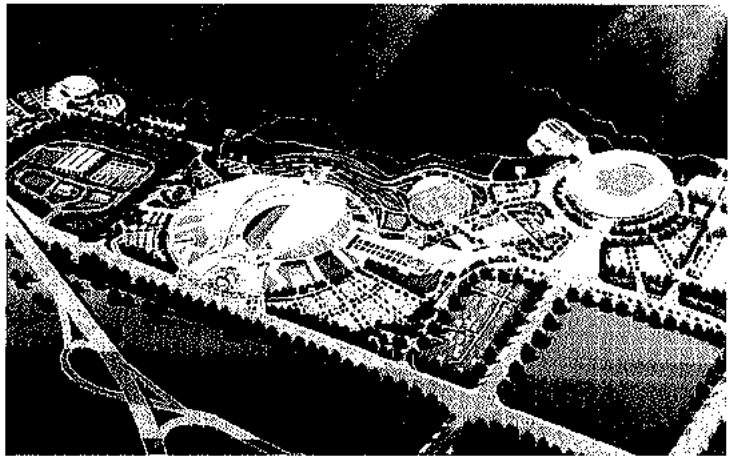
히가시 노모리 구장

의 요구수준을 깊게 검토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또한 여러 자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주경기장과 축구 경기장이 하나로 합치게 되었으며 야구장이 주경기장 위치로 이전하게됨에 따라 본경기장 부지는 58만4천평으로 확대되었고, 실내빙상장, 승마장, 테니스장 등이 추가됨에 따라 외부공간에서의 조정분야가 한층 더 중요시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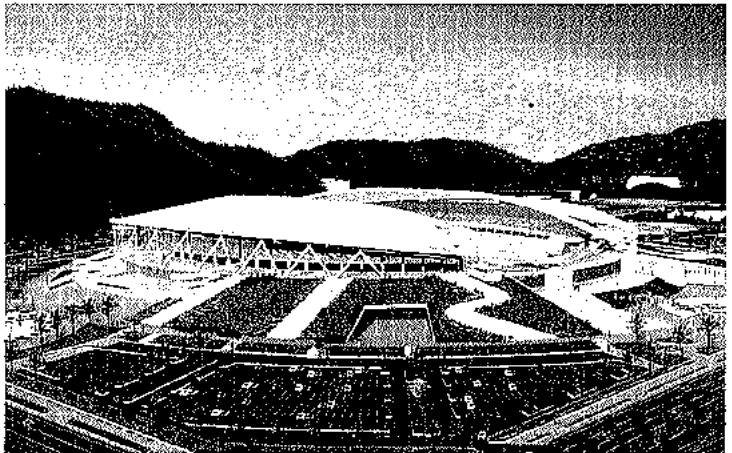
경기장도 또한 육상종합경기 운영에 관련된 부속시설들이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 원래보다 2배에 가까운 연면적을 갖게 되었다. 그에 따른 토지이용, 교통, 관람객진출입, 구조, 시공비증대 등등 새로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서 계속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회는 이렇게 혼란속에 온다고 했듯이,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걱정은 무엇인가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지나쳐 일종의 자신감까지 생길 정도였다. 제한된 한계속에 처했을 경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쏟구치게 하는 알 수 없는 그 큰 능력을 실감하였다.

도면속에 있는 경기장속에 자주 들어가 보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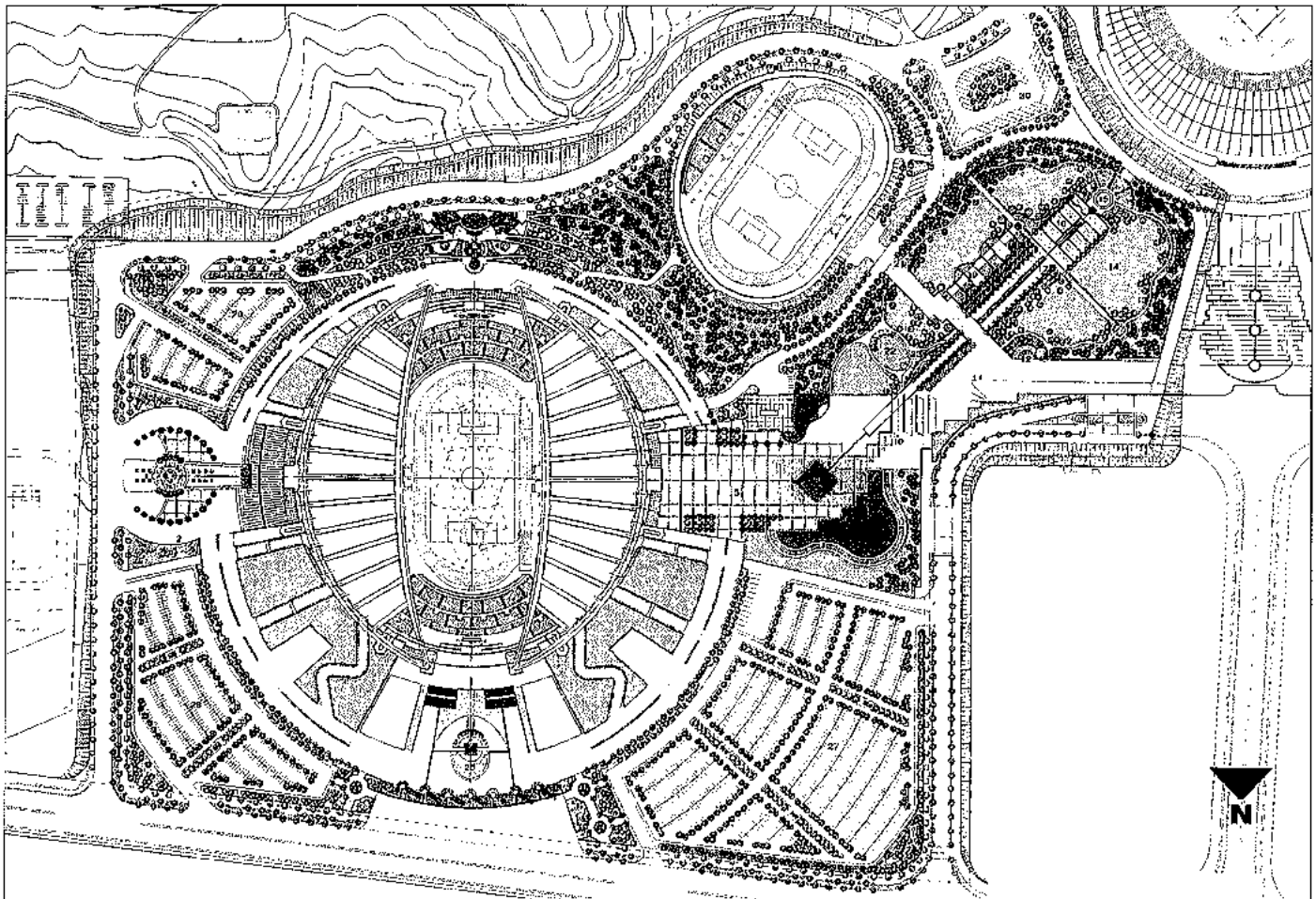
“...앞자리에 앉아 있는 아저씨는 자동차로 왔는데 입구가 어딘지 잘 몰라서 힘들었고, 옆자리 아주머니는 자리가 좁은지 지꾸만 부채질을 해대고, 뒷줄 학생은 화장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같이 데리고 온 아들녀석은 앞줄 사람들때문에 잘 안보인다고 투정



기본설계 조감도



기본설계 3D Simulation



1차 공사분 배치도

만 부리고, 어제밤 야근한 탓인지 축구선수가 너무도 멀리 보인다.

그러다가 퇴장하는데 이걸 뒤 15분이 넘었는데도 아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강과장께서 저 문앞에서 그 특유의 열난 표정으로 쳐다 보고 있네...

여러 번, 아니 수도 없이 되물었던 계획의 기본주제 내지는 개념에 대한 고민끝에 꾸게되는 꿈의 내용이었다.

무엇인가 머리속을 복잡하게 만들다가 되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다시 돌이키지도 못할, 지켜야만 할, 너무도 확고하여 회개만 보여지는 테마는 이용편의성과 안전성(Comfort & Safety)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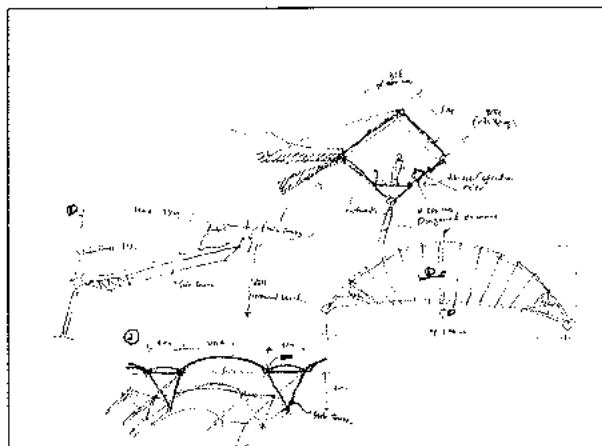
그 많은 건축이론적, 조형적, 신기술적 항목들도 이에 순종시켰고, 우리 또한 순종하였다. 순종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유아닌가.

한계란 나 스스로 만드는 불순종의 울타리였고, 순종이란 자유로이 날 수 있는 날개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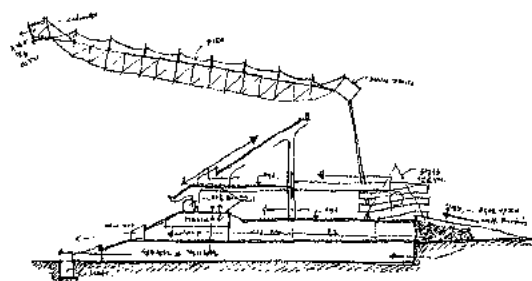
이 원칙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주어지는 조건들, 자연·인공현황, 요구 프로그램, 주관·가치관의 차이, 소요자금 등등은 방해하는 역작용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촉매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앞으로 많은 진행부분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이와같은 생각을 더욱 굳건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제도판 앞으로 다가 앉는다.



Fabric Roof 디테일



Section 개념/동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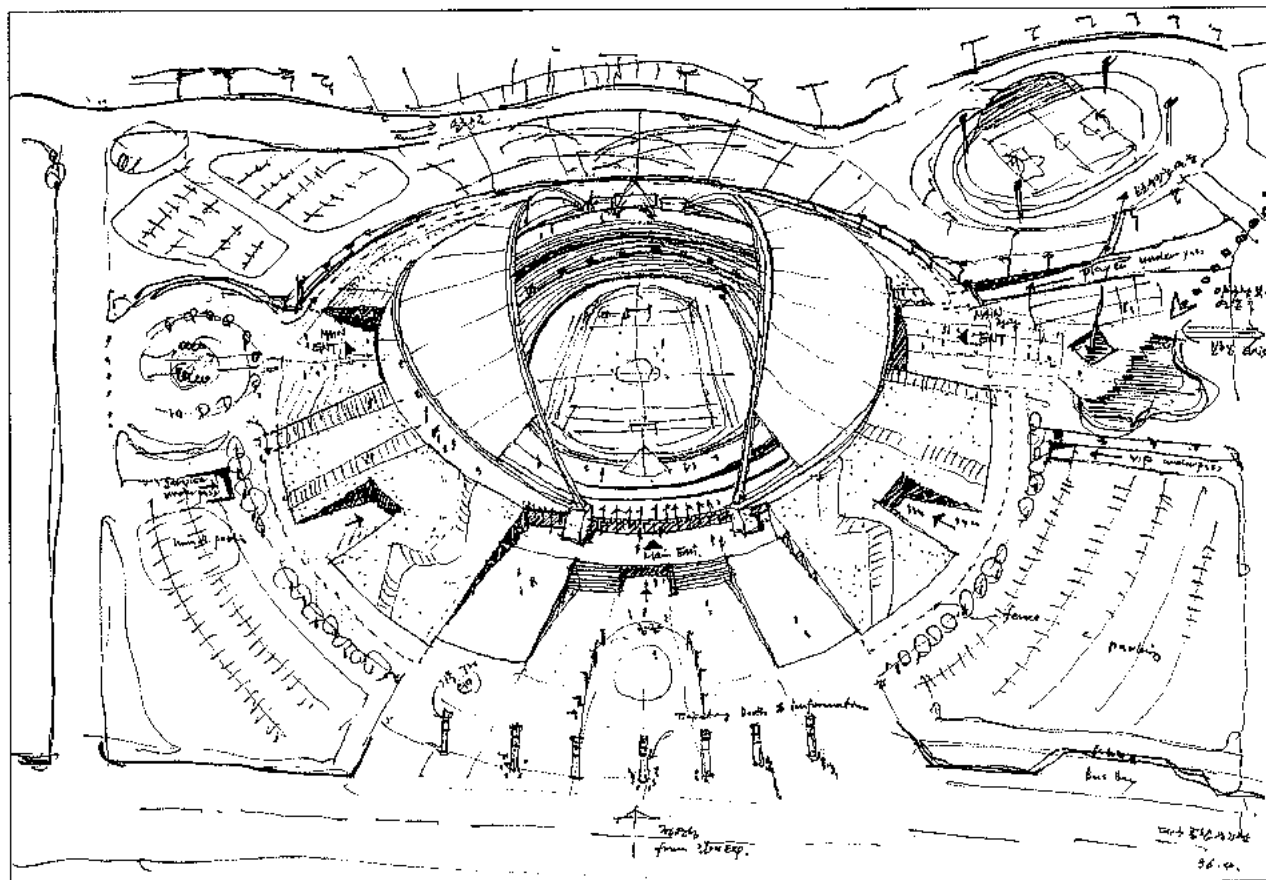


Image Sketch

건축주 / 대구광역시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현동 일대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지역, 체육공원지구

1차부지면적 / 481,025.21㎡(전세공원부지면적 : 1,930,000.00㎡)

건축면적 / 48,334.88㎡

(종합경기장 : 46,249.35㎡, 보조경기장 : 697.58㎡,

수변건물 : 1,062.75㎡, 편익시설 : 325.00㎡)

건폐율 / 2.50%

연면적 / 143,492.80㎡

(종합경기장 : 139,764.22㎡, 보조경기장 : 697.58㎡,

수변건물 : 2,706.00㎡, 편익시설 : 325.00㎡)

용적률 / 3.02% (용적률 산정면적 : 58,370.21㎡)

주차대수 / 2,435대 (법정 : 150㎡/대=473대

70,822㎡/150=472.2대)

최고높이 / 57.80M

외부 마감 / 세라믹재콘크리트, PTFE-COATED GLASS, FABRIC

용도 / 종합운동장

구조 / SRC+PC+FABRIC

규모 / 지하2층, 지상3층. (보조경기장 : 지상1층, 수변건물 : 지하1층, 지상3층,

편익시설 : 지상1층)

협력업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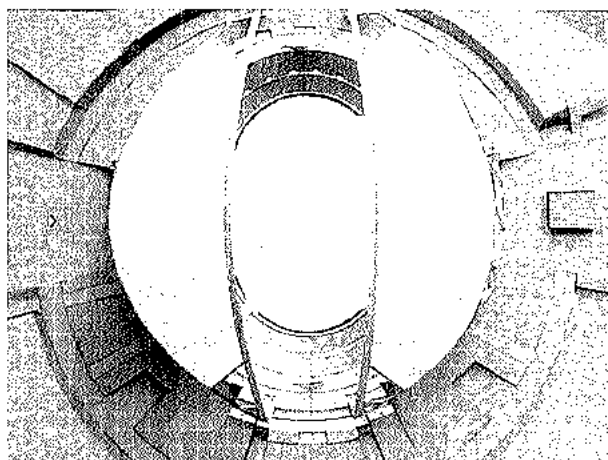
· 토목 · 조경 · 삼림 컨설턴트

· 기계 · 건축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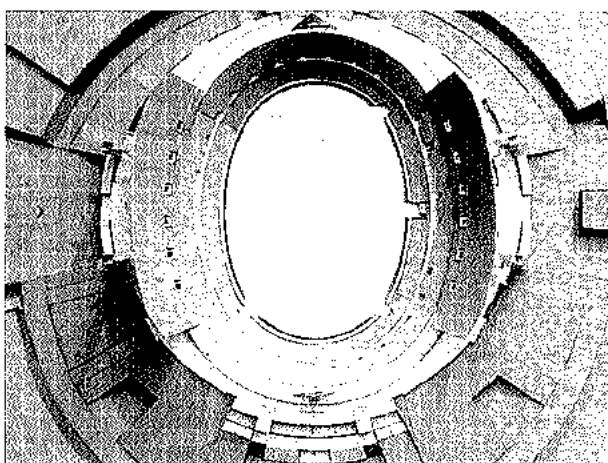
전기 · 보우전기

음향 · 한진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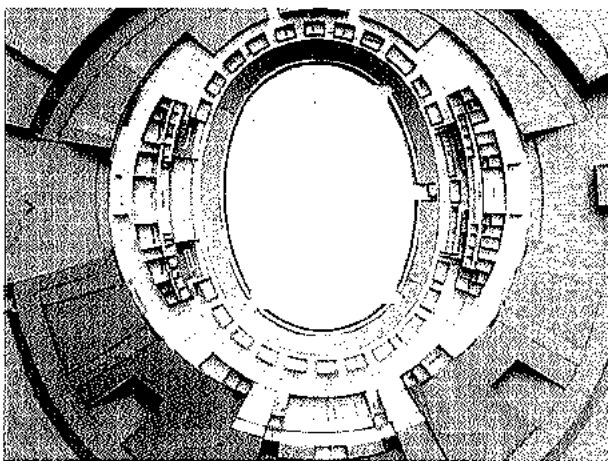
FABRIC - KOCH / W.S. AKINS / TENS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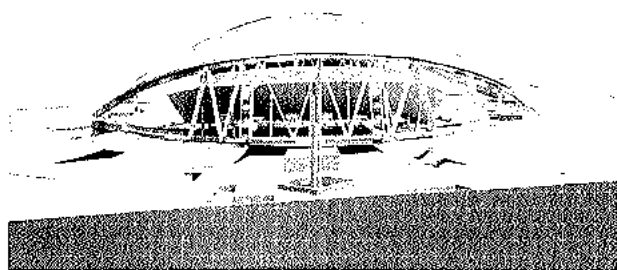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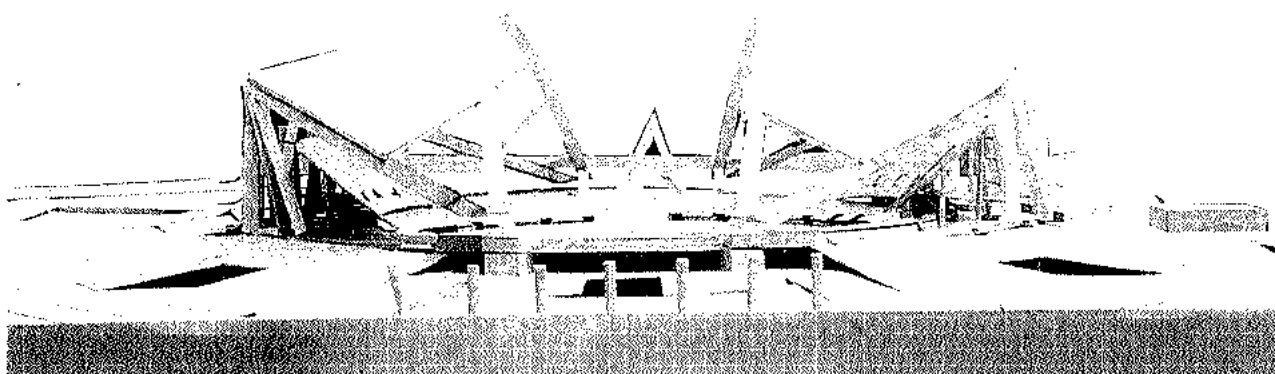
Stand층 평면도



101.5 Level 평면도



Model Study(측면)



Model Study(정면)



출생과 성장기

박길룡은 1898년 11월 20일, 종로에서 자그마한 미곡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찔배달을 비롯하여 행상, 담배쌈지 집기, 단추구멍 뚫기와 같은 일들을 하며 고행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소년 시절부터 고생을 하여 18세가 되어서야 전차를 탈 수가 있었다고 한다. 경성고등공업학교가 개교한 1916년에 건축과에 입학하여, 3년후인 1919년에 졸업하였다.

경성고공 건축과 제1회 졸업생- 5명의 동기생들

이 학교의 졸업생 명부를 보면, 조선인으로는 李起寅씨가 있었는데 총독부채신국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건축계에 남긴 업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1939년 발행한 “朝鮮技術家名簿”(朝鮮工業會 刊)에서 李起寅씨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데 주소가 京畿道 廣州郡 廣州面으로만 되어 있고 근무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다.

아울러 같은 해에 건축과를 졸업한 일본인이 세 명 있었는데, 武居正通, 高田昌平, 楠口秀春이라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졸업생명부에서만 이들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있고, 그 후 朝鮮建築會 회원명단이나 朝鮮技術家名簿에서 그들의 이름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李起寅은 현재 ‘不明者’로, 박길룡과 세 명의 일본인은 逝去會員으로 되어 있어, 이들의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건축수업에 대하여

지난 호에서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 일본의 고등공업학교 교과과정을 몇 가지 살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1923년부터 1929년까지 이 학교의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藤島亥治郎의 회고담을 통하여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었다. 즉 1학년은 英語, 數學, 繪畫를 중심으로, 2학년은 製圖가 가장 많았으며 건축구조와 건축법을, 3학년은 졸업설계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상기하여야 할 것은, 藤島亥治郎이 건축역사와 건축예술에 대하여 이해시키려고 사진을 보여주며 강의를 하자 학생들이 맹렬하게 반발하였다는 점이다. 藤島씨가 이 학교에 부임한 것은 박길룡이 이미 졸업한 후 였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초창기 때가 더욱 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에 건축과에 입학한 사람들 대부분이 건축예술, 예술사조와는 거리가 있었고, 공학기술을 습득하여 빨리 현장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藤島씨의 기억이며, 또한 학생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해 오기까지 꽤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가정환경의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그 분위기가 평



박길룡(1898~1943)

한국의 건축가-박길룡(1)

Korean Architects - Park Gil-Ryong

건축수업과 활동

윤인석 /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Yoon In-Suk

1. 한국인 건축가의 탄생배경
(필자 / 윤인석)
2. 박길룡(1) - 건축수업과 활동
(필자 / 윤인석)
3. 박길룡(2) - 작품과 건축사상
(필자 / 윤인석)
4. 박동진 - 생애와 작품
(필자 / 윤인석)
5. 강 윤(1) - 건축과의 만남
(필자 / 김승제)
6. 강 윤(2) - 강윤과 Vories
(필자 / 김승제)
7. 강 윤(3) - 해방 후 작품활동
(필자 / 김승제)

장히 산만하였던 것으로 그는 전하고 있다.

강한 民族魂과 長子情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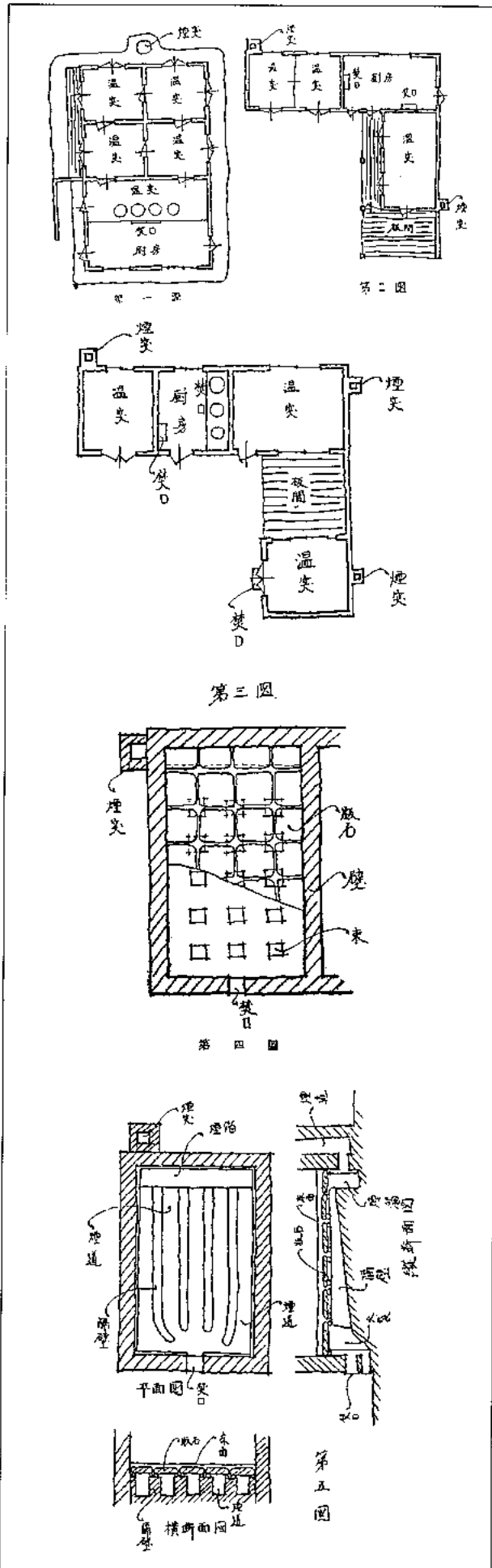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3년간 학교생활을 하였던 박길룡은, 어려서부터 종로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발로 뛰는 여러가지 고생스런 일을 하였던 경험이 토대가 되어 민족의식이 더욱 강해지고, 건축가로서도 보다 능력있는 존재로 성장할 그릇을 키웠는지도 모른다. 사실, 일제강점기의 서울지도를 놓고 보면, 남산기슭의 왜성대(지금의 예장동)에서 시작한 일본인 거주지가 지금의 진고개, 충무로, 을지로, 회현동, 남대문로, 세종로, 경복궁(종로부)으로 잠식해 들어가면서도 종로는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 놓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서울사진을 보면, 다른 지역은 일본식 건물과 양식건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종로지역만은 한옥이 즐비하였으며, 지금도 재개발이 채 진행되지 않은 대를 다녀 보면 을지로, 명동, 충무로의 옛 건물과 종로 뒷골목의 건물이 일본식 가옥과 한옥으로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서울내에서 조선인들이 전래의 빛깔을 잃지 않고 생활하던 이 지역에서 하루계층 사람들의 애환을 보고 겪으며, 오늘날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평하는 의협심, 결단력, 근면성, 열정, 보스형 기질이 길러졌다고 볼 수가 있다.

더욱이, 그가 건축교육을 받고 졸업한 해는 이땅에서 민족의식이 최고조에 달했던 1919년이었으며, 3.1독립만세운동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고는, 이 땅의 첫 건축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청년기에 분명하게 정립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전인 1967년 4월에 “空間”誌는 박吉龍 特輯을 위하여 펴낸 바가 있다. 그 중에서 故尹一柱교수는 ‘건축가와 사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길룡의 생애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렇게 기술한 바가 있다.

“... 이 글을 쓰기 위하여 문헌-인쇄화된 것과 유고-을 앞에 놓고 펼쳐 보기 전에 내심 근심한 것은 혹시라도 친 일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어찌할까하는 의구심이었다. 그러나 문헌을 뒤질수록 이러한 마음은 점점 개이며, 그의 한국인으로서 몇몇한 입장과 주장은 나의 마음을 다소 들뜨게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의 한국주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 개량에 대한 노력, ‘동아일보’, ‘조선일보’ 양대민족지에 하였던 투고, 이화여전 출강, 일정말기에 국문으로 된 건축지의 발간 등은 13년에 걸친 총독부관리 생활을 지내고 일인들과 사업상 細帶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그가 얼마나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는가(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이용되지 않을 國文建築述語集을 집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감탄케하였다 ... (중략) ... 그가 타계한 1943년은 이미 創氏制度가 실시된지 4년이 경과한 때로서 “朝鮮と建築”誌의 그의 追悼號에 나오는 집필자의 이름이 韓人과 日人을 구별할 수 없도록 전부가 일본식 이름 속에서 ‘朴吉龍’과 그의 장남 ‘朴容九’만이 뚜렷한 한국인 이름임을 얼마나 몇몇한 일인가? 그



朝鮮の建築 에 기고하였던 ‘한국재래 온돌의 구조’라는 논문에 실인된 도면들

本籍 서울特別市 鍾路區 智洞 278

住所 서울特別市 鍾路區 公平洞

1898年 11月 20日: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出生.

1919年 3月 25日: 京城工業專門學校建築科 卒業.

1920年 12月 31日: 朝鮮總督府 技手.

總督官房土木部 勤務.

1922年 12月 15日: 總督官房庶務部兼務.

1929年 6月 5日: 朝鮮博覽會事務局兼務.

1932年 5月 7日: 朝鮮總督府技手.

1932年 5月 7日: 朝鮮總督府官房會計課 勤務.

1932年 5月 9日: 朝鮮總督府官房會計課 退職.

1932年 7月 7日: 建築事務所 開設.

1938年 3月 : 社團法人朝鮮建築學會理事.

1941年 7月 30日: 京畿建築代書士 組合長.

1941年 8月 20日: 朝鮮住宅營團參與委囑.

1942年 4月 : 梨花女子專門學校講師.

1942年 7月 30日: 朝鮮水利組合聯合會建築事務委囑.

1943年 2月 1日: 朝鮮農地開發關係營繕關係事務囑託.

1943年 4月 27日: 서울 公平洞에서 死亡.

박길룡의 약력

가 貴族出身이나 富家出身이 아니라 자력으로 입신하여 지배민족 속에서 자민족을 의식하며 당당히 처신하였다는 사실은 내 자신의 일처럼 마음 호뭇한 일이며, 그 사실에서 不屈하였던 한 약소민족의 상징을 보는 것이다...."

실무에서 쌓은 실질적 건축수업

이제 그의 건축수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자.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학생시절 그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다만 당시의 사람들이 전하는 바대로 또는 당시의 일본에 있던 동급 학교의 자료를 참조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그 분위기도 건축예술이라든가 건축사상 교육보다는 기술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학생들도 취업의 방편으로 건축을 택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박길룡이 학교를 다니던 시기에는 전임교수가 부임하지 않았고, 대개 조선총독부, 경성부, 내무국에서 활동하던 일인 기술관리들이 강사로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학창시절에 심도있는 건축교육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신백화점과 같은 건축물은 어떻게 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을까? 이는 졸업후 13년간 몸 담았던 朝鮮總督府 建築課 시절이 그에게는 실질적인 건축수업의 기간이었다고 생각된다.

박길룡이 취업하던 때는 朝鮮總督府 新廳舍를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계가 온힘을 쏟던 때였기 때문에, 그도 技手로서 이 일에 관여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건축조직

여기에서 그의 총독부 근무시절을 이해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건축관계 부서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조선총독부의 건축관계 부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官의 건축계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 집단이었다. 이 조직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조선을 다스리기 시작한 조선총독부는 전국적으로 행정관서의 건설을 행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만들기의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건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총독부는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73호를 발령하여 총독부내에 건축 및 토목직원을 채용하였다. 그 칙령으로 채용된 건축, 토목관계의 직원은 技師 7명, 技手 90명에 달하였다. 이들 토목, 건축기술자 중에서 건축기술자는 총독부 총무부 회계과 영선과에서, 토목기술자는 내무부지방국 토목국 및 각 지방의 토목파출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1910년에서 1911년은 총독부총무부 회계국 영선과가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직편성하였다. 그 후,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이 기구는 總督官房 土木局 營繕課가 되었고, 總督府 庶務部 會計課 (앞의 총무부 회계국의 후신)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축업무를 담당하였다. 1921년부터 1923년까지는 토목부 영선과로 되었으며, 1924년부터 1929년까지는 總督府 內務局 建築課가 되었다. 여기에서, 명칭이 營繕課에서 建築課로 바뀐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조선총독부 신청사를 비롯하여 대규모 관청건축의 건설이 전국적으로 질정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명칭이 營繕이라는 소극적인 것에서 建築이라는 적극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1929년부터 1945년까지 종래의 건축관계업무는 재편성되어 總督官房 會計課 建築係가 담당하였다.

조선총독부 건축과의 사람들

여기에서 박길룡이 총독부 근무시절 어떤 사람들과 遭遇하였는지 그 주요 구성원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1910년, 출범했던 때에는 사무관 1명, 기사 2명, 촉탁 9명, 기수 3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건축기사 2명은 岩井長三郎과 國枝博이었다. 특히 岩井長三郎은 영선과장이 되어, 1929년 그 직을 사임할 때까지 총독부내의 건축관계부서의 책임자로서 활약하였다. 당시 직원중에 조선인 기술자는 아직 없었다. 이 조직은 1945년까지 언제나 2~5명의 건축기사, 10~20명의 촉탁, 평균 60명의 기수가 일하는 규모로 운영되었다.

여기에서 일했던 주요 인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岩井長三郎(재직기간: 1910~1929)

1905년 동경제국대학 졸업 후, 대장성기사로서 임관되었다가 경술국치 직전 조선으로 건너와 1910년부터 조선총독부 기사로서 일하였다. 수 년후에는 총독부 건축관계부서의 課長이 되어 1929년까지 20년간 조선의

건축계를 이끌었다. 퇴임 후에는 일본으로 돌아가, 동경에서 일본엔리베이터 주식회사 동경지점장으로 3년간 근무하다가 1935년 서울로 돌아와 3년간 자신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 中島猛(재직기간: 1922-1929)**

1911년 동경제국대학 졸업. 1922년 부터 1929년 까지 총독부기사로서 근무하였다. 1929년에 사임한 후에도 서울에 남아서 경성고등공업학교 강사로 일하였다.

*** 笹慶一(재직기간: 1925-1938)**

1913년 동경대학 졸업. 1920년대부터 총독부의 기사로서 일하였으며, 岩井長三郎가 사임한 후 1930년부터 1938년까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퇴임 후에는 多田工務店 고문이 되었다.

*** 岩槻善之(재직기간: 1922-1930)**

1921년에 동경제국대학 졸업후 조선으로 건너와 1931년 6월 22일, 서울에서 병사할 때까지 총독부 기사로 일하였다. 경성고등공업학교에서 시공법 및 계획의 강사로도 활약하였다.

그 밖에도 齊藤忠人, 萩原孝一, 寺師通尙, 井上鴻太郎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또 하나, 총독부의 건축관계조직으로, 경복궁 건축출장소가 있었다. 이는 조선총독부 신청사 건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기구로 총독부 청사 완공 후에도 후속 작업을 한 후, 1929년 3월에 폐지되었다. 富士岡重一(재직기간: 1919-1927), 野村一郎, 國枝博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 시기가 박길룡에게는 실질적인 건축수업의 시기로, 특히 총독부 신청사 건설공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젊은 때에 상당한 규모의 규범적인 건축물을 접하고, 많은 관공서의 설계틀 경험하여 그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 갔던 것이다.

총독부 기사직을 사임하고 독립 건축사무소 설립

1920년 12월에 총독부 토목부 영선과 技手로 취업하였고 1932년 5월 7일 技師로 승진하면서 5월 9일 퇴직하였다. 총독부 재직기간 동안, 조선인들의 건축물을 과외일로 설계하기도 하였다. 당시 서울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업하고 뚜렷하게 활동하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 조선은행건설공사 감독을 위해 서울에 왔다가(1908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무소를 설립, 활발히 활동하였던 中村興齋郎은 1922년에 일본으로 귀국하였고, 미션계통의 학교와 교회건축을 주로 설계하였던 미국인 보리즈도 일본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 지사를 개설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공평동 59번지에 박길룡건축사무소를 개설하던 1932년은 1920년대에 왕성하게 일었던 경제적 호황의 여파

로 조선인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약간의 자본으로 사무소와 상가건물이 많이 세워질 때였기 때문에 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박길룡건축사무소는 1943년 그의 사후에도 金世演씨가 맡아서 꾸려 나갔으며, 광복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되었다. 당시의 직원은 김관정, 전창일, 이병문, 김한섭, 오영섭 등 경성고공 출신들이었으며, 장연채, 유원준, 유상하등은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박길룡사무소에서 부업으로 설계일을 거들고 있었다. 일거리가 있었으며, 기술을 가진 조선인들끼리 모여서 건축에 대한 토론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이 곳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저녁때 이 곳은 마치 조선인 건축인들의 클럽 같았다고 한다.

건축계에서 활동상

1922년 설립된 '조선건축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38년에는 조선인 건축가로서는 처음으로 이 회의 이사가 되었다. 1941년 京畿 建築代書士 組合長을 역임하였고, 朝鮮住宅營團에 참여하였다. 1942년에는 梨花女子專門學校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주택독본 과목을 담당하였다.

1943년에 朝鮮 農地開發係營繕關係 業務를 위촉받아, 농지 개발영단본부의 건축을 담당하였다.

향년 46세로 별세

최후의 작품이 되어버린 혜화전문학교의 외관 디자인을 세상 뜨기 전날까지 매만지다가, 1943년 4월 27일 아침에 타계하였다. 46세-건축가로서는 이제사 진정한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이 땅에 한국인 건축가로서 광복이후 건축계를 이끌어 갈 시기를 맞지 못하고 너무나도 아쉽게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에, 유머를 좋아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쾌활함은 고생하였던 어린 시절, 그리고 식민지 청년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고 자신을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고 친지들은 말하고 있다.

또하나 그의 업적중에서, 건축과 상관없는 일이어서 주목받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발명학회'를 창설한 일이었다. 1924년 10월에 박길룡을 비롯한 여러사람들이 산업기술의 기초를 확고히 하자는 뜻에서 각출하여 만든 단체였는데, 훗날 재정난으로 말미암아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이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일에 대한 열정과 민족사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렇게 큰 별이 너무나도 일찍 세상을 떠다는 것은 우리 건축계의 불행스런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中國으로

중국으로의 건축기행은 이번에 세번째이다. 첫번째는 北京과 山西省 일부, 그리고 集安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답사였다. 두번째 답사는 중국 서북부 新疆省 위구르족 자치구였다. 이전의 두 번에 걸친 답사는 단체답사였다. 그에 반하여 이번의 답사는 처음으로 혼자서 떠나는 중국답사이기 때문에 설렘과 더불어 두려움이 앞서고 긴장되었다. 답사의 대상지역은 山西省과 河南省, 특히 山西省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그 이유는 중국에 현존하고 있는 宋·金代 이전(즉 12세기 이전) 건축의 70% 이상이 바로 이 山西省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9월 28일 서울에서 北京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탔다. 北京은 서울과는 1시간의 시차가 있어 서울보다 1시간이 느리다. 그 넓은 중국 전역에 동일한 北京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중국의 가장 서쪽에 있는 新疆省과 같은 경우에는 한 여름에도 오전 9시나 되어야 해가 뜬다. 北京시간 오전 11시25분, 이제 비행기가 거의 北京에 도착한 듯 하다. 세번째 중국여행이지만 외국여행은 언제나 새로운 설렘을 안겨준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혼

자만의 여행이므로 그 강도는 더욱 크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닥칠 문제들이 걱정되기 시작한다. 12시, 이러한 나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행기는 北京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을 나와 숙소로 예약되어 있는 清華大學 留學生樓로 향하였다.

清華大學은 理工계열의 학과만 있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합대학 중 하나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北京大學에는 문과계열의 학과만 있다. 즉 清華大學은 北京大學과 쌍벽을 이루는 대학교라 할 수 있다. 이곳에 교환교수로 와계신 이상해 교수님과 유학온 두 분의 선생님이 필자를 맞이해 주었다. 이 세 분 선생님들 덕분에 혼자만의 답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수월하게 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서나마 감사를 표하고 싶다.

중국 고건축(古建築) 기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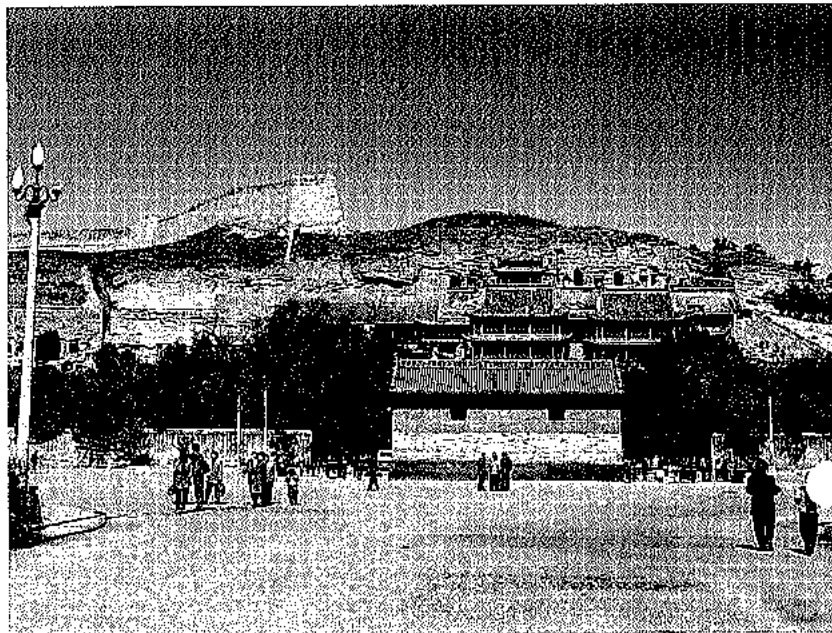
Travels of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산서성(山西省)을 중심으로

김도경 /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수료, 경원전문대 강사
by Kim Do-Kyoung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은 중국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면서 개방되자마자 중국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중국건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워낙 방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고, 아직은 중국을 여행하는데 교통이나 안전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국내에 소개된 중국건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산서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일부를 답사한 바 있다. 이번 답사 지역 중에는 기왕에 국내에 잘 알려진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번 기회에 그 답사내용을 사진과 평면 스케치를 곁들여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건축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필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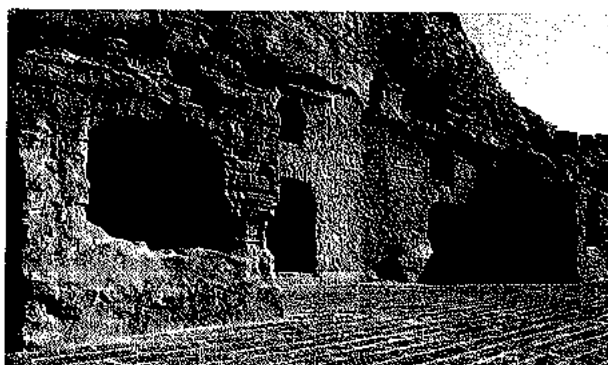


〈사진1〉 臺閣石簷을 진입하면서 본 모습이다. 전면 중앙에 보이는 단층의 건물은 '戲臺'라 불리우는 무대건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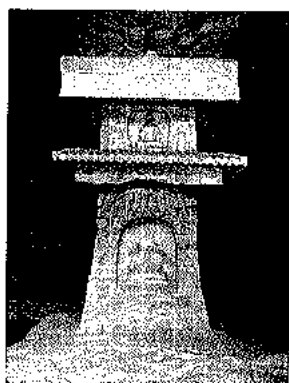
北京에 도착한 이후 5일 동안은 목적했던 山西省으로 떠나지 못하고 北京 시내에 위치한 여러 건축물을 답사하였다. 北京에는 많은 건축유적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明·清代에 건축된 것이다. 서울에 비하여 개발이 덜 된 탓인지 옛 건축물들이 잘 남아있다. 그러나 개방화정책 이후 많은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도시시설들이 세워지고 있었다. 우리의 서울이 무분별한 도시재개발로 600년 古都로서의 인상을 느끼기 힘들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北京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듯 하다. 도시개발과 보존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요즈음 北京에 새로이 지어지고 있는 고층건물들은 거의 획일적으로 최상층에 중국전통건축을 의식한 듯한 기와지붕의 형태를 올려놓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좀 기괴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전통에 대한 중국 현대건축가들의 고민과 수준이 담긴 듯 하여 흥미롭다. 北京의 중국전통건축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많이 소개된 바가 있고 자료도 풍부한 편이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드디어 大同(파통)으로

10월 3일 北京에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다가 드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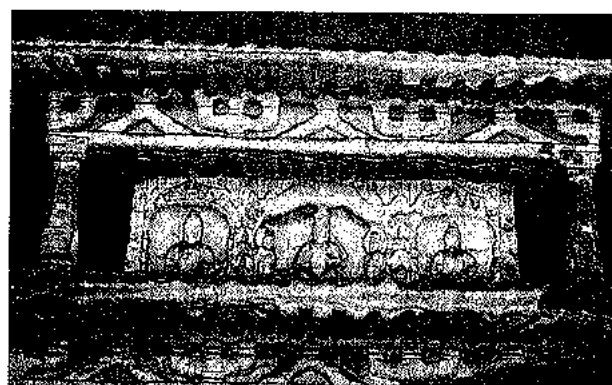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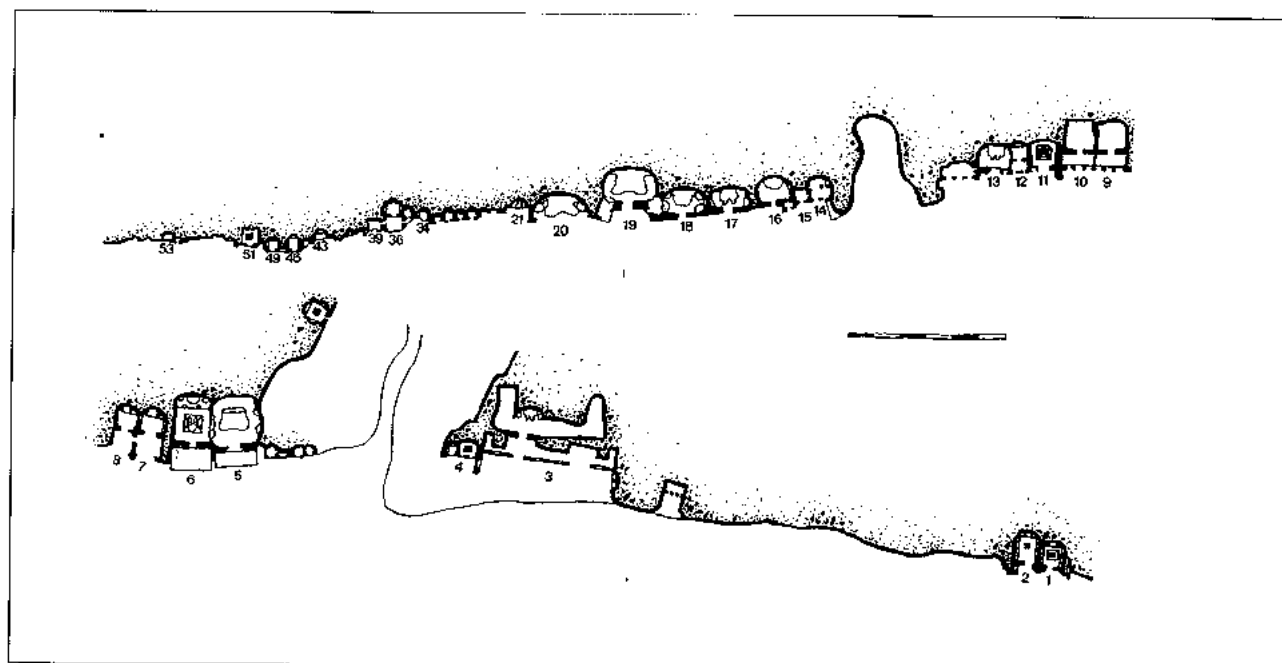
5

〈사진2〉 雲崗石窟 제1굴과 제2굴의 전면외관으로 두 굴은 외관과 내부가 동일한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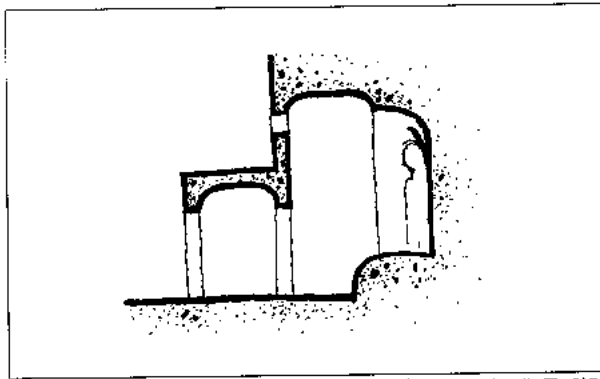
〈사진3〉 雲崗石窟 제1굴의 내부로 중앙에 中心塔柱가 있다. 탑은 2층으로 기단위에 올려져 있다. 각 층 네 면에는 불상이 있고, 그 안에 불상을 조각하였다. 탑의 정상부는 雲崗石窟에 있는 다른 중심탑주와 마찬가지로 굴의 천장에 연결되어 있다.

〈사진4〉 雲崗石窟 제2굴 내부 동측벽면에 부조된 3층탑이다. 각 층은 모두 한 칸으로 처마 끝에 장식물이 늘어져 있고 지붕상부에는 상륜이 있다. 北魏代 목탑양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제6·11·17·51굴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형식의 목탑이 부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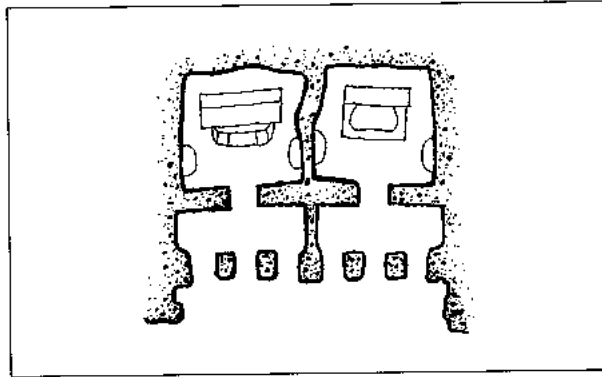
〈사진5〉 雲崗石窟 제2굴 중심탑주의 3층 부분이다. 기둥을 비롯하여 초석, 수평재, 두공, 인자형부재, 도리, 서까래, 지붕 등 목조건축의 세부가 묘사되어 있다. 北魏代 목조건축양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그림1〉 雲崗石窟 배치평면



〈그림2〉雲崗石窟 제3굴 단면



〈그림3〉雲崗石窟 제9굴과 제10굴의 평면

山西省으로 출발한다. 北京에 5일 동안 머무르게 된 이유는 안전문제 때문이었다. 중국은 대도시와 유명한 관광지를 제외한 지역을 외국인 혼자서 여행하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많다. 따라서 필자의 안전을 걱정한 세 분 선생님의 도움으로 清華대학에 다니는 黃偉라는 학생을 소개받았다. 건축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北京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실습나가고 있다고 한다. 믿을 만한 학생인 듯 하여 함께 山西省을 답사하기로 했다. 그가 허락한 기간은 10일 뿐이다. 중국의 건축과 학생들은 고건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건축답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 학생의 경비를 필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가이드겸으로 해서 함께 답사하기로 했다.

山西省 답사는 太原을 중심으로 하여 山西省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로인 남·북동포선을 따라 진행하기로 하고, 大同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黃偉에게 大同으로 가는 기차표를 부탁했다. 압표를 사왔다. 가격은 정가의 약 2배였다. 중국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차표를 구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인지 압표가 매우 성행한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北京에서 기차표를 구할 때는 외국인표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 표의 구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95년 10월 1일부터 기차요금이 인상되었는데, 중국인들의 요금이 외국인 요금으로 인상되었다. 유동인구를 줄여보자는 중국정부의 의도라고 한다.

10월3일 밤차를 이용하여 大同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清華대학 留學生樓를 출발하여 北京역에 도착하였다. 北京역은 항상 사람들로 만원을 이룬다. 그래서 대합실에는 표를 구입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외국인은 표를 사기 위해 대합실안 한구석에 위치한 외국인 대합실에 들어갈 수 있다. 중국의 기차역에서 기차

를 타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표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합실에서 자기가 탈 기차의 차량번호(모든 기차와 버스에 붙어있는 고유번호로 '車次'라고 한다)를 확인하고 그 차량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꼭 확인해 두어야 한다. 개표는 출발 약 30~40분 전에 시작한다. 개표시각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늘어시키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다. 서로가 서로를 밀어 붙치면서 기차로 돌진한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이다. 첫날 공항에 도착하여 전화를 걸려고 하면서부터 당한 일이지만 중국인에게 질서의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중국에서는 철저히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앞으로의 답사가 걱정된다.

중국에서 밤열차를 타는 것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오후 10시 50분 오랜 시간을 기다려 大同行 기차에 승차하였다. 중국의 기차에는 두 종류의 침대칸이 있다. 하나는 '軟臥'라고 하는 고급의 침대칸이고, 하나는 '硬臥'라고 하는 상중하 세 단으로 침대가 구성된 좀 비좁고 불편한 침대칸이다. 경비 문제로 硬臥를 이용하였다. 침대칸을 이용하는 중국인은 대부분 일정수준 이상의 사람들이다. 일반인들은 기차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침대칸을 이용하지 못한다. 몇 번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도 약간의 냄새가 나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차안에서 잠을 청한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침 6시쯤 되었다. 大同에 거의 다 온 듯 하여 기차안에서 간단히 세면을 하였다. 오전 6시 50분 예정된 시각에 大同역에 도착하였다. 중국의 기차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정확하게 운행되는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大同일대는 전에 한 번 답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지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왔다.

2000년 역사의 문화적 寶庫 大同

大同은 대부분이 황토고원으로 이루어진 山西省 북부에 위치한 역사·문화적으로 유명한 도시이다. 현재는 중국의 유명한 석탄산지로 곳곳에 석탄광산이 있고 수많은 석탄 운반차량이 도로를 메우고 있다. 山西省을 비롯한 黃河유역을 답사하다 보면 중국에서 전돌을 이용한 건축이 발전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곳 山西省을 비롯한 黃河유역에는 입자가 매우 고운 황토층이 수십미터씩 쌓여 있다. 窯洞이라고 하는 중국 특유의 民家도 이 황토층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大同의 역사는 戰國時代(B.C.475년-B.C.221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趙의 국경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 이후 秦王朝(B.C.221년-B.C.209년)때에는 밀려오는 北方민족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시로 활용되었다. 漢왕조가 훈족과 커다란 전쟁을 치른 지역도 바로 이곳으로, 漢은 이곳에 '平城縣'을 설치하였다. 北魏는 A.D.398년부터 494년 洛陽으로 천도할 때까지 이곳 平城을 수도로 삼았다. 唐代에는 '雲州'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으며, 遼 重熙17년(1048년)에 현재의 이름인 '大同'으로 개명하였다. 金代에는 遼代の 제도를 모방하여 五京의 제도가 있었는데, 大同을 그 중의 하나인 西京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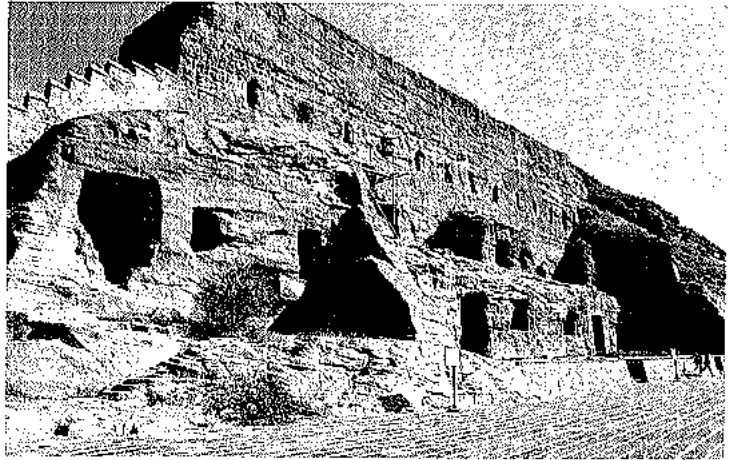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답게 大同에는 많은 문화유적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北魏代에 조영된 雲崗石窟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遼代와 金代의 건축을 지니고 있는 華嚴寺와 善化寺가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明代에 건축된 많은 건축유적이 있다.

北魏 佛教藝術의 大作 雲崗(원강)石窟과 국제적인 문화교류

늦가을 大同의 아침 공기는 매우 쌀쌀한 편이었다. 역을 빠져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賓館(호텔) 또는 招待所(여인숙)에서 묵으라고 호객행위를 한다. 北京에서 張선생님이 알려준대로 역광장 바로 왼쪽에 위치한 飛天賓館에 숙소를 정하였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나와서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한 후 雲崗石窟로 향하였다. 大同 역에는 雲崗石窟까지 운행되는 小公共汽車(조그마한 공공버스)가 있다. 버스를 타고 달리다 보면 석탄산지답게 좌우로 검은색 산이 펼쳐진다. 그야말로 노천의 석탄광산이다. 약 1시간 정도 걸린 오전 8시 40분 雲崗石窟에 도착하였다.

雲崗石窟은 大同市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武周山 남쪽 기슭에 남향하여 자리하고 있다. 석굴은 동서로 약 1km에 걸쳐 길게 뻗어있는 절벽에 의지하여 조영되었다. 현존하는 중요 동굴은 53개이다. 여기에 조그마한 불감까지 합하면 1,100개 이상의 굴이 있다고 한다. 造像의 수도 51,000여 점에 이른다.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큰 석굴군 중 하나라고 할 만 하다. 각 굴에는 굴의 번호가 매겨져 있다. 53개의 굴은 가장 동쪽에 있는 굴로부터 서쪽으로 가면서 순서대로 번호를 붙였다.¹⁾ <그림 1과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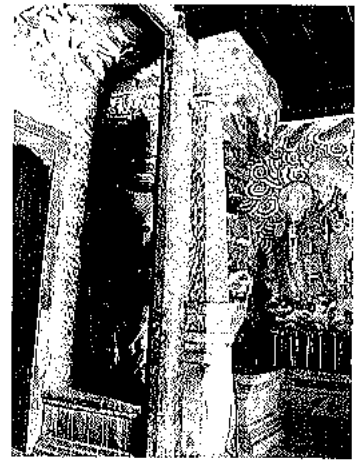
雲崗石窟은 北魏 文成帝(재위:452년-465년)때 승려 酈曜가 王命을 받들어 조영하기 시작하여 太和18년(494년) 洛陽으로 천도하기 전에 그 대부분이 완성되었다. 현재 중국에는 200여 곳의 石窟寺院이 남아 있다. 중국의 석굴사원은 인도 석굴사원의 영향을 받아 조영되었다. 현재 중국 영토안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석굴사원들은 新疆省 일대에 분포한다. 이 석굴사원들은 A.D.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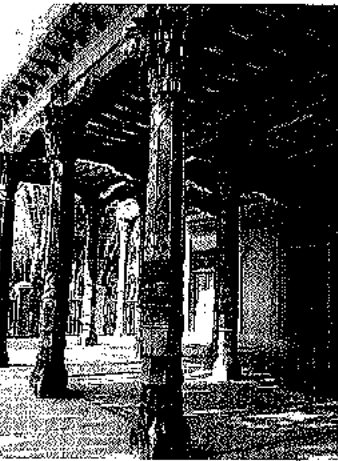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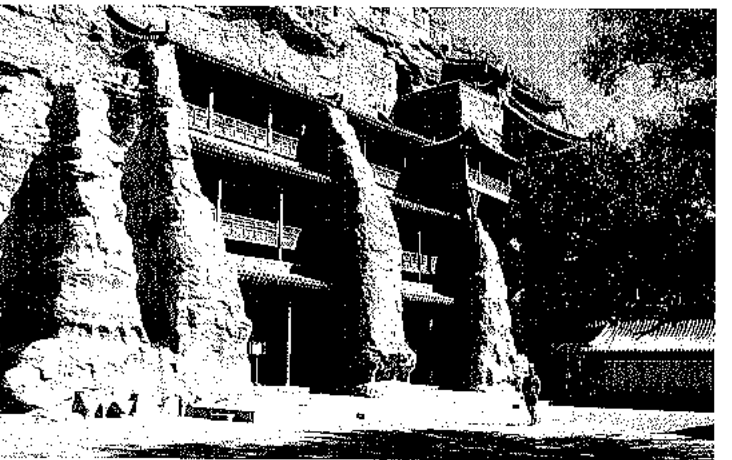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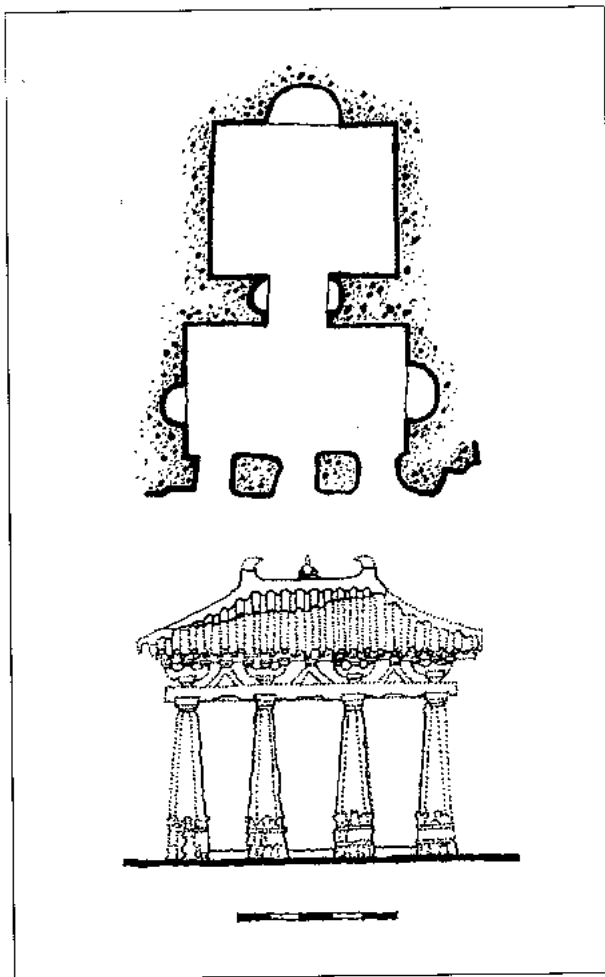
10



11

- <사진6> 雲崗石窟 제3굴과 제4굴의 전면외관이다. 상부에 목조굴침의 보와 서까래를 끼웠던 구멍이 보인다.
- <사진7> 雲崗石窟 제6굴의 목조굴침이다. 이 목조굴침은 제5굴의 굴침과 더불어 淸 順治8년(1561년)에 건축되었다. 각 기둥 상부에 기괴한 형상의 龍頭를 조각하였다.
- <사진8> 雲崗石窟 제6굴의 후실 입구 앞에 있는 기둥이다. 높다란 柱脚과 8각형 단면의 柱身을 가득 채운 조각과 단청은 현재 新疆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조기둥과 유사하다.
- <사진9> 新疆省 喀什(카쉬가르)에 있는 17세기에 건축된 香妃墓에 있는 高禮拜祠의 목조기둥이다. 新疆省 일대의 목조건축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기둥을 흔하게 볼 수 있다.
- <사진10> 雲崗石窟 제8굴의 후실에서 목조굴침을 본 모습이다. 목조굴침의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모습이 종교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 <사진11> 雲崗石窟 제7굴과 제8굴의 외관으로 후대에 건축된 3층의 목조굴침이 있다. 두 굴은 前後室 형식으로 평면이 거의 동일한 쌍굴을 이루고 있으며, 전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1) 현재 일부의 문헌에서는 제1굴부터 제20굴까지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순번을 붙이고 있으나, 제20굴 서쪽에 있는 일 중요한 굴에는 굴번호를 붙이지 않고, 가장 서쪽에 있는 제51굴을 제21굴로 하여 총 21개의 굴에 번호를 붙이고 있다.



〈그림4〉雲崗石窟 제12굴의 평면과 복원입면

세기경, 빠른 것은 東漢末境에 조영되기 시작하였다. 新疆지역은 일찍부터 인도와 서아시아, 그리고 멀리는 그리스 등과 교역을 하던 古代의 중요한 東西교통로인 '비단길(silk road)'에 위치하고 있는 요지였다. 이후 新疆지역의 석굴양식은 점차 동쪽으로 전래되기 시작한다. 甘肅省 敦煌에 있는 莫高窟은 新疆지역 석굴의 영향을 받아 이룩된 초기의 석굴사원이다. 莫高窟은 前秦 建元2년(366년)에 조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조영이 이루어진 시기는 北魏代이다. 北魏代에는 이 莫高窟을 출발점으로 하여 黃河 이북지역에 많은 석굴사원이 조영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甘肅省의 炳靈寺石窟, 麥積山石窟, 山西省의 雲岡石窟과 天龍山石窟, 河南省의 龍門石窟, 河北省의 南·北齋堂山石窟 등이다. 이들 중 炳靈寺石窟, 麥積山石窟, 雲岡石窟, 龍門石窟은 5세기 중·후반과 6세기초에 걸친 北魏代에 조영되었다. 天龍山石窟과 齋堂山石窟은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인 6세기 후반의 北齊때 조영되었다. 北魏와 北齊는 모두 北方의 유목민족에 의해 세워진 왕조이다. 현재 新疆省은 위구르족의 자치구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에 석굴사원을 전래한 민족은 漢族이 아닌 異民族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민족은 다름 아닌 北方의 遊牧民族으로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방의 유목민족은 활동영역이 넓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들이 古代의 문화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누

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雲岡石窟에는 당시에 조영된 다른 석굴들과 더불어 당시 문화교류의 내용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雲岡石窟은 지세에 따라 중앙과 동부 및 서부의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구분은 석굴의 조영시기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가장 먼저 조영된 구역은 제5굴에서 제20굴에 이르는 중부의 석굴군이다. 그 중 제16굴에서 제20굴까지의 석굴군은 縣耀五窟이라고 불리우며 文成帝때 고승 縣耀가 조영한 가장 오래된 굴들이다. 제5굴에서 제15굴에 이르는 나머지 굴들은 470년부터 洛陽으로 천도하는 494년 이전에 조영되었다. 제1굴에서 제4굴까지의 동부석굴군 역시 470년에서 494년 사이에 조영되었으나 내부의 불상은 그 이후까지 계속하여 조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제21굴에서 제53굴에 이르는 서부의 석굴군은 대부분 洛陽천도 이후에 조영된 조영시기가 가장 느린 석굴들이다.

가. 동부의 석굴군(제1굴-제4굴)

제1굴과 제2굴은 비슷한 형식으로 雙窟을 이루고 있다(사진2). 평면은 방형으로 내부 중앙에 中心塔柱가 있기 때문에 '中心塔柱式'으로 불리운다. 두 굴의 중심 탑주는 평면이 모두 한 간이며, 제1굴의 것은 2층, 제2굴의 것은 3층이다. 탑주 상부는 굴의 천장에 연결되어 있다(사진3). 각 층의 내 면에 불감을 만들고 여기에 불상을 조각하여 봉안하였다. 또한 기둥과 짜 및 지붕 등 건축적 요소가 매우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어 당시의 건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사진5). 굴의 동·서·북 세 면에는 여러 개의 불감을 만들고 불상을 조각하였으며, 그 사이 사이에 다양한 내용의 조각을 하였다. 그 중 제2굴의 동쪽 벽면에는 3층의 목조누각형 탑이 부조되어 있어 주목된다(사진4). 각 층은 모두 한 칸으로 처마에는 긴 장식물을 늘이고, 지붕 상부에 커다란 상륜을 올려 놓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당시 木塔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제3굴은 雲岡石窟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사진6). 평면은 전후 두 개의 실로 나누어진 '前後室'형이다. 단면상 전실과 후실에 높이차를 두고 전실보다 높이 올라간 후실 앞쪽 상부에 高窓을 두어 내부로 빛을 끌어들이고 있는 단면계획이 뛰어나다(그림2). 후실은 동서로 긴 평면이며, 동서의 양쪽 끝에는 종방향으로 깊은 공간을 만들었다. 전실에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후실의 전면에는 一佛과 二菩薩을 조각하여 놓았다. 그 풍만한 상호와 몸의 윤곽 등으로 보아 唐代 初期의 수법임을 알 수 있다. 굴 앞의 전실 상부에는 탑 형식의 조각이 있다. 여기에는 짜와 '人'자형부재 등이 조각되어 있으나 풍화가 심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제4굴은 방형평면의 단실형식으로 풍화가 심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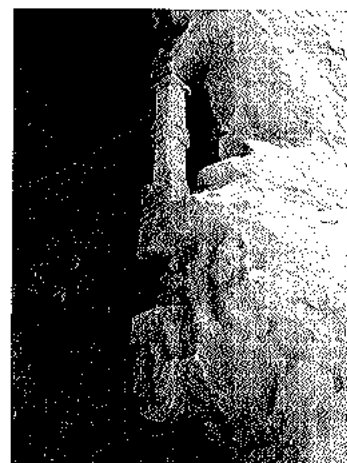
나. 중부의 석굴군(제5굴-제20굴)

제5굴과 제6굴의 전면에는 淸 順治8년(1651년)에 건축된 5칸 4층의 목조누각이 있다(사진7). 두 굴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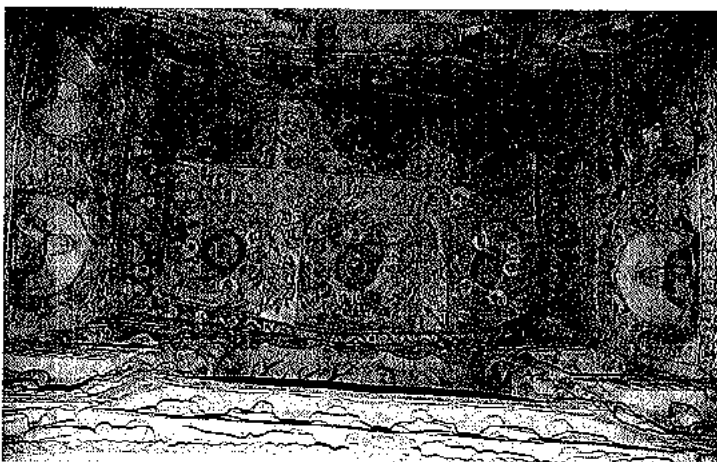
‘前後室’ 형식의 雙窟이지만 평면형과 조각의 위치 및 내용에 차이가 있다. 제5굴은 후실 중앙에 뒷쪽으로 치우친 곳에 높이 17m의 坐佛을 봉안하였다. 네 벽면에는 불감을 만들고 불상을 봉안하였다. 전실에서 후실로 들어가는 문은 홍예형으로 문 양측에는 두 구의 불상이 보리수 아래 마주보고 앉아 있다. 문 정상에는 飛天을 조각하였다. 제6굴은 中心塔柱形으로 후실 중앙에 위치한 중심탑주는 높이가 16m이며, 평면은 방형이다. 중심탑주의 하층 네 면에는 불상을 조각하였으며, 상층의 네 모서리에는 9층의 塔을 부조하였다. 後室의 후면에는 두 개의 팔각기둥을 두고 그 뒤로 세 구의 불상을 봉안하였다. 이 외에 후실 각 면의 벽체와 천장, 그리고 중심탑주의 기단부에는 다양한 불교적 내용들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다. 이 굴은 조각의 내용이나 양이 가장 풍부한 굴 중의 하나이다. 특히 중심탑주의 9층탑 부조와 동측벽면에 있는 여러 채의 건물과 5층탑 등의 부조는 北魏代의 건축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이 외에 전실에서 후실로 들어가는 입구 앞 양측에는 팔각기둥이 있다. 기둥은 높다란 柱脚위에 올려져 있는데, 柱身 각 면에는 각종의 식물무늬를 조각하고 채색을 입혔다(사진8). 이 기둥은 현재 新疆省 위구르자치구에 있는 목조전축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둥형식과 매우 유사하다(사진9). 당시 西域과 北魏의 건축문화 교류에 대한 내용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내부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어서 촬영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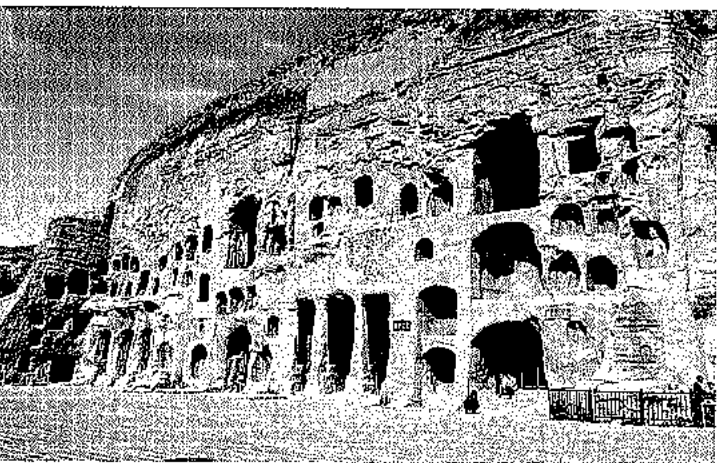
13



14



15



16

제7굴과 제8굴의 전면에도 후대에 건축된 목조굴침이 있다(사진11,10). 두 굴은 모두 ‘前後室’ 형식으로 전실이 서로 연결된 雙窟이다. 후실의 각 벽면은 몇 단으로 나누어 불상을 봉안하였다. 전실과 후실 사이의 문 상부에는 高窓를 두었으며(사진12), 후실의 천장은 우물천장을 형성하고 있다(사진14). 두 굴은 후실의 후벽에 봉안된 불상의 내용과 벽면을 구획한 단 수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형식을 이루고 있다.

제9굴에서 제13굴까지의 석굴군은 清代에 그려진 화려한 채색화가 있기 때문에 ‘五華洞’이라고 한다. 제9굴과 제10굴은 ‘前後室’ 형식으로 된 동일한 평면의 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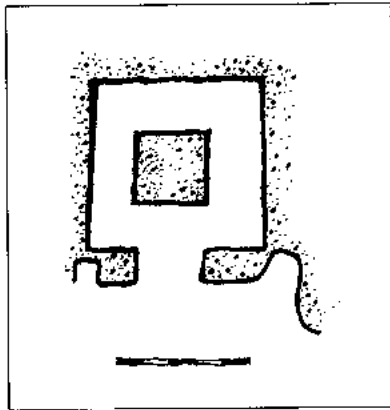
〈사진12〉 雲崗石窟 제7굴의 후실입구이다. 입구의 양측벽과 상면에 다양한 내용의 부조가 있다. 입구 상부에는 굴침의 보가 끼워져 있으며, 그 위에 高窓가 있다. 목조굴침의 구조와 高窓는 우리나라 石佛寺 石室金堂의 구조와 연관하여 시사하는 점이 있다.

〈사진13〉 雲崗石窟 제9굴 굴침기둥 상부의 조그마한 기둥으로 단면은 8각형이다. 柱身 중간에 覆蓮과 仰蓮의 띠를 두어 기둥을 상·하 두 부분으로 구획하고 있는 발상이 재미있다. 慶州 石佛寺 石室金堂의 本室 입구 양측에도 이러한 수법의 八角石柱가 있다.

〈사진14〉 雲崗石窟 제7굴 후실 상부의 천장이다. 천장을 여섯 개로 구획한 우물천장으로 연꽃을 비롯한 다양한 조각을 하고 단청을 입혔다. 제9·10·12굴의 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식의 우물천장을 볼 수 있다.

〈사진15〉 雲崗石窟 제9굴과 제10굴의 전면으로 기둥을 사용하여 세 칸으로 구획하였다. 기둥 하부에는 서아시아 계열의 건축을 연상케 하는 사자로 추정되는 동물을 조각한 주각이 있다. 상부에는 목조굴침의 보를 끼웠던 구멍이 있다.

〈사진16〉 雲崗石窟 제11·12·13·14굴의 전면외관이다. 제11굴과 제13굴이 동일한 형식이며, 제12굴은 제9·10굴과 동일한 형식이다.



〈그림5〉雲岡石窟 제51굴 평면

굴이다(그림3, 사진15). 두 굴 모두 전면에 목조굴첨의 보를 끼웠던 흔적이 남아있다. 전면에는 커다란 굴첨기둥이 있어서 입구를 세 칸으로 나누고 있다. 굴첨기둥의 하부에는 사자로 추정되는 동물이

조각된 柱脚이 있다. 이 柱脚은 서아시아의 건축양식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9굴 굴첨기둥의 상부에는 팔각형 단면의 기둥 중간에 覆蓮과 仰蓮의 띠를 두어 柱身을 상하 두 단으로 구획하고 있다(사진13). 이 수법은 신라 景文王代에 건축된 慶州 石佛寺 石室金堂(즉 石窟庵) 본실 입구에 있는 팔각형 石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제11굴에서 제13굴까지는 한組를 이루고 있다(사진16). 제11굴과 제13굴은 單室形이며, 제12굴은 '前後室' 형이다(그림4). 제11굴은 전면 외벽에 여러 개의 불감을 만들고 그 안에 불상을 봉안하였다. 입구가 있는 중앙부 입면을 세 단으로 나누어 제1단에 입구, 제2단에 불감, 제3단에 高窓을 두었다. 내부에는 中心柱를 두고 그 네면에 불상을 조각하였다. 양측면과 후면의 벽에는 크고 작은 많은 불감과 불상을 조각하였는데, 그 모습이 新疆지역의 千佛洞을 연상시키고 있다.

제9굴과 제10굴 및 제12굴의 전실 각 면에는 벽면 가득히 조각을 하고 단청을 입혔다. 이 세 굴은 제6굴과 더불어 雲岡石窟에서 가장 화려한 굴이다. 특히 여기에는 건축과 관련된 각종 조각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 뿐 아니라 그 화려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발길을 오랜동안 잡아놓기에 충분하다(사진17,19).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건물들은 모두 세 칸의 단층건물이다. 기둥의 단면은 방형의 네 모서리를 크게 모접한 팔각형이다. 기둥 하부에는 초석이 있다. 柱身은 하부가 상부보다 직경이 큰 민흘림 형식이다. 그러나 상부를 완만한 곡선으로 깎아서 배흘림 기둥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기둥 상부에는 곡선의 굽과 굽받침이 있는 커다란 방형의 柱頭를 올려놓았다. 雲岡石窟에서 보이는 모든 주두와 소로는 이와 같이 굽받침이 있다. 漢代건축에서는 굽받침이 있는 주두를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에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굽받침 주두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주두 상부에는 단장형 형식의 짧은 부재를 올려놓고 상부의 수평재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법은 新疆지역의 목조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고구려의 天王地神塚에서도 발견된다. 물론 주두위에 바로 수평재를 올려놓은 경우도 있다. 수평재 상부에는 枋과 人字形부재를 반복하여 올려놓았다. 枋의 형식은 하나의 소로위에 枋(栱)을 놓고 이 위에 다시 세 개의 소로를 올려놓은 소위 '一枋三升式'이다. 一枋三升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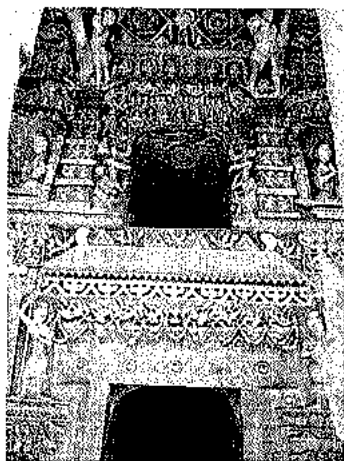
두공은 漢代건축의 두공과는 형식이 다르다. 따라서 北魏代에 들어와 새로운 定型으로서 사용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직선으로 구성된 人字形부재는 '人字形臺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漢代건축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식의 부재이다. 반면에 고구려에서는 5세기초 天王地神塚에서 직선으로 된 人字形대공이 상부의 하중을 받기 위한 구조재로 사용되고 있다. 두공과 人字形부재 위에 다시 수평재, 즉 도리를 놓아 원형단면의 서까래를 받도록 하였다. 지붕은 우진각지붕으로 추정되며, 암기와와 수기와를 사용하고 있다. 용마루 양단에는 尾로 보이는 부재가 있으며, 그 중간에 삼각형의 火焰形과 새가 조각되어 있다. 용마루 중간에 위치한 장식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모습과 유사하다. 이 외에 특수한 형식의 기둥도 보인다. 불상의 좌우에 장막을 걸치기 위한 기둥은 상부의 장식이 그리스(Greece)건축의 이오니아식 주두(Ionic order)와 유사하다(사진20). 이와 같이 雲岡石窟에 표현되어 있는 건축양식에는 漢代건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형식은 新疆省의 목조건축, 고구려 고분벽화의 건축도 등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페르시아를 비롯한 서아시아와 인도건축, 그리고 멀리는 그리스건축과 유사한 모습도 발견된다. 이러한 양상은 건축양식 뿐 아니라 다양한 조각수법과 무늬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雲岡石窟은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통하여 흡수된 다양한 문화를 재창조하여 이룩된 藝術의 걸작이라 할 수 있다. 北魏代에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폭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이었다는 점에 세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제16굴에서 제20굴까지의 굴들은 대체적으로 타원형 평면과 궁륭형 천장을 이루고 있다. 굴의 전면에는 굴첨이 있었던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그 형태를 알 수 없다. 대체적으로 굴의 전면은 상하 두 단으로 나누어 하부를 출입구, 상부를 高窓으로 한 간단한 형식이다. 일부에는 입구 양측에 불감과 불상을 만든 경우도 있다. 제17굴의 입구 우측 벽면에는 제2굴에 부조되어 있는 3층탑과 거의 동일한 형식의 3층탑이 부조되어 있다. 각 굴의 내부에는 후벽에 기대어 主尊을 커다랗게 조각하고 각 벽면에 大小의 불상을 조각하였다. 각 굴의 主尊은 대부분 규모가 크며, 北魏代 불상조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제20굴의 露天大佛은 雲岡石窟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불상이다(사진21). 이 大佛은 遼代에 굴첨이 파괴되어 외부에 노출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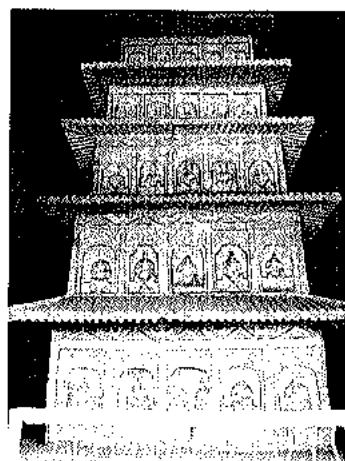
제21굴에서 제53굴까지 서부의 석굴군은 조영년대가 늦은 편이며, 규모가 작고, 굴의 형식에도 정형이 없는 등 중부와 동부의 석굴군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 다만 건축과 관련하여 제51굴은 주목할 만 하다. 평면은 정방형에 가까운 中心塔柱式 굴이다(그림5). 그런데 중심탑주의 건축적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다(사진18). 이 탑은 방형기단위에 올려져 있으며 평면이 정방형이다. 각 층 모두 5칸으로 間數가 동일한 반면에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체감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平坐를 사용하지 않았

다는 점이다. 漢代의 陶樓나 畫象石에서 볼 수 있는 고층건축에는 대부분 平坐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탑은 漢代의 고층건축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北魏代 후반기의 수도였던 洛陽에 永寧寺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큰 寺刹이 있었다. 그 사찰안에 9층목탑이 있었는데, 《洛陽伽藍記》卷一과 《水經注》卷十六에 이 목탑에 대한 기록이 있다. 두 문헌의 기록내용 중 목탑의 높이에 대한 기록을 제외한 전반적인 서술은 일치한다. 이에 의하면 9층목탑의 형태는 雲岡石窟의 제51굴에 있는 중심탑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추정된다.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체감되는 수법을 사용하면서도 간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 平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체감물 등 전체적인 목탑의 형식은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 法隆寺 五重塔과 그 구성이 비슷하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목탑이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新羅 善德王代에 조영된 皇龍寺 9층목탑이다. 많은 사람들이 황룡사 9층목탑에 관심을 가지고 복원도를 그렸다. 이들 복원도를 그리는데 사용된 기본적인 모형이 法隆寺 五重塔이다. 法隆寺 五重塔이 우리나라 삼국시대, 특히 백제의 목탑양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北魏의 목탑과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목탑, 그리고 일본 奈良시대의 목탑이 비슷한 형식을 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雲岡石窟 제51굴에 조각되어 있는 탑은 고대 우리나라와 주변국가 사이의 건축문화, 나아가서는 문화전반에 걸친 국제적인 교류관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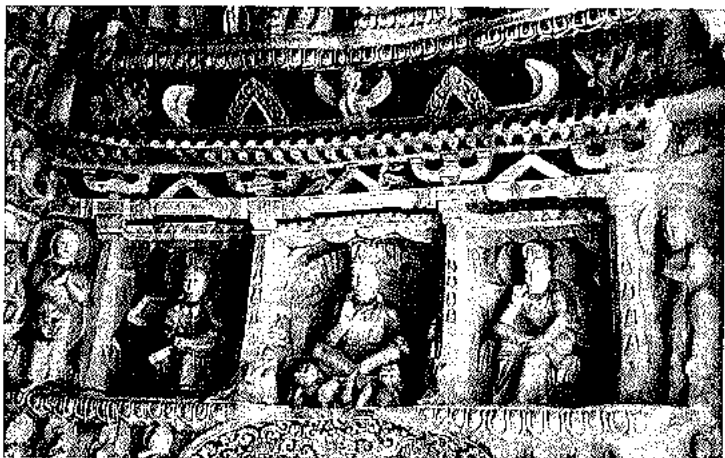
雲岡石窟은 이번이 두번째 답사이다. 지난번 답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雲岡石窟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었다. 혼자서 하는 답사이기는 하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없다. 黃偉와 함께 답사하기로 한 기간이 10일 뿐이고, 보아야 할 곳은 많기 때문이다. 언젠가 여유가 있으면 이곳에서 몇 일 머무르면서 구석구석을 살살이 살펴보고 싶다. 많은 아쉬움을 달래며 雲岡石窟 앞 식당에서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발길을 돌린다. 다음 목적지는 大同市로 가는 도중에 있는 사찰인 ‘觀音堂’이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건축이 나를 반겨줄 것인지 하는 설렘으로 렌트한 택시에 몸을 실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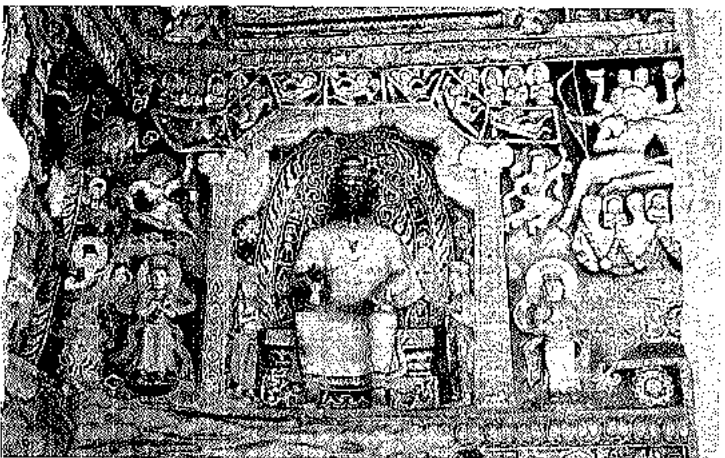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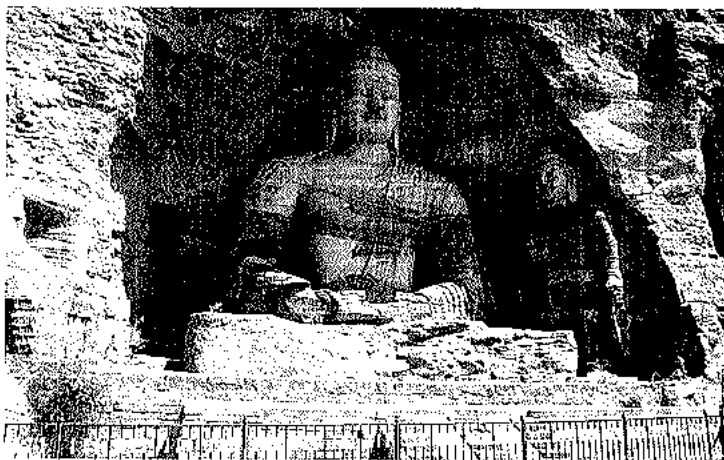


19



20

- 〈사진17〉 雲岡石窟 제9굴 전실의 정면 벽체이다. 제9굴을 비롯하여 제10굴과 제12굴의 전실에는 이와 같이 벽면 가득히 조각을 하고 단청을 입혔다. 이 세 굴은 제6굴과 더불어 雲岡石窟에서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굴로 손꼽힌다.
- 〈사진18〉 雲岡石窟 제51굴의 중심탑주이다. 제1·2굴의 중심탑주 및 여러 곳에 부조되어 있는 목탑형식과 더불어 北魏代 목탑양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 〈사진19〉 雲岡石窟 제12굴 전실의 동측 벽면이다. 雲岡石窟의 여러 굴에는 이와 같이 목조건축의 세부가 묘사된 조각이 많다. 北魏代 목조건축양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에 국제적인 건축문화의 교류가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사진20〉 제10굴 전실 북벽의 일부이다. 불상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장식하고 있다. 불상 좌우의 기둥은 Greece 건축의 Ionic Order와 유사하다.
- 〈사진21〉 雲岡石窟 제20굴의 露天大佛로 雲岡石窟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불상이다. 遼代에 굴침이 무너져서 大佛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21

노인주거의 설계기준(5)

Design Guidelines for Elderly People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 사례1(국외)

강병근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ang Byoung-Keun

I. 노인주거의 필요성과 무장애 공간

1. 노인주거의 필요성
2. 무장애 공간계획

I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1

1. 주택 출입구
2. 거실
3. 침실

II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2

1. 욕실 및 화장실
2. 부엌
3. 발코니

IV.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3

1. 인테리어
2. 조작기기
3. 정원

V.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사례 1~3 (국외)

V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사례 4 (국내)

노인의 주거생활은 노인의 노화진행에 따라 독립단계, 반의존단계, 의존단계로 주거활동의 장애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반주택의 기능 이외에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활동보조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 간호·간병서비스 등이 통합되어 진다.

그러므로 노인주거의 설계사례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주거보조서비스의 비중에 따라 완전자립형 노인주거(일반주거형), 반의존형 노인주거(지원주거형), 의존형 노인주거(시설주거형) 등 3가지 유형의 노인주거 모델로 구분하여 노인주거 설계사례를 분석한다.

완전자립형노인주거(일반주거형)는 거주자가 자기 스스로 주거관리, 조리, 그리고 개인적 보호를 할 수 있는 노인주거를 지칭한다. 즉 완전자립형 노인주거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독립해서 조리, 세탁, 청소, 자기 몸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노인을 위한 쾌적성을 실현한 주거형태로써, 제공되는 서비스는 노인들의 샤워,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활동 보조서비스가 갖추어진 주택이다.

반의존형 노인주거(지원주거형)는 조리, 청소 또는 개인적 간호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상생활 활동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주거형태로써, 의료간호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 사회

활동보조서비스, 낮동안의 건강보호(Day Health Care) 등이 갖추어진 주택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의존형 노인주거(시설주거형)는 의존적인 생활을 해야하는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주거기능은 거의 적으며 대신 간호간병 서비스의 비중이 높고 가사보조, 사회활동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제공되는 주택이다.

1. 완전자립형 노인주거(일반주거형)

1-1. Neu - Isenburg

설계: 독일노인지원위원회

Köln-H. Stolarz

거주인: 여자(72세)+남자(71세)의 주거공동체¹⁾

건축년도: 약 1900년

건물규모: 침실 5개, 현관, 부엌, 욕실, 화장실

총 주거면적 - 155m²

1-1-1. 거주인과 주거조건

이 임대노인주거는 Köln 도심 변화가에 위치한 일종의 상가주택 2층이다. 이 건물은 19세기말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이어서 승강기가 없으며 상당



Köln시 'Neu-Isenburg'

주) 1. 주거공동체란 혼자된 노인들이 자립생활을 최대한 오래도록 지속하기 위하여 자율 혹은 관련지원단체를 통해 한 주거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래 유럽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노인주거의 한 유형이다.

한 부분의 성공적인 현대화를 위한 수리작업에도 불구하고 구식 전기장치, 여מים 좋지않은 창호 등으로 인한 허술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주거이다.

2명의 세입자가 이 주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성(72세) 입주인은 40년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으며 그의 남편은 15년전에 사망하였고 아들은 3년전에 분가하였다. 이 여자노인은 비록 심한 시각장애와 당뇨, 관절통으로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심한 청각장애와 보행장애를 지니고 있는 가구공이었던 남자노인(71세)을 간호하고 가사를 돌봐주며 함께 살고있다. 1주일에 한 번씩 사회복지센터의 의료지원을 둘다 받고 있으며 주2회에 걸쳐 공익요원의 가사지원을 받고 있다.

노화장애로 인하여 두사람다 옛친구들과의 교류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가끔 도와주고 있는 이웃주민과의 교제는 상당히 잦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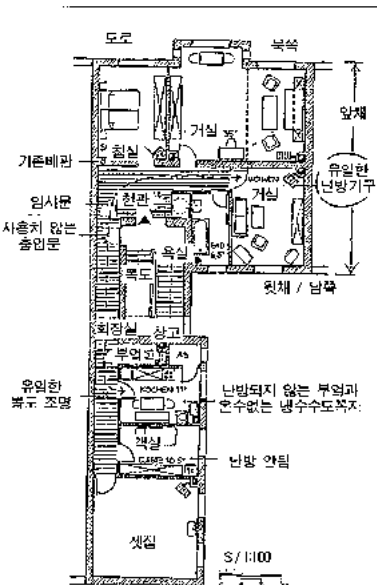
난방비를 포함하지 않은 기본적인 임대료가 약 월 500DM(약 30만원)으로써 전체 생활비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겨울에는 미진한 난방상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난방비와 전기료(약 300DM - 약 18만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규모는 상당히 크나 불합리한 평면과 낡은 건물상태에도 불구하고 두 거주자는 그들이 살아왔고 정이든 보금자리를 지키고 그곳에 머무르기를 소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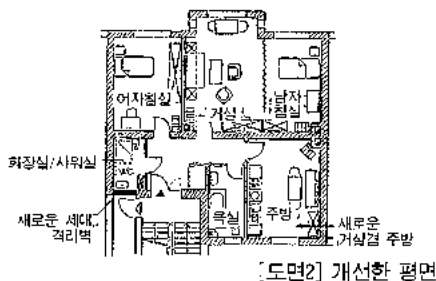
1-1-2. 주거의 상태 및 문제

앞채와 뒷채로 구성되어 있는 150m 크기의 옛가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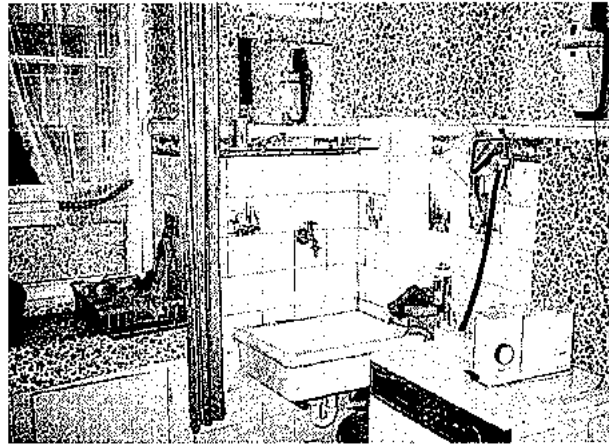
앞 뒤 실이 긴 내부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 여러명의 가족들



[도면1] 기존 평면



[도면2] 개선한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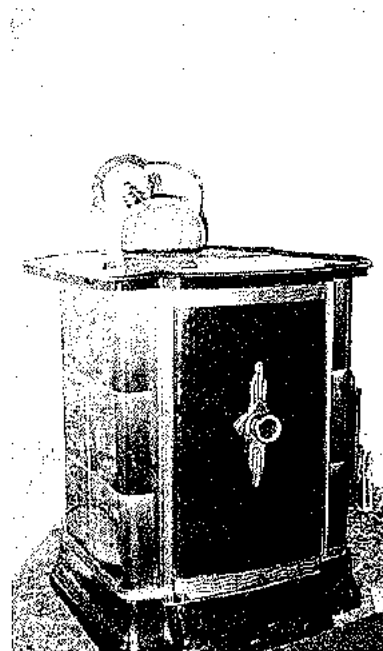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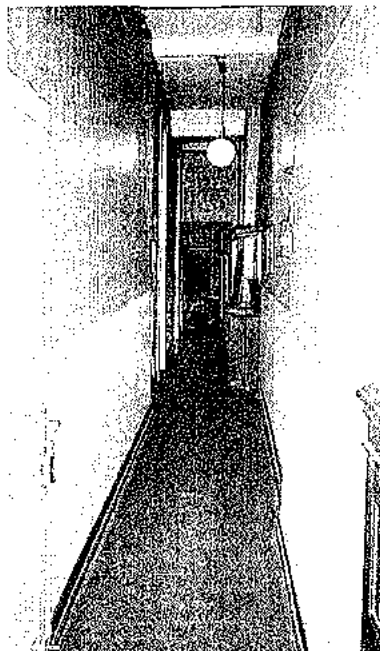


Köln시 'Neu-Isenbu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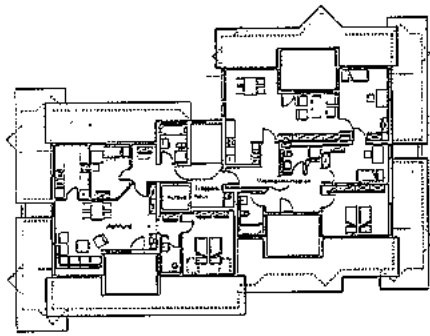
이 함께 생활하도록 설계된 주거이므로 노인주거로서는 지나치게 큰 규모이다. 따라서 두 노인이 이 주거를 관리하기에는 우선 규모가 너무 커서 대부분의 실은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앞뒤채를 잇는 복도는 지나치게 길어(예, 거실에서 부엌까지) 보행장애자가 이용하기에는 큰 문제였다. 또다른 큰 문제점은 낡은 설비였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벽난로를 위하여 항상 무연탄을 지하실로부터 가지고 올라와야 하며 보조난방인 프로판가스 난방기와 목욕실에만 나오는 온수등으로 인하여 겨울철에는 그나마 사용하는 실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외에도 좁고 잘못 배치되어 접근이 어려운 가스레인은 시각장애자인 주부에게는 항상 위험물이었으며, 손잡이가 없는 욕실, 좁은 화장실 등도 보행장애자인 노인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1-1-3. 개선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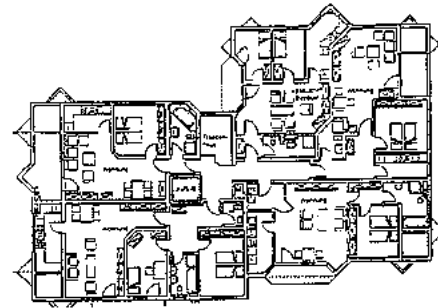
지나치게 크고 잘못 구성된 평면의 큰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앞뒤채의 중간부분에 놓인 계단([도면 1] 참조)이 두 공간을 분리시키는데 매우 유효하다고 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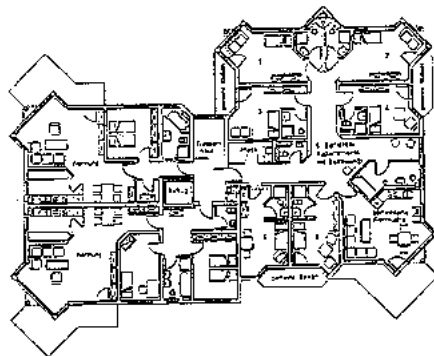
Köln시 'Neu-Isenbu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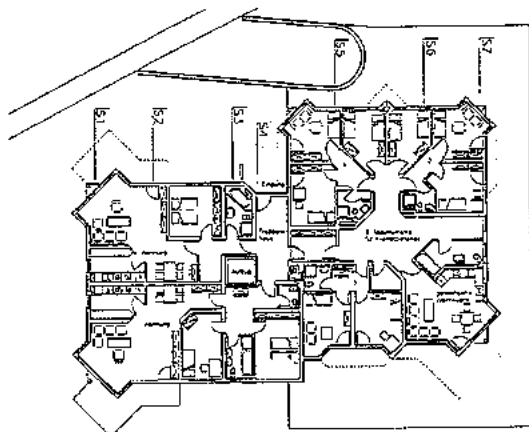
4층



3층



2층



1층

[도면3] 각층 평면

는 판단하였다. 2인을 위한 주거로서 앞채만으로 충분한 규모로 보고 평면을 고치기로 하였다. 거실중 하나를 접근하기 쉬운 부엌으로 고치고, 현관 옆에 새로 화장실 겸 샤워실을 만들었다. 이로인하여 기존 욕실은 손잡이만 부착하여 보완 현대화시키는 수준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으며 여자노인의 침실은 가구를 바꾸어 공간을 넓히고 남자노인은 보행장애를 고려하여 넓은 거실의 한부분에 침실코너를 커튼이나 문달린 이동벽으로 분리 설치하여 노인용 주거로 변경하였다.([도면2] 참조)

2. 다세대(多世帶)공동주거 일부로서의 노인주거 공동체(의존형+반의존형 노인주거)

2-1. Dettingen/Ems, Germany

설계 : Rolf Kurzweg, Filderstadt

건축주 : Fa.Lutz Baubetreuungs GmbH Metzingen

Andreas-Pau-Stiftung

Dettingen/Erms

건축년도 : 1992-93

주거형태 : 중앙공동사용 계단실 및 승강기가 있는 다세대 공동주거로서 건물의 1/2은 자립으로 생활하는 노인, 미혼모, 청소년, 독신자+2가족의 생활공동체가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주거로 분양

건물규모 : 총주거면적의 1/2 : 건축면적-약 850m²

전체 공간체적-약 2,500m³

가구수-약 22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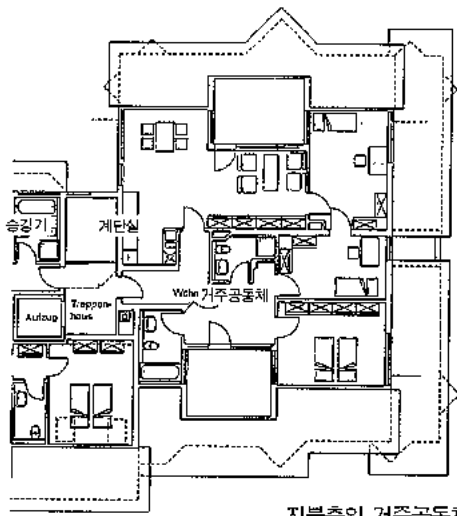
거주인당 점유면적-약 38m²

2-1-1. 거주인과 주거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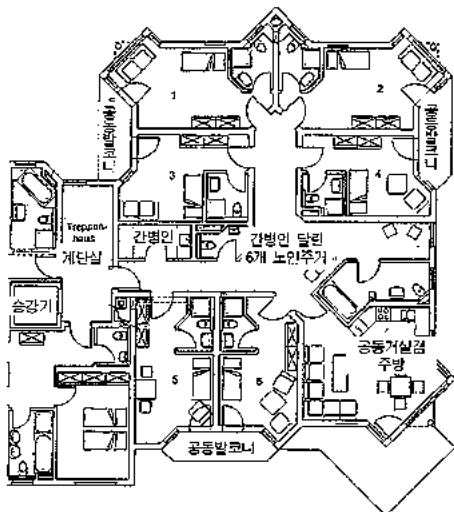
일명 'Rilkehaus'라 불리는 이 건물은 Dettingen/Erms시 신주거단지에 위치해 있다. 주변은 여유



Dettingen시 'Rilkehaus'



지붕층의 거주공동체



6개 노인주거의 1층 평면

[도면4] 부분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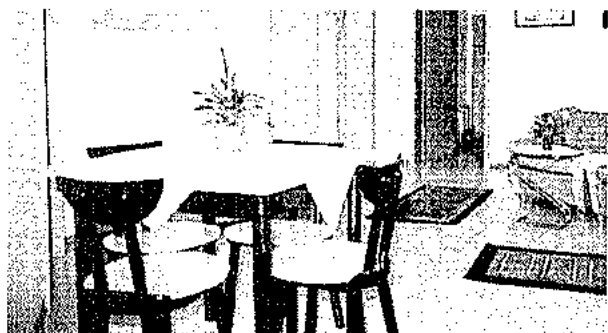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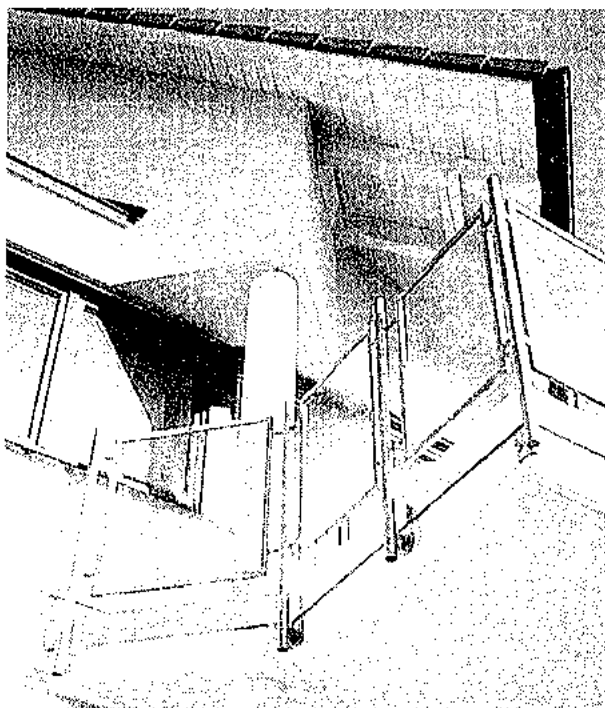
있게 배치된 독립주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건물은 독립주택이고 단지의 일부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주거지역은 녹지가 매우 잘 확보되어 있으며 단지의 동쪽은 자연경관이 멀리까지 열려있고 본 건물의 가까이에는 조그만 산자락이 이어져 있다. 문화시설과 일상생활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은 이 단지내에는 확보되어 있지 않다. Dettingen시 중심가는 본 건물로부터 약 1km 떨어져 있으며 그곳으로 가는 버스의 정류소가 바로 이 주택의 대문 앞에 위치해 있다. 뿐만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개인택시와 배달서비스가 조직되어 가동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웃끼리의 교류를 위한 커피모임과 서적대여 등 문화적 욕구충족, 운동 등의 최소한의 지역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1-2. 주거건물의 상황([도면 3, 4] 참조)

건축주는 이 4층 다세대주택의 노인을 위해 중앙 공용계단과 승강기를 설치하였다. 'Andreas-Paul' 재단은 이러한 주거조건이 연령층을 초월한 노인주거공동체의 모델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물의 북동쪽 절반을 매입하여 노인에게 편리하도록 설계를 의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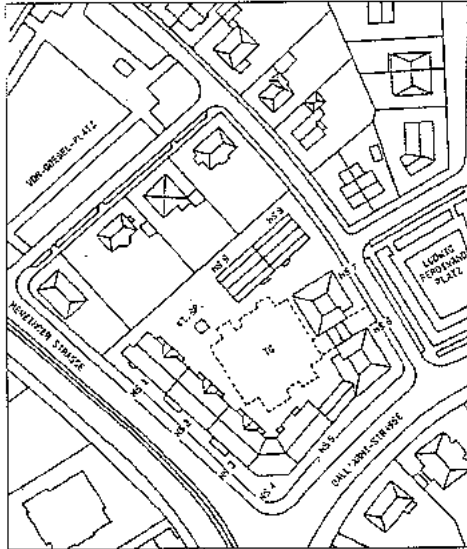
이 노인주거를 제공한 'Andreas-Paul'은 각각 3개의 침실과 욕실이 있는 이 건물의 1층 절반은 아이가 있는 미혼모에게 할애를 하였고 이들 3가구를 위해 다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실과 커다란 거실점 부엌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

2층에는 노인주거가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발코니와 조그만 샤워실이 달린 6개의 1인실(각각 13~17m)과 공용의 목욕탕, 거실점 부엌이 겸비되어 있다. 3층에는 2개의 주거그룹이 자리잡고 있는데 각 단위 그룹은 다시 2개의 침실과 부엌, 욕실을 갖춘 3가구로 나누어져



Dettingen시 'Rilkehaus'

있다. 여기에는 이주민 가족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맞은편(참고평면의 우측)에는 이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객실로 활용되는 주거가 있다. 이 주거는 이 주택에 사는 노인의 가족이나 필요시 노인을 간호하는 간병인이 사용할 수도 있다.



[도면5] 배치도

4층인 지붕층에는 다시 4가구의 주거가 있는데 이것은 젊은이들의 생활 공동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주거공간은 동시에 이 건물에 사는 모든

거주민들의 사랑방 노릇을 하기도 한다. 즉 이 주거공동체 소속원들의 만남의 장소이고 매일 정기적인 커피타임이 이곳에서 모두를 위해 베풀어진다.

이러한 공동공간은 지하층에도 있어 일부 주차장외에 공용취미실, 각종 부속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2-1-3. 정리 및 평가



본 프로젝트는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주거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새로운 주거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거창한 준비는 없었지만 민간단체의 이 성공적인 주거공동체 프로젝트는 노인주거의 괴리현상등 많은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고, 노인을 시설주거에 수용하여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하고도 노인에게는 선호도가 떨어지던 기존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2-2. '통합형 모델프로젝트 주거2' (다세대 공동주거), München-Germany

설계 : Storek+ Partner, München

건축주 : 공동사용 주거복지협회(Genofag), München

건축년도 : 1987-1988

주거형태 : 전면 2-3칸, 3층 주거진물로서 가로블럭형으로 건축되어 졌다. 총 78세대중 1층 27세대가 노인주거이며 1개소의 만남의 장소가 중앙에 있다.

건물규모 : 노인주거 /

연면적-약 2,0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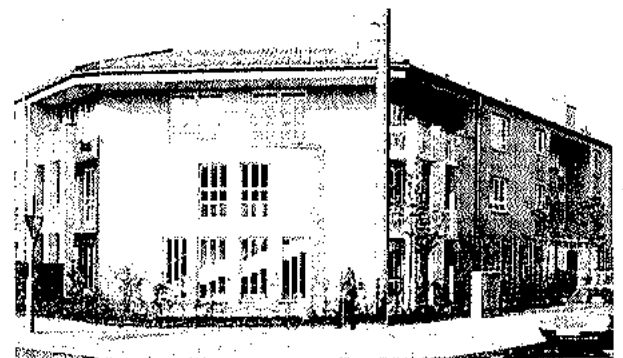
공간체적-약5,500m

주거수-약 33세대

거주인당 점유면적-약 60m²

2-2-1. 거주인과 주거조건

뮌헨 시의회는 1979년에 이미 노인, 귀화외국인, 장애인, 자녀가 많은 가족등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을 함께 살게할 수 있는 '통합형 주거(Integriertes Wohnen : IWO)'를 새로운 공동주거 모델로 건축할 것을 결의하였었다. 건축상을 수상한바 있는 100세대 규모의 '통합



München시 '통합형 모델프로젝트 주거2'

형 모델프로젝트 주거1'에 이어 건축되어진 이 주거는 도심의 동쪽가장자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Nymphenburg 공원녹지로부터 불과 몇 백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배치도((도면5))에서 보는 우측아래 도로는 매우 통행량이 많아서 보행장애자 등을 위하여 가로블럭형 주거로 후면 중정을 둘러싸도록 계획하였고 동북쪽으로는 주변의 Ludwig-Ferdinand 광장과 단독주거들을 의식하여 독립주거와 유사한 형태로 처리하였다.

본 건물로의 진입은 주변도로에서 벗어나 개인주택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나도록 계획하였고 지하 주차장은 중정 아래를 이용하였다.

2-2-2. 주거건물의 상황((도면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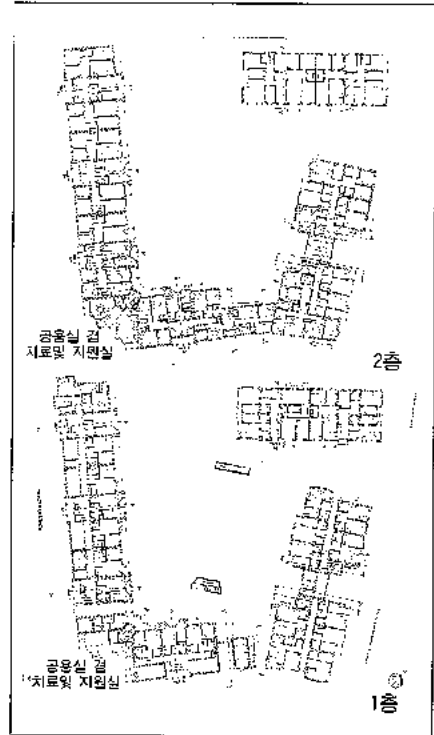
상호 연결된 9동의 3층짜리 이 주거는 상부층은 전면 2-3칸형 주택으로 건축되어 있는 반면 1층부분은 계단실이 일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바로 이 1층에 27세대의 노인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이중에 21세대는 1.5침실형(1침실+1개방형 거실)으로 규모는 약 40m이다. 나머지 6가구는 2침실형 주거로서 각각은 50m의 크기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1층에는 2개의 공용욕실이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자전거 보관소, 빨래 건조실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양쪽에서 접근이 용이한 도로 모퉁이부분은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교류를 가질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1층에는 공용공간으로 로비, 사무실, 공용화장실, 간이부엌, 공동휴게실과 2층 전시실과 부속실로 연결되는 별도의 내부계단이 있다.

2-3층에는 침실이 2~4개인 주거가 아이가 있는 미혼모, 장애인의 생활공동체와 자녀가 많은 가족들을 위하

여 마련되어 있다. 이 주거중에는 생활의 지원이 불가피한 반자립형 터키 이민자 소녀의 주거와 5침실형 주거에 정신질환(노환)을 겪고 있는 노인이 입주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크고(4침실형) 작은(2침실형) 주거의 조합은 자녀세대가 여러 부모세대와 동거 또는 인

거형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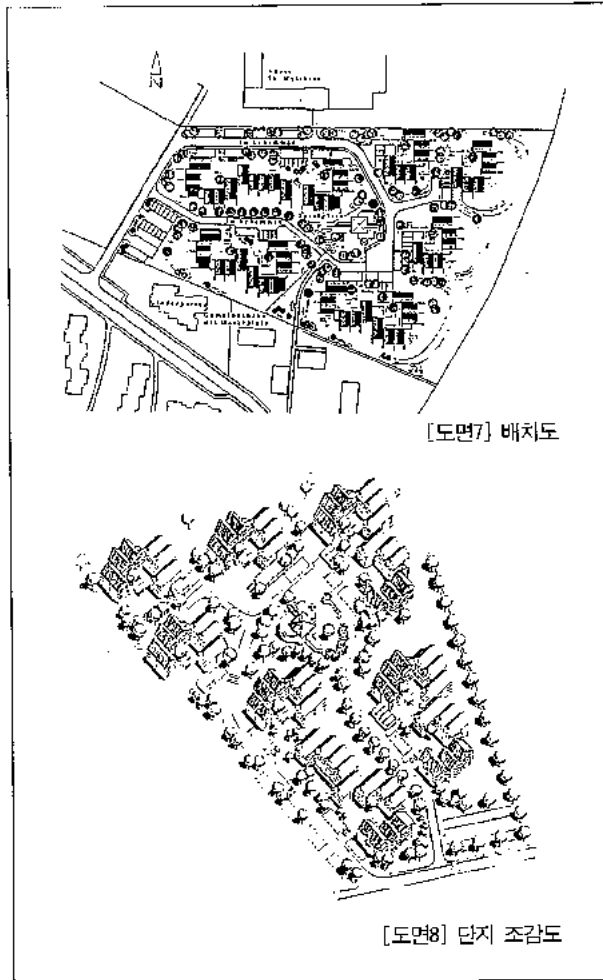
1층에 위치한 노인주거는 전실, (내부에 배치된)욕실, 소형부엌이 갖추어져 있고 1개의 침실과 개방식 거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모든 세대는 남,동,서쪽으로 향한 밝은 테라스를 갖추고 있으나 반면 채광이 잘되지 않아 항상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긴 중복도가 모든 실을 연결하고 있기도 하다. 이 주거의 많은 부분은



[도면6] 각층 평면도



Trier시 'Schammatdorf' 사례



노인주거로만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특히 많은 욕실과 소규모 주거는 일반 가족에게는 지나치게 적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는 여러 가지 노인주거계획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비록 가까운 사회복지 센터에서 복지사들이 항상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이상적인 지원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사와 사회교육가가 1명씩 이 노인주거를 전담하고 있으며 만남의 장소와 공용거실은 내부인과의 교류는 물론 외부인과의 자연스러운 접촉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비상연락 시스템이 전가구에 구축되어 있고 야간에는 이 시스템이 다시 가장 가까운 소방서(독



Trier시 'Schammatdorf'

일에서는 구급 구난을 소방서가 담당한다)와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2-2-3. 정리 및 평가

이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점은 반자립형 노인주거를 일반주거와 특별한 기능의 주거 등과 섞어서 통합배치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주거의 단순한 물리적인 혼합만 실현시킨 것이 아니라 상이한 세대간의 통합도 건축적으로 그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건축적으로 구체화 하였다는데 그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 제안도 완전의존형 주거로의 전환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작은 규모의 노인단위주거가 간병인 등의 등거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2-3. 통합형 주거 'Schammatdorf', Trier Germany

설계 : Klaus Frey, Trier

건축주 : Trier 주택신탁회사

건축년도 : 1979

주거형태 : 10개의 중정형 주거그룹, 중앙계단실 전면 박공형 입면을 지닌 매 주거그룹은 다시 노인, 장애인, 혹은 일반가정이 1-2층에 입주해 있는 형태

건물규모 : 1중정형 주거단위당 약 1,100㎡

공간체적—약 4,000㎡

주거수—약 22세대

거주인당 점유면적—약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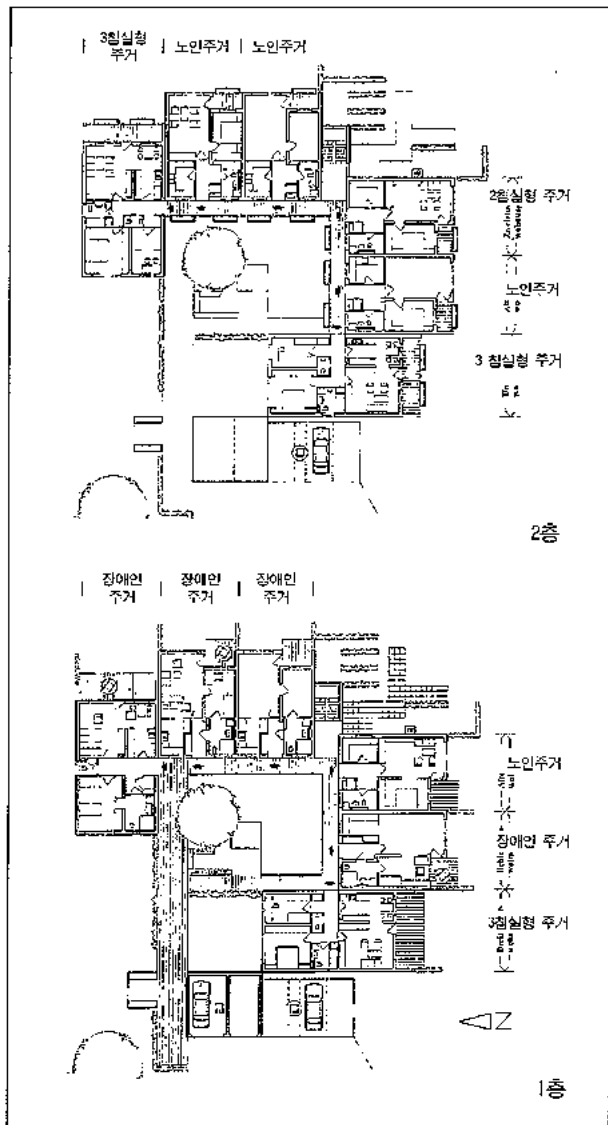
2-3-1. 거주인과 주거조건

총 118가구 규모의 Schammatdorf 노인주거단지는 트리어(Trier)시의 역사성 깊은 옛 도시중심부에 인접하여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단지의 동쪽으로 Trier-Saarbrücken간을 오가는 기차길이 있어 여기서 오는 소음을 차단하기위해 조성된 방음용 언덕이 단지의 경계를 만들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Trier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60년대에 건축된 신 주거단지가 2~4층규모의 연립형과 몇몇동의 8층타워형으로 중정을 두고 개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단지의 서 북쪽은 12세기에 건축되어진 고전적인 건축물들이 또다른 경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단지는 중세적인 건물군과 근대적인 주거군을 연결하는 이러한 도시적인 맥락을 감안하여 저층 중정식과 박공 정면형의 건물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10가구의 주거가 이웃과 상호 엇갈려 배치된 중정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거단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주거단위들이 다시 마을 중심의 단지공동시설을 중심으로 외곽의 경계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도면7, 8] 참조)

'도시 속의 마을'이라 할 수 있는 이 서민 주거단지는 노인과 장애자들이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그들이 자라는 토양속에 계속 뿌리내리며 긴밀한 가족관계와 이웃간에 함께산다는 생활공동체의식속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한 대표적인 건축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



[도면9] 각층 평면도



Trier시 'Schammatdorf'

합형 주거공동체와 생활공동체는 노인과 장애자의 단순한 물리적인 통합외에도 그동안 이들의 주거로 일반화되었던 시설주거의 집단화, 익명화, Ghetto(불량집단으로 분류되어 강제로 수용된 집단)화, 격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었다.

2-3-2. 주거건물의 상황([도면9] 참조)

각 6개의 박공으로 정면을 형성하고 있는 10가구분의 한 공동주거는 모두 1층 한가구 2층 한가구로 주거 단위가 나누어져 있다. 1층주거는 마당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2층주거는 건물군의 코너부분에 위치한 공용계단을 통해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2층에서 각 주거의 진입은 다시 중정쪽으로 개방되어 있는 연결 복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각각의 모든 공동주거단위는 일반가족형 주거와 노인주거, 장애인주거가 모두 혼용되어 있어 모든이들의 입주가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상호 다른 상황의 주민이 한 그룹을 이루며 직접 함께 생활하고 이웃으로서 상호 자연스러운 지원과 보호를 하도록 건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노인주거와 보행장애인주거의 분포는 전체 가구수의 1/3수준이다. 일반 가족형주거는 각 건물군의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 3침실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필요시 2층주거의 경우는 지붕층으로 확장도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보행장애인 주거는 건축비의 부담 때문에 당초 계획하였던 승강기를 모두 설치할 수 없어 가능한한 1층으로 모아 배치하였다.

노인주거는 1~2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 있는 57m의 규모이다. 전면복도로 연결된 부엌과 욕실은 중정쪽으로 자연채광을 하도록 하였고 거실은 반대편 녹지를 향하도록 후정에 면하게 배치하였다. 침실은 발코니를 달아 외부와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였다. 각각의 평면형은 모두 동일한 모듈이 기본골격으로 되어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주거의 경우에만 욕조대신에 샤워조를 넣어주는 형식 등의 변화로 공간구성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인과 장애자가 이 단지내의 모든 주거에 원할 경우 선택적으로 옮길 수도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다.

2-3-3. 정리 및 평가

'Schammatdorf' 공동주택단지는 도시계획적으로 구시가지와 신주거지의 사이 공간을 성공적으로 연결한 좋은 사례이다. 동시에 단지 중앙에 Ghetto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자립형 노인, 장애인, 일반주거를 혼용시킨 규범적인 설계대안이다. 이 건축계획의 주안점은 건강과 활동제한 상태의 장애를 개인과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이웃과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최대한 보편적인 자립생활을 보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노인과 장애자가 돋보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한 이 단지 주민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이들은 다시 누구의 집이 아닌 바로 자신 스스로의 집에서 다른 이웃 주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이다.

역사도시 베이징(北京市)과 주택개선행업

BEIJING-Make a Living the Townhouse of Paststyle

조인숙 / 대리건축사 사무소
by Cho In-Souk

某 경제신문의 생활경제 또는 부동산 면의 제목이다.

'1,000가구를 넘어야 안정 투자', '3만 6,000㎡ 풍치 지구 해제', '빌라·단독 1,300가구 건립', '건설사 투자 개발형 사업 선점 경쟁', '아파트 1,400가구 공급', '임대 아파트 3만 가구 건립', '往소 수도권서 1만여 가구 공급', '이주비 많은 지역 수익률 높다'.

이 제목들을 보면서 대개는 비슷한 것을 머리 속에 그릴 것이다. 쉬지 않고 접하게 되는 대중매체를 통해서까지 우리가 사는 도시 및 건물들은 부동산 가치로서만 존재할 뿐 더 이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준비는 했었는데 뒤늦게 소개하는 베이징(北京市)의 대표적인 주택개선행업의 두 예는 물론 전혀 다른 정치적·사회적 배경이 전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믿는다.

따로이 연구해서 소개하자면 분명히 더 이상 쓸모 없게 될 때가 올 것 같아 이미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을 번역, 소개하면서 현장 사진을 첨부한다. 그리고 훗날 다른 기회에 각각의 예를 좀더 자세히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92년 3월 일본에서 열렸던 Yokohama Urban Design Forum에서 소개되었던 뉴욕을 비롯한 25개의 세계적인 도시들은 '현대 도시디자인의 테마를 구

성하는 조류'로서의 도시설계 사례들이었다. 일본에서는 이 포럼을 열면서 그에 앞서 91~92년에 걸쳐 유럽·북미주·아시아 그리고 일본의 도시들을 조사·연구한 후 <사람과 함께 호흡하는 도시 — 세계의 도시 디자인 1992>라는 제목의 Urban Design Report를 만들었고, 그 안에는 앞에 언급한 25개 도시 외에 '도시 디자인의 종합적 전개'로서의 사례로 8개 도시가 더 소개되었다. 그 중 베이징(北京市)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도시설계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이 아니라 역사 도시 내에서 주거개선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자 함이다. 우리가 역사나 남의 예를 연구하는 것은 과거나 남의 나라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재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앞날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베이징(北京市)의 이 두 주거 개선지는 91년 ARCSIA회의 때 처음 방문했었고, 그 후 베이징 柳園 설계 차 베이징을 드나들면서 자주 대하다 보니 물론 그 곳에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 점점 관심이 갔다. 이 휘얼후통(菊兒胡同)과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같은 주택개선행업의 예는 주의깊게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휘얼후통(菊兒胡同)은 淸華大學 建築設計研究院(吳良鏞 교수팀)이 설계한 것으로 뛰어난 Regionality의 표출로 제1회 ARCSIA Award(1992년) 주거부분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곳은 뒤의 사진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급 승용차·에어컨디셔너·위성 안테나로 대변되는 고급 주거지의 예다. 반면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은 北京市建築設計研究院(黃[여사팀]이 설계한 것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생활수준이 낮은 주거단지의 예다.

이 두 프로젝트는 주안점을 각각 다른 곳에 두었지만 古都 베이징의 주택관련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내려는 의지를 보인 대표적인 예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필자 주>



베이징 시가지

도심을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장소로

— 베이징시(北京市)를 예로 살펴본 전통적 도시 주거의 현대화

1. 도시의 배경

베이징(北京)의 수도로서의 역사는 900년전 금나라의 중도(中都), 원나라의 대도(大都)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로서 16,800km²의 면적에 1,0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구성(舊城)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자리는 현재의 제2환상도로(二環路)가 되며 도로의 내측은 구시가지(역사적 시가지)로, 외측은 신시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근대 도시의 심장부로서 공공건축·교통·개발공간·문화시설·기반설비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도심인구의 교외 이전이 결정되고 도시의 인구수준 및 밀도가 규제되었다. 베이징시 기본 계획에는 주거용지를 약 3분의 2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토의에서는 구시가지의 인구 3분의 1(약 60만명)이 교외로 이전하여 앞으로는 인구를 120만명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 후 계속 증가하는 도시인구와 도심으로부터 이전해 오는 주민을 위해 잇달아 중고층(中高層) 주택이 건설되어 구시가지를 둘러싸듯이 주택지가 확장되었고, 제2 환상도로 바깥쪽으로는 고층 주택이 줄지어 서 있는 경관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건설을 위한 재원마련과 퇴거세대를 위한 주택

확보가 도심부 주택개선사업을 방해하는 커다란 두 요인이 되어, 구성 내에는 노후된 주택들이 마땅한 개선책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다.

2. 구시가지의 재건과 주택 정비

교외부(郊外部)의 주택 건설은 구성(舊城) 내의 인구 이전과 주택정비를 위한 전 단계로써 행해졌으나, 결과적으로 농지전용(轉用)을 수반하는 도시 과밀화(Urban Sprawl) 현상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써 1980년대 전반의 쟁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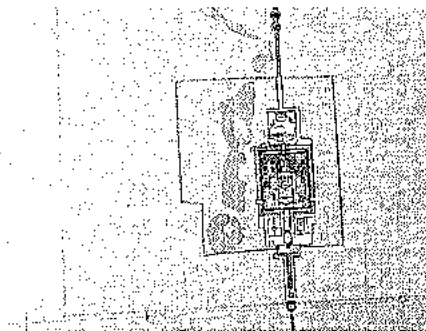
베이징시(北京市) 도시 계획 당국은 1983의 도시총체계획(Masterplan)에 대한 국무원의 회답을 근거로 1985년부터 고도에 관한 분구(分區) 계획수립에 착수, 1986년에 '분구 계획(分區計劃)'을 완성했으며, 나아가 1989년에는 '고층 주택동(高層住宅棟) 건설에 대한 고도규제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성시(城市) 건설에 관한 일련의 계획 및 규정은 이제까지의 교외부(郊外部) 우선 개발과 구성(舊成) 내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개발을 재검토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런 방향성은 도시계획이론의 전개와 상층부의 의식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실천적·실험적인 사업현장에서 성과가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구시가지의 휘얼후통(菊兒胡同)과 사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의 주택개선사업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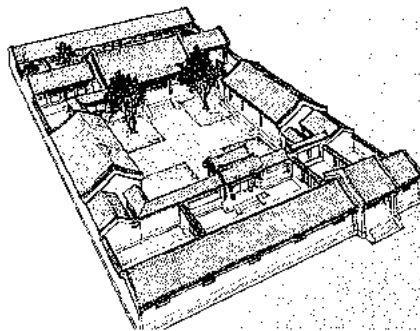
이 두 테스트 케이스는 주안점을 각각 다른 곳에 두었으나 주민의 지속적인 거주, 역사적 시가지의 성시(城市) 경관 형성, 부동산 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구성의 주택관련 사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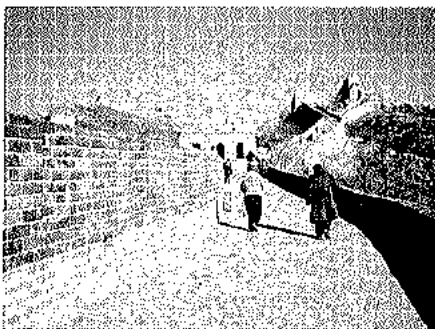
베이징 기존 주거



베이징 시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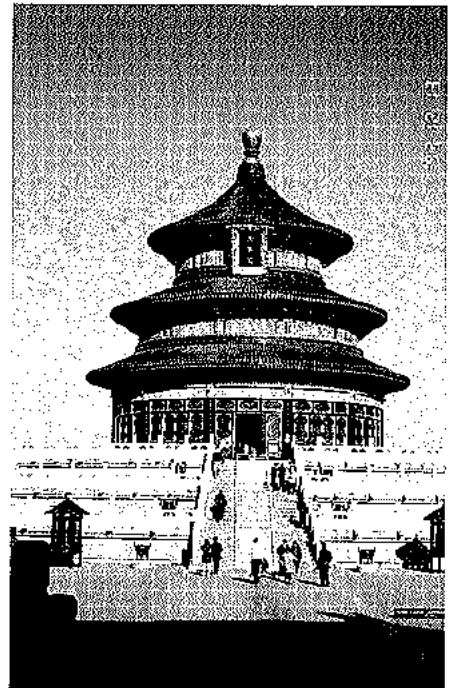
베이징 쓰허위엔(四合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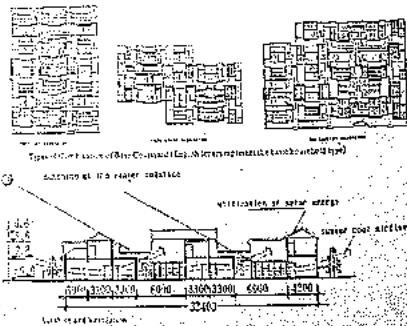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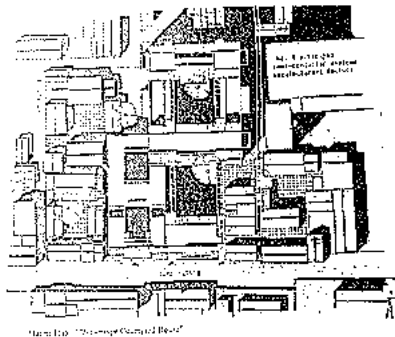
베이징 萬里長城



京劇



베이징 天壇



궈얼후통(菊兒胡同) 종합 계획도



베이징 시가지

저해해 온 과제를 해결할 방법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모두 높이 평가되고 있다. 같은 실천적인 사업의 동향을 받아들이며 베이징시 인민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성시(城市)건설의 50%의 힘을 노후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주거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이런 도시계획 활동의 배경으로 1990년에 아시안게임을 베이징에서 치른것을 계기로 과밀화 현상이 계속되던 교외

부에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정비되어 성시 확대발전에 일단의 목표가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의 주요 과제였던 심각한 주택부족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베이징시가 내세우고 있는 네 가지 면의 Linkage[신규개발 부와의 Linkage, 주택제도 개혁과의 Linkage, 부동산 운영과의 Linkage 그리고 고도(古都)의 재생과 발전과의 Linkage]라는 방침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의 수도 베이징의 건설은 확실히 제2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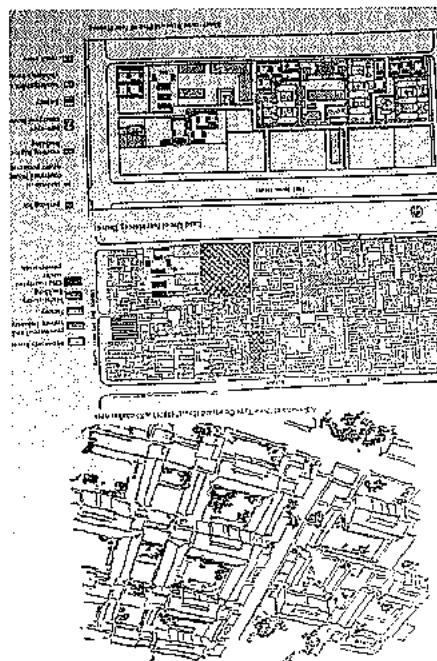
3. 구시가지의 주택 정비 계획 — 궈얼후통(菊兒胡同)과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의 예

궈얼후통(菊兒胡同)은 구성(舊城)의 중심 고궁(故宮)의 북쪽, 고루(鼓樓)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1기사업은 계획면적 2,090㎡, 주택호수 44호를 대상으로 했고 시가지 내부의 양호한 쓰허위엔(四合院)의 보수유지를 도모하면서 부분적인 주택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칭화대학(清華大學) 건축연구소가 수립했으며, 1991년 현재 제2기계획(8.2ha)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2환상도로 내측에 위치하고 있는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은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헐고 신규주택을 건설했다. 계획은 北京市建築設計院이 세웠고 계획면적은 1.5ha, 대상 주택호수는 약 300호나 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 두 곳 모두 이제까지의 구성주택 개선사업의 난점이었던 재원확보와 현주민을 위한 이전주택 공급이라는 과제를 부동산경영의 운용, 지속적인 주거라는 방법으로 해결했으며, 나아가 구시가지의 역사적 환경 조성에 각자 고유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4. 유기적 쇄신과 성시(城市) 조직의 새로운 질서 만들기 — 궈얼후통(菊兒胡同)의 예



新四合院



궈얼후통(菊兒胡同)의 주택가各部

베이징 주택지구의 모세혈관인 후통(胡同)과 리(里)·항(巷) 조직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물리적인 공간이 형성하는 지역사회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 쥐얼후통(菊兒胡同) 모델사업의 근간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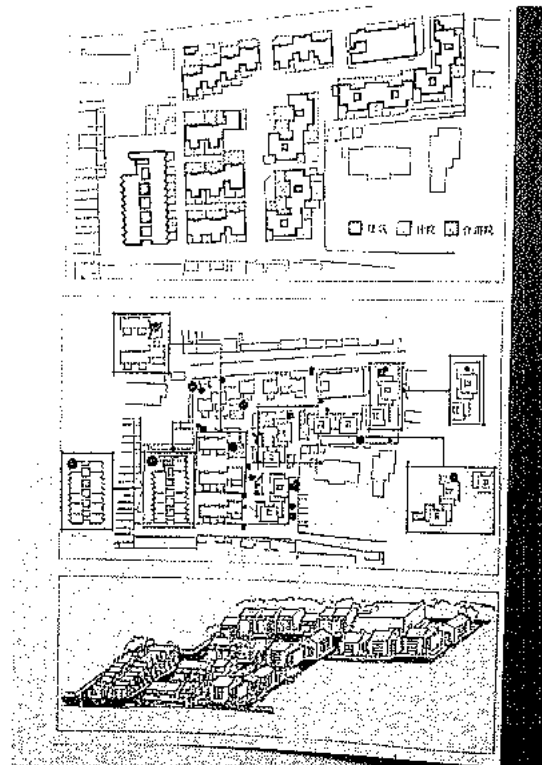
그 첫째 증거로써 쓰허위엔(四合院) 형식의 집합주택 건설과 반공공(半公共) 공간의 형성 그리고 주민조합의 조직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 중국에서의 근대적인 주택건설의 주류를 이루었던 병렬식 주택이 만들어내는 단조로운 공간이 베이징의 성시(城市) 조직에 맞추기 곤란했던 점을 해결하고, 번거로움과 혼란함이 공존하는 이웃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新四合院(類 四合院) 형식의 주택계획에 착수했다. 이 新四合院 주택을 계획함에 있어서 여러 타입의 新四合院이 검토되어 일조의 확보,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 확보, 중정(落院)의 적절한 공간 만들기 등을 종합적으로 만족시킬 2~3층 건물의 기본형 쓰허위엔(四合院)을 고안했다.

이미 고밀도 주택지구인데 新四合院으로 더 한층 고용적(高容積)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가 이 형식의 성패를 좌우하는 커다란 열쇠였다.

제1기사업에서는 이 기본형 쓰허위엔(四合院)을 종으로 연결시켜 변화를 주었으며 용적률은 130%, 호당 거주면적은 60㎡가 되어 개선 전의 약 2배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또한 이 방식은 가능한 한 노목(老木)을 보호할 수 있어 변화있는 중정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병렬식 주택에는 없었던 반외공간(半戶外空間)이 생겨 중정식 주택의 잇점인 쾌적한 반공공적(半公共的) 공간을 주민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주택개선사업의 특색 가운데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시 정부의 지도를 토대로 하여 주민이 조합(住宅合作社)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때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획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민이 이전하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 종합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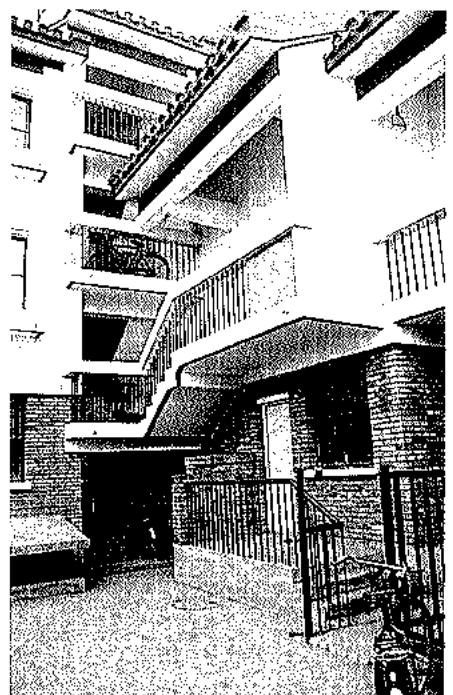
(상) 반공공 공간(半公共空間)으로서의 中庭을 의식한 Study

(중) 노목(老木)의 보전을 테마로 한 Study

(하) 개선 사업 후의 스케치

게 되어 계획자가 의도했던 주민조직의 해체방지에는 성공할 수 없었지만, 계획을 시작할 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 세대의 소유거주구획과 면적, 주민의 가족구성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데서 계획자의 의욕과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쥐얼후통(菊兒胡同)에서는 현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건설 코스트 베이스로 주택을 공급하고 외부에서 이전해 오는 사람



쥐얼후통(菊兒胡同)의 주택가各部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의 주택가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 배치도

별식 주택의 건설 코스트와 비교해 볼 때 약간 높아졌기 때문에 제2기 모델사업 때의 검토과제가 되었다.

도시경관이라는 관점에서는 1층 부분에는 마감재로 전(磚, 구운 벽돌)을 이용하고 인접하는 주택과의 강조를 고려했으며, 지붕은 플랫 루프로 했으나 지붕의 주변에 기와지붕을 엮는 등 디자인상의 연구가 있었다.

5. 완전한 지속적 거주와 자금 대책-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의 예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은 베이징 구성(舊城)의 주택지 중에서도 노후된 저질주택이 모여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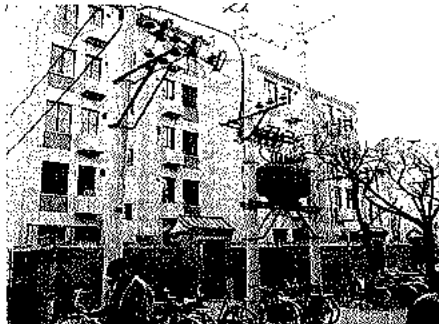
이 지구 주민의 직업은 주로 공공교통업·서비스업·초등학교 및 보육원의 교원 등으로, 호주가 속해있는 회사는 주택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또 그들은 베이징의 시가지에 사는 것으로 인해 생활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교외로 이전하면 생활이 곤란해지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도 구 정부(區政府)는 1988년 지속적인 거주를 원칙으로 세우고 완성된 주택으로 복귀시킬 것을 주민과 약속했으며, 공사기간 중의 임시주택은 주민이 자력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 기간 중 주택관리국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주택보조를 했으며, 주택완성 후에는 우대가격으로 분양하고 구매능력이 없는 세대에게는 임대하는 방식을 취했다.

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하기 위해 거주면적을 베이징 표준인 56㎡에 못 미치는 48.8㎡로 억제하고 또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동서로 개구부가 있는 거실도 만들어 넣었다. 또한 고도제한의 완화를 도모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3~5층의 주택동 9동과 종합 서비스 동 1동을 건설했다.

개발공사(開發公司)가 취해 왔던 통상적인 방식은, 교외에 염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지구를 개발하여 구성(舊城) 내의 개선대상 지구의 주민을 '折遷法(주택을 허는데 따르는 이전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이전시키고 개선지구에 새로 주택을 건설하여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운영하는 거였다.

그러나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은 지구 내의 일부건물을 고액으로 팔아서 전체 투자액의 5분의 3을 커버하고, 나머지 5분의 1씩은 각각 정부로부터의 조성금과 주택관리국의 출자로 충당했다. 주택관리국은 주민에게 분양 혹은 임대함으로써 출자금을 보충하고 유지비를 충당하게 되었다.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에서는 '베이징다움'의 지속적 유지와 연출을 위한 방안으로 설계 디자인 면에서 북방 특유의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의 주택가各部

지붕구배와 회색벽면, 붉은색 창과 난간 등의 요소를 집어 넣었다. 더욱 후통(胡同), 중정(院子) 공간과 노목(老木) 등을 가능한 한 살리려는 노력과 거리의 리듬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인 외벽과 문을 재건하는 등 몇 가지 시도가 행해졌다. 그러나 주택동 자체는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많이 보아 온 타입인 병렬형이어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인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의 이같은 어프로치는 지속적 거주와 부동산 운용에 의한 경영노하우가 우선되어 경관 또는 종합적 건축디자인상의 많은 과제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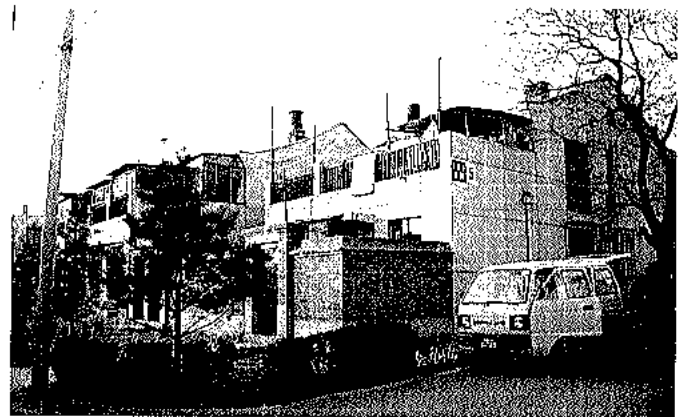
또 쥘얼후통(菊兒胡同)의 경우는 도시조직과 주민조직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건설 코스트가 높아져 결국 주민조직의 해체를 피할 수 없었던 반면, 도시를 유기적으로 개조한 케이스여서 양자의 구성(舊城) 내의 주택개선에 대한 어프로치는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실험적인 시도가 더 많은 곳에서 행해져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모색하면서 고도 베이징의 '地' 부분을 형성하는 주택지의 개선이 추진될 것이다. 그 결과 수도 베이징에 각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사는 도심

쥘얼후통(菊兒胡同)과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의 개조 전후의 비교 대상표

	菊兒胡同		小后倉胡同	
	前	後	前	後
用地面積	2,090m ²	2,090m ²	1.5ha	1.5ha
住宅戶數	44戶	46戶	298戶 (1,062名)	350戶
總建築面積	1,085m ²	2,760m ²	8,721m ²	23,400m ²
1人當居住面積	5.2m ²	12.00m ²	-	-
容積率	80%	132%	-	132%
層數	1層	2~3層	1層	3~5層
戶當居住面積	24.66m ²	60m ²	29.3m ²	48.8m ²
/平均	(1.45間)	(2間)	(1.9間)	(1.9間)

(키즈마사오(木津雅代) 씀 · 趙仁淑 옮김)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의 주택가

지구가 형성될
것을 기대한다.



베이징 전통 쓰허위엔(四合院)의 지붕

吳良鏞 1922년생, 江蘇, 南京人

清華大學建築學院 교수, 建築與城市計劃研究所長.

저서로는 「A Brief History of Ancient Chinese City Planning」(1986년)

「城市計劃論文集」(1988년) · 「北京舊城與菊兒胡同」(1933년) 등이 있다.

黃 江 1961년清華大學建築系 졸업.

北京市建築設計院 住宅設計研究所 主任建築師 · 高級建築師

北京市 女建築師協會理事.

木津雅代 1962년생, 法政大學 大學院 碩士課程 修了.

1992년 현재 UN지역개발센터 도시개발 주택유니트 연구원.

전문 분야는 都市計劃 · 中國庭園이다.



샤오후창후통(小后倉胡同)의 주택가 各部

◇ “달라져야 한다”

숨가쁘도록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속에 우리협회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회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지난 '95 정기총회와 속개회의 및 제1회 임시총회, 96년도 건축사연수교육의 문제점을 현실적인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협회 선진화를 위한 제언

For the Development of KIRA

류재경 / 우성프로젝트건축사사무소
by Ryu Jae-Kyoung

기존 사무소의 대부분은 소규모 자영업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경영방법과 현상타파기법의 새로운 경향에 거리를 느낄 수 밖에 없다. 대규모 사업체는 필요시기마다 품질관리, 자료관리, 인사관리의 새로운 방법론을 재교육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미래형 건축사는 전문화를 통한 수주형태의 구조 조정, 생산및 재무관리의 건전한 조직육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경영합리화를 이룰것이다.

제30회 정기총회는 95년 10월 24일 10시에 소집되었고, 개회는 27분 늦게 시작되었다. 총 대의원 491명 중 257명 참석으로 무려 234명 (47.6%) 불참을 기록하며, 평창히 지루한 회의로 마지막 안건인 제7호의안을 남겨 두고 17시 35분에 회의는 끝났다.

이로써 감사의 지적과 같이 약 2,000여만원의 회의비를 낭비하는 가운데 95년 11월 3일 14시에 속개 회의가 소집되어, 제 시간에 당도한 대의원 제적수 미달로 2시간 8분이 지난 후에야 어렵게 속개회

의가 이루어졌고 이때 참석 대의원 수는 246명, 또 245명(49.8%)이 불참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갑론을박의 분명치 않은 토론(?)끝에 회장단에 일임 한다는 내용으로 어렵게 속개한 지 1시간 2분 만에 폐회하였다.

96년도 제1회 임시총회는 3월 28일 10시에 소집되었으며, 개회는 24분 늦게 총 대의원 566명중 287명 참석으로 변함 없이 279명 (49.2%) 불참을 기록하였다.

더더욱 문제점은 지루한 회의시간이 흘러 갈수록 당초 매워졌던 자리는 뚜렷하게 비워져 가다가 중식 후에는 회의진행이 어려워 보이더니, 마지막 의안 검토시에는 “참석자 수를 점검한 후에 회의 진행하라”는 웃지 못할 발언을 들어야 하는 의장의 고충도 우리는 이해심을 보여야 할 부분이다.

이상의 중요한 2가지 협회 총회를 살펴보면 전문가 집단의 회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회의 진행법에 익숙하지 못한 단순 친목회의나 월례회 같아, 옛말의 ‘상류를 다스려야 편안 해진다.’는 현상 타파의 아이디어를 우리 협회가 반드시 찾아 내어야할 문제점이다.

또한 96년도 건축사연수교육이 4월 22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 각 시,도 지역별 장소에서 2일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1개월전에 통지된 협회의 교육과목 편성 및 시간표에서 우리는 또다시 지루한 일정에 몸서리쳤다. 왜 우리는 다른 유사단체보다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에 지친 스스로를 더욱 모질게 하는 것인가 하는 다수의 꾸밈없는 교육 분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나 하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 “넓어져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회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고, 회원에 대한 자금융자 등을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토록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 건축사 관리업무의 건축사협회 위탁과, 건축사시험관리, 건축사보 및 외국 건축사면허 취득자 신고 수리 및 건축사 연수교육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하여 연7일 이내의 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96년 제1회 임시총회 감사의 종합평가 개선사항중 회의중간에 자리를 뜨는 대의원들에 대한 중식비 회수 문제와 기존 협회 회관 대회의실 좌석수가 465석으로 정관의 회원 10인에 대의원 1인 선출 규정에 따른 장소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문제, 건설기술자 신고(기술인 협회)에 관한 건교부 행정지침(96. 4. 6)의 법제화 문제, 공사감리와 설계감리의 분명한 분리기준안 마련, 각종 계약서의 중·소규모의 사무소까지 폭넓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의 제정 등 시급한 현안이 누적되어 있다.

우리 모두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각 회원마다 대안을 모색하여 무제한 제시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협회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굴의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 “앞서가야 한다”

“연수(研修)”란 말의 뜻은 “학업을 연구하고 닦음”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다. 곧 전문적인 지식은 지속적인 수학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우리의 교육열과 지식교육의 우수성은 전세계적으로 알려졌고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끌고 나갈 미래의 주역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교육개혁의 목적은 말한 것도 없이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력의 개발과 함께 성실성과 도덕성, 안정된 정서를 갖춘 우수한 건축사들을 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열린 교육체계가 지향하는 바이며 우리는 여기에서 인성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프로그램이 지적인 영역처럼 변화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록 개발되어야 하며 아울러 선진국에서 많이 실험, 실시되고 있는 것을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96년도 건축사연수교육 방법과 같은 관계법령의 건설교통부 건축과 담당자의 적법성 해설, 협회 운영위원회의 단순자료 제공 등과 같은 과거 지향적인 형식에서 탈피하여 과감히 선도적인 새로운 기법을 채택해야 하겠다.

7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제주)으로 나누어 협회사무처와 교육위원회가 순회 전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진행에 교육부 지원일련기관의 협조하에 전문가 집단인 우리 건축사들이 건축에 관련한 법령을 현실성있게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식(목표관리 Workshop) 연수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제안한다”

기존 사무소의 대부분은 소규모 자영업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경영기법과 현상타파기법의 새로운 경향에 거리를 느낄 수 밖에 없다. 대규모 사업체는 필요시기마다 품질관리, 자료관리, 인사관리의 새로운 방법론을 재교육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미래형 건축사는 전문화를 통한 수주형태의 구조 조정, 생산 및 재무관리의 건전한 조직육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경영합리화를 이룰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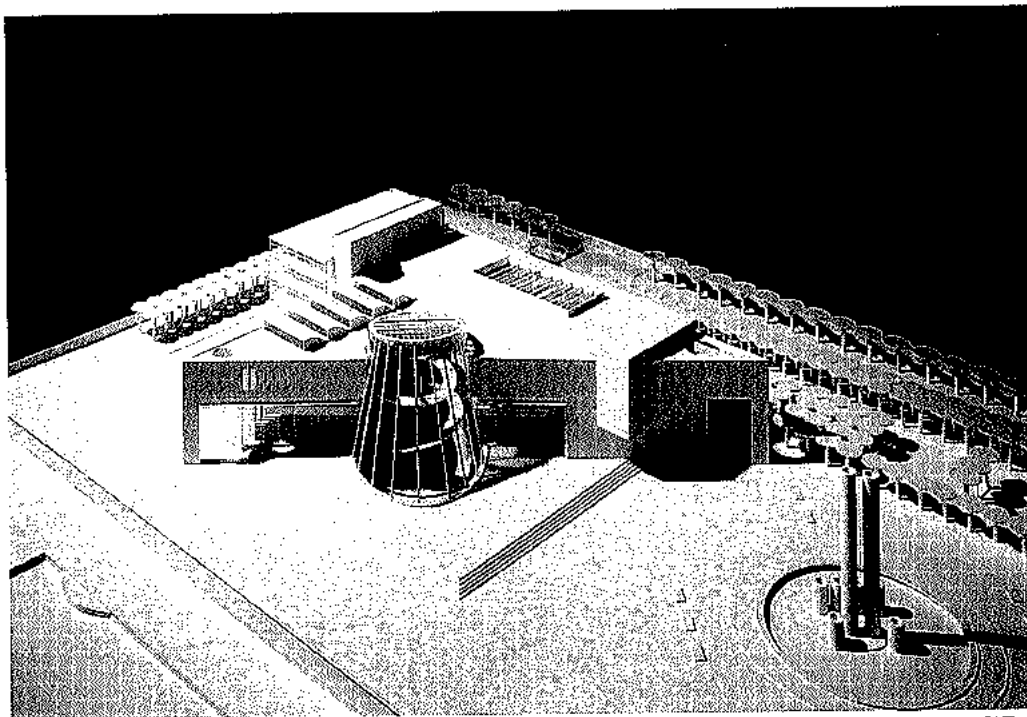
본인은 산업재활부문에서 많이 채택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는 품질관리기법의 하나인 분임토의식 “목표관리 Workshop”을 도입하여 건축사에 알맞은 총회 및 연수교육의 방식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목표관리 Workshop”은 먼저 지정 연수원에 입소, 각 지역별 회원을 혼성으로 한 수개의 팀으로 구성하고 진행순서에 따라 팀별 달성가능한 목표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킨다.

대·소회의실이나 야외의 장소에서 자유토론기법에 따른 현상파악 - 문제점 도출-공감된 문제점 분류 및 통합-문제점 우선순위 결정 - 요인분석 - 대책수립 - 대체안 선정 및 결정 - 회의록 제출 등의 일정을 수행시킨다.

지역통합과 노·소장과의 혼성팀으로 단합의 자리를 갖는다면 이제까지의 역지추향과 같은 소극적 집단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제자리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올바른 제도의 정착과 국민의 믿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소신있는 건축사의 소명을 바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대안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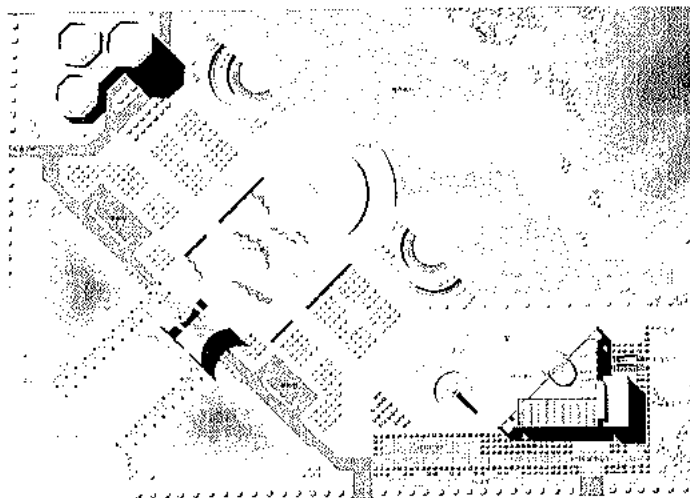


모형도 1

올림픽 기념관

Olympic Memorial Museum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올림픽기념관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5월 21일 희림건축(이영희)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13개 사무소에서 참여한 이번 설계경기는 한국 스포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삼각형태의 건물구조를 이루고 있는 당선작 외에 우수작은 예도건축(김동찬)안이, 가작으로는 김상경건축(김상경), 모양건축(박민수), 모람건축(김흥수)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 기념관은 오는 99년 완공될 예정이다.



배치도

당선작

희림건축

대지위치/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2
영부

지역/지구/자연녹지지역, 운동장시설

대지면적/23,359㎡

건축면적/3,843.92㎡

연면적/지상-11,884.08㎡

지하-12,095.01㎡

건폐율/16.46%(법정 20% 이하)

용적률/50.88%(법정 60%이하)

구조/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층수/지하 2층, 지상 5층

최고높이/28.4m

주차대수/260대(주후 증축분 포함)

계획/김호준

설계담당/황의표, 손진욱, 정재호, 문용현, 김태환, 이태호, 김수정

프리젠테이션, 3D/홍관선, 조병국, 진창현, 전준원, 김선주, 변미경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체육과 문화, 인공과 자연이 어우러지면서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지는 범 시민적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올림픽공원내에, 전시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적 요소와 체육진흥에 기여할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올림픽 기념관을 건립하여 한국스포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수용한 스포츠 종합박물관으로서 계획하는 것과 성공적인 88 서울 올림픽 대회의 영광을 상징할 수 있는 강한 기념비적 성격을 갖는 건물로서 계획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계획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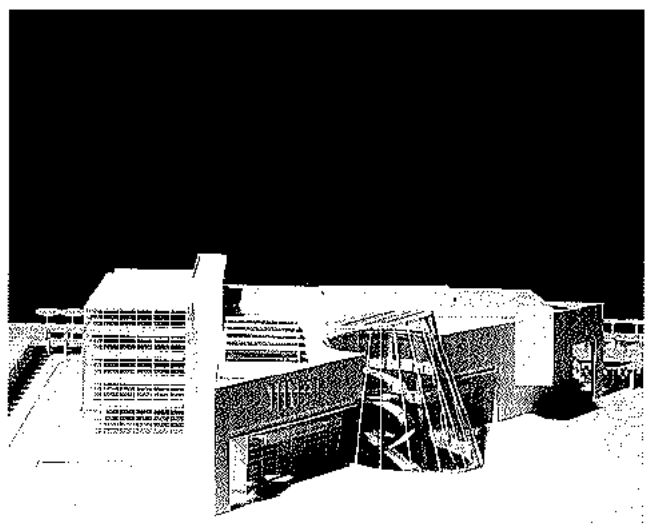
조감도

첫째, 대지내에 강하게 인지되어지는, 잠실로에서 몽촌토성 서쪽사면에 이르는 상징축을 주축으로 도심축들을 수용한 삼각형 형태의 매스를 구성하고, 축선상에 몽촌토성 등의 주변경관을 건물내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수직적 동선해결과 지하층 내부로의 자연채광의 역할을 갖는 투명한 원추형 아트리움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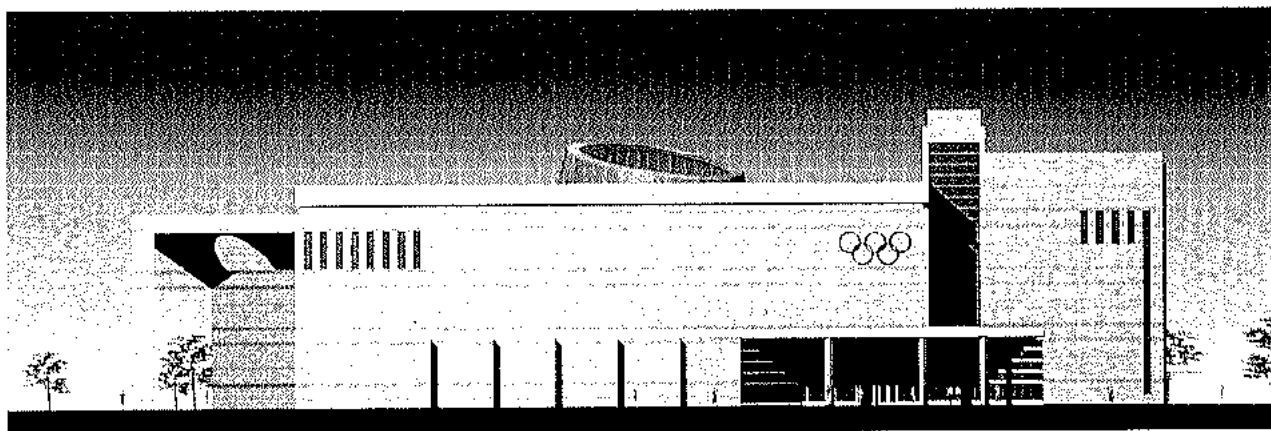
둘째, 평화의 문으로부터의 주 진입인 전면부의 입면구성은 장엄한 분위기를 갖는 긴벽에 의한 수평적 강조와 원추형 아트리움에 의한 투명하고 수직적인 강조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안정된 비례감을 연출하였다.

셋째, 위례성길 면에서의 보행자들을 위해 가로공원을 배려하고 전면부와 동일한 패턴의 입면형태로 시각적 통일감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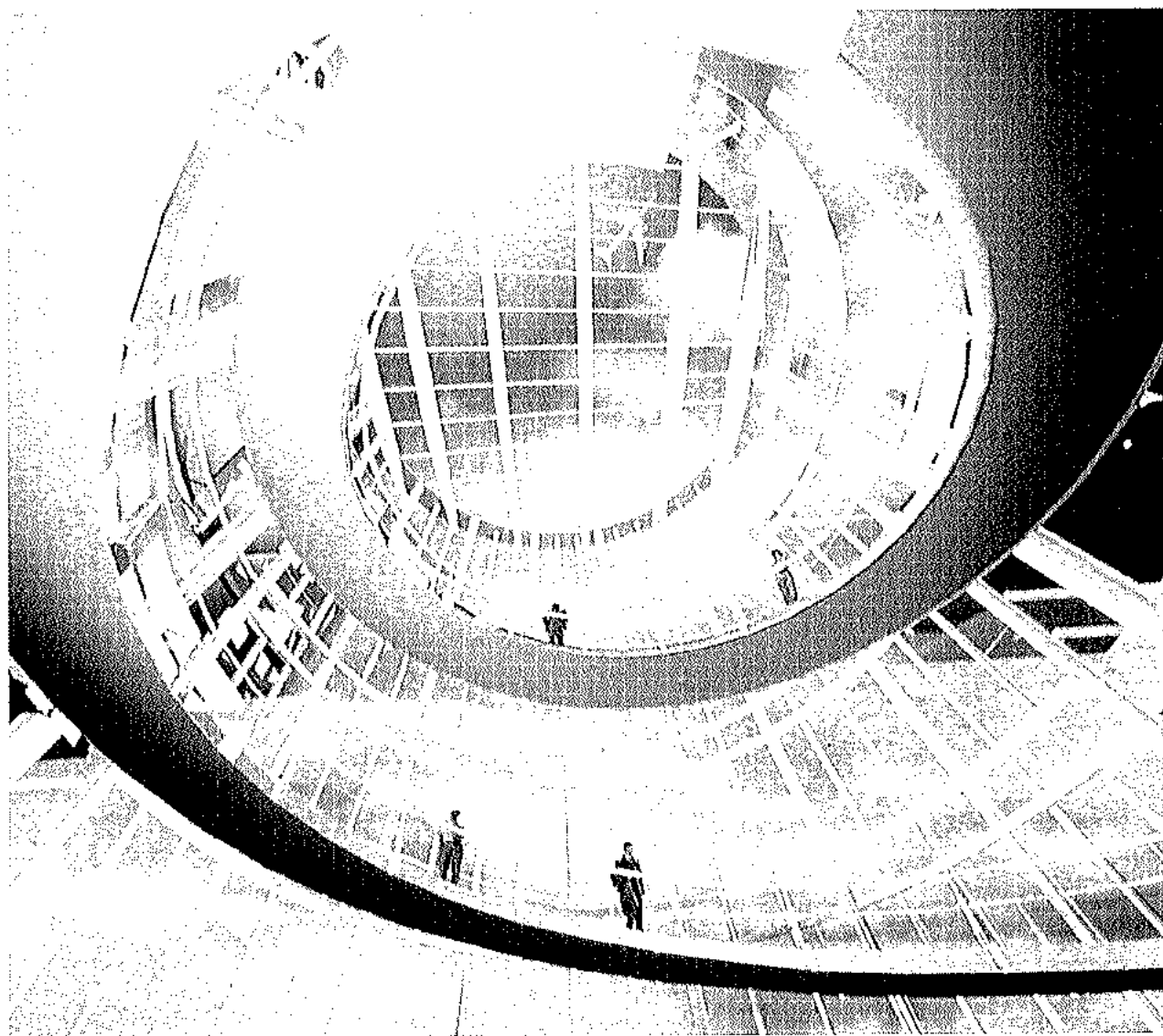
넷째, 성격이 상이한 운동시설과 전시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서로의 고유성격이 상충되지 않도록 1층을 프리존(free-zone)으로 구성하여 동적인 성격이 강한 체육시설은 하층부로 기념비적 성격이 강한 전시시설은 상층부에 배치하여 명확한 영역 구분을 하였다.



모형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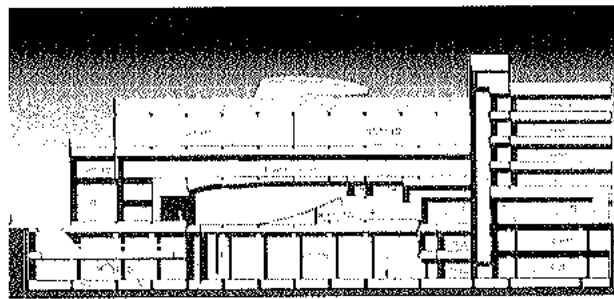
남서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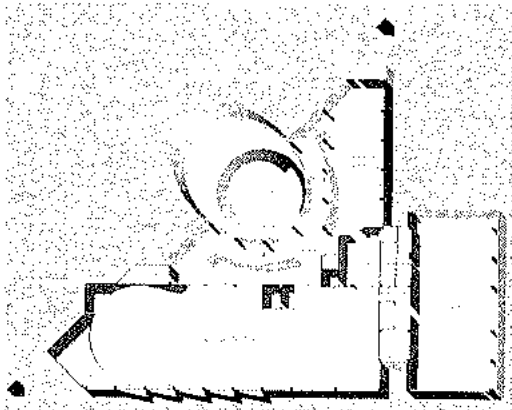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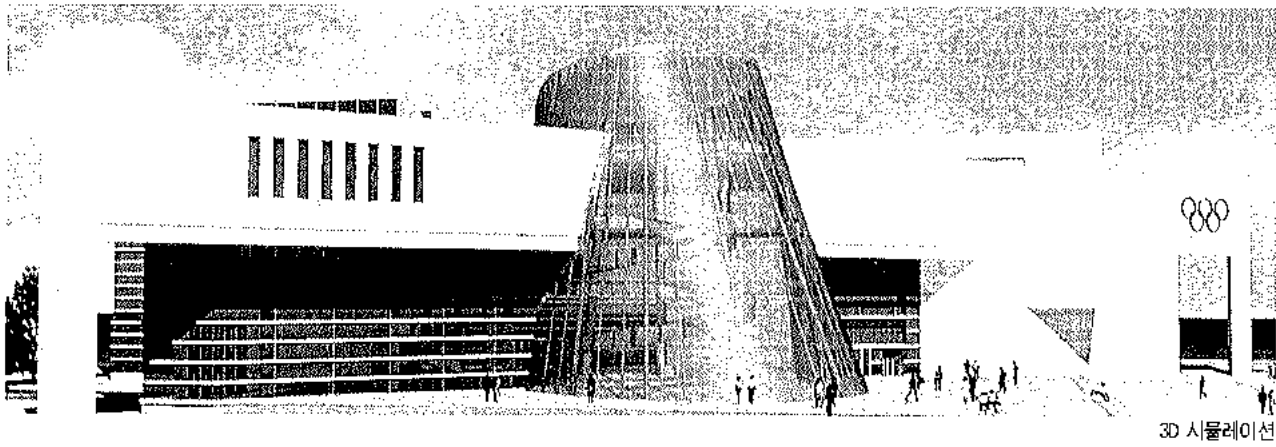
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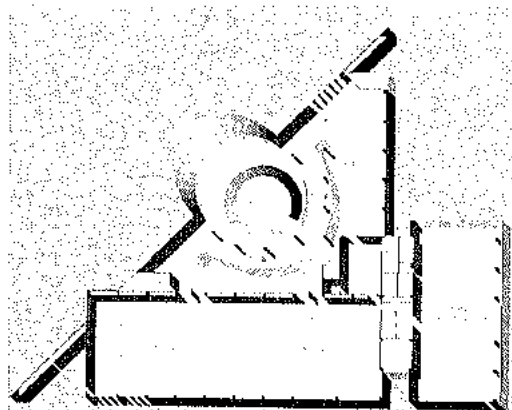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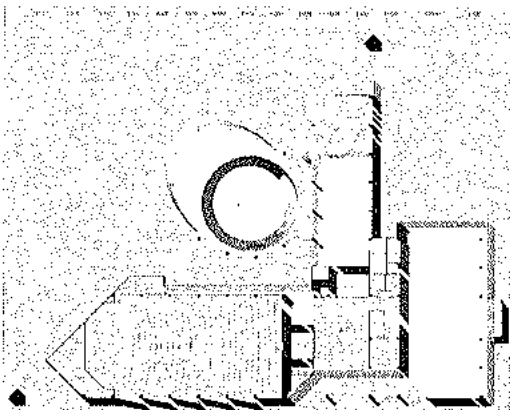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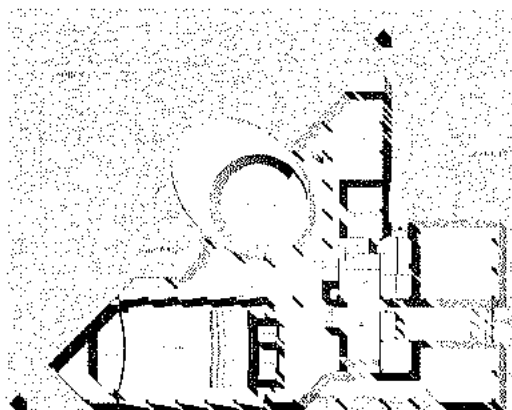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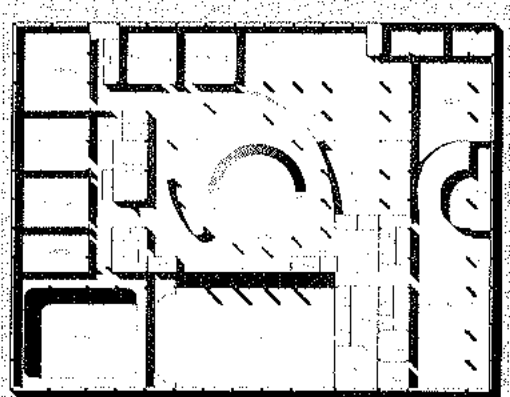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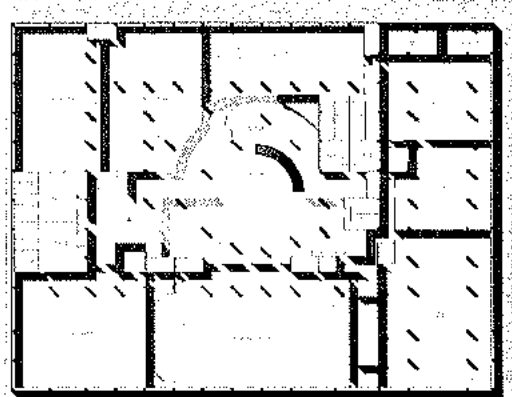
1층(중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우수작

에도건축(김동찬)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2(올림픽공원 내)

지역 / 자연녹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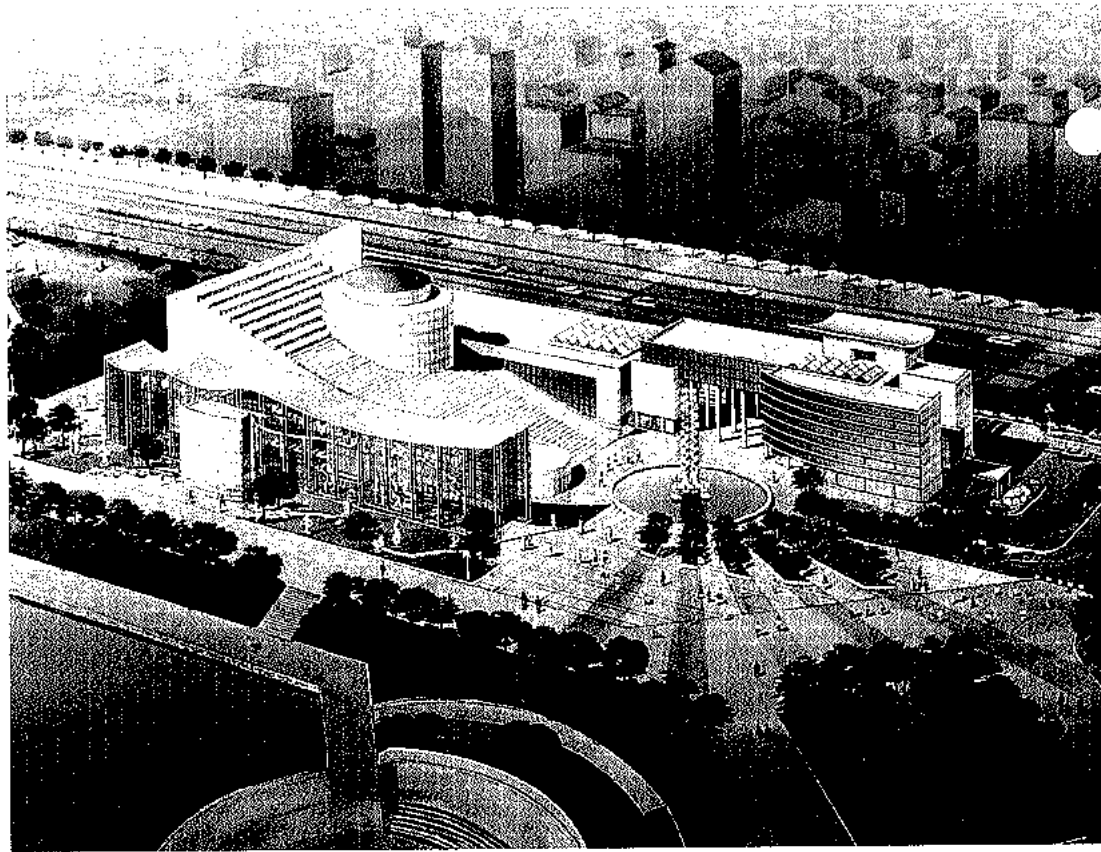
대지면적 / 23,802㎡

건축면적 / 8,5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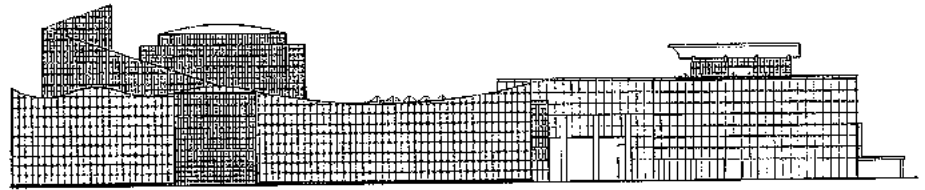
연면적 / 23,889.5㎡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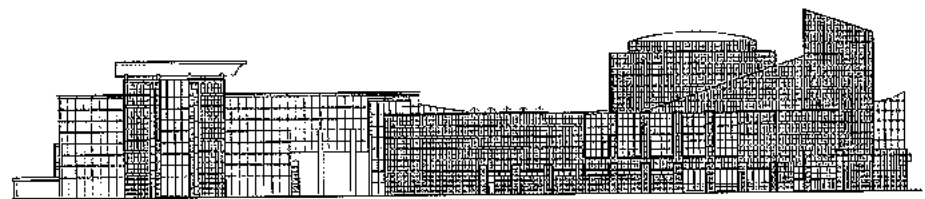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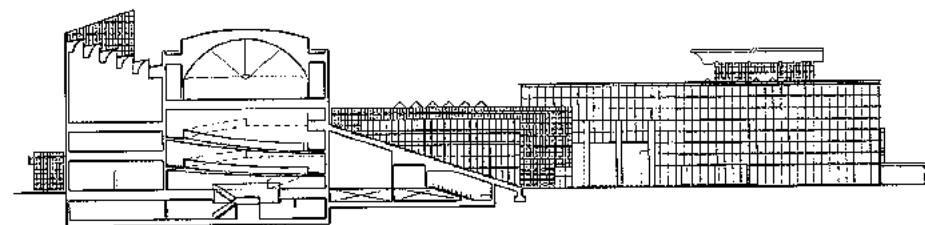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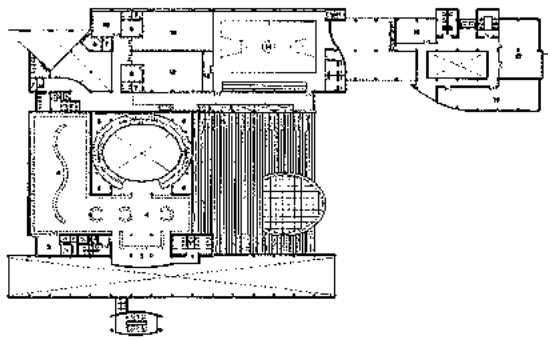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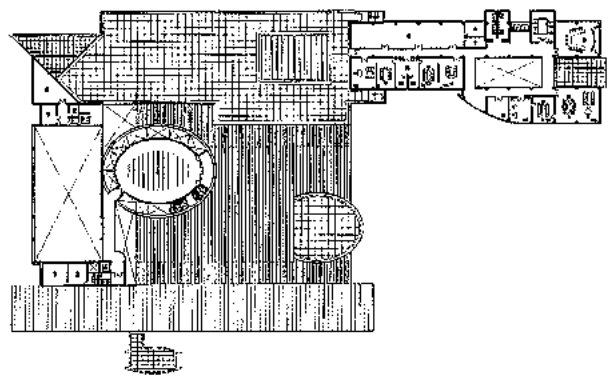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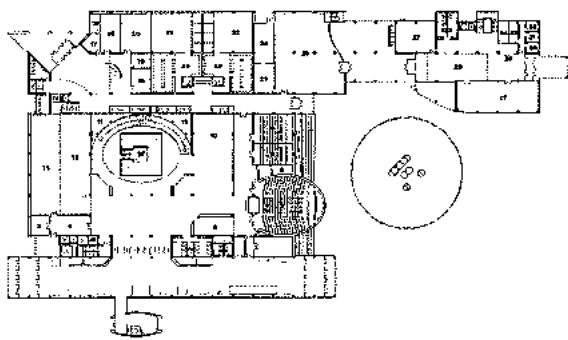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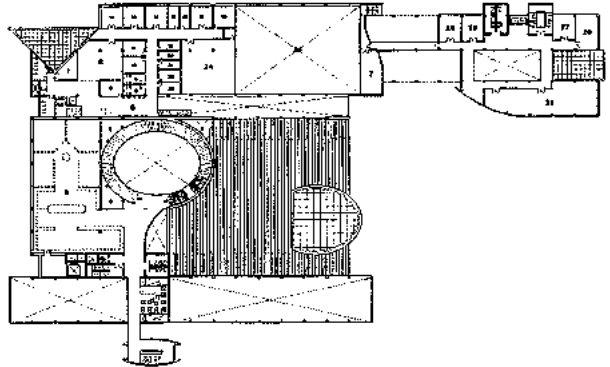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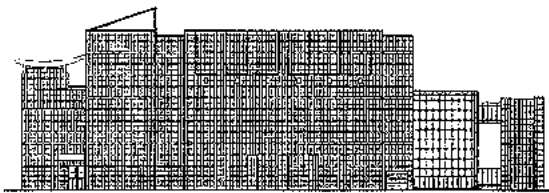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계획

- 1) 계획방향
 - 기능적인 모듈(Module) 설정
 - 다양한 기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
 - 전시관, 생활스포츠관, 관리 업무동의 독립적이면서 상호 연계성 확보
 - 실내 쾌적성 확보
- 2) 기본모듈(MODULE) : 3.0×3.0
 - 개인의 적정최소작업공간 및 개인공간 확보
 - OA기기 및 사무용 기구의 모듈 조합
 - 회의공간의 활성화
 - 전시공간의 대공간의 기본모듈

단면계획

- 1) 전시시설 : 진입 갤러리, 조각전시장

- 3층 대형 전시장 천정 간접 채광 채택
- 2) 생활 스포츠시설 : 용도에 맞게 적정 천정과 확보
- 다목적 체육관 천정 간접 채광 채택
- 3) 관리업무동 : 1층 로비 2내층 Open하여 쾌적감 확보
- 업무 공간 적정 천정과 확보 : 2.7m

코아계획

- 1) 업무시설
 - 효율적인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적정코아 확보
 - 출입 및 관리의 편리성을 위한 양쪽출입구에서 중심위치에 코아설치 - 인텔리전트 설비를 위한 코아내 OA 샤프트(Shaft) 확보

2) 전시시설

- 단 시간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며 입·출입이 용이하도록 대규모의 완만한 경사로를 채택
 - 장애자를 위한 별도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확보
 - 전시물 반·출입이 편리하도록 대형화물용 엘리베이터 확보
 - 관람후 전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출구로 나갈 수 있는 별도의 계단 확보
- ### 3) 운동시설
- 층별이용이 편리하도록 출입구 가까이에 코아 설치
 - 별도의 직원 계단 확보

국민은행 본점

Kookmin Bank, Head Office

국민은행은 종로구 인의동에 있는 현 한국담배인삼공사 서울지역본부 자리에 대지 약 2,830평 규모로 본점 신축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했다. 지명초청경기(국내외 합작설계)로 치뤄진 이번 설계경기는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최대한 기했다. 또한 설계지침서를 심사 2주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과반수 득표 작품이 없는 경우 2개안에 대하여 결선 투표하기로 하고, 3개안이 제출된 가운데 지난 6월 10일 국민은행 본점 14층 회의실에서 심사를 한 결과 심사위원 전원일치(1차)로 (주)회림건축+K.M.D(미국)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심사위원

안영배 / 서울시립대 교수·이정덕 / 고려대 교수·윤도근 / 홍익대 교수·박영기 / 연세대 교수·심우갑 / 서울대 교수·송달호 / 국민은행 부행장·장희진 / 국민은행 상무이사

주요 설계 지침

- 2000년대 세계일류은행, 국민종합금융그룹 본사의 위상에 걸맞는 웅장하고 현대적, 국제적 감각을 표현하는 건물
- 강북의 Land-Mark로서의 상징성
- 열린은행 이미지부각을 위하여 일반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계획.
(지상 및 지하 광장과 지하 아케이드·스키아라운드·콘서트홀·종합스포츠시설·로비(1층 개방))

- IBS도입 및 정보화 시대 경영에 부응할 수 있는 첨단설비
- 인간중심의 사무공간(1인당 평균 순면적 5평)과 아트리움 등 쾌적공간 확보
- 연면적 : 지상 약 30,000평, 지하 18,000평
- 건폐율, 층수는 설계자 임의로 함
- 주차방식 : 옥내주차 원형, 자주식 70%, 기계식 30%

향후 추진일정

기본설계 : 96.6~96.12월
실시설계 : 97.1~97.12월
공사착공 : 98년 예정
준공 : 2002년 예정

심사평(당선작)

교차로에 면한 서남측의 전면광장이 타작품에 비해 넓고 시원하게 구성되었고 선근의 위치도 적절하며 지하2층까지 연결되어 내부 깊은 공간까지 채광과 조망을 가능케 한 것이 좋았음.

저층부의 곡선과 고층부의 조화가 좋았으며 Massing-proportion이 우수하며, 외관이 세련되고 High-Tech한 이미지를 가져 미래지향적 건물분위기를 주고 있으며 Land-Mark로서의 역할

수행이 우수하게 처리되었음.

아트리움계획이 우수하여 투명성과 쾌적감이 있으며 건물내에서의 분위기도 매우 좋게 계획됨.

지명 초청 업체

업체명	협력업체	비고
(주)회림 종합건축사 사무소	Kaplan/McLaughlin/Dinz (K.M.D.미국)	당선작
(주)간상 종합건축사 사무소	NIKKEN SEKKEN(일본)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원도시 건축	ELLERBE BECKET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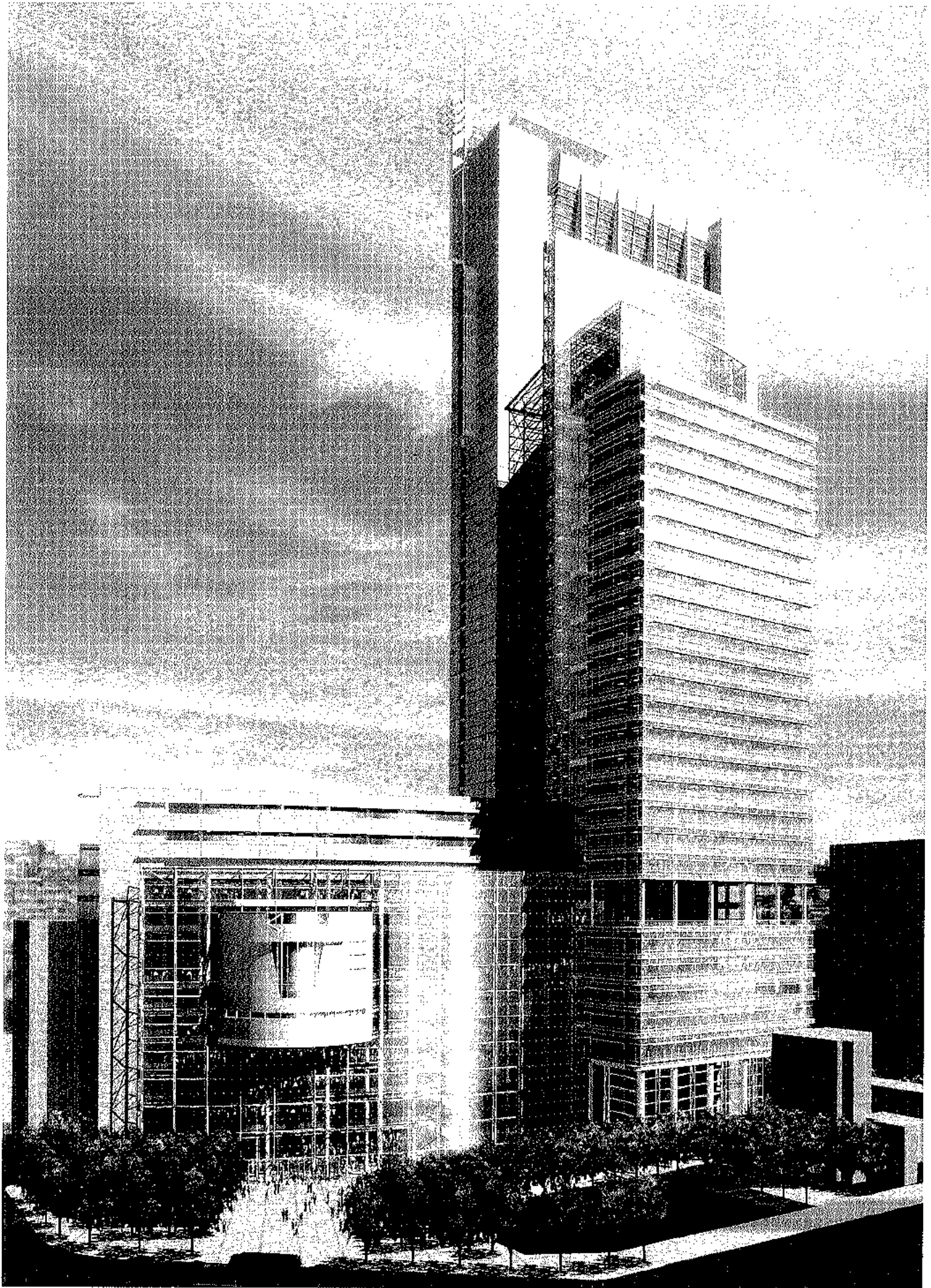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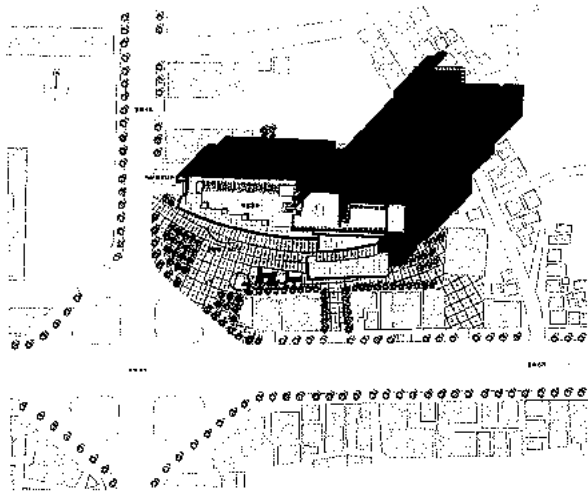
회림건축(이영희+이석문+정영균)
+KAPLAN·McLAUGHLIN·DIAZ(미국)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2의 3필지
지역 · 지구 / 일반상업지역, 미관지구, 주차장정비
지구, 방화지구, 도시계획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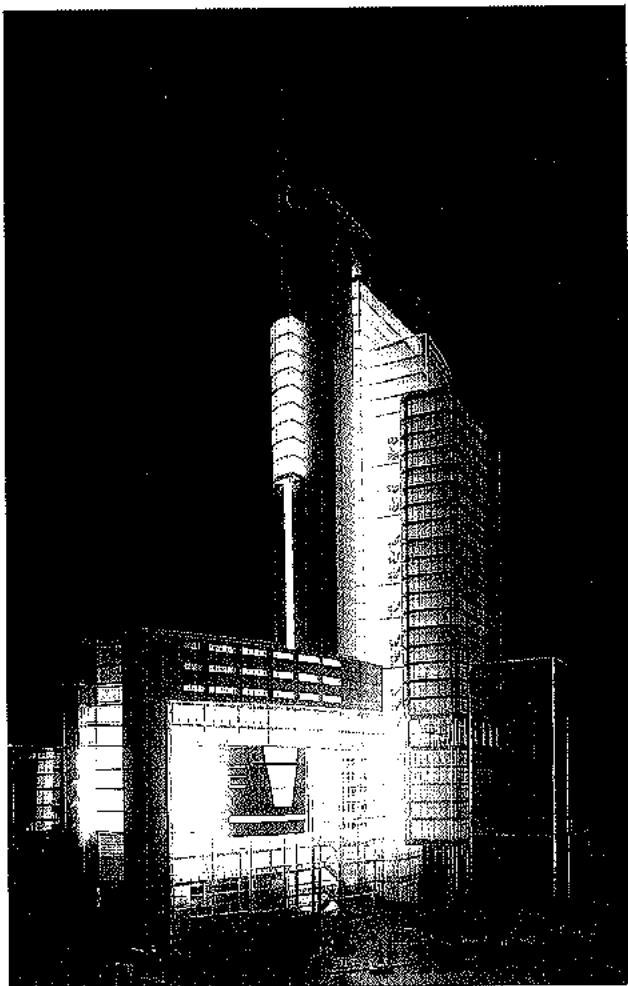
대지면적 / 9,888㎡ (2,930평)
건축면적 / 4,669㎡ (1,412평)
연면적 / 156,709㎡ (47,404평)
건폐율 / 48.19% (법정 : 60%)
용적률 / 1,002.35% (법정 : 1,000%, 공개공지원
화 : 1,193%)
층수 / 지하8층, 지상39층

건물최고높이 / 171.7m
조경면적 / 1,536㎡ (15.9%) 법정 1,453㎡ (15%)
공개공지 / 1,874㎡ (19.3%) 법정 968㎡ (10%)
구조 /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승강기 / 26대 (하상용 : 2대, 승객용 : 22대, 금고전
용 : 1대)
주차대수 / 1,109대 (법정 : 1,094대)
설계담당 / 지광석, 박은희, 조남승, 김동훈, 허진,
김대열, 구연희, 오현석, 신수진, 정진
현, 김주욱, 백진, Mark Miller, Tom
Wornson, Lena Zhang, Batsie
Alm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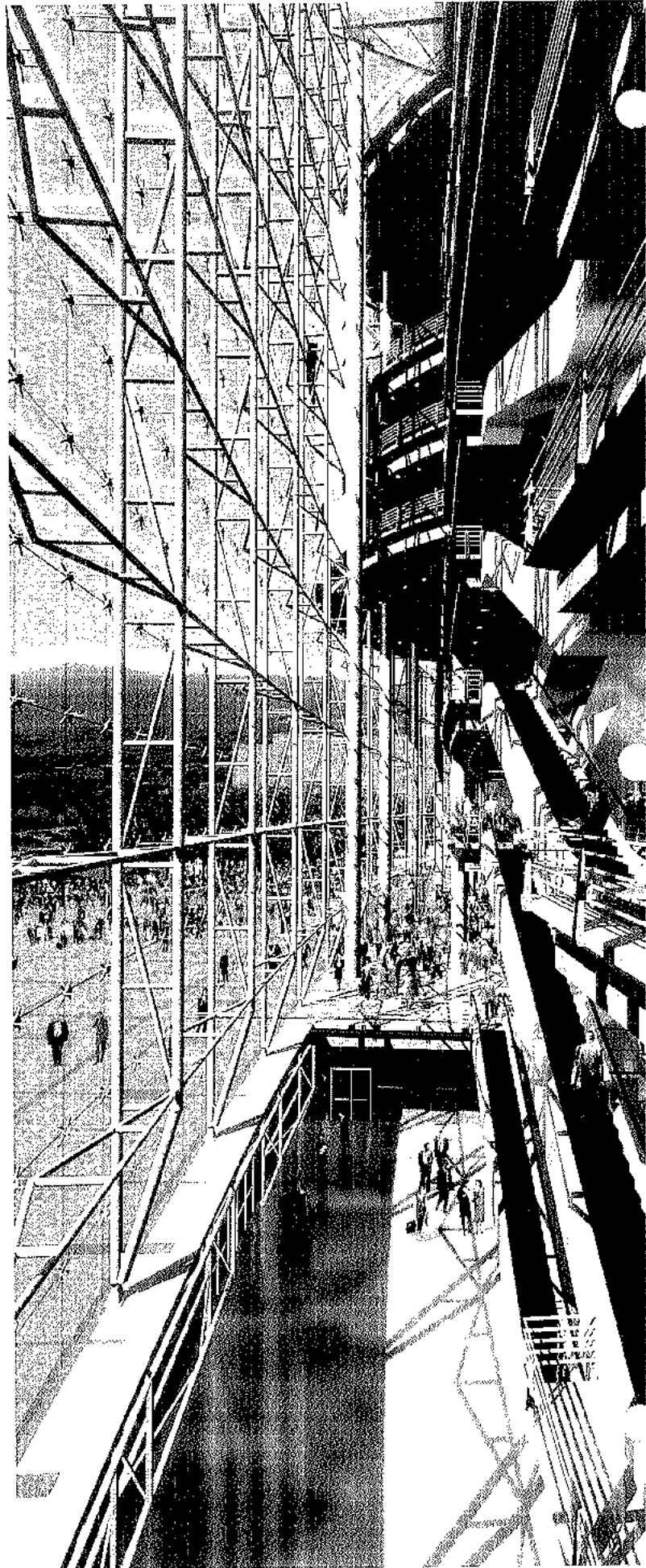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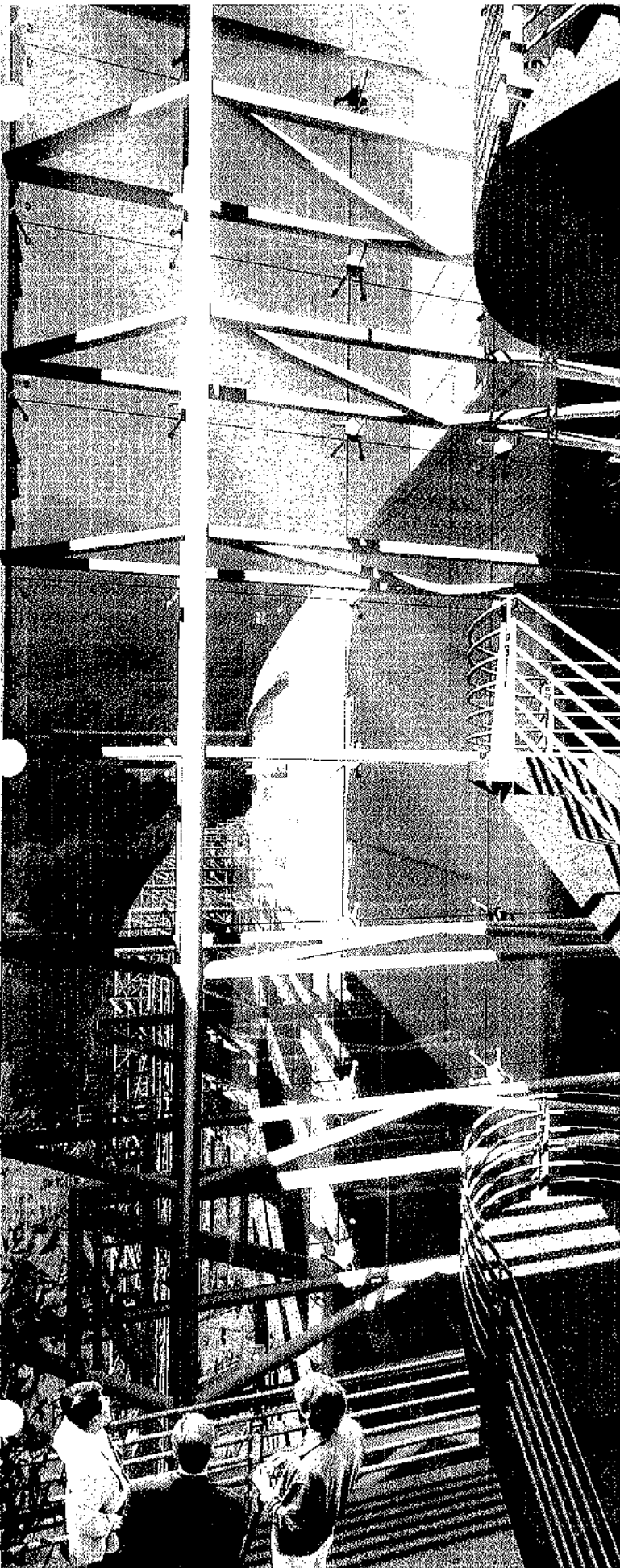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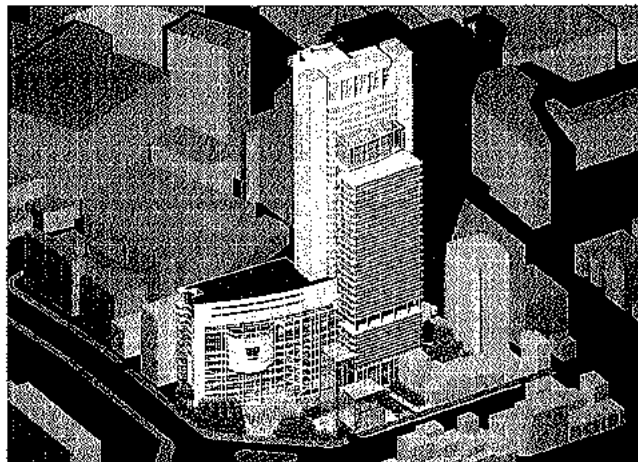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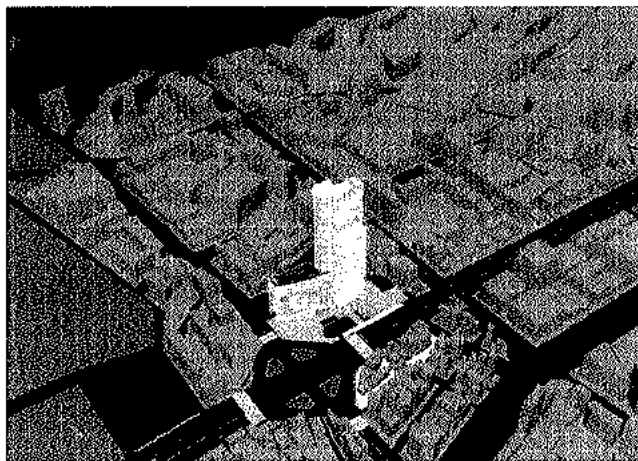
실내 투시도(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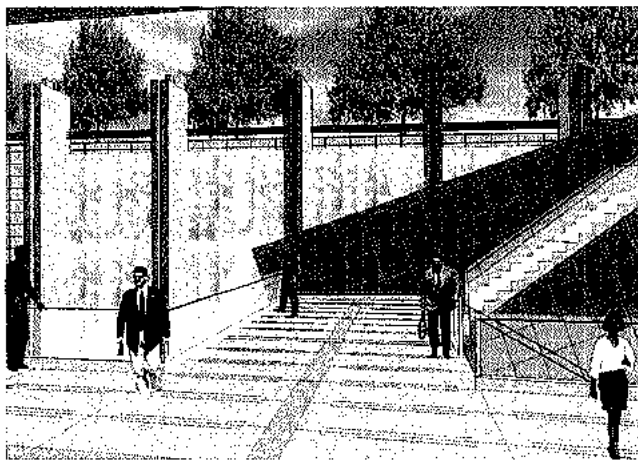
실내 투시도(기준층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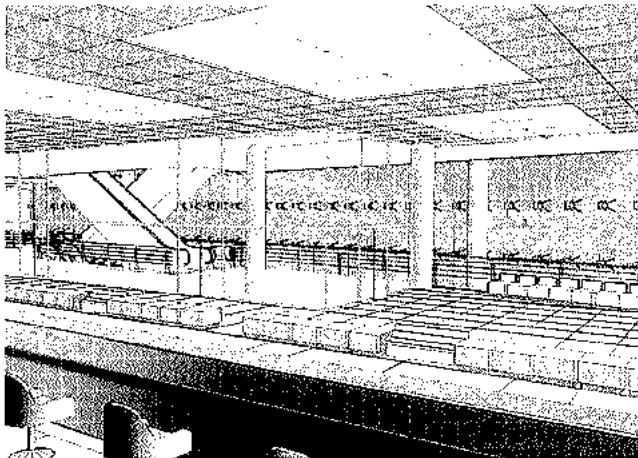
아이소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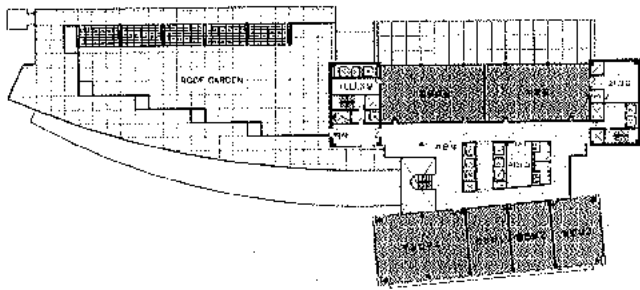
CAD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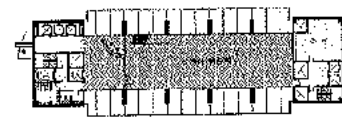
선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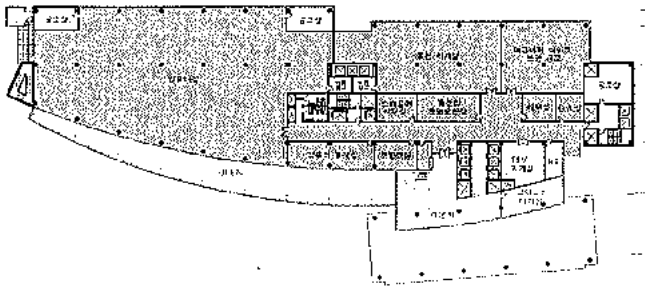
영업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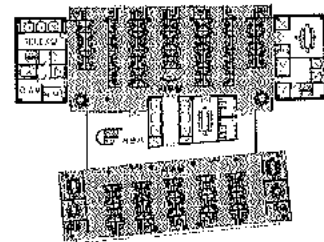
1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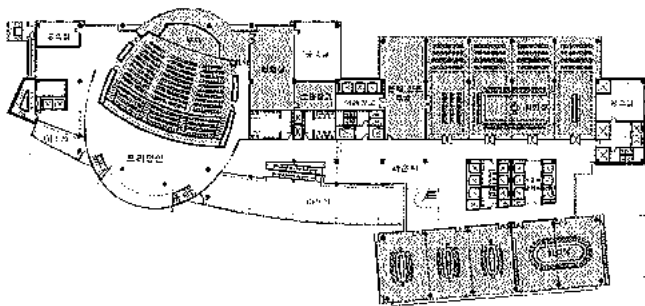
3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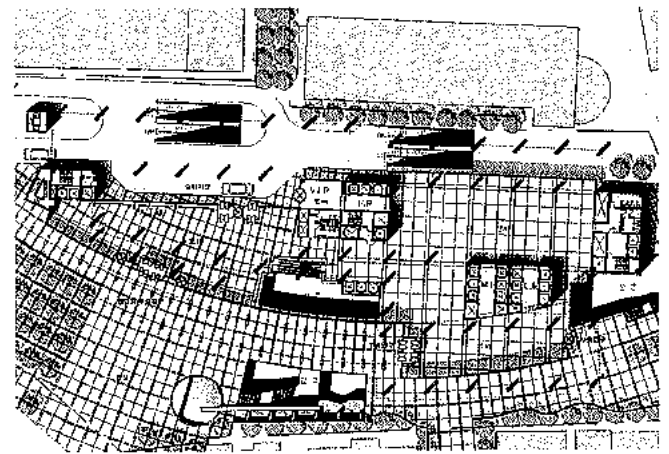
1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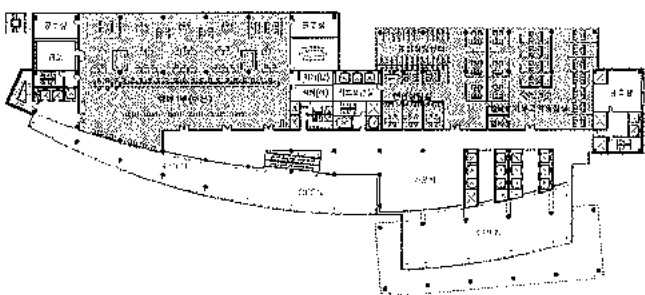
기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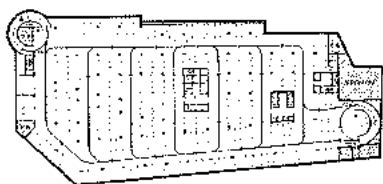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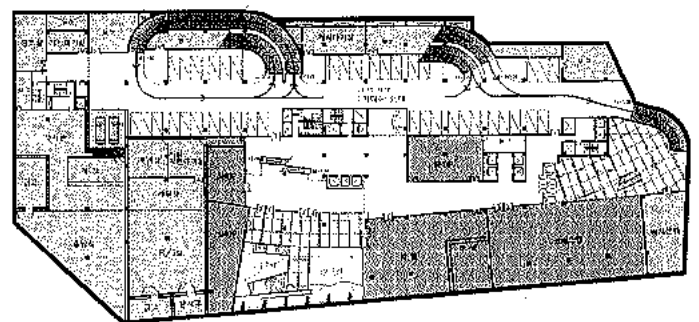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기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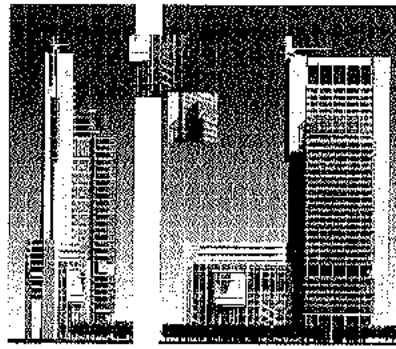


지하1층

이 안의 계획목표는 금융그룹 본점으로서의 적절한 위상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시민을 위한 개방적인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종묘와 종묘앞 시민광장, 창경궁, 대학로 등과 인접한 이 대지의 도시적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일반시민에 대한 배려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열린은행으로의 새로운 이미지 창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부지는 종로4가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로 세운상가, 광정시장 등에 인접해 있다. 남쪽으로는 남산, 북쪽으로는 창경궁과 북악산, 서쪽으로는 종묘 그리고 동쪽으로는 동대문이 바라다 보인다. 부지형상은 동서의 길이가 약 150m, 남북의 길이가 60m로 남북이 짧고 동서가 길다. 종로쪽 전면에는 4,5층 규모의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 이로 인해 이 계획안의 정면을 대지의 성격상 종로상에서의 모습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입하는 방향이 정면과 불일치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이 필요하였다. 또한 이 계획안의 스케일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도시 콘텍스트에 부합시킬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열린 은행으로서의 이미지 창조와 시민에 대한 배려로 옥외 휴식공간을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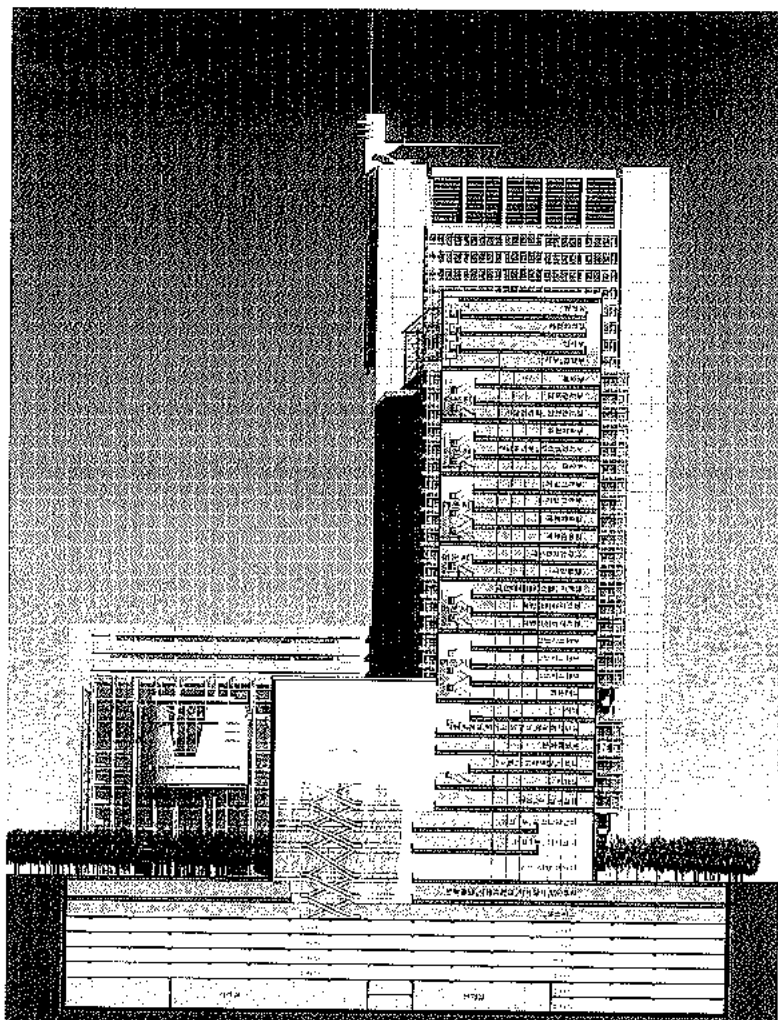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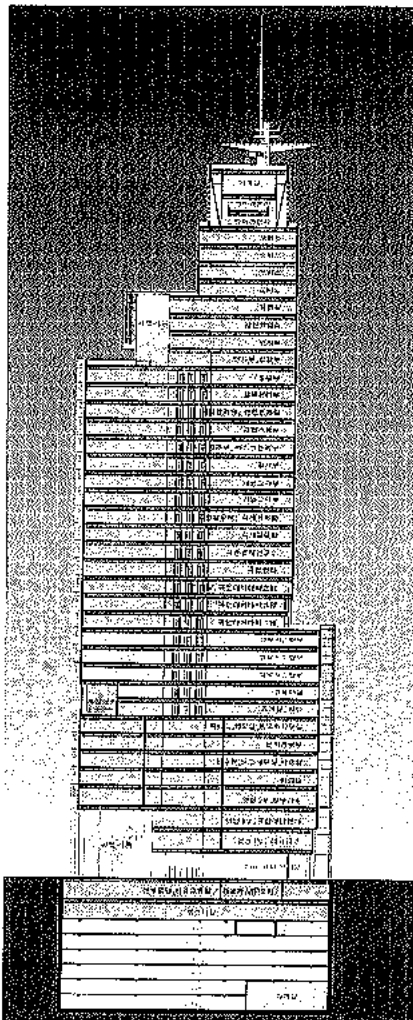
입면도

보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두었다. 건물을 대지의 북측에 위치시킴으로써 남쪽 전면부에 옥외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대신에 후면을 필로티로 처리하여 VIP출입, 차량진출입 및 부출입구를 계획하였다. 옥외플라자에는 페이빙(paving)과 식재, 선크기는 그리고 분수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였다.

저층부에 도입된 곡면은 사거리에 대응하고, 진입방향과 정면성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이 곡면부는 유리로 처리하여 아트리움과 플라자에서 일어나는 액티비티가

상호투시되면서 단지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부와 외부로 상호 확장시킨다. 전체적인 매스의 분절은 이 계획안의 스케일을 조정하여 위압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능을 적절한 위치에 수용하기 위해서이다. 저층부는 주로 은행의 대고객 업무가 이루어진다. 오디오 리엄도 저층부에 위치시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솔리드한 매스로 처리하여 유리면에 돌출 시킴으로써 액센트로 활용하였다. 또한 광장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오브제로서 의미를 지닌다. 중층부에는 중앙코어형의 평면을 가진 업무공간이 위치하는데 3,4개 층마다 라운지로 설치하여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였다. 고층부에는 임원실과 스카이라운지를 위치시켰다. 임원실에는 아트리움을 설치하고, 남산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개성있는 업무공간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스카이라운지, 헬리포트 그리고 안테나 등을 조형적으로 구성하여 전체적인 매스를 정리하고 완결하도록 의도하였다.

금융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업무내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I.B.S를 도입하였다. I.B.S 도입을 통해 정보처리능력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건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면도

참가작

간삼건축(지순+김자호)+NIKKEN
SEKKEI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의동 48-2외
3필지

대지면적 / 9,365.4㎡(2,833평, 도로사용면
적 제외)

지역 · 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1-2종 미관지구, 도시설계지
구 방화지구

건축면적 / 5,600.5㎡(1,694평)

건폐율 / 법정-60%, 계획-59.8%

연면적 / 154,756㎡(46,813.7평)

지상 연면적 / 99,646㎡(30,143평)

지하 연면적 / 55,110㎡(16,670.9평)

용적률 / 법정 - 1,100%(1,000%×1.1 공개
공지 계획완화규정적용),
계획 - 1,063%

기준층 면적 / 3,153.0㎡(953.6평)

건물최고높이 / 154.1m(GL기준, 옥탑층
포함)

건물지상층수 / 지상 36층(옥탑층 3층 포
함)

건물지하층수 / 지하 7층

지하층 깊이 / 29.9m(GL기준, 기초제외)

법정조경면적 / 1,404.8㎡(424.9평, 대지
면적의 15%)

계획조경면적 / 2,239.3㎡(677.4평, 대지
면적의 24%)

계획공개공지 / 945.9㎡(286.1평, 대지면
적의 10.1% - 용적률, 사선
제한 10% 완화작용)

사선제한 /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1+공개
공지면적/총대지면적)×15

법정주차대수 / 1,214대 주차장 산정면적 :
121,351㎡

계획주차대수 / 1,220대 · 자주식 : 869대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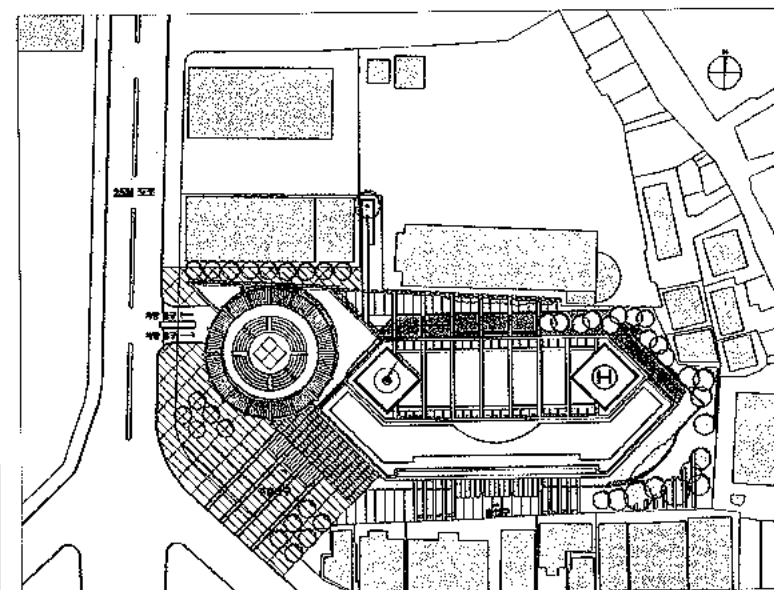
- 기계식 : 351대
(29%)

주요구조 / - 지상 : 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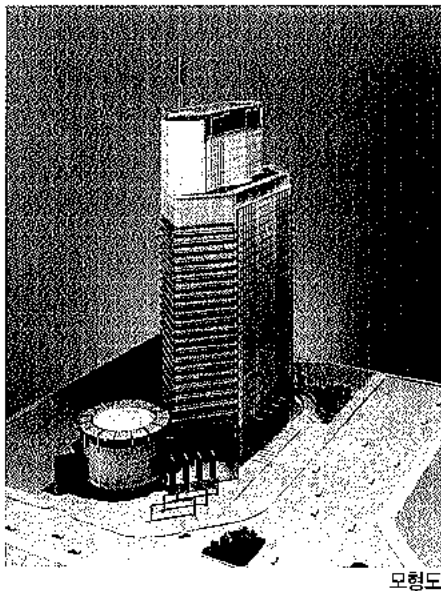
- 지하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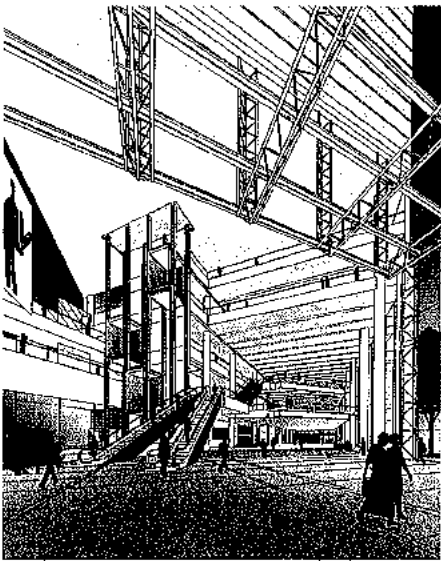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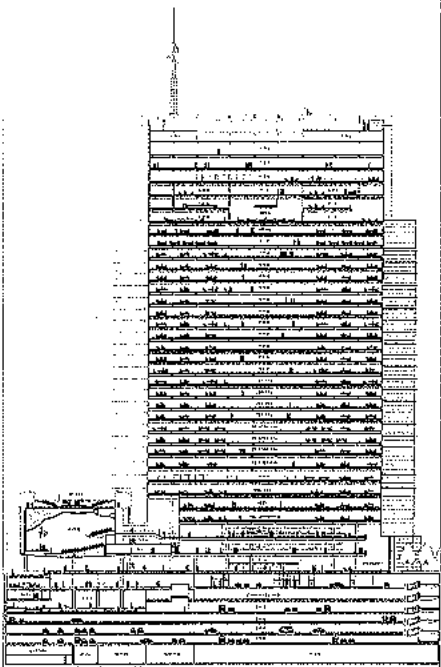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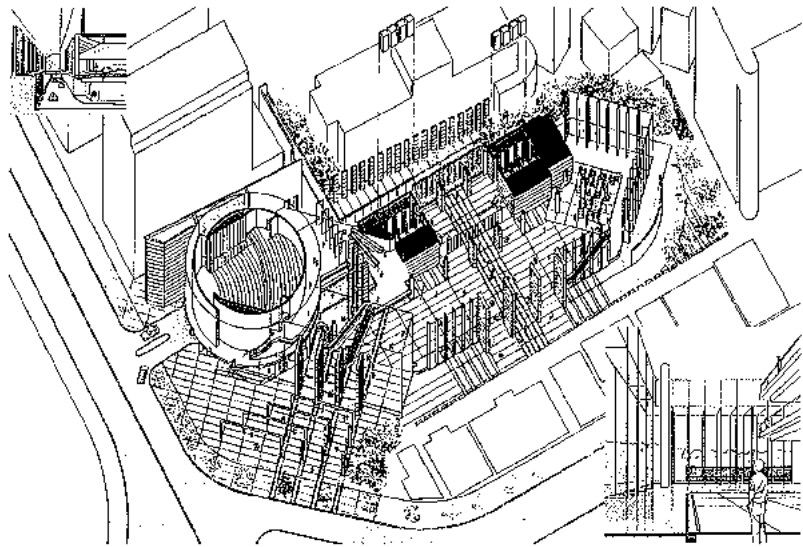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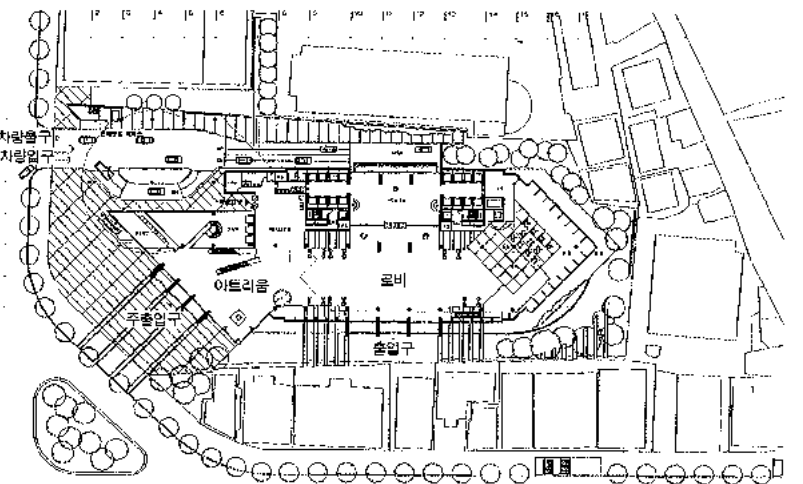
실내 투시도



확단면도



아이소메트릭



1층 평면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있는 현 시기의 국제정세는 탈 이데올로기적 뉴 데탕트(New Detente) 시대를 맞이하여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로 그 흐름이 형성되어지고 있으나, 국제 경제질서는 더욱 치열한 무역 및 기술 경쟁의 적자생존, 시장경제체제로 개편되어지고 있다. 한편, 고속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우리의 국내 환경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한 민주화, 개방화의 흐름과 함께 21세기의 선진국가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총체적 재편 시기에 들어섰다.

그간 국민과 함께 국내 제일의 시중은행으로 발전한 국민은행의 본점 신축 구상계획은 이러한 시대적 인식을 바탕으로하여 미래사회의 도시건축 문화를 주도하는 인간존중, 환경존중의 은행건축이 되고자 하였다.

배치 계획 개념

미래 지향의 도시환경건축이라는 기본 개념에 응답하기 위해 옥외 광장과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태를 주변과의 조화, 장소성이 지니는 문맥의 의미,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가 주는 도시생활의 활력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지조건상 가장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교차로 면에 광장(Plaza)을 두고, 콘서트홀(Concert Hall)을 배치하였다. 대지 남북측의 인접건물을 위해서 저층부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그 인접부에 대지의 맥락(Context)에 부합하는 수공간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배치하였다. 풍수지리상 길한 위치에 대지의 진출입 동선을 유도하고 각각의 영역을 대지 조건에 따라 조화롭게 연관시켰다.

참가작

원도시건축+ELLERBE BECKET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가동 48의 2필지와
지역 · 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
구, 1종 미관지구, 방화지구, 도
시설계지구

대지면적 / 9,365.4㎡ (2,883평)

건축면적 / 4,330.3㎡ (1,309.8평)

연면적 / 160,606㎡ (48,583평)㎡

건폐율 / 46.23%

용적률 / 1,059%

규모 / 지하 8층, 지상 34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최고높이 / 145m

층고 / 4m

주요용도 / 금융 및 업무 부대시설

외부마감 / 벽 - 복층유리+화강석

내부마감 / 바닥 - 약세스 후모아, 카펫,

석재

벽 - 간석벽

천장 - 방음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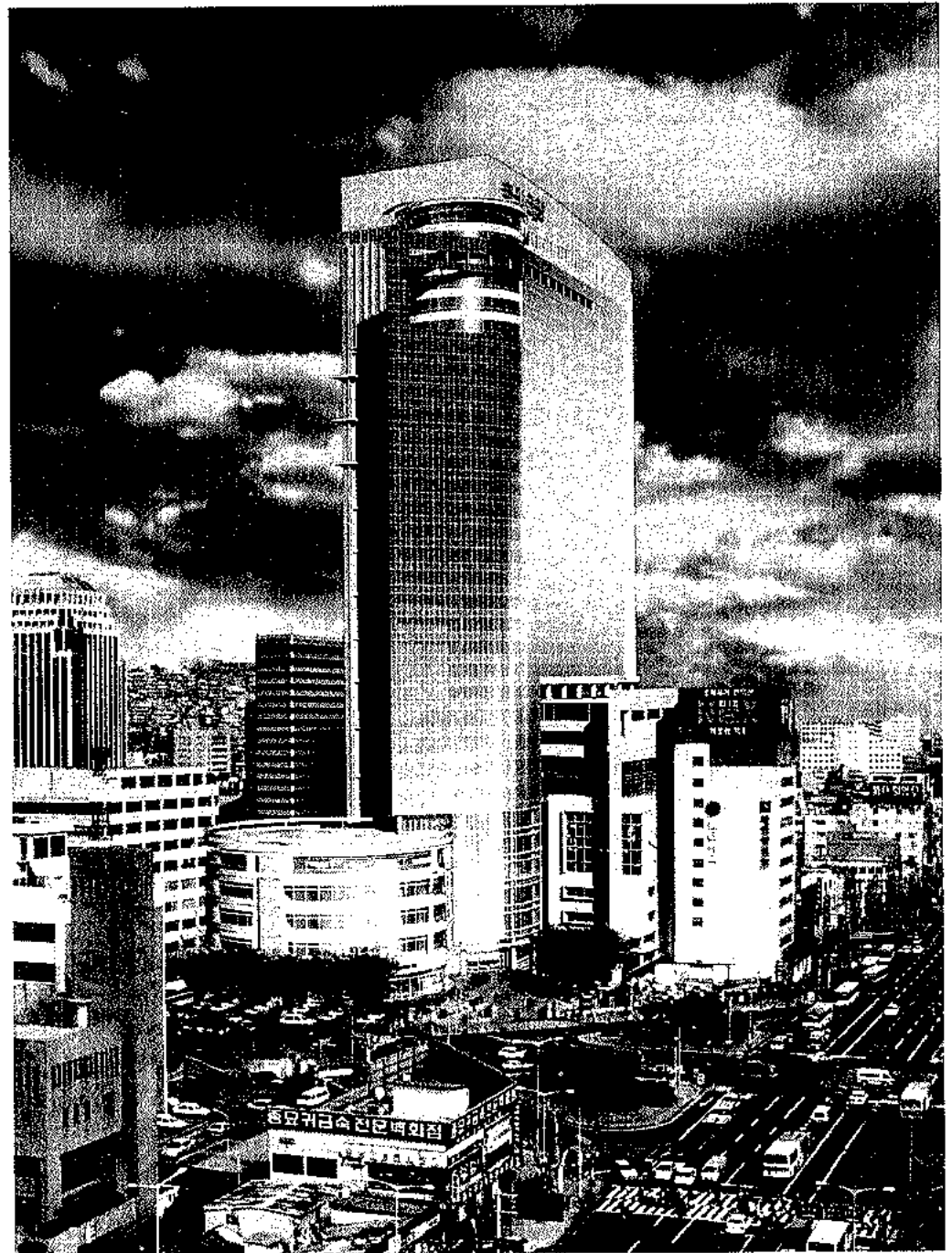
주차대수 / 1,257대

조경면적 / 1,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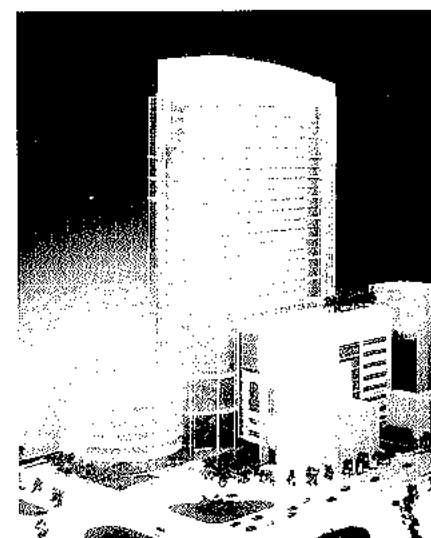
모형제작 / Construct Studios

투시도 · 조감도 / Ellerbe Bec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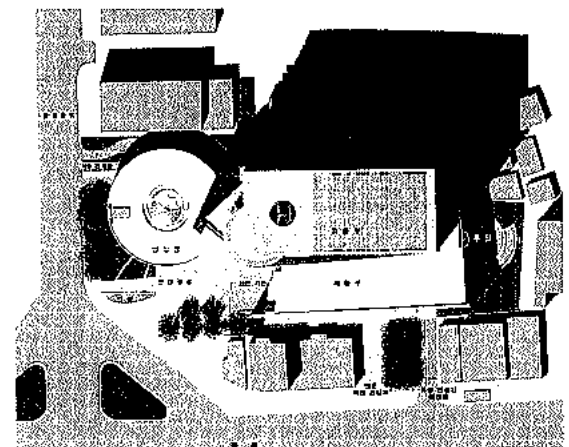
(Computer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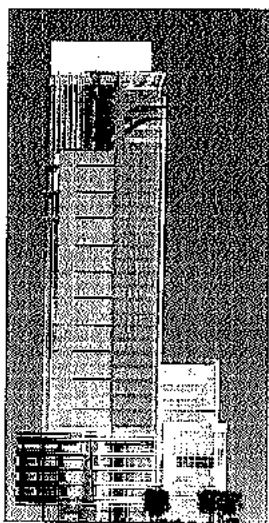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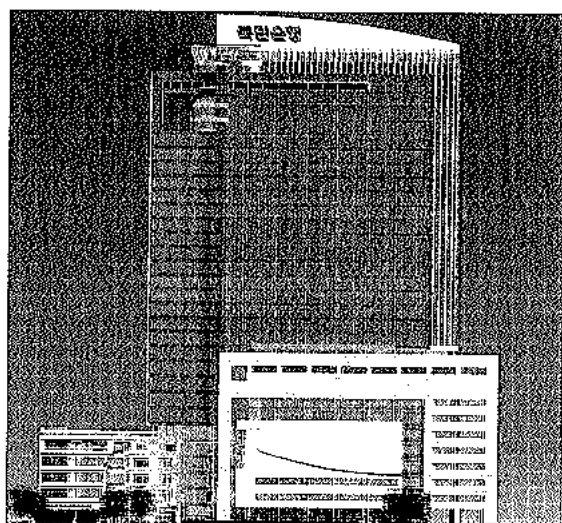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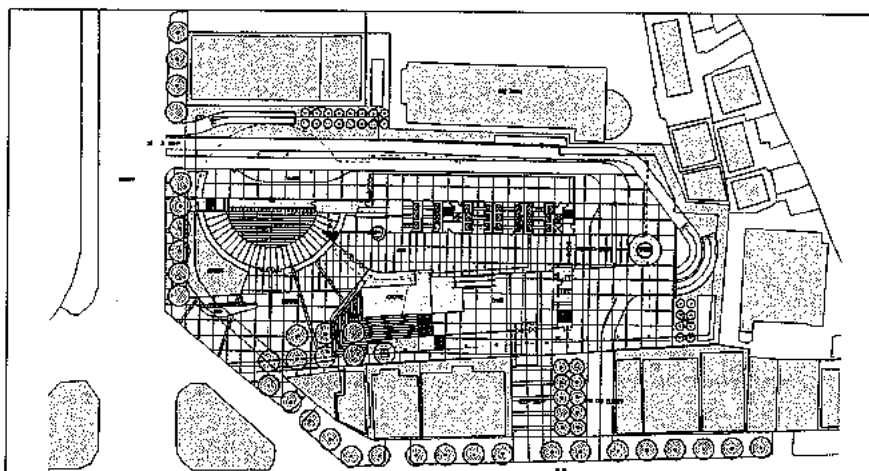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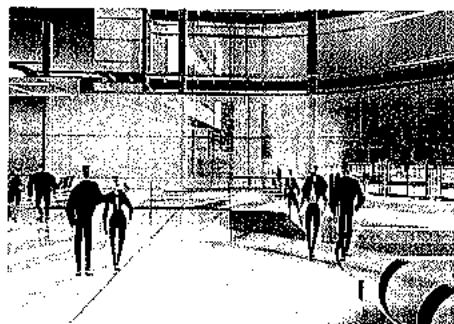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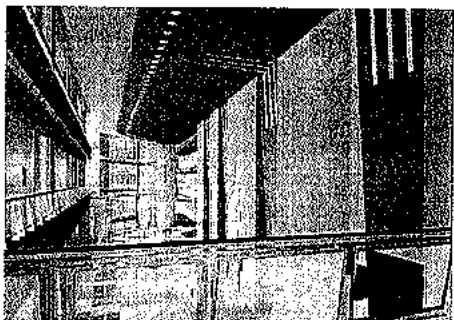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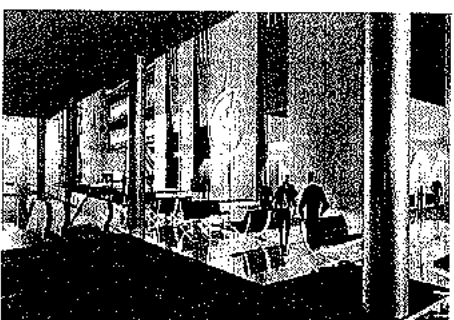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주출입구



아트리움



전시실

이번 설계 경기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물리적 용적은 지하 18,000평, 지상 30,000평을 약 2,883평의 대지에 약 2,000명의 행원이 근무하게 되는 본점이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현상 설계의 조형적 요건은 2000년대의 ... 현대적이며 위상에 걸맞는 ... 국제적 감각을 표현 등이었다.

보다 중요한 프로그램은 외국사의 협력 조건으로 이번 현상 설계에 임하게 되었고 그림으로써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고민과 준비가 필요했다.

과연 2000년대의 시대 인식이 어떠한가의 고민으로부터 우리 서울의 문제를 그들의 건축 환경 인식과 결합의 결과는 한편 흥미로운 것이기도 했다.

작업의 시작은 우리의 용적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외국사는 서울의 이해로부터였다.

세운상가 옥상에서 처음 느껴본 대지의 요건은 우선 종로 축과 평행하여 동서로 긴 대지이고 약조건으로 여겨진 것은 창경궁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건물 블록으로 둘러싸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건물이 세워지고 나면 저층부에서의 시각 대상은 주변 건물의 배면들이 이 건축의 환경이 되는 셈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고층부에서 기대되는 시각적 환경은 북한산, 종로, 남산 등이어서 강북에

서 볼 수 있는 서울의 자연이 거의 한눈에 갖출 수 있다는 점으로 여겨졌다.

배치계획

동서로 약 152m남북으로 62m의 대지 요건에 본점의 상징이기도한 3000평 규모의 영업장과 1000명을 수용하는 강당, 300평의 선관가든이 평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요소들이었다.

배치 문제는 우선 본점이 갖추어야 하는 대사 회적 개방과 보안성 확보라는 상이한 요구에 동선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었고 또하나의 문제는 1,200대를 수용하는 주차 및 차량 동선의 해결은 배치 계획의 건축적 의사를 제한하는 듯하였다.

우리의 주장은 주차 출입의 문제를 한곳에서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인 점이었었고 그림으로써 종로 축의 차량 진출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결해점은 설계 경기에서 자칫 간과되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비껴가지않은 우리의 선택이 아직도 옳다고 생각된다.

평면계획

은행측에서 제시된 평면 프로그램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기에서 이것의 조합은 곧 저층부의 조직을 결정되는 듯했었다.

그러나, 평면 작업과는 별개로 기본적 용적 내에서 가능한 조형을 찾으려고도 했지만 그것

또한 건축적이지 않았다. 이제까지의 원도시건축의 작업이 그랬듯이 최초의 도그마 혹은 시스템을 찾는 일에 충실하게 되었고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 공용과 사(私)용이 아뜨리움에 의해 구분되고 공간의 연출에 따라서 기능배분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전환해결되었다.

조형 계획

은행 본점 건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우리의 작업의 대부분이 소모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이 다동원되어 진지하게 토론되어 지기도 했다.

크게는 3개의 매스로 나누어진 용적 각각은 성격 규정이 동의된 상태였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의사될 조형 의사는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영업장은 아이콘개념(즉, 은행 본점의 기억에센스로서)포디움부는 기존 주변환경에 한계 내에서 해결이라는 합의는 몇개의 모형 작업이 결론해 주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결과 앞에서 우리의 선택과 고민이 지금 보여지는 현상적 결과 보다 먼저 읽혀지기를 기대한다.

1. 개요

소개하고자하는 오토보이렌(Ottobeuren)성당은 바로크양식의 건물로서는 건물의 규모에 있어 독일에서는 가장 큰 건물임을 의심케하지 않는다.

바로크 양식 성당의 외부는 특별한 가치가 없으나 그 규모는 내부에 발휘된 힘을 반영한다는 독일 예술 평론 이론을 입증하는 곳이 바로 오토보이렌 수도원 성당이다. 정문을 들어서면서 부터 방문객들은 밝은 내부에 매료되는데 전통적인 관례와는 반대로 북서쪽을 향하고 있는 성당의 채광은 특히 생소한 느낌을 갖게한다.

일출 때와 일몰 때의 지면을 스치는 듯한 빛은 대단한 효과를 나타낸다. 궁륭의 벽화가 따듯한 느낌을 주는 색조인데 반해 반농담의 분홍색, 노랑색, 황토색 그리고 보라빛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비교적 미광이 깃들어 있는 내진에서는 더 어두운 색들이 장식판자의 황금빛과 녹색색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베네딕트의 수도원인 오토보이렌(Ottobeuren) 수도원은 764년 건립되었으며 수도원의 후원자였던 샤를대제가 많은 권한을 수도원에 부여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16세기 초 이 수도원에서는 초기 인쇄기를 사용하였을 뿐만아니라 얼마 후에는 학교도 설립하였기 때문에 독일 남부지방인 바이에른 지방에서는 그 명성이 드높았다. 18세기에 수도원은 그 당시의 유행에 따라 혼합 바로크 양식으로 개조되었는데 확장된 좌우익랑은 팔즈부르크(Salabourg)의 영향을 받았고, 둥근 천정은 로마의 영향을, 그리고 기둥과 내부의 간막이벽은 보랄베르크(Voralberg)학파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혼합바로크 양식이라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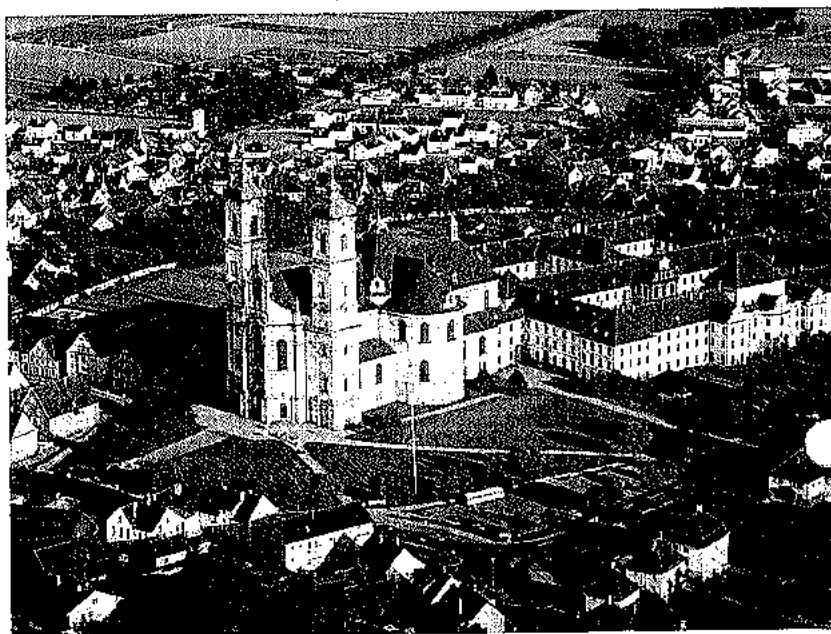
유럽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 (3)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Europe

독일의 Ottobeuren 성당

박호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1. 스페인의 성가족(Sagrada Familia)성당
2. 이탈리아의 피사(Pisa)성당
3. 독일의 오토보이렌(Ottobeuren)성당
4. 오스트리아의 멜크(Melk)성당
5. 프랑스의 베즐레이(Vezelay)성당
6. 영국의 엘리(Ely)성당



수도원 전경

남부 독일의 위대한 건축가 Johann Michael Fischer가 1748년부터 마무리 작업을 하여 그의 걸작품으로 각인을 했으나 로코코 양식의 장식에 있어 벽화는 Zeiller, 그리고 화장벽토와 입상은 Johann Michael Feuchtmayer가 참여를 했다. 성당 내부 장식에 있어 이들의 외에도 많은 독일인 예술가와 이탈리아인 예술가들이 작업에 참여를 했다. 1802년 교회 관할에서 분리되었다가 1834년 다시 수도원이 되었으며 1918년 베네딕트 수도회에 귀속되었다.

2. 수도원 구조

오토보이렌 (Ottobeuren) 의 베네딕트 수도회가 새로운 건축에는 바로크 양식의 많은 수도원과는 반대로 균형있는 성당을 건립하기로 한 결과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길이 480m, 서쪽에서 동쪽까지의 폭이 430m가 되는 웅장한 건축물을 완성하게 되었다. 공중에서 내려다 보면 머리를 한쪽으로 약간 기울인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거대한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생소한 배치는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체를 논리정연하게 비교한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쪽에 있는 성당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리스도의 머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교회와 세속으로 나누어진 몸의 한가운데 부분은 가로 120m, 세로 137m 규모로 되어 있다. 그 왼쪽부분은 수도자들이 기도할 수 있고 명상할 수 있는 장소이며 오른쪽 부분은 손님과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활동적인 삶을 상징한다. 중앙의 수도원장 저택은 전체의 중심으로 심장을 의미하며 남쪽에 있는 부속건물은 신체에서 발에 해당하는 곳으로 경제적인 기초를 나타낸다. 이러한 세부적인 요소를 잘 살펴보면 건물 전체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의 신비스런 신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건축물로 표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의 꿈을 실현시킬 것에 대한 요구가 그것이다.

3. 성당의 외부와 정면

성당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탑높이 : 82m
- 좌우익랑의 길이 : 90m
- 회중석 길이 : 60m

3-1 외부

오토보이렌의 위대한 사학자중의 한 사람인 Norbert Lieb는 1931년 "18세기에 건립된 독일 성당들 가운데 외부를 말하자면 오토보이렌의 성당만큼 아름답게 구성된 성당은 없다."고 단언했다. 전문가의 이러한 판단은 1960년에서 1964년 도색을 다시하고, 1981년에서 1983년 사이 붉은 벽돌색의 기와로 지붕을 다시하고 감정서에 의해 회색과 녹색으로 테두리를 칠하는 복원공사에 의해 더 확증되었다. 즉, 보조적이고 대비적인 색을 사용하여 건축물과 자연이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했다.

그러나 성당은 수도원 전체 건물이 그렇듯이 종교적인 관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뚜렷한 십자가 형태로 그리스도 자신은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귀중한 성골 합쳐려 수도원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12세기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십자가가 이곳에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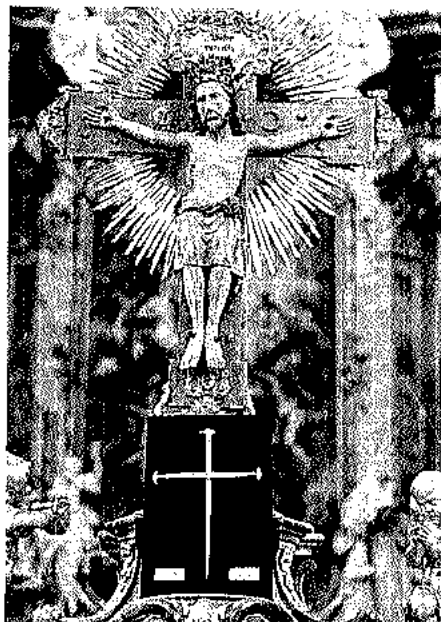
3-2 정면

성당의 외부와 수도원 전체는 견고한 두 탑이 있고, 정면의 반원형 모습에서 절정을 이룬다. 멀리서 보이는 성당은 매우 아름답고, 총 대주교의 십자가가 있는 두 탑은 이 건물이 하느님의 집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지역 수도회의 설립자는 대주교의 서열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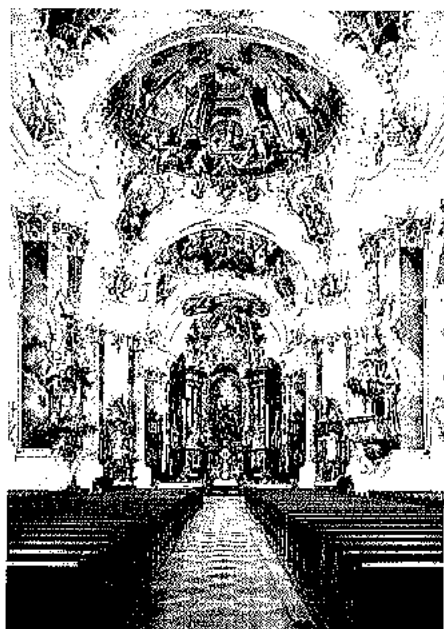
정면 꼭대기의 삼각형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인 하느님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 있는 작은 원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있고



수도원 정면



12세기 로마네스크양식의 십자가



입구에서 본 성당 내부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는 하느님인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의미한다. 벽감 속에 있는 입상은 베네딕트 수도회의 브누아(Benoît) 성인을 나타낸다. 예로부터 “브누아 성인의 십자가”라고 불리우는 이 입상의 오른손에 있는 십자가는 모든 종류의 질병과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전해진다. 양쪽의 두 입상은 로마시대의 순교자인 알렉산드르(Alexandre: 162년경) 성인과 테오도르(Théodore: 306년경) 성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토베른 성당과 수도원의 수호성인이다.

그들의 성유골 일부가 오토베른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다. 삼각형 부분에 있는 미셸(Michel) 대천사는 모든 성인들은 성당과 수도원에서 악과 사탄을 몰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셸 대천사가 성당 건축에서 언제나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 서쪽면이 미셸 성인에게 봉헌되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세 정문 위에 있는 소용돌이 장식(종이가 약간 말린 듯한 모양의 틀 장식)과 새겨진 글은, 이곳은 성스러운 장소로 하느님의 집이며 천국의 문으로 땅 위의 이곳에서 인간과 하느님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4. 내부

매우 어두운 성당 정문안의 현관을 지나면 아주 밝은 내부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 의도적인 어둠과 밝음의 대조는 하느님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즉,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며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그리스도가 강생하여 십자가에 못박힘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했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인류는 천상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표현한다.

4-1 성당내의 천정

성당 정문 안의 현관 천장에 있는 벽화들은 “가난한

과부가 바친 적은 헌금”과 “바리사이인과 세리”로, 하느님에 대한 순수함과 후회하고 회개하는 인간을 나타내며 “사원에서 내쫓긴 상인들”의 벽화는 기도하는 장소는 신성해야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성당 정문안의 현관을 지나면 아주 밝고 넓은 공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는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한다. 둥근 천장의 궁륭을 바치고 있는 오른쪽과 왼쪽의 원주들은 구약성서의 십계명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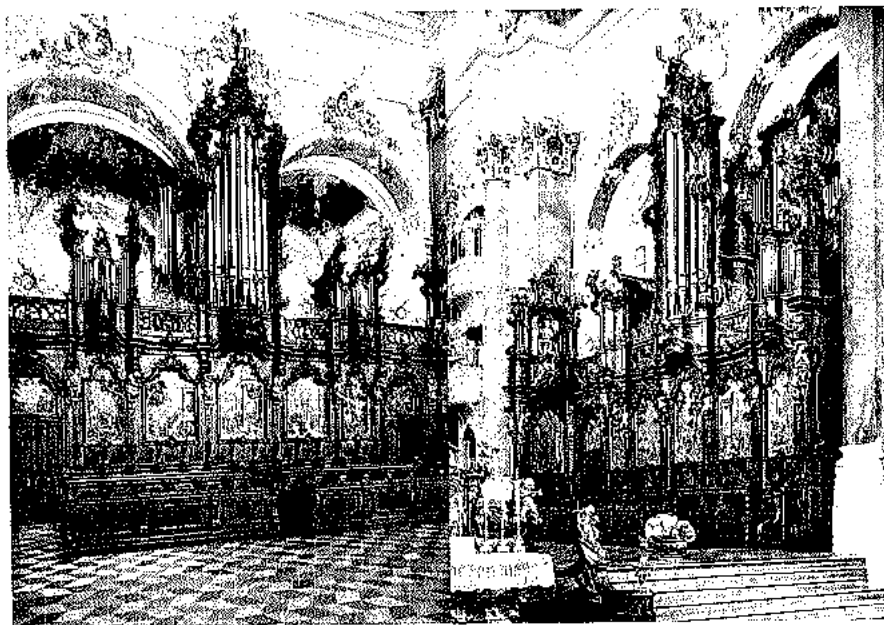
주제단은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조 대리석으로 된 원주의 미묘한 색은 방문객을 사로잡는다. 주제단의 맨 위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준 하느님으로 아훼라는 이름과 함께 표현되어 있고, 제단위의 장식벽화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나타낸다.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나타내는 신학적 프로그램이, 이 내전에서부터 시작된다.

4-2 주제단 앞의 궁륭

“천사들의 둥근 천장”이라 부르는 주제단 앞의 궁륭에서는 천사들에 둘러싸여 왕좌에 앉아있는 하느님이 있다. 날개가 여럿인 제1위의 치품천사, 제2위의 지품천사, 하느님의 왕좌 주위에 있는 제3위의 좌품천사. 무기와 깃발장식을 든 주품천사, 주신과 천체의 능품천사, 계약의 판을 든 수호천사인 역품천사, 왕자의 상징인 모자를 쓴 권품천사, 토비이와 악마 아스모데와 함께 있는 대천사 라파엘, 백합을 들고 있는 대천사 가브리엘 등이 하느님의 주위에 있다. 귀들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천사들이 묘사되어 있다.

4-3 성직자석과 흉상

성직자 석을 장식하고 있는 남자들의 흉상은 원죄 이후의 인간들을 매우 표정이 풍부하게 묘사한 것이다. 왼쪽 성직자 석의 열 두명의 흉상은 예제키엘,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야훼에게서



내진입구에 있는 크루아(Croix) 성녀의 제단과 제단 오른쪽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성직자석



주제단 뒤에 있는 그림 “성삼위와 구세주”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12 종족을 나타낸다. 이 네 명의 예언자들은 매우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다. 오른쪽 성직자 석의 12명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교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예언자들과 함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기를 애원하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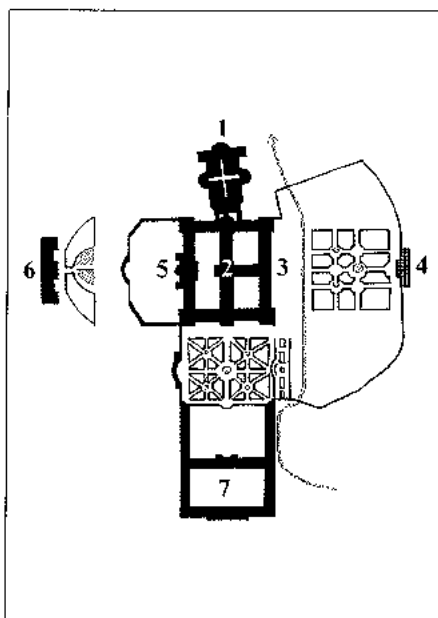
4-4 주제단의 성막

하느님은 피조물들의 애원을 듣고 동정심을 느껴 “천사들의 둥근 천장”에서 그의 왼쪽에 앉아 있는 그의 외아들을 인간세상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왕관 아래 있는 주제단의 성막에 표현되어 있다. 이 순간부터 구세주의 별은 인간들을 인도하기 위해 땅위에 빛을 비추었고 때가 되어 구세주가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나자렛의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여 대천사 가브리엘을 보낸다는 내용의 벽화와 예수탄생을 나타내는 벽화가 있다. 최후의 만찬 장면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를 표현하는 장면 사이에는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제단에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왕관을 쓴 그리스도 상은 이러한 사건을 매우 극묘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구세주의 벌린 입은 그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보낸 성령이 교회를 생기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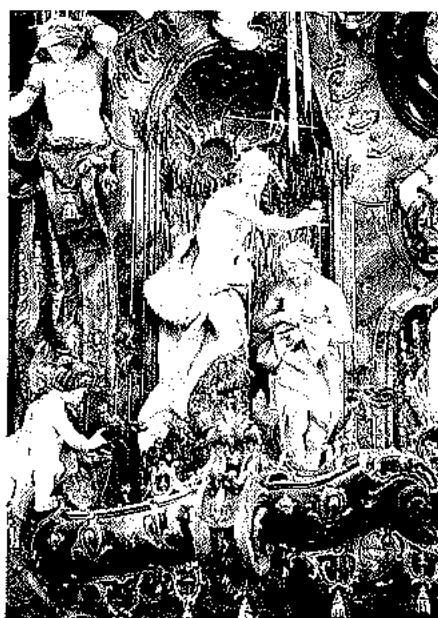
4-5 내진 및 지하성당

내진으로 이르는 일곱 계단은 세례성사, 견진성사, 신품성사, 고백성사, 혼인성사, 성체성사, 그리고 종부성사를 상징하고, 내진의 아래에 있는 지하성당은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예수 승천의 장면은 이승에서의 삶이 천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제단의 그림에는 예수와 관계있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느님의 오른편에 부활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그리스도는 구원이 삼위

일체의 사업이라는 것을 그의 몸짓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타블러 처 위에 화장벽토로 상징해 놓았다. 교회는 인간들에게 세가지 향주덕인 신덕, 망덕, 애덕을 주었다. 내진 속에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여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만나이다.”라는 미사전문 속의 말이 있다. 예수의 임무는 성신과 성신이 강림한 교회가 설립되는 가운데 절정에 속한다. 이 사건은 성당의 가장 중심인 성당 중앙의 둥근 천장의 궁륭 속에 묘사되어 있다. 36m의 매우 높은 높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운데 있는 성신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성신의 주위에는 일곱 명의 천사로 의인화한 영적 선물이 있다. 또한 성모마리아와 그의 주위에 있는 사도들과 불꽃으로 상징된 성신에 의해 황홀해하는 사람들은 벽화의 건축술을 돋보이게 한다. 둥근 천장아래 바닥 위에 있는 구세주의 별은 사방을 향해 빛을 발하고 있다. 둥근 천장의 벽화에 있는 성모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며, 세상의 끝까지 순례객들의 마음을 끌 것을 의미한다. 성모마리아는 별, 제의(성직자들이 입는 옷), 삼중관(일반적으로 교황의 지위를 나타낸다), 대주교의 십자가와 열쇠등의 상징으로 교회의 어머니로 표현되어 있다. 호화롭게 옷을 입은 네 그룹의 사람들이 성모마리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네 그룹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알려졌던 네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을 나타낸다. 유럽은 황녀 마리 테레즈(Marie-Thérèse)로 표현되었다. 대천사 미겔은 그들이 저지른 악으로 하느님과 교회에서 떨어진 인간들을 넣어주지 않고 있다. 귀둘에는 4대복음사가인 마태오, 마르코, 루가와 요한이 신약성서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화장벽토로 된 입상들은 라틴 교회의 4명의 신부인 그레고리 1세, 제롬, 앙브루아즈, 오귀스탱을 나타내며 그들은 신품성사에 의거한 로마교회 속에서 교황권, 추기경의 지위 주교지위와 같은 품급의 전통과 교제제도를 표현하고 있다. 둥근 천장의 기둥위에 있는 표징은 일곱품급을 상징한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모양의 수도원 설계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예수로 장식한 세례반



동쪽익랑의 제단위에 있는 15세기에 흙을 구워 제작한 성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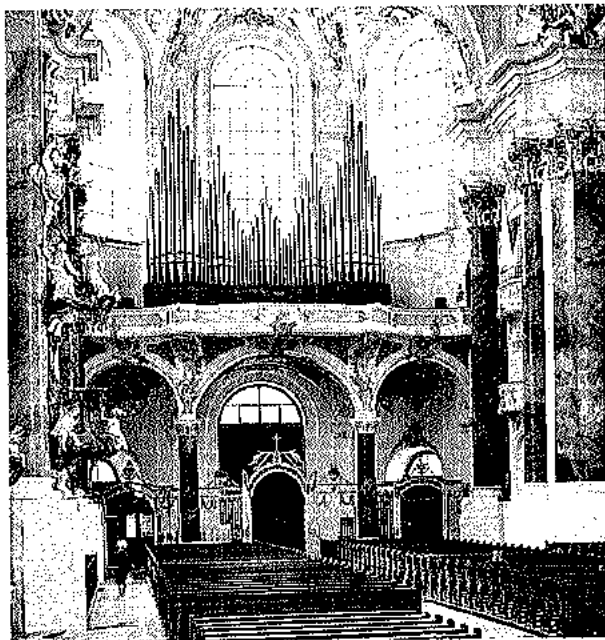
성당 내의 모든 공간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묘사함으로써 성인들의 통공을 나타내고 있다.

4-6 회중석과 작은 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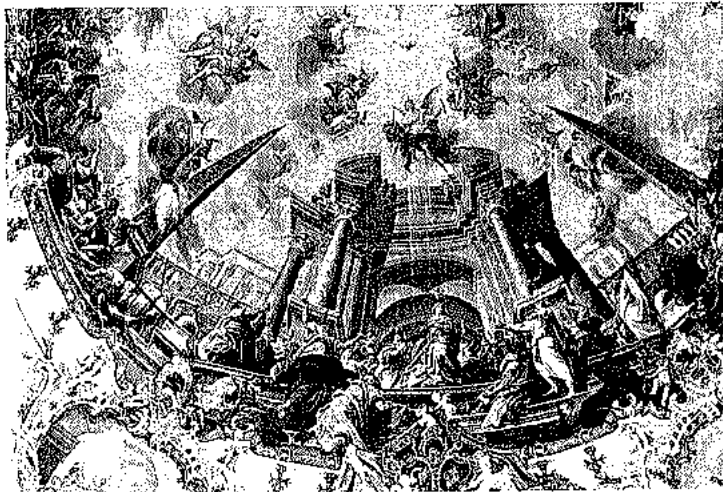
회중석과 측면에 있는 작은 제단(소성당), 그리고 회중석의 벽화에서 12 사도들의 부조를 볼 수 있다. 11개의 작은 제단에는 성인들의 성유골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은 4가지 기본 도덕인 용기, 신중함, 절제 그리고 정의를 나타내는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다. 왼쪽익랑은 용기를 표현한 곳으로, 순교자와 수도회의 관련된 성인들의 작은 제단들이 있다. 천정의 벽화는 162년 로마의 광장에서 사형을 당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을 묘사한 것이다.

4-7 좌우익랑

오른쪽 익랑 속에는 신중함을 나타내었고 동정녀들과 수도회의 성인들의 작은 제단들이 있다. “은총의 제단”으로 불리우는 오른쪽 익랑 천정의 벽화는 성모 마리아의 전구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절제를 나타내는 곳은



중앙회중석



좌우익랑의 교차점 천정에 있는 벽화 “성령강림”

왼쪽 측랑에 있는 작은 제단들로 수도회의 성인들의 작은 제단들이 있다. 또한 오른쪽 측랑의 작은 제단들은 정의를 나타내며 성모 마리아의 순결한 남편으로서 요셉을 숭배하는 성직자들을 위한 곳이다. 좌우측랑에 있는 작은 제단들의 뒷쪽에 있는 벽에는 옛 성당에 있던 그림 4점이 있다. 1663년경 Johann Christian Storer가 제작한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모승천”이 왼쪽측랑의 벽에, 1700년경 Johann Friedrich Sichelbein 3세가 제작한 “십자가에 못박음”과 알렉산드르(Alexandre) 성인과 테오도르(Théodore) 성인 그리고 세바스티앙(Sébastien)성인이 오른쪽 측랑의 벽에 있다. 교회 는 성사로 외부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알림으로써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더욱 견고하고도 뜨거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마태오복음 28장 19절이 새겨져 있는 설교단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준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 제자들의 의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된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한 구세주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두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목을 매단 유다로 표현된 재앙과, 개종한 사울로 표현된 구원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임무도 묘사 되어 있다.

4-8 설교단과 세례반

설교단의 맞은 편에 있는 세례반의 위쪽에는 세례자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는 예수”가 있다. 히느님은 예수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비둘기 형상의 성령을 보내고 있다. 세례반의 위쪽에는 아담과 이브의 부조가 있다. 이는 예수가 아담과 이브에 의해 생긴 원죄를 대속하는 것을 나타낸다. 설교단과 세례반은 교회의 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로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이들에게는 교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명의 인물로 성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중앙의 크루아(Croix) 성녀의 제단에서 대사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제서품의 중요성과 교회가 제일 중요시하는 일치의 상징으로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4-9 중앙회중석 주변

중앙 회중석의 오른쪽 측랑에 있는 작은 제단의 장 드 네포튀센(Jean de Népomucene) 성인은 고백성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 맞은 편에 있는 중앙 회중석 왼쪽 측랑의 앙투안(Antoine)성인은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가난한 세 처녀와 결혼한 니콜라(Nicolas) 성인은 혼배성사의 중요성을, 마르탱(Martin)성인은 임종시의 종부성사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중앙 회중석에서 양쪽 아케이드 사이에는 부조는 선한 목자와 신동을 나타내며 성사를 주는 사람들의 모델은 예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앙 회중석 주위 엔터블러치 위에 화장벽토로 된 조각은 십자가를 짐, 가난, 순결과 복종을 나타낸다. 중앙 회중석의 귀퉁이는 브누아(Benoît) 성인에게 봉헌되었다. 이 귀퉁이에서 브누아 성인은 절투심 많은 사제 플로

랑땡(Florentin)을 몰라게 하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또 자주 그의 제자들에게 보잘것 없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자로 묘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아리우스파의 교도 잘라(Zalla)에 대해 교회 권리를 방어하는 용기있는 사람으로, 또 세속의 모든 명예와 모든 지위를 거부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4-10 중앙회중석의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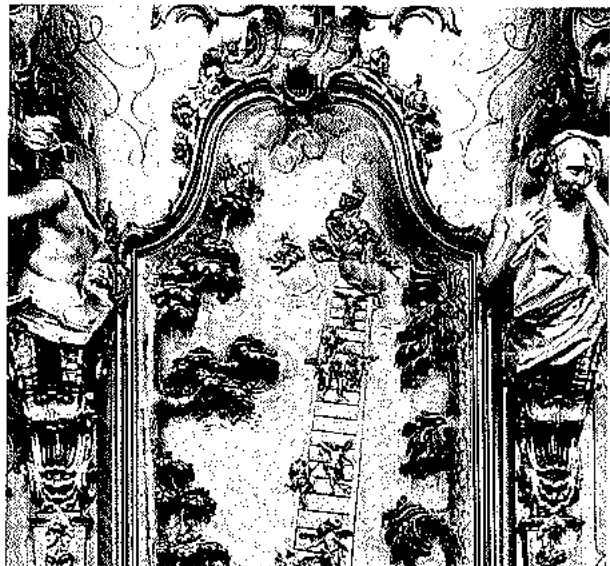
중앙 회중석의 둥근 천장에서 브누아 성인은 예언자로 영광에 싸여 있고 그의 주위에는 성인들이 있다. 예수는 부활함으로써 죽음에서 승리를 하고 인간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 졌다. 죽음은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이 신앙은 왜 교회는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즉, 주제단 입구에 있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 속에서, 여러 작은 제단에 있는 수 많은 성유골 속에서, 또 측랑의 여러 작은 제단 속에 있는 분묘들을 보면서 죽음을 보고 느끼며, 도처에 죽음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 이것은 모든 인간과 관계되는 사실이지만 성당 입구의 천정벽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천년 역사를 가진 오토보이렌 수도원 성당과도 관계되는 일이다. 맨 위에서 삼위일체와 구세주의 상징으로서 에스파니아식 십자가 속에 꽃핀 십자가의 작은 조각을 볼 수 있다.

구름 아래에는 수도회의 창설자 브누아(Benoît) 성인, 베드로와 바오로, 성당의 수호성인인 알렉산드르(Alexandre) 성인, 테오도르(Théodore)성인과 이 성당 속에 그들의 성유골이 있는 여러 순교자들이 있다. 그 아래에는 새로운 오토보이렌 성당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복자 Hatto와 Bernold, 그리고 창설자의 아들 Tagebert, Pepin왕, 창설자 Erminswint와 Silach, 그리고 그들의 아들로 비엔나의 주교이면서 오토보이렌의 복자인 Garzibert, 복자 신부들인 Conrad 1세와 Rupert 1세, 교황 Innocence 3세, 샤를 대제와 그의 부인으로 수도원에 많은 기부를 했던 Hildegard 등이 있다. 이 벽화의 바로 아래 땅속에는 Rupert 2세 Ness가 높은 성당의 초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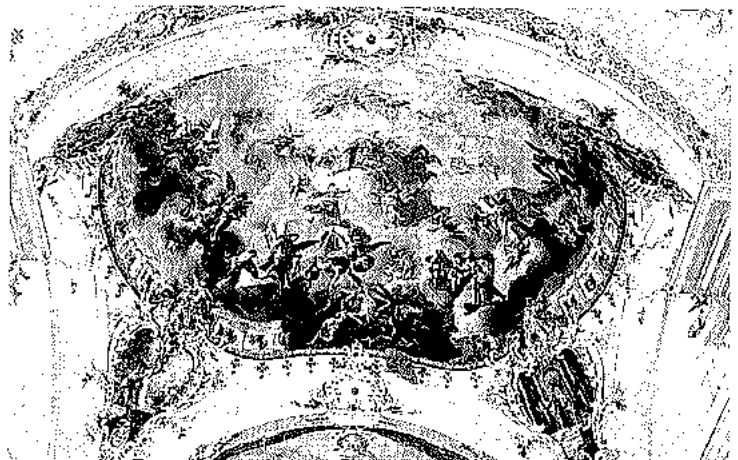
5. 맺음말

수도원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완전히 외파로 떨어진 성당은 매우 아름답다. 건축물의 맨 앞에 위치하여 머리를 상징하며 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제압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수도원의 맨앞에 성당을 배치한 이 설계도는 대칭적이면서도 균형적인 것을 추구하던 바로크 양식의 경향에 완전히 일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바로크 양식 성당의 외부는 별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궁륭의 벽화나 미광이 깃들여 있는 내진에서는 더 어두운 색들이 장식판자의 황금빛과 녹색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 성당은 좌우익랑의 내부가 성당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곳은 매우 강한 인상을 주는데 이 성당의 건축적 특징이 중앙의 둥근 천정 주위로 모든 건축술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Johann Michael Fischer는 교차점의 기둥을 능면으로 처리를 했는데 특히 능면으로 처리된 기둥에 있는 제단으로 오토보이렌과 독일제국의 수호성인 (Michael)성인의 제단, 수호천사의 제단, 요셉성인의 제단,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제단은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세례장면을 나타낸 Josephe Christian의 조각은 설교단과 세례반 위에 있는 것으로 매우 아름다운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유명한, 그리고 규모가 큰 대부분의 성당은 고딕양식으로 건립되어 있어 이와 같은 양식에 익숙해 있는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성당내부에 기교가 너무 넘쳐 회오리감아 오르게 한 천개의 기둥과 섬세하게 장식된 이 Entablature가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고 성당내부의 통일성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술사에서 바로크는 전통에서 자유로이 벗어나서 비약을 시도한 고답적인 것이므로 말세적 예술로 생각하기도 하나 실로 바로크 건축은 신세대를 전개시키는 선구로서 건축사상 적지 않은 의의가 있음을 이 성당을 방문하면서 가질 수 있었다.



벽체 무조



중앙회중석 천정의 벽화

96년도 5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5월분 1천2백6십5만7천9백14㎡ 보다 13.9%(1백7십5만8천1백20㎡) 감소한 1천8십9만9천7백94㎡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5월누계 5천6백2십4만8천1백35㎡ 보다 15.3%(8백

5십9만2천7백47㎡) 감소한 4천7백6십5만5천3백88㎡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4월분 9백7십8만9천3백23㎡보다 11.3%(1백1십1만4백71㎡) 증가한 1천8십9만9천7백94㎡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5년도	1996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 울	2,298,841	4,926,197	2,627,356	114.3
	부 산	456,265	1,552,612	1,096,347	240.3
	제 주	103,006	118,238	15,232	14.8
감소지역	대 구	989,973	419,753	(570,220)	-57.6
	인 천	431,588	312,210	(119,378)	-27.7
	광 주	585,900	240,385	(345,515)	-59.0
	대 전	219,734	161,059	(58,675)	-26.7
	경 기	2,426,287	1,280,667	(1,145,620)	-47.2
	강 원	704,456	311,467	(392,989)	-55.8
	충 북	489,918	189,348	(300,570)	-61.4
	충 남	1,139,970	126,909	(1,013,061)	-88.9
	전 북	294,745	193,029	(101,716)	-34.5
	전 남	317,265	135,828	(181,437)	-57.2
	경 북	749,601	222,654	(526,947)	-70.3
	경 남	1,450,365	709,438	(740,927)	-51.1
합 계	12,657,914	10,899,794	(1,758,120)	-13.9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4월분	5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1,091,598	1,131,017	39,419	3.6	
다 세 대 주 택	326,845	650,527	323,682	99.0	
연 립 주 택	124,087	178,944	54,857	44.2	
아 파 트	3,467,038	3,468,121	1,083	0.0	
근린생활시설	1,657,934	1,710,526	52,592	3.2	
종 교 시 설	147,081	111,444	(35,637)	-24.2	
의 료 시 설	79,264	46,664	(32,600)	-41.1	
교육연구시설	258,130	316,488	58,358	22.6	
업 무 시 설	179,881	788,552	608,671	338.4	
숙 박 시 설	130,910	145,533	14,623	11.2	
공 장	994,002	1,217,411	223,409	22.5	
기 타	1,332,553	1,134,567	(197,986)	-14.9	
계	9,789,323	10,899,794	1,110,471	11.3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5월분)

구 분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 율 (%)	비 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4,379	4,437	1,117,226	3,905	3,997	1,131,017	(474)	(440)	13,791	1.2	
다 세 대 주 택	962	1,020	559,559	778	842	650,527	(184)	(178)	90,968	16.3	
연 립 주 택	167	183	240,668	118	135	178,944	(49)	(43)	(61,724)	-25.3	
아 파 트	225	784	4,910,969	99	220	3,468,121	(126)	(564)	(1,442,848)	-29.4	
근린생활시설	4,095	4,239	1,924,930	3,684	3,826	1,710,526	(411)	(413)	(214,404)	-11.1	
종 교 시 설	153	176	121,088	133	150	111,444	(20)	(26)	(9,644)	-8.0	
의 료 시 설	18	20	46,242	22	25	46,664	4	5	422	0.9	
교육연구시설	126	157	372,727	109	123	316,488	(17)	(34)	(56,239)	-15.1	
업 무 시 설	144	151	317,209	94	98	788,552	(50)	(53)	471,343	148.6	
숙 박 시 설	137	144	207,338	138	140	145,533	1	(4)	(61,805)	-29.8	
공 장	964	1,383	1,443,560	748	1,014	1,217,411	(236)	(369)	(226,149)	-15.7	
기 타	1,210	1,456	1,396,398	1,136	1,388	1,134,567	(74)	(38)	(261,831)	-18.8	
합 계	12,600	14,150	12,657,914	10,964	11,958	10,899,794	(1,636)	(2,192)	(1,758,120)	-13.9	() = 마이너스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5월분)

구분 용도별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20,782	21,116	5,364,206	16,581	16,994	4,687,688	(4,201)	(4,122)	(676,518)	-12.6	
다 세 대 주 택	3,804	4,542	1,974,427	3,085	3,280	1,950,042	(719)	(1,262)	(24,385)	-1.2	
연 립 주 택	571	615	789,833	464	489	642,347	(107)	(126)	(147,486)	-18.7	
아 파 트	844	3,087	19,680,415	531	1,121	17,291,285	(313)	(1,966)	(2,389,130)	-12.1	
근린생활시설	18,728	19,259	8,790,346	15,549	16,263	7,506,847	(3,179)	(2,996)	(1,283,499)	-14.6	
종 교 시 설	576	656	428,252	496	568	509,969	(80)	(88)	81,717	19.1	
의 료 시 설	126	134	410,662	110	122	277,137	(16)	(12)	(133,525)	-32.5	
교육연구시설	559	646	1,586,025	423	491	1,434,211	(136)	(155)	(151,814)	-9.6	
업 무 시 설	569	578	3,016,420	391	407	2,038,665	(178)	(171)	(977,756)	-32.4	
숙 박 시 설	627	683	926,714	619	668	566,257	(8)	(15)	(360,457)	-38.9	
공 장	4,198	5,919	6,589,510	3,203	4,277	4,902,282	(995)	(1,642)	(1,687,228)	-25.6	
기 타	4,987	6,099	6,891,325	4,446	5,303	5,848,658	(541)	(796)	(842,667)	-12.6	
합 계	56,371	63,334	56,248,135	45,898	49,983	47,655,388	(10,473)	(13,351)	(8,592,747)	-15.3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5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1,938	1,951	2,298,841	2,568	2,569	4,926,197	630	618	2,627,356	114.3	
부 산	1,061	1,136	456,265	890	1,124	1,552,612	(171)	(12)	1,096,347	240.3	
대 구	1,317	1,414	989,973	792	792	419,753	(525)	(622)	(570,220)	-57.6	
인 천	593	612	431,588	370	370	312,210	(223)	(242)	(119,378)	-27.7	
광 주	268	397	585,900	281	364	240,385	13	(33)	(345,515)	-59.0	
대 전	341	353	219,734	325	331	161,059	(16)	(22)	(58,675)	-26.7	
경 기	2,301	2,572	2,426,287	1,995	2,255	1,280,667	(306)	(317)	(1,145,620)	-47.2	
강 원	765	947	704,456	510	569	311,467	(255)	(378)	(392,989)	-55.8	
충 북	604	677	489,918	424	479	189,348	(180)	(198)	(300,570)	-61.4	
충 남	520	577	1,139,970	323	255	126,909	(197)	(322)	(1,013,061)	-88.9	
전 북	296	357	294,745	333	333	193,029	37	(24)	(101,716)	-34.5	
전 남	429	506	317,265	308	331	135,828	(121)	(175)	(181,437)	-57.2	
경 북	775	1,009	749,601	481	586	222,654	(294)	(423)	(526,947)	-70.3	
경 남	1,163	1,409	1,450,365	1,098	1,301	709,438	(65)	(108)	(740,927)	-51.1	
제 주	229	233	103,006	266	299	118,238	37	66	15,232	14.8	
합 계	12,600	14,150	12,657,914	10,964	11,958	10,899,794	(1,636)	(2,192)	(1,758,120)	-13.9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5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8,680	8,734	8,495,953	10,131	10,156	22,286,296	1,451	1,422	13,790,343	162.3	
부 산	4,454	5,474	4,286,721	3,486	4,639	4,792,461	(968)	(835)	505,740	11.8	
대 구	6,158	6,494	3,835,532	4,418	4,461	3,054,143	(1,740)	(2,033)	(781,389)	-20.4	
인 천	2,201	2,322	3,206,019	1,664	1,680	1,976,039	(537)	(652)	(1,229,980)	-38.4	
광 주	1,526	2,030	2,277,549	1,503	1,786	1,049,201	(23)	(244)	(1,228,348)	-53.9	
대 전	1,452	1,616	1,922,997	1,093	1,103	694,723	(359)	(513)	(1,228,274)	-63.9	
경 기	10,848	12,219	12,045,577	7,967	8,786	5,072,819	(2,881)	(3,443)	(6,972,758)	-57.9	
강 원	3,003	3,613	2,512,990	2,057	2,237	847,823	(946)	(1,376)	(1,665,167)	-66.3	
충 북	2,583	2,896	1,750,815	1,856	2,070	969,985	(727)	(826)	(780,830)	-44.6	
충 남	2,227	2,442	4,143,199	1,440	1,039	845,651	(787)	(1,133)	(3,297,548)	-79.6	
전 북	1,335	1,443	1,733,128	1,099	1,101	872,608	(236)	(342)	(860,520)	-49.7	
전 남	2,023	2,369	1,342,482	1,513	1,670	760,683	(510)	(699)	(581,799)	-43.3	
경 북	3,587	4,570	3,289,101	2,174	2,703	1,162,711	(1,413)	(1,867)	(2,126,390)	-64.6	
경 남	5,277	6,051	5,006,748	4,748	5,459	2,896,976	(529)	(592)	(2,109,772)	-42.1	
제 주	1,017	1,051	399,324	749	823	373,269	(268)	(228)	(26,055)	-6.5	
합 계	56,371	63,334	56,248,135	45,898	49,983	47,655,388	(10,473)	(13,351)	(8,592,747)	-15.3	()=마이너스

이사회 개최



이사회 뒤편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1회 긴급이사회와 정기이사회(제8회)가 지난 5월 21일(회의장소: 협회 중회의실)과 6월 11일(회의장소: 경기도 용인시 은화삼 C.C)에 각각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긴급이사회는 최근 건설기술자신고관리업무를 우리 협회가 수행하게 된 데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준비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보고사항에 이은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들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회 긴급이사회

• 제1회의 안: 건설기술자 신고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및 등록비, 수수료 징수액 결정 승인의 건

- 건설기술자 신고에 따른 등록비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징수키로 함.

1. 등록비: 2만원

2. 수수료: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3,500원/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10,000원/부

- 경력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수수료(5천원)는 징수하지 않기로 함

-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립금에서 차용 지출하고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키로 함

제8회 정기이사회

• 제1회의 안: 건축사보조원 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함

• 제2회의 안: 96년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하되, 10월 정기총회시 추인받기로 함

• 제3회의 안: 회관개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회관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연구·검토

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되, 위원장 및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4회의 안: 대한상공회의소 특별회원 가입(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함

'96 건설진흥추진대회 김창일 회원 등 정부포상

우리협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등 13개 건설관련단체가 공동주최한 '96건설진흥추진대회가 지난 6월 20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700여명의 업계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건설인의 날'을 기념해 건설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전 건설인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수성 국무총리와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 그리고 우리협회 김규태 회장, 최원석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유관기관장 및 건설관련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의 업계행사로는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되었다.

지난 81년 6월 18일을 '건설의 날'로 제정해 제1회 행사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8회 대회를 맞은 이날 행사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전 건설인이 시공뿐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설계·감리 등 종합건설 능력을 키워 나가는데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우리 건설업이 대외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기술과 품질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산업포장 수상자〉



김창일 회원



한규봉 회원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자〉



유경철 회원



김석운 회원

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기념행사에 이어 건설회관 1층 로비에 건설산업현장 사진전시회가 열렸으며, 또 오후 3시 30분부터는 '21세기 건설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건설산업원이 주관한 세미나가 열리는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리협회 김창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부회장)회원과 한규봉(천일건축엔지니어링 대표)회원이 산업포장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유경철(삼육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석운(진석운건축사사무소 대표)회원이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백여명의 건설관련 업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9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지난 6월 2일 시행된 1996년도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예정자가 발표되었다. 이번 건축사예비시험에는 총 9,102명이 응시, 이 가운데 520명이 합격해 예상보다 적은 6%미만의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들 합격예정자들은 앞으로 해당경력에 대한 경력신사를 거쳐 통과자에 한해 오는 7월 15일에 최종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올해의 건축사자격시험은 오는 9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들은 7월 2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과 일간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천리안 매직콜 CUG 개설

우리 협회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춰 (주)데이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리안 매직콜 CUG(Closed User Group : 폐쇄 사용자 그룹)를 개설하였다. 6월부터 개설된 CUG는 이용이 허락된 회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상호 업무연락과 문서교류는 물론 정보 제공, 전자회의 등을 할 수 있는 PC통신 서비스의 하나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후 천리안 매직콜에 접속하여 "GO KIRA"를 입력하면 된다. 이번에 개설된 CUG에 가입하면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외에 (주)데이콤에

서 제공되는 천리안 매직콜의 모든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또 회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CUG에 업로드해 회원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지「천리안 매직콜 CUG 개설 이용안내」를 참조 바람. (129쪽 참조)

부산 건축사회, 원로회원 초청 만찬회 개최

부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박성길)는 지난 5월 23일 부산시내 「석화」에서 원로회원들을 초청해 만찬회를 열었다.

5월 경로의 달을 맞아 건축계 발전에 공헌한 추대회원 및 은퇴 원로회원 13명을 초대한 이날 행사에서는 원로회원들의 공적을 기림과 아울러 주연을 벌여 노년의 소외감을 덜어주었다.

부산건축사회 대표단, 일본 오사카건축사회 방문



박성길 회장 축하 인사 광경

부산광역시건축사회의 박성길 회장의 11인의 일본방문 대표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건축사회를 공식 방문하고 돌아왔다. 방문단은 방일기간중 오사카건축사회 총회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내 건축물 및 시공현장을 견학하고 앞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양국 건축사회가 공동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특히 대표단 가운데 홍재석 감사를 비롯한 부산건축사회 청년건축사 일행은 양국 건축사회 청년대표들이 참석한 제4회 부산·오사카 청년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건축기술 및 정보를 교환하고 두나라 건축사회간 긴밀한 유대관계와 활발한 교류를 위해 앞으로 청년건축사들이 앞장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건축사회, 회원친선 바둑대회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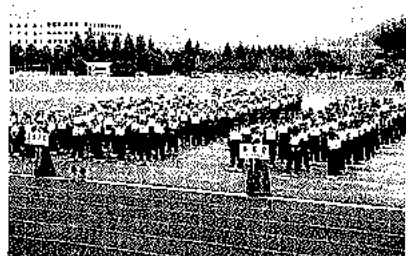


바둑대회 광경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이의구)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1층 세미나실에서 회원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바쁜 일상생활속에서 틈틈히 쌓아온 바둑실력을 맘껏 발휘하고 회원간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바둑대회에는 총 39명의 회원이 선수로 참가, 1~2급 부문에 출전한 박상식(우전·예진·상진 건축) 회원 등 10명이 우승 및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경남건축사회, 회원친선 체육대회 개최



체육대회 개회식 광경

경남건축사회(회장 이동일)는 창립기념일에 즈음하여 지난 6월 8일 창원종합운동장에서 회원 및 가족 등 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원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체육행사는 축구와 배구, 줄다리기 등 5개종목에 걸쳐 팀별 대항전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운동후에는 회원 노래 및 장기자랑 순서가 이어져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회원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또 이날 체육행사에는 김혁규 경남도지사 등 각계 귀빈들도 함께 자리해 창립기념일을 맞은 경남건축사회 회원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한편 경남회원들은 체육행사가 끝

난 후 부설공사추방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6개항으로 이루어진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부산·경남건축작가회, '96 여름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부산, 경남지역 건축사들의 모임인 부산·경남건축작가회(회장:이광태)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부산시 수영구 황령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제3회 「96여름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하늘마을과 건축모임」이라는 주제로 부산·경남지역 대학생 3, 4년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워크숍 및 세미나에는 성인수(울산대 교수), 이봉춘(비전건축), 양덕봉(금상기획), 최승원(양가주망건축)씨 등이 팀별지도 건축가로 참여해 개발로 파괴되어가는 산복도로변 주거환경의 현주소를 학생들과 더불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최대 목탑 완공

국내 최대의 목탑 건축물이 충북 진천군 보탑사 내에 세워졌다. 지난 6월 9일 준공식을 가진 이 보탑사 목탑은



보탑사 목탑(사진:김대벽)

높이 43미터의 규모로 1층 금당에는 석가모니·비로자나불 등 4면불을 재현한 사방불법당, 2층에는 부처님의 경전을 보관하는 대장전, 3층에는 미래를 안지하는 미래전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탑은 삼선포교원의 주관하에 신영훈(문화재전문위원)씨가 책임을 맡아 고건축 전문가들의 고증과 자문을 받아 설계·시공된 것으로 대목 조희환씨와 지현건설이 참여했다. 이 탑은 우리의 전통적인 건축방식인 결구방식, 즉 이음맞춤 등을 이용해 지은 것으로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 대개의 다른 목탑들이 1층만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이 목탑은 계단을 통해 2,3층 전체를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공간의 사용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고층목탑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는 그 유적이 남아있으나 우리의 경우 갖가지 재난으로 모두 소실되고 전탑과 석탑만이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건축된 보탑사의 목탑은 건축적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도 타다오 초청강연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씨가 지난 6월 15일 한국을 방문, 강연회를 갖고 그의 건축세계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세원예술조형학교가 주최한 이번 강연회에서 안도 타다오는 「가능성을 찾아서」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그가 지향하는 건축의 철학을 밝히면서 “나는 건축작업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공간개념이나 미학을 의식해 본 적은 없으나 일본인만큼 그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음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 자신의 건축이 일본문화를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해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프리츠카 건축상을 수상한 안도 타다오씨는 항상 화제를 낳는 작가로도 유명한데 그는 건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한 때 권투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90년대 들어 완성한 산토리박물관과 치카츠야가 박물관은 그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대표작들로 자연과 역사와의 대화를 건축으로 승화시킨 작품들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도시건축연구소, 국제 설계 현상공모 실시

미국의 도시건축연구소인 USA Institute는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라피다리움과 정원-줄리엣 묘지」를 주제로 한 박물관 및 공공 공간개발에 관한 국제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이 현상설계의 프로젝트는 옥외 비석·비명 등 박물관과 정원에 흩어져 있는 14~19세기 건축잔해들의 수용과 버려진 공공 공간을 살려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이다. 응모자격은 각국의 건축전문인과 건축과 학생이며 신청접수 마감

은 오는 7월 15일, 작품마감은 10월 10일이다. 참가비는 1백50달러로 등록 및 접수에 대한 한국측 문의는 전화 053-814-8443~4, 02-543-4977로 하면 된다.

「아시아 플로 '96」개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제품들이 한자리에 선보이게 될 「아시아 플로(ASIA FLOR '96) - 아시아 태평양 바닥재 전시회」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홍콩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세계적 바닥장식재 업체인 인터페이스사를 비롯해 각국 업체들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의 02-765-1181~4.

건설분야 정보화 기술세미나 열려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건설시장 개방과 정보화,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3회 건설분야 정보화 기술세미나 및 시연」행사가 지난 6월 26일과 27일 건설학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정보처리학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주최하고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정보처리기술사회 송재형 회장의 「건설분야 정보화 방향」에 관한 초청강연과 분야별 세미나 그리고 각종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UG서비스, CAD/CAM 응용 등에 대한 시연이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중에는 각종 건설관련 전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이용사례 등에 대한 전시회가 열려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제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건설기능인들이 건설현장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제4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6월 4일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대한건설협회 등 5개단체가 공동주최하고 건설교통부와 노동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서는 거푸집, 미장, 건축목공, 건축배판 건축타일 등 10개 직종 22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동 경기대회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능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자기진작을 제고해 우수 기능인력을 배출시킴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거푸집 직종에 참가한 서상수씨 등 총 30명이 입상해 지난 6월 20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96건설진흥축전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 전국대 건축대학원 개원



전임·객원교수와 비평가가 Tutorial System으로 각 스튜디오별로 전담강의를 맡아 실제 현장업무에 가까운 실무중심의 전일제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전국대 건축대학원(원장 주경재)이 지난 5월 15일 개원하였다. 전국대 건축대학원은 주경재, 이호진, 강병근, 안희영 교수를 운영위원으로 해 건축과 실내건축학부의 전임교수 13인과 윤승중(원도시건축), 김석철(아키반건축), 강해철(공간사랑, 티에스건축)씨 등이 객원교수로 강의를 맡는다. 교과는 2,3년과정으로 나누어 실제 프로젝트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각 학과의 설계수업을 진행한다. 또 설계와 연관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무엇보다 전공선택으로 주어진 이론강좌의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점이 전국대 건축대학원의 또하나의 특징이다.

■ 목조건축협회, 제2회 목조건축기술세미나 개최

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관하고 미국인산물협회가 후원하는 제2회 목조건축기술세미나가 오는 7월 19일 오후2시부터 충남대 농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미국인 강사가 참여해 복조건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벌일 이날 세미나에서는 목조건축학교 실습현장 견학이 있을 예정이며 제1회 목조건축학교 교재도 제공된다. 참가자격이나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참가문의는 한국목조건축 협회(547-9437)로 하면된다.

■ 건축가협회, 제8회 건축가 포럼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는 지난 6월 19일 오후 3시 홍사단 강당에서 제6회 건축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종교건축과 작가의지의 문제'란 주제를 가지고 김 원(광장건축 대표)씨가 성공회 대성당의 경우를 예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김상경(예전건축 대표)씨가 비평가로 참석하였다.

■ 인천시, 신청사 건립계획

인천시는 오는 2천년까지 1천 5백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현재의 청사 운동장 자리에 지하 7층, 지상 30층 규모(연면적 6만 3천7백평)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청사 및 시의회 청사 확충 등으로 부족해진 사무공간의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인천시의 새 청사 건립 계획에 의하면 1~10층까지는 시청 사무실로 사용하고 11층은 의원회관, 12~14층은 교육청 사무실 등이 들어서도록 계획되어 있다.

또 15~29층까지의 사무실은 임대용으로, 30층은 전망대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오는 11월까지 기본설계를 현상공모한 후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97년 7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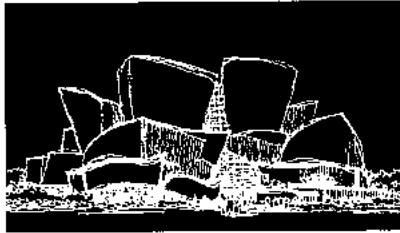
■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국제 컨퍼런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대학에서는「틈새(Interstices)」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컨퍼런스를 오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한다. 기조연설자인 마크 위글리, 베아트릭스 콜로미나, 제니퍼 블루 등의 작품전시회도 함께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액서서리와 건축'이다. 장식적인 측면에서 건축의 액서서리는 이론으로 성립되는지, 또는 단순히 건축사의 작업 측면에 국한되는 것인지에 대한 접근으로 건축이론의 운명은 무엇인가에까지 논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현대건축에 관심있는 건축사로서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의 오클랜드 홈페이지(<http://archpropplan.auckland.ac.nz/accessory>)를 열어보면 된다.

■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결정

문화체육부는 최근 정부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통일한민족시대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전무한 상태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의 구체적인 연구 착수를 위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제안서를 공모,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의 제안을 정책시안으로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한국건축가협회의 제안을 토대로 연구책임을 맡은 서상우(국민대 건축학과)교수를 중심으로한 연구진이 11월까지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각종 환경문제와 자연보전이 시대적 이슈로 등장한 오늘날에 생태적 원리와 개념탐구로 국민 자연교육의 산실이 될 국립자연사박물관 신축계획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또하나의 민족자존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2회 ARCASIA 학생건축상



— 존 첸 & 윌리엄 쿠퍼 롭 「그리드를 이용한 투시도」

3차원 디자인과 프리젠테이션 도면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한 책이 발간되었다. 도서출판 국제에서 발행된 「그리드를 이용한 투시도」는 디자인 초기단계에서 완전한 발상과 도구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양자간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컴퓨터로 만들어 낸 건축투시도 그리드'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3차원 디자인을 하는 또다른 방법으로 3차원 사고를 발전시키고 유도해 나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는 120여 가지의 각종 투시도 그리드와 300가지가 넘는 투시도 그리드가 AUTO CAD와 DXF 포맷으로 되어있는 DOS컴퓨터 디스크안에 담겨져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그리드를 만들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디자인 초기단계에서 3차원적으로 디자인이나 프리젠테이션을 가시화해야 하는 일에 종사하는 건축사나 실내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B5 / 150쪽 / 10,000원)

— 「건축행정처리 요령」

이 책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기준에 서부터 건축허가와 사용검사까지의 처리, 건축물대장 작성 및 기재요령, 건축공사장 관리, 건축공사 사고감리 및 품질시험, 위반건축물 및 건축사 행정조치, 건축허가 제한과 과밀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공동주택 사업승인 요령과 도시설계, 건축설비업무 처리요령 등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또 부록으로 건축공사 설계도서 사전검토 착안사항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실려있어 건축행정 실무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출판 세일(385-7544) 발행.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원국의 건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제2회 ARCASIA 학생건축상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도시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ARCASIA 학생건축상은 올해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함께 인도네시아건축사협회가 주관한다. 작품제출 마감일은 9월 16일까지이며 9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심사한 후 오는 9월 26일 수상작 3점을 발표한다. 수상작품은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기간중 전시회를 통해 각국에 소개되며 수상작 3점중 최고상 수상자에게는 해외여행 특전과 함께 신일본건축가협회로부터 ₩300,000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나머지 두 수상자에게는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가 기념품을 수여한다. 아카시아 학생건축상은 홍콩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통해 처음 제정된 이후 94년 마닐라 대회(제6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주관한 필리핀건축사협회에 의해 제1회 행사가 개최된 이래 ARCASIA 회원국 학생들간 건축에 대한 지식과 정보 공유에 크게 기여해 왔다. 작품주제 및 주제해석, 제출요령 등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기획부(581-5711~4)로 문의바람.

■ 작품주제 및 해석

- 테마: "Urban Pocket"

- 테마해석: "Urban Pocket"이란 도시 환경 중에서 간과되거나 소외된 장소를 뜻한다. 이러한 장소들은 대부분이 외도외는 무관하게 생겨난 곳들이다. 이러한 곳들은 도시지역 내에서도 아직 상업적인 개발이 취약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음침한 뒷골목, 건축 개발의 부작용, 부적합한 코너와 축적한 슬럼가 등 새로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표방하는 곳을 "Urban Pocket"이라고 한다.

"Urban Pocket"는 일종의 병으로써 지속적으로 도시문제를 야기시키는 곳으로 관련기관은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자연적인 환경상대라고 파악해 서는 안된다.

정책 결정자와 도시 계획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건축사들이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 과제: 조직위원회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서 그러한 가정 사항을 증명하도록 요청한다. 따라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관제된 지역 내의 "Urban Pocket" 발견
2. "Urban Pocket"을 통한 지역적 Context 반영
3. "Urban Pocket"에 대한 긍정적인 건축적인 접근 증명 (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설명은 쓰지 않아도 된다.)

■ 작품 제출 요령

- 작품: 참가자들은 A1(59.4cm×84.1cm) 크기의 종이 2장으로 참가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스케일과 표기방법 등을 포함한 참가 작품의 레이아웃은 참가자들의 자유 재량으로 하되 2-D 테크닉만 사용해야 한다. (사용언어는 영문표기이어야 함)

- 방법: 제출 종이는 반드시 접히지 않아야 한다. 참가자의 이름과 주소는 각 종이의 뒷면에 기록하도록 한다. 이름과 주소는 앞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심사위원

• 아카시아 회장: Haji Esa bin Haji Mohammed(PAM)

• 아카시아 학생건축상: Budi A. Sukada(IAL)

• Kisho Kurokawa(일본)

• Syed Zaigham S. Jaffay(IAP)

• 필리핀건축사협회 대표(UAP), 추후 결정

• Adhi Moersid(인도네시아)

■ 작품제출 주소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 ARCASIA 학생건축상 조직 위원회

The Jakarta Design Center Building, 6th floor

Gedung Jakarta Design Center, Lantai 6

Jl. Jenderal Gatot Subroto - Kaveling 53

Jakarta 10260

INDONESIA